제 5회 국어국문학과 주최
문예창작공모전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심사를 마치고

국어국문학과의 창작 동아리들이 모여 창작의 성과를 겨루는 문예창작공모전이 벌써 5회를 맞았습니다. 문예창작공모전은 문학을 읽고 창작하고 영화를 보고 비평하는 국문과 내 동아리들이 각자 풍성한 결과물을 빚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경연을 통해 잘 된 작품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창작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자리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투고되는 작품의 양은 많아지고, 투고하는 학생들의 범위도 넓어져서 명실공히 국어국문학과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문학이 세상의 창이라면, 우리는 그 창문의 앞에서 타인을 보고 세상을 보고 돌아와 자기 앞에 또 다시 서게 되겠죠.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연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글쓰기를 통해 자기와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키워나는 일이 아닐까요.

올해에는 세 동아리 소속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들 작품을 내었고, 특히 신입생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정성껏 적어나간 글 속에 아들 딸로, 친구로, 연인으로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나아가 한국 사회를 사는 청춘으로서 담아낸 고민들을 읽으며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모두 즐거웠습니다. 이 글들을 가치 평가하여 줄 세운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더 깊이 고민하고 고쳐 쓰는 노력을 주문하고, 안타깝게 이번에 수상권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믿음과 격려를 보냅니다.

심사위원 이기인, 김명준, 박슬기

2014학년도 제5회 문예창작공모전집

목차

*시

……3

*소설

……52

*비평

……149

*

詩

손

20141125 송 수 림

이른 아침 거실에선 할머니가
다 큰 손주를 위해 손수 김치를 담그고 계셨다

그리곤 얘야, 어디 맛 좀 보거라 하시며
나의 입에 한 움큼 연한 잎을 골라 넣어주셨다

시큼하고 달콤한 김치를 담은
당신의 주름진 손이 내 눈 앞에 다가왔다

요즘엔 입이 써서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구나
희미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보며
나는 입 안에 담긴 김치가 너무 달다고 생각했다

쓰고 거칠은 손에 담긴 김치가 달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그 순간

내 옆에 가지런히 놓인 손이 하나 보였다
젖살이 채 덜 빠진 얼굴로 방긋방긋 웃고 있었고
나는 순간 온 몸이 화끈거렸다

내 보드라운 손마디로는 전혀 낼 수 없는
당신의 무릎 저려 만드신 그 소박한 갈채 속에
내 손이 닳아야만 무엇이든 달아진다는 그 간단한 진리를
나는 왜 몰랐을까

다시금 고갤 돌려 바라본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으나 참으로 닮고 싶은 나의 얼굴이었다

시선

20141101 강 윤 아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알려고 노력했는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향해가는지

우주에서 지구는 티끌만큼 작은데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시선, 두렵기도하지만 나에게 가져주는 관심이라는 것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주는 시선을 가지지만
우리 자신에게만큼은 사랑담긴 시선으로 보아야한다

작은 아이야, 보아라
이 거친 세상에서도
더없이 맑은 시선으로 지친 너의 마음을 헤아려주렴

빛 스며드는 밤

20141101 강 윤 아

어느 누구는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어떤 누구는 괴로움에 잠 못 이루겠지요

그들의 밤에는 빛이 찾아들어 악몽을 꾸는 탓인가요

속깊이 아파하고 갈등하는 당신에게 새벽은 절망의 시간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
그틈 사이로 빛은 스며듭니다

밤새 많은 이들의 기도가 부디 전달되기를
다시 뜰 태양에는 아랑곳없이 깊이 잠들기를

오래도록

20141129 이 기 일

그대,
싱그럽던 그 시절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내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그대,
고운 손끝마저 빛나던 그 시절
그대의 시간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 마음에 꽃을 피우고

그대,
시려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시절
내 삶 위에 소복한 사랑을 얹어주었을 때
내 마음에 열매를 맺히우고

그대,
삶의 끝에서
나의 두 눈을 마주해주어
나와 함께 해주어
고맙소

너는 이미

20141129 이 기 일

너는 이미
저 깊은 바다로
나의 숨결이
닿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버렸는데

너의 향기는
내 가슴에 남아서
내 곁에 있는 듯
생생하기만 한데

저 바다
모두 마르면
네가 돌아올까

너를 만나러
바다로 뛰어들면
내 숨결
너에게 닿을까

너는 이미…

※주의: 19禁-욕설

42 → 4 : 38

20081137 전 아 름

살기 위해 굶어보아라.
딸랑거리는 배는 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거라.
마음은 곧 뇌요,
프로그래밍 돼버린 회로로 날 지배하고 있어요.

업을 받아들이거라.

쌓이고 싸인 업으로 삶은 개가 됐다
개같은 멍함으로
허공에 컹컹 4를 짖었다
42를 향한 외침야.
붕뜬 뇌를 멈추지 못하고
그저 각주구건(刻舟求Gun)
즉, 총을 찾는 중이올시다.
너에게 먼저 쏠 것이며
나에게 쓸 것이다.

삼마이 시팔새끼

※참조: 이 시는 영국의 가스 제닝스(Garth Jennings) 감독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원제: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를 관람 한 후 쓴 시로 영화 내에서 나오는 '42'와 '총'을 활용하였다. '42'는 슈퍼컴퓨터가 내놓은 삶과 우주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뜻한다. 이 영화에 나온 '총'은 상대방에게 총을 쐈을 때 쏜 사람의 기분을 알게 해주는 총을 뜻한다.

자식 있는 자들

20081137 전 아 름

너는 죄인이다
너는 노예이고 하인이다

청돌 같은 내 마음은
너에게 오돈 반짜리 왕관을 씌웠다

여왕이 된 너는 청돌을 갈고 닦아 보지만
청돌은 어릴쩍 네 아비가 화롯불에 호호불며 쥐어주던 그 돌이
될 순 없다

영원히 왕자인 나는
숲속 멎어버린 안개처럼
홀로 짝사랑하는 너를 볼 수 없고

너는 나에게 닿을 듯한 거리에서
한 개비 한 개비씩 불씨를 태워간다

왕관은 점차 녹아 흘러내리고
점차 환하고 화려해져
보는이로 하여금 어지러운 나는

굵은 소금을 뚝뚝 흘리며
굳어져가는 너를 매만지며 원망할 뿐

외계인

20081137 전 아 름

통역 없이 눈을 맞춰도
너는 이내 방긋 웃지

90°로 붙여놓은 거울 같은 우리관계
‘애착형성’이라는 지구어로 부르고 있누나
떠들어대는 바보상자라는 것에선 그렇다더라
우린 그저 서로를 탐색 중인데 말이지

왜 울고 있니.

나발 거리는 한삼에 비친 색동빛
아, 시간이 되었구나

도담이던 나비잠
이젠 날아 보거라 섬마섬마

흥건해져 말랑해진 것들
양껏 흔들며 짝짜꿍 짝짜꿍

지구인이 알던 탐구방식과 멀어져
잊었던 감각법에 향수를 따라가며
우주같은 너의 눈으로

가맣고 고운 곳으로 들어가련다.

수박

20141106 김 다 혜

뜨거운 어린날을 지낸 너는
둥그렇게 모여 앉은 식탁위에 오른 너는

뙤약볕 아래의
줄무늬 옷 껴입은 한 여름날의 수박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 없는 너는
생각만 해도 시원한 너는

뙤약볕 아래의
줄무늬 옷 껴입은 한 여름날의 수박

오두막 아래에서 나는
저 멀리 씨를 뱉어내는 나는

뙤약볕 아래의
줄무늬 옷 입은 한 여름날의 소녀

너의 지난날 생긴 기미 주근깨를
나의 여름날 생긴 더위와 함께
투욱…….
툭!

그 모든 것을

20141106 김 다 혜

놓쳐버렸다.
나무 움직임 소리에 맞춰 청아하게 귀를 사로잡던 산새소리를

이미 놓쳐버렸다.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던 나무 잎사귀들의 인사를

이미 오래전에 놓쳐버렸다.
숨막히도록 아름답게 떨어지던 벚꽃 잎들의 흩날림을

이미 오래전에 나는 놓쳐버렸다.
나의 마음을 감싸주었던 달콤한 바람의 손길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놓쳐버렸다.
창문 넘어 소리 없이 두드리던 자연의 그 신비로운 향연을

그래, 이미 오래전에 나는, 우리는 놓쳐버렸다. 그 모든 것을

합당한 이유

20141106 김 다 혜

짙은 초록색, 청색, 푸른잎색, 연두색 그리고 흰색.
수채화 그림 같은 저 멀리 산들의 이야기.
자연을 사랑하는 화가가
저 멀리에 있는 산은 물감에 물을 많이 타서 그린 듯
멀어질수록 하늘의 색을 닮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때 내 눈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다.

고요한 마을에 아기자기한 다리하나.
사랑스런 연두색으로 가득한 그런 조그마한 마을 이야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을주민이
경운기 한 대에 풀을 가득 싣고 시내로 떠나는
연두색 향연에 빠져 풀빛을 닮아버린 다리를 건너는 그런 이야기.

그때 내 가슴이 점점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컴컴한 골목, 가로등 다섯 개.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은 가로등 이야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칠 줄 모르는 비로 지쳐 하늘의 별을 닮아버린 가로등을
말없이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

그때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허나,

경적소리 가득한 고속도로를 달라는 차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못난 사람 이야기.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함께 하고 있는 귀중한 시간에도
슬픔을 먼저 느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합당한 이유다. 눈물을 흘려야 할.....

멸치

20141134 정 예 인

5살
처음에
멸치는
어머니의 잔소리였다

10살
그때도
멸치는
어머니의 잔소리였다

15살
여전히
멸치는
어머니의 잔소리였다

20살
마침내
멸치는
어머니의 사랑이 되었다

틈

20141114 김 지 수

어슴푸레한 새벽녘
방 틈새로 스민
분주한 빛 한줄기

아침 준비에 바쁜
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면

오늘도 어김없이
다시 잘까 일어날까
망설이는 내게

작은 틈사이로 보이는 빛은
당신의 사랑처럼
자애롭고 따뜻하게 날아와

더 자라.
우리 딸 5분이라도 달게 자렴.

그제서야
못난 딸은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한다

틈사이 빛은
그 따스함은
아무도 몰랐을 테지

거울 앞에서

20141114 김 지 수

차박차박
비가 내린다
노을 진 저녁에 걸린 달 한 조각

거울 앞에 선다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는 단정하게

아껴뒀던
고운 신을 신고
길을 떠난다

흐르는 음악 위를 걷는
소녀의 발걸음만
사박사박

의미를 찾으려
거리를 떠도는 그녀의 모습이
못내 애처로워

위로하려 손을 뻗어보지만
닿지 못하고 그대로 땅으로
저 먼 곳으로
추락한다

이내 축축해지더니
기꺼이 털썩,
사라진다
죽어진다

위로

20141114 김 지 수

중학교 시절
시험을 망치고 울상이던 내게
‘너무 낙심하지마’
‘담엔 더 잘볼거야’
와 같은 말들은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다

우습게도
나보다 점수가 낮은 시험지를 가지고도
팔랑팔랑 아무 생각 없어보이던 한 친구,
그 친구를 보니 위로가 되었다

그때의 나에게
위로는 상대적인
위로는 가벼운
위로는 이기적인
위로는 말 뿐인 위선이었을지 모른다

삐딱하던 여자아이는 어느새 자라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웬만한 일에는 하하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런 나에게
시간과 세월이 알려준 것은

위로는 그 마음은 절대적인
위로는 작을지라도 꼭 한 번의 진동을 주는
위로는 비 오는 날의 노란 우산 같은
위로는 누군가의 진심을 담은 편지라는 것

그래서 위로는 참 어렵지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

누군가의 하루

20141115 김 태 영

오늘의 해가 뜬다.

쌀쌀함을 이겨내고 해가 뜬다.
그 부글대는 열정 때문에
따스함이 따가움으로 되돌아오더라.

따가움이 모여 새카만 구름 되고
따가움이 내려 고이더라.

구름이 가리든지
비가 와 가리든지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다.

쌀쌀하고 춥던 밤과 새벽이란 놈조차 그 자리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버린다.

내일도 오늘의 해가 뜨고 있다.

고민

20141115 김 태 영

오늘도 너 혼자
애쓰고 있다.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단칼에 베지 못한다.

때늦은 후회의 파도에 휩쓸려
도착한 곳은
슬픈 무인도

이곳에서 너는
의미 없는 다짐을 외친다.
어딘지도 모른 채.

친구

20141115 김 태 영

항상 너무 가까이 있기에
당연하다
너는 내 친구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란 걸
정말 몰랐다.

어린 철부지애들처럼 놀기도 하고
제법 의젓한 아빠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 마냥 좋기만 하다.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총알처럼 지나가 버렸다.

시간이 지나도
내 옆에 있는 선물이 바로
베스트 마이 프렌드.

내가, 너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20141119 박 선 욱

내가 너 자는 곳에 꽃 한 송이 놔두면
너는 꽃씨를 들판에 흘리고

내가 너의 흔적 속에 기도 한 번 드리면
너는 성령으로 나를 스치고

내가 너 듣는 곳에 글 하나를 남기면
너는 기억 하나 내 몸에 새기고

내가 너 떠난 자리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너는 소나기로 아니, 장맛비로 내 손을 적시고

내가…
너는……

끝에서의 깨달음 하나

20141119 박 선 욱

만남에서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억지로
웃고 있는
입가

그만
흔들어라
팔 아프겠다

끝까지
흔드는
저 손

한쪽 눈에서
기억
다른 한쪽 눈에서
추억

느리게 흐르는데도
헤어짐에 천천히란 없었다

준비할 수 있는 헤어짐이란 없었다

희망 가득한 시 하나

20141119 박 선 욱

눈물로 젖은 베개에서
잠이 들었다
남들은 상상도 못할
악몽을 꾸었다

어쩌면 나는 저 위에서
하늘 공장에서
실수로 만든 불량품
이 아닐까

반품해야겠다
불량품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겠다

눈물에 빠진 베개에서
잠이 들었다
결심을 했는데도
악몽을 꾸었다

누군가 나를 부른다
흔들어 깨운다
익숙한 빛이다 따뜻한 빛이다

온기 가득한 포옹
그리고는
희망 가득한 시 하나 읊조린다

어쩌면 나는 저 위에서
하늘 공장에서
공들여 만든 희귀종
이었구나

당신에게

20141124 서 채 린

하오, 하오, 사랑하오.
이 부질없는 사랑일지어도 그대 마음에 꽃바람이라도 일렁일랑
나 그대의 품속으로 회귀하고 싶소.
나 있는 곳 그대 없고, 그대 있는 곳 나 없을지언정
당신을 향한 내 부질없는 동아줄을 생명 줄인 양 붙잡고 있겠소.

하오, 하오. 미안하오.
나의 고달피 우는 사람아. 곱디 고운 사람아.
인연에 치이고 치여 물 먹은 솜뭉치처럼 함뿍 절어있는 당신에게
내 마음까지 짊어지게 하여 미안하오.
내 마음 이고 가는 사람아, 부디 잘 도착하시게.
그 도착지가 비록 나에게 오는 길이 아닐지언정, 그대가 이고 가는 나의 마음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이고 파.

하오, 하오. 애달프오.
나의 마음 당신을 향한 모종의 깊은 감정 가슴 속 뿌리내려 어찌 숨길 수 있으랴.
잔뜩 뽐내고 싶은 맘에 씨앗을 뿌리고 고운 흙으로 다복하게 쌓아올려 다독였다네.
나의 마음에 꽃이 피지 않아, 혹 무화과인가 병이 든 것인가.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부족한 것인가, 그대를 향한 나의 관심 부족한 것인가.
물도 주고, 햇빛도 잔뜩 쬐어주었건만 그대의 봉오리는 움틀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꽃은 어느새 고개를 숙여 하나 둘, 낙엽이 되어 빛을 떨구어
어느새 헐벗은 앙상한 가지가 되었구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나는 몰랐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이 과유불급이었음 나는 몰랐네.

청춘

20141124 서 채 린

땅거미가 내려앉은 컴컴한 어둠이
판도라 상자마냥 꽉 닫힌 방문 아래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왔다
방 한 편에 구겨 넣은 나의 청춘이
나붓이 나의 옆자리에 내려앉아
넌 아직 어리다며 나의 작고 여린 등을 가만히 껴안아 다독일 때 즈음
가만히 가만히 말간 흰 눈물이 동자를 훑고 둥근 언덕을 쪼르르 훑어 내리니
나의 청춘은 타박하며 나를 나무랐다

악지 부리지마라, 나의 주인아
스물, 너의 청춘은 아직 젊기만 할 것이야
부모님의 얼굴에 깊게 새기어진 주름과 맞바꾼 너의 청춘은 아직도 팽팽하기만 하다
부모님의 뜨거운 피와 땀과 맞바꾼 너의 청춘은 달콤하기만 하다
그러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상자 밖으로 나가거라
바닥에 풀어헤친 신발끈을 채 묶지도 못하고 이대로 스러지기엔 너는 한참이나 젊다
너는 부모님의 희망이자 기둥이다

가라앉은 희망

20141124 서 채 린

대한민국의 희망이 바다로, 심해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차가운 물속에 너희는 내동댕이쳐졌고
깊은 바다 속 물고기들은 야금야금 너희의 몸과 청춘을 갉아먹었다
대한민국은 울부짖었다
고귀한 청춘들 하나 지키지 못한 우리들은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다
하늘에 몸을 묻은 어른들 역시 너희들의 어깨를 때리며 울부짖었다
이곳은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땅 위여야만 한다고

녹음이 푸르던 지난 날
우리는 너희를 잊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창창한 미래를 잃는 것이다

집을 가다가

20141135 정 예 찬

된장집 강아지 두 마리가
엉덩이를 맞대고 부비고 있다.
내가 휙 지나가니
어린것들이 창피한건 아는지
멀찍이 떨어져서는
내가 가기만
없는 목 돌려가며 보고 있다.
-쪼꼬만 것들이 벌써!-

불꽃놀이

20141135 정 예 찬

소나기가 내린 후 걱정되는 불꽃놀이
내가 가진 건 소낙비에 젖어버린 불량품이었다.

친구들의 빛나는 불꽃놀이
밝은 그들의 막대는
말갛게 타들어가고
불빛이 지나간 뒤에는
새까만 만족감이 남았다.

나는 무얼 들고 있는지
불에 다가가도 그을릴 뿐이다.

발만 맞추어가는 게으름으로 타지 않는 막대는
겉모습만 따라가는 거짓을 빛내려했다.

가족

20141135 정 예 찬

강 건너는 버스에
수녀님과 열 아이들 올라가니
노인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
버스가 힘겨운 손주 손녀 불러 앉혔다.

수녀님만 혼자 서 가는데 맨 앞자리 녀석
-이 자리 너무 더워- 하며
수녀님을 앉힌다.

축복의 빛이 내리쬐는 버스도
하늘 위 구름언덕도
어머니 얼굴도

하냥
붉던 날

시

20141138 한 가 희

시야 울려라.
시야 울려라.

떠도는 바람 한 점에
떠오른 추억을 담고
눈시울, 뜨거운 용광로에서 태어난 시야.

머나먼 기억에서 날아온
활자들을 들여 만든 당목이
너와 닿는 다면.
그런다면 울려퍼질 너의 소리가
나는 궁금하구나.

시야 울려라.
시야 울려라.
나를 담은 시야 울려라.

목소리론 낼 수 없었던 소리를
너는 내어주어라.

그리하여 고요한 밤
맑은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주어라.

연고

20141138 한 가 희

가방 속에 들어있던 마데카솔 옆구리가
터져 흘러나왔다
어디가 아프길래…….
집에 가서 반창고로 붙여줘야겠다.

장난감

20141138 한 가 희

아가, 너는 웃음이 예쁘단다.
아가, 네가 서툴게 읊조리는 단어 하나하나
너의 흥얼거림 하나하나 모두 예쁘단다.

아가, 작은 몸짓 하나 작은 표정하나
네 모든 것이 예쁘단다.

아가, 난 그저 네 어린 시절
한낱 장난감일 뿐이지만
기억해주면 좋겠단다.

아가, 내게도 넌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달리는 경춘선

20141133 정 서 우

달린다
달리고 있다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여행에 한껏 들뜬 아이들
풍경을 바라보는 연인들

덜컹덜컹 흔들리는 경춘선
경춘선아! 너는 지금 어딜 가고 있니

다들 즐거운 표정인데
내 표정은 어두운 경춘선 터널 안
학교 가는 길은 깊은 터널과도 같다

달린다
달리고 있다
한림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

푸른 하늘

20141133 정 서 우

날개 달린 새처럼 푸른 상공을 날고 싶다
높고 높은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의 청명함

저 하늘의 새와 같이 가을 하늘에 원을 그리며
고추잠자리와 더불어 놀고 마음껏 날고 싶은데...

애석하다. 나에게는 날개가 없다
아니, 날개를 잡아야한다
기필코 잡을 것이다

그래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누비리라

내 마음 속 당신

20141111 김 예 림

가만히 내 이름을 불러주던
다정했던 당신의 목소리
어린 손녀가 귀엽다는 듯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날 바라보던 당신의 눈빛

이제는 작은 틀 안에 갇힌 두 눈만이
나와 마주하고 있지만
나는 알 수 있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당신이 날 지켜주고 있음을.

오래된 사진 속
늘 내 옆에 자리하고 있는 든든한 당신
내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머리띠를 해주던 자상한 당신

하루하루 멀어질수록
함께한 추억의 크기도 작아질까 두렵지만
나는 느낄 수 있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 속에서 당신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나무

20141110 김 수 현

높게 드높게 뻗어 올린
저 노력의 결실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올려다 본 하늘이
아득하리만치 높게만 느껴져
아찔거리는 광명에 눈을 감았다

내 안의 푸르름에
고개를 젓던 그 순간

회색으로 가득 차버린
숨 막히는 내안의 숲

숨기고, 숨기고, 숨겨버리고

그렇게 무뎌진 푸르름이
시들어갈 무렵,
곤두박질 친 메아리에 발끝이 아려왔다

감았던 눈을 뜬다

따스한 햇빛이 사르르
녹아들었다

나의 귀한 이에게

20141121 박 현 경

항상 널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때론 보고 싶어져

아쉬움 때문일 거야

잘해 주지 못하고
마음 한 구석에는
널 자랑스럽게 느껴지거든

언제나 사랑한다

경춘선

20141121 박 현 경

이대로 계속 가 버릴거니?
잠시 기다려 줄 순 없니?

애타게 불러봐도
모르는 척 지나간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 번 불러본다

그대로 계속 가 버릴거니?
잠시 기다려 줄 순 없니?

갈대

20141128 유 수 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람에 맞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대들은 생기 없이 흔들린다

그 누가 갈대를
생명력의 상징이라 했는가
갈대는 죽음의 상징이다

역겹다 바람에 맞춰
그저 흔들리기만 하는
생각 없는 갈대들이

하지만 가엾다
갈대에 휩쓸려 흔들리는
힘 없는 갈대들이

마법의 밤

20111116 김 홍 인

어떤 날의 밤에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신비로울 때가 있다
하늘에 오로라가 걸리거나
만월에 붉은 빛이 감돌지 않아도
흐린 구름이 손으로 헤쳐질것만 같은 밤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
항상 뒷모습뿐인 미인
그 어떤 것도 닿지 못하고
하얀 세상에
들리지 않는 웃음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달도 깊지 않은데 까만 어둠 속이 환하고
저 멀리 사라진 웃음이 달빛처럼 걸어올 것만 같다

그러나 잔잔한 바람이 눈가를 스치고
우두커니 서 있는 외로운 등 하나 만나면
마법은 등불에 밝아온 새벽처럼 깨져 버리고
떨어진 꽃잎이 밤에 삼켜져
작게 떠는 것만 같은 들꽃 한 송이

등불 아래 막 잠에서 깨어 멍하니 있는 이를
별을 보는 마음으로 올려다보는 꽃 한 송이가 있다

그러면 작은 꽃송이 앞에 웅크리듯 앉아
떨어진 꽃잎과 모래를 움켜쥐고
하나씩, 손가락을 피며
모두 흩어내고
이유를 몰라 마른 울음처럼 꽃송이를 툭-툭- 건드려본다

아침에 물든 뚝섬

20111116 김 홍 인

전철을 타고 지나가다
발간 향에 취하고만
아침에 우러난 한강

그 위에 발을 디디면
잠깐은 머무른 채
서서히
가라앉을 것 같지만

오리들은 장식처럼 구석에 박혀있고
구겨지는 물결에도 변치 않은 채
졸음기에 언뜻 드러난 실루엣
사람과 수풀이 물결에 부서지고 남은 작은 땅
손을 뻗으면 창을 넘어 그 보석에 닿을 것만 같은데

잠을 깬 해는 아직 한강에 띄워져 있고
퍼덕거리는 오리들
돌아오는 친구를 맞아
한 무리의 유성처럼
다시 잠들려는 하늘을 스쳐갔고

별을 새기던 어린 꿈처럼
다시 돋은 마음
놀러가자, 강을 걸어 지난 섬으로

조의에 묻는 안부

20111116 김 홍 인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송사리의 꼬리를 잘라 먹었어요
시골 실개천의 흐름은 제 이빨로 끊고
별을 보던 망원경은 밤중에 렌즈와 함께 잃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식욕이 꿈을 삼켰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만 항상 허기에 깨어나곤 합니다
흐른 침으로 불어 튼 제 몸을 핥고
벌려진 손톱을 또다시 물어뜯습니다
제 자신을 살라먹지만 무엇을 삼킨 지도 모르고 다시 잠듭니다

부지깽이로 제 발을 내리찍으며
고통 받지 않던 삶을 잊어
피곤을 잃고
하루를 잇던
비렁뱅이는 무덤가의 흙을 파먹으며 구걸을 하고

나태함에 취한 육신은
고운 살결을 한껏 살찌우지만
탐스러운 살결을 뜯어 먹고 나태함에 곯아버립니다

어떡하죠, 걷는 법도 잃었습니다.
기다 지쳐 잠들면 기는 법도 잊을 것 같습니다.
증오합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가 될 수 없었고
어머니를 강/간하는 날
난 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렇게, 잠드는 법과 함께 잠들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

별의 일기

20131112 김 한 별

초승날

너는 내가 아파서 돌봐주어야 한다 했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채, 너는 하루도 쉬지 않고 내 주변을 맴돈다
네 고운 웃음은 나의 지독한 부정까지도 웃게 한다.

반날
너는 반쪽짜리 얼굴을 하고 있다.
네 얼굴에 어린 그늘
얼굴의 흉터가 부끄러워 숨었나
나는 너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싶다.

보름날

네가 완전해지는 날, 나는 눈부신 너를 바라본다
고요하게 출렁이는 검푸른 슬픔
그 위에 부서지는 네 노오란 따스함.
너는 검은 슬픔조차 보석으로 만든다.
나는 너로 인해 빛난다.

그믐날

나는 너의 날카로움조차 찾을 수 없다.
퍼런 눈물을 쏟아내며 너를 끌어당겨 보지만, 덧없이 어둠 속으로 흘러가버린 그대
그대는 멋대로 나를 비추고 어디로 사라지는가

너 없이는, 나는 혼자 울 수조차 없다.

독눈물

20131112 김 한 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길래
너의 눈물에서는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가
지금 이 독이 날 죽일지라도
나는 네 눈물을 핥아 너의 슬픔을 닦아주고 싶다

꿈결

20131112 김 한 별

문득 잠든 너의 이마를 어루만진다
꽃 향이 나는 네 꿈들을 한 장씩 넘기다 보면
축축이 젖은 꿈이 있다
잠결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
네 꿈에서 나는 향기는
네 눈물을 머금고 피어난 꽃들인가 보다
마른 내 손마저 적시는 너의 꿈
너의 꿈에는 찬란한 물결이 새겨져 있다

편지: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

20141123 서 예 림

처음 너를 봤을 때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

함께 보내던 나날들 속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알게 되었어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만약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는
기분 나쁜 생각을 하고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어

처음으로 내게 눈물을 보인 날을 기억해
항상 내가 울다 지칠 때면
어른스럽게 토닥여주던 손이
떨면서 너의 얼굴을 가린 순간
그처럼 작은 손이었는지 알았어

나의 아픔 때문에
정작 너의 아픔은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수없이 나를 자책했어

이제는 내가 더 들어줄게
내 아픔, 내 고민 조금씩 감추고
너의 생각으로 채워나갈게
항상 네가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은 어른스러워 지도록 노력할게
나에게서 네가 쉴 수 있게

너를 마주한 순간부터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
나는 아주 행복하다는
그 말이 하고 싶었어

힘든 날

20141123 서 예 림

마음이 아팠다
한순간에 버림받아
비참함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쉬어갈 수도 없었다
반복되던 일상은 이런 나를 모른 채
흘러가고만 있었다

눈을 뜨면 마주하는 현실에
생각에 빠지면 잠식하는 괴로움에
온종일 잠을 자려 노력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도
억지로 끌어당겨 덮었다

뜨거워지는 눈가, 쿵쿵대는 심장
목에서부터 무언가가 일렁거려
먹을 수도 없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

'와장창!'
내안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다시는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꿈

20141123 서 예 림

네가 떠나던 그날
처음으로 너는 내 꿈에 나타나
마치 떠날 것처럼 굴었지

그 이후로도 반복되던 꿈들
그리고 항상 하던말
‘미안해’

어린나이에 처음으로 겪었던
영원한 이별
얼마나 외로웠을지
감당조차 안 되는데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내가 못해준 탓인 것만 같아서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당신을 붙잡아 둔건 아닌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맘 편히 떠났는지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잘 지내는지
안부라도 전해주세요
이제는 울지 않을 테니

*小說

붉은 지옥

20141109 김 상 연

붉은 빛이 밤하늘을 물들였다. 빛의 정체는 불타고 있는 준수의 집이었다. 주위에는 구경거리가 난 듯 사람들에게 둘러 쌓여있었다. 그중에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의 어머니였다. 조그마한 단독 주택의 대문으로 뛰어들려하는 그녀를 이웃 사람들이 막고 있었다. 그 원인은 바로 준수였다. 그가 잠에서 깨어난 후엔 이미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때였다. 준수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콜록거리며 재채기했다. 온 몸이 불을 감은 듯 뜨겁고 눈과 목이 연기 때문에 따가웠다. 열 살조차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저 두려워하며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구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잠시 후, 밖에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마침내 도착한 소방관 중 한 명이 준수의 집으로 뛰어 들었다. 연기가 자욱한 집 안을, 불꽃 속을 가로 질러 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얘야! 괜찮니?”

문 건너편에서 소방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풍전등화의 불꽃과도 같이 희미하게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위급하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이 문과 멀다는 것을 알아챈 소방관은 주저 않고 문을 부수었다. 곧이어 쓰러진 아이를 안고서 밖으로 향했다. 집 안을 들어갔던 소방관이 밖을 나오자 이를 확인한 다른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확인하고 소방관에게 연거푸 감사하다는 말을 되뇌었다. 아이의 몸에는 여기저기 화상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숨은 붙어 있었다.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소방관들에 의해 그들의 집에 불은 꺼졌지만 집은 만신창이에다가 그을음 투성이였다.

꼬박 하루가 지난 뒤, 준수는 깨어났다. 그러나 준수는 자신의 몸에 있는 화상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울며 소리를 질렀다. 진정제를 맞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가 되었다. 집에 그을음이 생긴 듯, 그에게도 그을음이 생겼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던 중 병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의 한 남자가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 준수를 구해준 바로 그 소방관이다. 그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준수의 어머니는 그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다리에 대해 물었다. 소방관은 방의 문을 부술 때 다리를 다쳤다고 하였다.

“아이와 어머님께서 이송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저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요. 하하하.”

호탕한 웃음과 함께 그가 말했다. 얼마 후 진정제를 맞았던 준수가 깨어났다. 어머니는 준수에게 소방관에게 감사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아이는 멀뚱멀뚱하더니 공손히 감사인사를 하였다. 이 때부터였다. 준수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얌전히 치료도 받기 시작하였다. 소방관은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들고 가끔 아이의 병실을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수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는 준수가 심심할 때마다 소방관의 병실을 찾았다. 그때마다 소방관은 호탕한 웃음과 함께 준수와 놀아 주었다.

어느 하루는 준수가 소방관의 병실에서 그의 가족들을 보았다. 그곳엔 자신과 비슷한 나

이의 또래로 보이는 남자 아이도 있었다. 소방관은 준수가 병실에 들어온 것을 알고 또래의 남자 아이를 소개시켰다.

“인사하렴, 아저씨 아들이란다. 이름은 현준이야. 아저씨 닮아서 씩씩하게 잘 생겼지? 사이좋게 지내야한다. 하하하.”

여느 때처럼 호탕한 웃음과 함께 소방관은 말했다.

“안녕? 난 현준이야 넌 이름이 뭐야?”

현준은 아버지처럼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준수도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였다. 둘은 금방 친해졌다. 때때로 둘이서 놀기도 하고 소방관과 함께 셋이 놀기도 하였다. 두 아이는 금세 병원을 누비고 다니는 악동들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렇게 세 달이 지나고 준수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후유증과 정신적 상태 점검 등으로 꽤나 고생했지만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진 않을 거란 의사의 말에 퇴원하게 되었다. 덕분에 새 집이 완전히 단장되어 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새 집은 소방관의 집과 같은 동네였다. 준수는 퇴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소방관을 찾아갔다. 그에게 이 퇴원과 새 집, 이 두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준수는 그의 병실로 찾아갔다. 마침 현준도 그곳에 있었다.

“아저씨! 저 오늘 퇴원해요! 아저씨 지팡이가 없어져서 먼저 퇴원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제가 이겼죠? 히히.”

그는 이번에도 웃으며 축하한다고 하였다. 그런 후에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가지고 현준과 둘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동네에서 지낸다는 것, 자주 놀러가겠다는 둥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있냐는 둥 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그 날, 준수는 퇴원하였다.

새 집에 이어 준수는 자신이 새로 다닐 학교를 향했다. 현준과 같은 학교라는 생각에 들뜬 채로 등교하였다. 때는 봄이었고 둘은 같은 반에 배정되었다. 화천초등학교 2학년 4반, 준수의 나이 열, 현준이의 나이 아홉이었다. 둘은 매일을 붙어 다녔다. 등하교는 물론 화장실을 갈 때에도 급식을 받을 때에도 항상 함께였다. 둘이 같이 누비고 다니는 학교는 마치 병원과도 같았다. 단지 소방관이 없을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은 졸업을 앞둔 6학년이 되었다. 매일을 붙어 다니던 현준이가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다. 방과 후가 되어서야 선생님을 통해 현준이의 소식을 알 수 있었다.

“현준이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 장에 있다나 봐. 준수 너는 현준이랑 아주 친하니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선생님도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현준이의 느낌을 안단다. 너도 현준이에게 꼭 가보렴.”

덜컹 가슴이 내려앉았다. 준수는 지금 이 순간 현준이보다 소방관 아저씨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다. 어릴 적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자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준수는 머릿속이 공허하고 사고능력을 잃은 듯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걷는 다리엔 힘이 들어가질 않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은 벽돌로 가득 찬 듯 무겁게만 느껴졌다.

한참에서야 집에 도착하여 어머니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갔다. 그 곳엔 넋이 나간 듯이 울다 지친 얼굴의 현준과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소방관이 죽은 이유는 심장병이라고 했다. 그가 4년 전에 심장병 때문에 퇴원하지 못했다가 호전되어 퇴원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발발한 심장병이 그를 불 속으로 데려갔다. 준수는 온 몸이 뜨거워졌다. 화상 때문인지 울음이 북받쳐서 그런 건지. 이 순간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준수만이 아니었다. 현준은 마치 자신의 집이 모두 타버려 잿더미가 된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소멸, 허무함만이 그를 달랬다.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현준은 다시 학교에 나왔다. 평소 환한 모습의 현준과 같았지만 무언가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여전히 준수와 현준은 붙어 다녔지만 둘이 가진 밝고 활기참은 소방관의 호탕한 웃음과 함께 재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허무함을 안고 졸업하였다.

중학교는 서로 다른 곳에 배정되었다. 자연스레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전처럼 매일 같이 있을 수는 없었다. 준수는 친구들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자신을 숨기며 또래 애들과 그런대로 잘 섞여 지냈다. 처음엔 그의 화상 흉터에 다들 놀라곤 했지만 재치 있는 말주변과 붙임성으로 친구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반면에 현준은 그렇지 못했다.

현준이의 어머니는 점점 힘들어하는 현준과 집안 사정을 위해 재혼을 선택했다. 현준이도 이에 못마땅하지 않았다. 현준은 새아버지와 그런대로 잘 지냈고 학교생활도 원만하게 흘러갔다. 어머님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현준이의 새아버지는 괜찮은 사업가였다. 수완가여서 꽤나 사업을 잘 이뤄갔고 돈도 많이 벌었다. 사기꾼을 만나 그는 순식간에 사업을 날려버리기 전까지는. 빚을 떠안지는 않았지만, 자본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 나이에 어딘가에 취직할 수 도 없고 설령 한다 해도 자신이 해온 것은 사업 밖에 없으니 안 되겠다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날이 현준이의 집엔 술병이 늘어갔고, 마침내 현준이의 어머니에게 손을 대기까지 하였다. 처음에 현준이의 어머니는 현준에게 이 일을 숨겼다. 그러다가 날이 갈수록 폭행은 심해지고 끝끝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게 되었다. 현준은 이에 분노하여 새아버지와 싸웠다.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다녔다. 자연스레 친구들과 멀어지고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에 가까워졌다. 오로지 준수와 있을 때만 이성의 끈을 놓지 않은 듯 했다.

그들은 다른 중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렇게 둘은 다시 가까워졌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현준은 준수가 알던 현준과 많이 달랐다. 여기저기서 싸움을 하며 다녔고, 술에 취해 준수를 불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준수에게 현준은 여전히 좋은 친구였다. 현준과 어울리는 친구들이 준수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준수에겐 불에 대한 트라 우마가 남아 있었다. 작은 불씨조차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다. 현준이가 이런 준수를 배려하는 것이었다. 둘은 아직까지 친한 친구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현준이의 몸에 하나 둘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다. 준수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준수는 현준이가 새아버지에게 맞았다는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루하루 현준이의 상처는 늘어갔다. 그에 따라 현준이가 하는 행동도 점점 좋지 않게 변해 갔다.

“뭘 봐 이 자식아. 하던 거 해.”

괜히 시비를 걸고 물건을 뺏고 때리는 등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현준이가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태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현준이가 괴롭힌 친구는 바로 이 태성이의 친한 친구였다.

“뭐하는 짓이야. 너. 요즘 내가 벼르고 있다.”

태성이가 현준에게 말했다.

“뭐야 넌 나보다 저 찌질이 자식이냐?”

현준이의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이 태성이가 한 숨을 내쉬고 주먹을 움켜 쥔다.

“그만해 현준아 너 여기서 한 번만 더 싸우면 정학이야.”

준수가 말렸기에 사건은 우선 일단락 된 듯이 보였다.

“이 준수. 넌 저리 비켜. 김 현준. 수업 끝나고 보자.”

또 한 번 싸움이 일어날 듯 했다.

‘딩동 댕 동’

종소리가 흘러 각자 자기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폭풍 전야의 수업이 지나갔다. 수업이 끝난 후 태성과 현준, 둘이 만났다. 친구로서 지내던 둘이 싸우려고 마주하고 있었다. 준수의 생각대로라면 현준이가 괜한 시비를 태성이의 친구에게 걸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경솔한 짓을 현준이가 했다고 믿었다. 뒤늦게 준수가 이들을 찾아 간 후에는 이미 끝이 난 후였다. 쓰러져 있는 것은 태성이었고 현준은 준수의 눈앞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너 내 앞에서 담배 안 피잖아.”

“너도 이제 작은 불씨에는 익숙하잖아?”

태성이는 망설이지 않고 준수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준수에게 그 불은 과거의 지옥을 되새겨 주었다. 라이터는 마치 불완전연소의 불꽃의 색처럼 다홍색과 주황색에 가까운 색깔이었다. 라이터를 켰을 때의 그 파란 불과 주황 불은 준수의 온 몸을 달아오르게 하였다. 오래된 화상의 흔적에서 과거의 아픔이 다시 일어났다. 담배에 붙은 붉은 불은 그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였다. 목이 따가웠다. 담배 연기 때문인지, 불타버린 그의 집에서 난 연기 때문인지 알 순 없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준수는 눈을 감았다. 돌아서서 눈을 떴다. 그는 조금씩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을 진정시켰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붉은 지옥은 그에게 잊히지 않았다.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준수의 질문에 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네가 많이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 영향으로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 무엇보다 내가 알던 네가 아냐.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필 줄 몰랐다. 솔직히 굉장히 실망했어.”

“할 말 끝났냐?”

차갑게 한 마디 던지며 현준이 혼자 저편으로 걸어갔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현준이의 몸에 상처와 연관되어 있을까? 아니면 붉은 지옥과도 같은 담배가 그를 차갑게 만든 것은 아닐까?’

준수는 생각했다. 변해버린 현준이 때문인지 ‘불’ 때문인지 그는 온 몸이 떨리고 자꾸 식은땀이 났다. 꿈이 아닐까도 싶었다. 현준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순 없을까. 밝고 씩씩한 그 소방관의 아들로.

다음 날 방과 후, 태성은 현준이의 뒤를 밟았다. 현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준수의 집 앞을 서성거렸다. 새아버지가 있는 집에 가기 싫은 마음과 어제의 미안함 때문에 그곳에서 한참을 맴돌았다. 그런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찾았다. 오던 길에 떨어트렸는지 라이터는 보이지 않았다. 현준은 라이터를 사기 위해 근처의 작은 슈퍼로 향했다. 이 순간 그의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태성이었다. 그의 뒤를 밟다 그가 벤치에 두고 간 라이터를 챙긴 것이었다. 태성은 미리 가지고 온 라이터를 몇 개 던져서 부쉈다. 그 곳에 또 하나의 라이터를 던졌다. 태성이가 놓고 갔던 붉은 빛의 라이터였다. 그곳에 불이 붙었다. 이 불은 순식간에 이곳저곳에 옮겨 붙었다. 불이 붙은 집은 다름 아닌 준수의 집이었다.

라이터를 사고 담배를 피우며 돌아온 현준이가 불길을 보고 준수의 집으로 뛰어 들었다. 현준은 먼저 화장실로 가 몸에 물을 뿌렸다. 그리고선 준수를 찾았다. 불길이 거세지진 않았지만 그는 속이 메스껍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준수의 방조차 찾아가기 어려웠

다. 새삼 그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다. 어렵사리 준수의 방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긴장의 끈을 놓자 의식이 희미해졌다.

'아직 잠자기엔 이른 시간 아니니?'

그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다. 흐린 의식을 부여잡고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다행히 불길이 세진 않았다. 현준은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곧이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근처 주민의 빠른 신고로 늦지 않게 도착했다. 현준에겐 익숙한 소리였다. 동시에 정감이 가는 소리였다. 현준은 그들을 통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동했다. 현준이가 병원으로 가고 나서야 준수가 도착했다. 그의 심장이 요란하게 고동쳤다. 숨이 턱턱 막히고 분명히 불과 떨어져있는데 몸이 뜨겁고 따가웠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생지옥이 다시 눈 앞에 펼쳐진 느낌이었다. 그의 마음 속 그을음에도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안쪽에서부터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얼마 후 그는 쓰러졌다.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다. 옆엔 준수의 어머니가 있었고 준수가 실제로 다친 곳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몸을 가누기 어려웠고 땀을 뻘뻘 흘렸다. 39.6도, 체온계에 나타난 준수의 체온이었다. 목도 부어 있었다. 준수는 독감 주사를 맞고 오늘 하루 병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게 되었다. 현준이도 병원이었다. 그는 약간의 화상을 입었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두 사람 다 오늘은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튿날, 준수의 열은 내렸다. 순조롭게 퇴원하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집은 그런대로 멀쩡했다. 외부에 그을음이 많이 보였다. 특이한 점은 외부의 한 부분에 이상한 표시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표시 아래에는 주홍빛 라이터의 파편이 보였다. 그는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떠오르는 것을 억제하고 우선 내부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몇몇 가구와 가전제품이 없어졌다. 불에 타서 못 쓰게 된 것들을 치운 것 같았다. 내부에도 많은 그을음이 보였다.

집을 전부 확인한 후 준수는 자신의 방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라이터의 톱니부분과 주홍빛 몸체의 파편. 그것은 불과 며칠 전 현준이가 준수의 눈앞에서 담뱃불을 붙일 때 쓰인 라이터와 같은 것이었다. 우연히 같은 라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라이터가 왜 이곳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충돌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준수가 본 이상한 표시는 경찰이 살인사건에 시체가 있던 자리를 표시한 것과 같았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방화였다. 생각하기 싫었지만 현준이의 방화가 아닐까 했다. 정말 그렇다면 자신의 트라 우마를 알고서도 담뱃불에 모자라 방화까지 일으켰다는 생각에 준수는 이성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현준이가 방화를 일으킬 이유 따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한편에서는 지금 그녀석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금이 갔다.

다음 날 현준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하루가 더 지나고서야 학교에 나왔다. 준수는 현준과 단 한 번도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정말 네가 그랬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준수는 현준을 보게 되었다. 그는 여기 저기 심한 상처가 가득했다. 심한 상처들로 인해 그가 입은 화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 상처들은 현준이가 집도 안 들어오고 어딜 싸돌아다녔냐는 그의 새아버지로 인해 생긴 상처였다. 현준은 자신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준수를 붙잡고 얘기했다.

"야 너 내가 네 앞에서 담뱃불 좀 붙였다고 이러냐?"

현준이의 말에 준수는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무시하고 지나갔다.

"야! 서준수! 거기서 멈춰라."

그를 끝까지 붙잡는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유유히 걸었다.

“야! 넌… 내가 사흘 동안이나 학교에 안 나왔는데 걱정도 안됐냐?”

현준은 자신이 준수 집에 뛰어들었던 자신을 생각하며 말했다. 그제야 준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사흘이라는 말에 발끈했다.

“그래 우리 집 불태우고 사흘? 그동안 맘고생 했냐? 그런 걸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비꼬는 투에서 점점 언성을 높여가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현준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시치미 떼지 마. 네가 내 눈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바로 그 라이터가 우리 집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폭발하듯 큰 소리로 준수가 소리를 질렀다.

“…….”

현준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갑자기 준수가 쓰러졌다. 식은땀이 났다. 현준은 그를 양호실로 옮겼다. 뭘 어떻게 말을 꺼내야할지 몰랐다. 생각이 정리되질 않았다. 다만 그는 지금 준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자릴 벗어났다. 밖에서 담배를 물었다. 불을 붙이려는 순간 자신의 라이터를 보았다. 그 날 샀던 보라색 라이터였다. 그는 생각했다. 확실히 방화라고 하더라도 불을 지른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만일 그 라이터가 그가 잃어버린 라이터였다면, 자신이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준수 집에 불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라이터를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찍어 부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뱃갑도 짓이겨 버렸다. 그는 교실로 돌아갔다. 준수는 조퇴했다. 현준은 교실에서 방과 후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방과 후 학교 앞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다. 현준의 아버지가 몰던 소방차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많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앞에선 경찰관 둘이 태성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태성씨 맞죠? 며칠 전 XX동 주택의 방화 용의자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던 현준은 그 말에 걸음을 멈추고 경찰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이태성군이 방화범이라는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 꼬마야.”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 말했다. 현준은 맘 같아선 지금 태성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옆의 경찰관들이 있어 섣불리 그러지 못하였다. 준수를 찾아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수의 집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화가 왔다. 현준의 어머니였다.

“왜 전화 하셨어요?”

“현준아… 네 아버지가 방 여기저기에 술병을 깨 놓고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고 했다. 더 이상은 이 집구석에서 정말로 못 살겠구나. 지금 삼촌한테 말해서 알아본 곳으로 가려고 한다. 네가 학교 끝나면 바로 가려고 했단다. 얼른 오렴.”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다. 현준은 망설이다가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다. 나중에 연락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그곳을 떠났다.

사건의 진상은 준수의 집에도 전달되었다. 준수는 이에 다음 날 사과하려 하였다. 무턱대고 자신이 현준에게 괜히 언성 높여 화를 낸 것이었다. 혹시나 현준이 화나진 않았을까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사서 다음 날 학교를 갔다. 그 날, 현

준의 자리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다.

유서

20142139 정 수 현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야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고 기획사에 들어온 것이 잘못인지, 고객이 클레임을 거는 바람에 오늘 있던 대학 동기들과의 약속도 포기하고 콘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눈에 소금물이라도 뿌린 것처럼 아려왔다. 이게 며칠 째인가. 야근은 그만하고 싶지만, 이 나이에 이정도 월급을 주는 회사도 구하기 어렵기에 꾸역꾸역 돈만 벌기 위해 다니고 있다.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은 당연지사다.

커피를 마셔야 살 것 같았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콘티를 고쳐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잠은 쏟아지고, 피로는 몸을 짓누르고 있다. 사실 두 시간 전부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한 것은 없었다. 별 말이 없다가 갑자기 클레임을 걸고 모두 다 고치라는 말을 하는 고객만큼이나 진상도 없을 것이다.

사무실에는 내 모니터의 하얀 불빛 외에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들 퇴근한 모양이다. 탕비실에 커피 메이커도 꺼져 있었다. 아까 나가던 사람이 내 존재를 눈치 채지 못한 것이다. 다시 켜 놓고는 담배를 물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가 탕비실 안에서 뿜어져 나갔다. 깊게 담배를 빨아들이고는 다시 내뱉었다. 살 것 같다. 이 한 개비의 담배가 가지는 희열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액정에는 익숙한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나와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석현이었다. 꾸준히 본 녀석이라 다른 애들처럼 연락이 끊어지지 않았다. 내가 취업을 먼저 하는 바람에 서로 불편해지면서 연락이 조금은 뜸하기는 했지만 가끔은 연락을 했다.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SNS도 있으니, 적당히 연락하며 지내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 전화통화를 했다. 오늘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은가 싶었다. 설마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다. 누군가 한번쯤은 겪게 된다는 그런 싸한 느낌이 내 몸을 벌레마냥 기어 다니며 나를 소름끼치게 만들었다.

“동준아.”

내 이름을 부르는 석현이의 목소리는 쉬어있었다. 목을 졸린 것처럼 막혀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올 말들의 대부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씨발.....주헌이 새끼 죽었단다.”

주헌. 들어본 지 벌써 오래된 이름이다. 고등학생일 때 언제나 같이 다녔던 녀석이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의 기억 속에 파묻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된 이름이기도 했다. 술에 취해 감상에 젖어 졸업앨범을 볼 때나 마주쳤던 그 이름이다. 그 이름의 의미마저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런 나에게 주헌이의 죽음은 당혹스러웠다.

“왜?”

한참을 수화기에 대고, 석현이의 한숨소리를 듣다가 내가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이었다.

그래, 갑자기 왜? 아무런 기미도 없던 녀석이 왜 갑자기 죽었을까. 그렇게 밝던 놈이었는데 왜 갑자기 죽었을까. 병으로 죽었나, 사고로 죽었나. 대부분의 우리 또래라면 지금은 죽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니지 않나.

"자살했대. 그 개/새끼가."

이해가 가는 것 같았다. 지금 이 나이 또래에 병이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면 역시 자살 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왜 자살을 했는가. 나는 용납이 되지 않았다. 내 친구가 죽었다는 것에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았다.

"알았다. 어디로 가면 되냐?"

"H 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와라."

미친놈. 개/새끼. 이딴 식으로 먼저 가버리는 게 어디 있냐. 전화를 끊고는 속으로 욕을 한바가지 했다. 친한 친구에게 연락도 없이 먼저 가버리는 게 어디 있을까. 어느새 내 머리에 콘티를 다시 짜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얼마 남지 않는 담배를 연달아 피우는 것이다. 금방 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회색의 짙은 담배 연기가 나를 잠시 현실에서 멀어지게 해줄 거란 착각 때문이었다. 그것도 잠시였다. 점점 나는 현실로 되돌아왔다. 친구가 멀어지는 현실로. 생활이 힘들어지는 현실로.

지금은 일이 중요하지 않다. 내 미래를 위해서 중요했던 것들을 뒤로 놓아둔 채 살아왔다. 모순적이게도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나에게 온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 녀석에게 연락을 좀 하면서 살아야 했다. 친구가 별로 없는 놈이란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연락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이미 취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많은 날들을 보내왔다. 배려가 아니다. 단지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사용한 임시방편이었다.

콘티를 조금만 손 보고는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전화를 받고 바로 나올 용기는 없었다. 복잡한 감정이 내 머리를 세게 강타했지만, 내 밥벌이를 포기하고 이미 죽어버린 녀석의 얼굴을 보겠다고 달려들 용기는 없다. 내가 이렇게 차가운 인간이었나. 콘티를 손댄 것뿐이지 바뀐 것은 없다.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두려워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장례식장에 갈 일이 없었다. 친척도 별로 없는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례식은 나에게는 머나먼 친척과도 같은 존재였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만간 발인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굳이 장례식장에 갈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서있었다. 제사 때나 맡을 수 있는 향이다. 장례식장 밖에서 몽롱한 눈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나도 땅겼다. 어쩔 수 없었다.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도 몰랐다. 영화에서 본 대로 해야 하나. 그 전에 영정사진으로만 남은 채로 나를 바라볼 그 녀석을 생각하니 들어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미친놈."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담배가 타들어 가기 시작했다. 자동문 옆 벽에 기대어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욕은 잘 하는 편이 아니지만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감정이 미묘하게 얽혀져서 알아차릴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먼저 가버린 녀석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지독하게 슬퍼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무거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입구 앞에서 줄담배를 피워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입구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잠시라도 담배를 피우면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 착각을 위해 피우는 것이다. 담배의 꼬리만 남았을 때, 더 이상 피울 것이 없을 때, 녀석의 죽음이 다시 나를 엄습해온다. 자살. 어린 나이. 연락이 끊겼던 오랜 친구. 죄책감. 현실에 순응하며 사느라 잊고 있었던 가치들이 되살아난다.

"거기서 뭐하냐. 들어오지 않고."

처음에 나를 부르는 것인지 몰랐다. 기억에서 희미해진 목소리였다. 이대현. 얼굴을 보니 8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만나서 반가웠지만 우리 둘 사이에서 흐르는 어색함을 버틸 수 없었다. 우리가 이런 어색함을 느낄 정도의 사이였나. 물론 아니다. 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친구임에도 멀어져 있었다.

"다들 왔냐?"

"연락되는 사람이 몇 없어서, 온 사람은 별로 없다. 나하고 석현이, 동주, 웅이까지 한 4명 정도 왔다. 이 새끼 뭐하고 산건지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이 없냐. 몇 놈 더 와야 맞는데. 왜 안 오냐."

그래, 그런 이름도 내 기억 속에 있던 것 같다. 나도 사는 데 바빠서, 그런 기억을 묻고만 살았다. 이제야 기억이 난다. 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너도 바빠서 이제야 주헌이의 마지막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왜 죽었대냐."

"몰라. 주헌이 어머니가 발인 끝나면 줄 게 있다는데 아마 유서겠지. 자살하는 사람이 남기고 갈게 뭐가 있겠냐. 주헌이가 가진 게 뭐가 있겠냐.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미친 새끼 연락도 안하고 갑자기 죽는 게 어디 있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대현이도 담배를 입에 물었기 때문이다. 그저 새벽 2시의 탁한 밤공기를 마시며 초점 잃은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걸로 우리의 의사는 완벽하게 전해졌다. 어두운 하늘같은 허무함이 우리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들어가자."

각 호실마다 각색의 소리가 났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곳은 조용했다. 내가 가고 있는 곳은 이제 시작이었다. 복도를 걸어 점점 깊숙이 들어갔다. 7실, 녀석의 이름이 크게 걸려 있었다. 안은 시끄러웠다. 기억과는 많이 다른 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안에서부터 들려왔다. 앞에서 주춤했다. 들어가서 겪게 될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안에 있었다. 성공을 위해 친구와의 접촉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선택, 나를 불편해할 것 같아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배려아닌 배려를 했던 것에 대한 선택 같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던 가치들에 대한 거절들뿐이다. 그 모든 외면과 망각의 참담한 결과가 장례식장 안에 있다.

결국에는 와버렸다. 더 이상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없었다. 그 긴 세월동안 주헌이를 외면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도 외면하는 짓은 해선 안 된다. 대현이가 내 등을 툭 건드렸다. 내가 주저하는 것이 보였나 보다. 나는 고개를 대현이의 눈을 응시하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이주헌.'

녀석의 이름이 크게 붙어 있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랜만에 보게 된 것은 녀석의 얼굴도 목소리도 아니었다. 하얀색 종이에 크게 써진 녀석의 이름이었다. 오직 그것이었다. 나는 신발을 벗어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다. 상마다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띄었고 눈인사를 했다. 미친놈들 그동안 어디에서 살다가 누구 하나 죽으니까 튀어나오나. 나도 그들과 다를 것 없는 인간이었지만 화를 풀 데가 없었다.

녀석은 하얀색 국화에 둘러싸여 지긋이 웃고 있었다. 그렇게 웃지 마라.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욕이 입에서 흘러나올 것만 같다. 녀석에 대한 원망도 있을 터지만, 나에 대한 원망이 더 크다. 더 많이 살지 못한 그 녀석과는 달리 향은 꺼질 줄을 모르고 계속 피어올랐다.

녀석이 이런 취급을 받을만한가. 녀석은 은인이다. 원래 남을 잘 챙기는 성격에다가 고등학교 때에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줬었다. 같이 다니던 놈들 중에서는 공부를 가장 잘하던 놈이었다. 그런 녀석이 대뜸 국문과를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놀랐다. 좋은 대학의 경영학과 같은 곳도 그냥 갈 놈이 국문과를 간다고 하니, 한편으로 믿지 못하면서도 원래 글을 잘 쓰는 녀석이라 그러려니 했다. 대학에 진학해야할 고3 시절에는 공부도 도와주고, 면접 준비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줬던 놈이다. 주헌이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직장을 사춘기를 험하게 보냈던 내가 다니고 있을 리가 없다. 이 장례식장 안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익숙한 얼굴의 주인들도 마찬가지다.

“동준이구나. 오랜만이다.”

주헌이의 어머니는 내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고 계셨다. 주헌이는 아주머니께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미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랐고, 우리를 보는 동공에도 힘이 풀려 있었다. 그렇게 효자였던 놈이 왜 갑자기 자살을 선택한 건가.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아닙니다.”

옆에는 주헌이 형도 있었다.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오래전 주헌이 집에 놀러갈 때마다 봤던 형이다. 형과는 말없이 악수를 했다. 영정사진으로만 남아있는 녀석에게 절을 두 번하고는 주헌이의 가족에게도 절을 했다.

일어서서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장례식장에서 관습처럼 영혼 없이 절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끝내 메말랐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눈에 고이기 시작했다.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인다면 왠지 아주머니에게 더 미안할 것이다. 나는 녀석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내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다. 나는 친한 친구다. 불/알친구다. 언제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던 친구다. 하지만 녀석은 이미 체온이 차갑게 식어버려 죽은 상태였고, 나는 담배로 썩어가고 있는 폐를 붙들고 잘 살아가고 있다. 공정하지 않다.

나는 상에 앉았다. 장례식장에서 나눠주는 싸구려 육개장을 안주 삼아 아직 살아 있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녀석을 회상하며. 녀석이 왜 죽음을 택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녀석과 가장 최근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이도 없다. 그저 고등학생 때의 우리의 활약상을 떠들며 점차 희미해지는 우정을 곱씹/어 볼 뿐이었다.

이제 겨우 28살이지만 우리도 닳고 닳았다. 고등학생 때, 뭐가 되겠다면서 크게 떠들어대던 날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다. 현실이다. 석현이는 한 때 레스토랑을 운영하겠다며 큰소리치고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말단 사원이다. 요리사가 되겠다던 놈은 전과를 해서 프랑스어 번역을 공부 하고 있다. 나는 주헌이를 보며 꿈을 가지게 된 경우다. 나도 특출하지는 않지만 꽤 글을 쓰는 편이었고 여행을 하면서 여행기를 쓰는 여행 작가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던 나도 지금은 광고기획사에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갓 취직한 초짜 월급쟁이다.

취직을 하고 몇 달이 막 지났을 때는 이게 살만한 삶인가 싶었다. 지금 취직을 못한 대학 동기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있는 취업난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평했다. 왜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상품 광고의 콘티를 짜고 있으며, 사람들 말에 일일이 맞춰주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객에게 넙죽거리며 영업질을 해야 하는 지. 나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불평하고는 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헌이가 대단한 것이다. 누구는 현실도 파악 못하는 병/신이라고 욕을 해댈지 모르지만 이 상에 앉아 있는 놈들 중에서 꿈을 계속 가지고 있던 놈이기도 했다. 나는 그 점이 부러워 녀석에게 시기를 느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다. 꿈을 좇고 있는 놈이기에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왜 우리 중 어느 놈도 주헌이 왜 죽었는지 모르냐?”

가만히 소주를 계속 들이키던 석현이가 말했다. 돈과 직장이야기를 하면서 주헌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던 나와 다른 놈들은 석현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넌 아냐?”

얼굴이 기억나지만 누군지 모르겠는 놈이 물었다.

“나도 몰라. 근데 미안하지도 않냐? 우리 중 아무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주헌이 가장 친한 친구 아니었냐?”

석현이는 몇 십 분을 그렇게 되풀이 했다. 우리가 계속 여자이야기, 잘나가는 동창이야기, 인생 망한 동창이야기로 주헌이를 잊으려 할 때마다 석현이는 끼어들었다.

“왜 모르냐고!”

“이제 그만해라 좀.”

“알았다. 알았어. 나도 모르는데 너네가 알겠냐. 내가 그나마 주헌이랑 연락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나도 모르는데. 너네가 알겠냐.”

숙연해졌다. 석현이는 술주정 아닌 술주정을 하며 우리를 꾸짖고 있었다. 우리가 사람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소주잔을 계속 기울일 뿐이었다. 조용히,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고 소주병을 비워나갔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진상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술을 마시고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상태로 출근을 했다. 아침부터 콘티 수정을 이상하게 했다는 걸로 한번 깨지고는 뒤틀린 속이 아예 뒤집어지는 것을 참아내며 일을 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나와 관련이 없던 것처럼 지냈다. 일을 하는 동안 녀석의 생각이 날 때면 잠시 옥상으로 올라가 찬바람을 맞으며 담배를 피웠다.

장례식에 다시 찾아가지도 않은 상태로 삼일이 지났다. 녀석의 발인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발인하는 날에 새로운 고객과의 미팅이 잡혀있었다. 나는 미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녀석에 대한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미팅이 저녁에 끝나고 나서야 발인 끝났다는 석현이의 문자만 있을 뿐이었다. 미쳤다. 잊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또다시 잊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 친구하기 좋은 놈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에 후회를 해놓고는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녀석은 이미 떠나버렸고, 나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누가 죽음은 산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나는 그런 문제를 벗어나기라도 한 것인지, 감정이 없는 사람마냥 그 녀석의 죽음을 잊은 채로 보름을 지냈다. 주헌이가 죽

었다는 것에 대한 악몽을 꾸지 않았다는 것이 더 웃기다. 평범한 죽음. 노화가 진행되어 결국에는 피의 움직임이 정지해버리는 그 순간을 가지지 못한 주헌이다. 내 꿈에 나타나서 한을 풀어도 괜찮을 정도다. 계속된 야근으로 몸이 지쳐서인지,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해서 인지. 꿈도 하나 꾸질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담배를 더 피워댔다. 틈만 나면 불을 붙이고 내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담배만이 유일한 도피처라는 것을 상기하며 계속 피웠다. 손가락에 타르의 끈적끈적함이 묻어날 때까지 줄로 피웠다. 내가 담배를 쉽사리 끊을 수 없었던 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다. 도피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기억의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며 앳된 꼬맹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얼굴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좀 나아졌다.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다짐을 한 나로서, 그런 흐릿한 얼굴들은 유일한 행복이었다.

그 녀석이 다시금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집으로 배달된 소포에서 시작되었다. 주헌이의 형으로부터 배달된 두툼한 황색 봉투였다. 우편함에 담겨 있는 소포는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삭막한 원룸으로 들어가 봉투를 내려놓고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날 녀석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렸다. 이거였나. 이것이 녀석의 유서다. 우리들 중 아무도 몰랐던 녀석의 죽음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두툼한 유서를 받을 권리가 있을까. 없다. 나는 이 녀석의 죽음에 도움을 보태주었으면 줬지,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권유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녀석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지만 이건 강제적인 일이다. 죽으면서 사람이 남긴 말이다. 읽어주는 게 예의다.

맨 정신으로 봉투를 열어볼 배짱은 없었다.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 줄 알고 대뜸 뜯어버리겠는가. 나를 저주하는 내용일지도 모른다. 나를 그렇게 챙겨주었는데 어떻게 연락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지. 왜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지. 그 긴 세월동안 단 한 번도. 녀석이 유서를 원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저 두꺼운 봉투 안에 나를 저주하는 글만 잔뜩 있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담뱃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도 하지 못한다. 더 이상의 현실 도피도 하지 못한다. 술이라도 한잔 마시며 저 봉투를 열어보고 싶지만 그건 반칙이다. 주헌이가 자살을 선택하기 전에 느꼈을 감정은 얼마나 참담했을 것인가.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친구를 죽음으로 몰리게 만들었다. 죄책감은 내 몸의 피를 부글부글 끓게 만든다.

전화가 와서 보니 석현이었다. 아마 석현이도 이 봉투를 받았을 것이다.

“봉투 받았냐?”

“그래, 지금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열지 못하겠다. 열 엄두가 안 나.”

“너도 마찬가지냐. 나는 발신인만 보고 다시 우체통에 넣어놨다. 가져와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두 시간 동안이나 그 봉투를 열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상 별 거 한 게 없다. 그저 봉투에 구멍이 나도록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봉투의 윗부분만 꺼내고 내용물만 확인하면 모두 끝난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겁쟁이인 내가 선택한 것은 술이었다. 저번 고객에게 감사의 뜻으

로 선물 받은 싸구려 양주였다. 덕분에 수입이 많이 올랐다며 우리 팀 전체에게 돌린 술이다.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이거면 충분했다. 처음 들어보는 양주다. 그냥 프랑스산 꼬냑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만 브랜드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머그잔에 가득 따르고 벌컥 들이켰다. 따가운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몸이 후끈거렸다. 이정도면 된다. 차가워진 피를 녹여버렸다.

안에는 내가 예상했던 유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미완성'이라고 써진 첫 페이지와 종이 뭉텅이가 있었다. 원고다. 자살을 선택한 작가가 남기고 간 것은 원고다. 미친놈. 제대로 된 유서를 남기고 가면 뭐가 덧나나.

'잃어버린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바칩니다.'

다음 장에는 중앙에 이런 글자가 있었다. 그 다음 장부터는 녀석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에 대해 장대하게 써내려갔다. 그 녀석 특유의 따뜻한 문체로 내 기억 속의 흐릿한 부분을 선명하게 만들어 나갔다.

각 장마다 다른 애들이 이야기가 있었다.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다. 녀석은 남기고 갈 것으로 이 글을 택한 것이다. 등단은 하지 못했지만 내 안쪽에서 언제나 작가였던 녀석은 최후의 대작을 남기기로 한 것이다.

재미있다. 내가 읽었던 그 어느 책들보다, 우리만의 이야기였기에 더욱 그랬다. 석현이와 대현이와 야간자율학습을 도망가려다가 붙잡혀 학생부에서 벌을 받아야 했던 일화도 있었고, 담배를 처음 접하게 된 날의 이야기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갔던 우리의 모습이 녀석의 눈에 비추어지면서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따분한 이야기일지라도 나에게만큼은, 적어도 이 원고를 읽고 있는 다른 놈들은 분명 가장 재밌는 이야기인 것이다.

어느 순간 나는 웃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도 잊고 원고들을 재빠르게 넘겼다. 내가 묻어두었던 추억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모든 일들이 기억난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원룸을 밝게 비추자 나는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분명 다른 놈들도 지금은 이정도 읽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쉽사리 전화를 걸 수가 없었다.

'제 10장, 이별.'

원래 좀 특이한 녀석이다. 처음 보면 끝없이 멀쩡해 보이는 애지만 의외로 낭만주의에 빠진 상반된 모습을 가진 아이였다. 언젠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 사실일 줄은 몰랐다. 자신이 죽을 날에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글을 유서로 남기겠다는 말이 정말이었다. 이제야 그것이 난다. 술에 취하면 녀석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너네가 나하고 연락을 하지 못하더라도, 평생 친구는 섭섭해 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가 죽을 때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나는 너네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떠날거다."

한 때 술 마시고 객기 부린다고 생각했던 놈의 말은 이루어졌다. 그 녀석이 하겠다고 했던 일들은 늦게나마 이루어졌던 것처럼 역시 일어났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아침이 이미 와버린 사실을 잠시 망각한 채로 눈물을 한바가지 쏟아내었다. 녀석의 장례식장에서 쏟아내지 못한 서러움을, 분노를 쉽사리 넘길 수 없는 10장 앞에서 폭발시켰다.

봉투를 열지 못했던 때와 같은 마음이다. 이 원고를 받은 다른 놈들도 같은 마음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그랬다. 지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잠시나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 결말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담배를 피운 뒤의 찝찝함만이 있을 것이다.

우습게도 나는 원고를 봉투에 다시 집어넣은 뒤에 출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새빨갛게 충혈된 눈을 가리기 위해 찬물로 세안을 하고,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칙칙한 향수를 뿌렸다. 돈을 버는데 있어서 내가 가진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이다. 우위를 잃어버린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얼마 없다.

내가 원고가 든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젠가 10장을 읽게 될 용기가 생길 것이라 믿었다. 그러는 와중에 석현이나 대현이에게서 온 전화가 부쩍 늘었다. 나는 그 전화를 대충 변명을 둘러내며 넘기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실수를 저질러버렸다. 혹여 그들이 녀석에 대한 일을 입으로 꺼낼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다. 내 서류가방 안쪽에 있는 그 봉투를 볼 때마다, 녀석이 자살을 한 원인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 벗어날 수 없다. 늪에라도 빠진 것처럼 한번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천천히 잠식당한다.

막상 내가 그 원고를 읽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녀석이 죽은지 어느새 두 달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그 때도 고객과의 미팅을 위해 지하철역 근처의 카페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미완성 원고에 대해 까맣게 잊으며 살고 있었다. 내 나름대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조치였다. 망각만큼 쉬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서류가방이 왜 무거운지도 모른 채 계속 들고 다녔다. 그러다가 녀석의 원고봉투를 꺼냈다.

'제 10장.'

거의 두 달 전의 일들이 머리에 다시 각인되었다. 하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을 잊는 방법도 배운 것이다. 정확하게는 상실이라는 감정에 무뎌진 것이다. 덤덤하게 그 단어를 바라보았다.

고객이 도착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였다. 몇 장 되지 않는 제 10장을 읽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나의 준비여부가 가장 중요했다.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던 간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회의를 해야 하는데 눈물을 쏟아낸 지친 얼굴로 고객을 맞이할 수는 없었다. 같이 외근을 나온 대리님에게도 피해가 가는 행동이었다. 그에게 내 친구의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건수를 올려 보너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리님의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나는 드디어 10장의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예상외로 10장은 소설이 아니었다. 편지였다.

이 글을 읽고 있을 사람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은 상태일 것이라 짐작한다. 이 글을 내가 갓 태어난 가축의 새끼들마냥 숨을 헐떡이며 쉬고 있을 때 줄 리는 없다.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며 민망해 할 것 같아 그런다. 어머니와 형은 내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대충은 알겠지만, 아마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녀석들은 모를 것이다. 모르는 편이 낫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응원해주고 도와주기로 했다. 친구로서 그리고 너네들을 많이 챙겨왔던 놈으로서, 너네들이 챙겨주었던 사람으로서.

"씨발놈."

욕이 또다시 입에서 새어나왔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누가 봐도 우리가 잘못한 거다. 녀석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글을 이어가며 자신을 좋아해줬던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몸이 고장난 엔진처럼 덜컹거렸다. 한동안 메말라 있던 눈은 다시 물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눈물이 고여 원고 위로 떨어졌다. 녀석의 작별인사 위로 떨어졌다.

나는 사실 이미 죽은 몸이다. 몇 개월 전, 신춘 문예를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몸이 아파서 쓰러진 적이 있었다. 병원에 가보니 듣도 보도 못한 불치병이란다.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내가 변변치 않은 수입이 없는데다가 집안도 원체 가난한 편이라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소리를 쉽사리 하지 못했다. 의사도 입원해봐야 몇 개월을 침대에 누워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예측 아닌 선고를 내렸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당장이고 내 꿈을 위해 전진하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기로 했다. 내 추억을 회상하며 정리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다닌 것처럼 말이다.

내가 기억하는 일들은 더 많지만 10장까지 쓰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고통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버틸 수 없다. 그나마 처방받은 진통제로 며칠을 겨우살이마냥 버티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루살이 신세나 다름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더 살기를 바라다가 모두에게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지금 내 비참한 상태를 너희들에게 알려 너네가 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장대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주헌, 이 씨발놈아."

그렇게 쉽게 자살을 선택하면 내 죄책감이 좀 더 줄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너도 참 멍청하다. 죽기 전에 아무리 초췌한 얼굴이라도, 갈라진 목소리라도 보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부터인가 성장해가는 너희를 보면서 계속 내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늘었다. 나는 쥐뿔도 없는 거지인데, 너네는 주머니에 점점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가끔씩 들려오는 너네의 소식에 나는 기쁘면서도 그 기쁨 속에서 비춰지는 나의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한심했다. 그렇게 나도 외도했다. 언젠가 나도 성공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고통에 못이겨 자살을 선택하니, 내가 왜 그랬을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친구란 게 그런 것인가? 언제부터 친구가 사회적 지위를 운운하며, 수입을 운운하며 계급을 나누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죽기 전에 좋은 일 하나 하겠다고 알려주고 싶다.

더 연락 좀 하고 살아라. 친구란 건

문장이 다 끝나지도 않고 원고는 끝났다. 미완성이다. 미완성 원고다. 이렇게나 많은 분량을 준비한 녀석이 다 끝내지도 않고 원고를 끝냈을 리 없었다. 이건 의도적이다. 나에게 채워넣으라는 것이다. 사실은 그놈이 고통에 못이겨 진통제를 과다복용해서 죽었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장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말이다.

미팅을 어떻게 잘 마치고 나는 바로 퇴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음에는 장례식장에서 모여 술을 마셨던 놈들을 호출했다. 밥도 같이 먹고 술을 마셨다. 언제까지 마셨는지는 모른다. 녀석이 죽기 전이었다면 보기도 힘들 놈들일 테지만, 원고를 끝까지 읽은 것이 분명하다. 정확히는 끝을 내기 위해 모인 것이다. 녀석이 완성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잠시 현실을 뒤로하고 추억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담배를 피며 내 안타까운 현실을 불평했던 것도 그만두기로 했다. 성공을 위해 살겠다며, 행복의 의미를 놓치는 것을 그

만두기로 했다.
언젠가 내가 녀석의 문장을 마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풀숲

20141120 박 은 지

“야아, 술 갖고 와라 이년아-.”
“..술 없어요.”
“뭐? 술 갖고 오라고-!”
“없다구요.”
“에엥-? 술이 없어어? 그럼 진작에 사놨어야지, 이 여편네야-!”

엄마는 의자, 책, 국자까지 던져지는 집안 살림들을 그 작은 몸으로 또 받아내야 했다. 언제나 술에 절어있는 아빠란 사람은 밤이 늦어서야 집에 와놓고는 또 술을 찾는다. 차마 소리 못내 울며 끅끅대는 엄마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아빠는 혀 풀린 소리로 ‘수울-’만 외쳐대며 집을 망가트렸다. 방문 사이로 보이는 엄마는 나에게 나가 있으라는 애원의 눈빛을 보냈다. 그렇지 않아도 차마 눈뜨고 볼 광경이 아니기에 외투를 집어 들었다.

학교는 이미 자퇴한지 오래다. 갈 곳도 없는 내게 집은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한다. 아빠라고 법적 상으로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술과 도박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낙이 있다면 엄마를 때리는 것뿐. 그래도 가족이라고 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한다. 막노동 주인장 아저씨는 나에게 쥐꼬리 같은 것도 돈이라고 쥐어준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수입이라곤 이게 전부니 뭐라고 불평할 수도 없다. 잘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다. 집은 다 쓰러져 가고 난방도 고장 났으며 생활비라고 나가는 것은 전부 술값이었다. 게다가 요즘은 또 재개발이니 어쩐다니 주위에서 점점 압박을 해온다. 차라리 나 혼자였으면 길거리에 나앉아도 어떻게든 살아갔을 텐데. 엄마를 내버릴 순 없었고 아빠라는 인간도 꼴에 가족이라도 정이 남아 있는 건지 내가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살 때까지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어영부영 살고 있다. 세상 참 어렵다.

“으, 추워.”
겨울은 다 지나간 것 같은데도 아직 완전한 봄이 아닌가보다. 으슬으슬하니 외투가 얇다. 집에 계속 있을 엄두가 안나 오늘도 밖으로 나왔지만 막상 밖으로 나오면 마땅히 할 일이 없다. 핸드폰은 가져본 적도 없고 학교도 일찍 자퇴해 친구들도 없다. 집을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막노동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힘 쓸 기분도 아니었다. 동네나 한 번 돌아보자 싶어 발을 옮겼다. 집 아래쪽은 많이 다녀봐서 대충 알고 있으니 위쪽으로 향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었다. 걷다가 옆에 작은 개미라도 보이면 개미 속도에 맞추어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달동네라서 그런지 경사가 좀 높다. 꼭대기에 올라서니 밑이 훤히 다 보인다. 괜스레 실소가 튀어나왔다. 내 밑으로 수십 개의 지붕들이 있어 마치 그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았다. 죄다 흙벽에 시멘트 투성이 바닥들만 보고 올라왔는데 시야가 넓어지니 참 다채롭기도 하다. 바람도 많이 불고, 따닥따닥 붙어있는 지붕들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높은 곳이라는 게 왠지 좋았다. 시원하다. 마음의 무게를 바람이 조금 가져다 준 것도 같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니 바람이 더 잘 느껴진다. 내 몸을 훑고 지나간다기보다 날 감싸 안아주고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싫지 않았다.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이젠 제법 어둑어둑해졌다. 팔을 뒤로 젖히며 기지개를 쭉 폈다. 깊은 하품이 절로 나왔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는데 아깐 보이지 않던 게 눈에 들어왔다. 어느 집의 담벼락이다. 다른 집들의 것과는 달리 푸르딩딩한 풀잎 덩어리들이 검붉은 벽을 뒤덮고 있다. 담쟁이 넝쿨처럼 얇게 이리저리 널려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부잣집 정원의 나무들처럼 풍성한 느낌이다. 울창한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마치 담벼락이 아닌 풀숲 하나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개 중에는 간간히 빨간 꽃들도 피어있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붉은 백합 모양이었다. 칙칙한 벽들 사이에 싱그럽게 녹색이 자리 잡고 있으니 괜히 기분이 묘했다. 왜 여태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마치 딱딱하게 새카만 정장을 차려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새하얀 옷을 입고 마냥 밝게 웃고 있는 어린이 하나가 서 있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저 풀숲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졌다. 가꾸지 않고 자연스레 생긴 풀숲이라기엔 어딘가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자기 집 담벼락을 꾸밀 만큼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이 왜 달동네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갑작스레 괜한 자격지심이 들었다. 내려가서 가까이 살펴보려다가 그냥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이나 갈련다.

아빠의 신경질은 끝이 났나보다. 엄마는 어느새 부엌을 정리하고 밥을 안치고 있었다. 아빠는 그새 또 어딜 나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늘 같은 패턴이다. 난 소동이 끝날 때까지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고, 집에 오면 엄마는 두 명이 먹을 정도의 밥을 하고 있다. 항상 저녁밥은 2인분씩만 했다. 마치 우리 가족은 두 명이 전부인 것처럼. 어차피 아빠는 또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난 엄마 옆으로 다가가 가만히 서 있었다. 언제나 내가 엄마 옆에 가만히 서 있으면 엄마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어 번 두들겨 주고는 자연스레 말을 건넸다. 이건 모자간의 대화이자 엄마와 나의 소통 방법이었다.

“아들, 오늘은 또 어디 가있었데? 추운디.”
“어, 위에 좀 올라갔다 와봤어.”
“위에? 맨날 아래짝만 가드니.”
“그냥. 오늘은 위쪽이 땡겨서.”
“별 좋은 핑계 다 있네 그려.”
“..참, 엄마. 위에서 봤는데, 어느 집 담벼락 하나가 온통 풀이더라. 숲인줄 알았어.”
“엥이, 숲은 무슨. 이 좁은 데 뭘 할 게 있당가. 기냥 넝쿨 아녀?”
“아냐. 진짜 사람이 가꾼 거 같았어. 막 풍성했다니까?”
“그려? 아 니가 그렇다니께 그런 갑지, 뭐. 궁금하긴 허네. 보고싶다, 야.”
“...그럼 지금 보고 올까, 엄마?”

저녁시간이었지만 배도 그렇게 고프지 않았고 밥이야 나중에 와서 먹어도 되는 것이었다.

마침 아빠도 없었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엄마는 됐다며 밥이나 먹자고 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긴말 없이 외투를 더 챙기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아까보다 바람이 더 세차졌다. 경사진 오르막길에 엄마가 힘들어보였지만 중간 중간 내가 업어도 드리며 꼭대기까지 함께 올라왔다. 자로 잰 듯 똑같은 지붕들 사이로 푸른 담벽을 눈으로 열심히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까 내가 보았던 그 풍성한 풀숲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 집 한 집 보았지만 온통 칙칙한 벽돌색일 뿐 초록색은 찾을 수가 없었다.

“어데 있는데?”
“아까만 해도 여기 어디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네. 어디 있지?”
“여기 죄다 벽돌벽인디, 풀숲이면 푸르딩디하니 눈에도 잘 띄겠고만 왜 못 찾는디야.”

풀숲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 엄마는 지금 자기를 놀리는 것이냐며 장난스럽게 투덜댔다. 조금 힘들긴 했어도 바람이 참 좋다며, 운동한 셈 치겠다고. 아까만 해도 잔잔히 바람에 날리던 그 풀숲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 난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외투를 집어 들고 나가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거의 뜀박질하듯이 숭덩숭덩 올라갔다. 급한 마음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헉헉거리며 동네를 둘러보았다. 칙칙한 벽돌들 사이로 푸르딩딩한 풀숲, 저기 있다! 어제 혼자만 보았던 그 풀숲이 저 멀리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또 그 풀숲의 아름다운 색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도 잠시, 빨리 엄마를 불러와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또 집으로 급하게 내려갔다. 쌀을 씻고 있던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에 묻은 쌀알들을 채 떨어트리지도 못하고 나에게 끌려 다시 꼭대기로 올라왔다.

“엄마, 저기 봐봐.”
“잉? 그 담벼락 보라고 온겨? 어젠 없었잖여.”
“그래서 내가 아까 올라왔는데, 있었어. 있어. 저쪽쯤에 봐봐.”

아까 봤던 기억을 살려내서 이쯤일 거라고 대충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런데 이게 웬걸. 풀숲은 또다시 종적을 감췄다. 하늘의 장난인건가. 허탈한 마음에 불안하기까지 했다.

“아니, 지금 뭐하는겨? 지금 쌀 씻다가 손도 못 털고 나왔구먼!”
“엄마, 그게.. 아 진짜 방금 내가 올라와서 풀숲 있는 걸 봤다니깐? 근데 엄마를 데려오면 없어지네.”
“이 자슥이 지금 엄마랑 장난치자는 거여 뭣이여? 집어치고 빨랑 가.”

너무나 무안해졌다. 정말 손도 못 털고 쌀알이 텁텁하게 묻어있는 손을 보니 미안해지기도 했다. 자꾸 사라지는 풀숲이 이상하다. 정녕 내가 헛것을 보는 것인가.

며칠이 지난 지금 난 계속 위로 올라가 풀숲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저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찾아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다 풀숲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젠 풀숲을 보러 찾아가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렸다. 풀숲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위쪽 언덕에 올라가 가만히 앉아있노라면 바람도 솔솔 불어 지친 몸에 힘을 불어주고 갔다. 안식처와 같은 느낌에 항상 풀숲을 찾아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풀숲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구를 데려오기라도 한다면 언제 있었냐는 듯 흔적을 감추어 버렸다. 엄마에겐 끝내 풀숲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위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곁을 지나갈 때면 풀숲을 응시하는 나를 허공에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바라보곤 했다.

그들 눈에도 풀숲이 보이지 않는 것이리라. 왜 그런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처음엔 정말 내가 귀신에 홀린 것인가 생각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젠 그냥 그런가보다 싶다. 무뎌진 것일까. 풀숲은 나만이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에 대한 만족감도 점점 느껴가는 것 같았다. 남들은 그 풀숲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내가 풀숲의 주인인 것처럼 소유욕이 들기도 했다. 나만의 것이라는 느낌이랄까. 풀숲에 가까이 가보려고도 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사이에서 그 푸른 벽을 찾아 몇 걸음 내려가 봤다. 하지만 풀숲은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인지 가까이 가려 해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골목 사이로 들어갈수록 길만 잃어버리는 듯했고 항상 그 위쪽 정상에 올라가서야만 저 멀리 푸른 녹색이 보일 뿐이었다. 풀숲은 나를 애타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풀숲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풀숲을 바라보는 게 내 일이 되었고 이젠 내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오늘도 풀숲을 보러 올라갔다. 엄마도 이젠 더 이상 풀숲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아침마다 나가는 나를 단지 운동하러 간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풀숲을 보러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여전히 오늘도 풀숲은 푸르렀다. 새빨갛고, 푸르딩딩하고, 곧게 뻗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풀숲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쳐다봤다. 이젠 풀숲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풍성한 잎덩어리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점점 커졌다. 아니, 커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다. 당황스러움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풀숲은 정말로 나에게 오고 있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이건 또 뭔 일인가 싶어 집으로 달음박질했다.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마저도 내 키만 한 풀잎덩어리가 날 따라왔고, 우리 집 현관까지 날 쫓아왔다.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뛰면 뛸수록 나에게 가까워졌고 내가 걸음을 멈추면 풀잎덩어리도 다가오기를 멈췄다. 멀리서 가까워지는 것만 같더니 이젠 나와 거리가 3m도 채 되지 않았다.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풀숲은 더 이상 날 따라오지 않았다. 내가 대문 안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풀숲은 문 밖에서 꼼짝을 않았다. 한참을 가만히 있던 풀숲은 대문을 넘어와 우리 집 담벼락 안쪽의 구석에 가더니 원래 심어져 있는 나무처럼 서 있었다. 희한하게도 풀숲이 날 따라왔음에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 풀숲을 보기 위해 동네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작은 기쁨을 느꼈달까. 이젠 아침에 일어나서 마루에 나가면 바로 풀숲을 볼 수 있을 거다.밥 먹으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풀숲을 볼 수 있다. 마당에 바로 초록색 잎덩어리가 떡하니 서 있는데도 엄마와 아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정말로 이 풀숲은 나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괜한 희열을 느꼈다.

풀숲이 우리 집 마당에 위치한 이후로부터 난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일을 하러 나가지

도 않았다. 어차피 다 쓰러져가는 집과 받으나마나한 쥐꼬리 같은 막노동 일당. 그저 풀숲을 쳐다보는 데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배가 고픈 줄도 몰랐다. 내가 일을 그만두자 엄마는 집에서 간단한 부업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막노동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엄마와의 거리가 자연스레 멀어졌다. 엄마는 일도 안하고 하루 종일 풀숲만 쳐다보고 있는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물론 엄마에겐 그저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는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다. 내게는 풀숲이 유일한 낙이고, 전부다. 풀숲에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나는 풀숲과 사랑이라도 하는 걸까.

신기하게도 풀숲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일이 거의 줄어들게 되었다. 아빠는 여전히 술을 먹고 들어오긴 했지만 엄마를 때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저녁밥도 3인분을 하게 되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가정이었지만 난 그 속에 어울리지 못했다. 내 감정의 좋고 싫음은 풀숲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었다. 바람에 이파리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안정됨을 느꼈다. 저절로 행복한 미소가 지어졌다. 반면 한창 풀숲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엄마나 아빠가 멍하니 뭐하는 거냐며 생산적인 일을 좀 해보라고 질타를 날릴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예외 없이 항상 짜증이 났다. 풀숲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다. 풀숲이 나를 지배라도 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나는 점점 풀숲에게 물들어만 갔다.

참 예쁘기도 하다. 초록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풀숲을 보고서야 알았다. 하나, 둘. 풀숲에 달린 꽃이 몇 개인지 세 보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다.

"뭐?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 이 여자-? 옛날 버릇 나오시네 그려. 왜 또 집안 물건 다 쓸고 그러지 왜?"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차차 언성이 높아졌고, 곧 아빠는 엄마에게 또 손찌검을 하려는 모양이었다. 요즘 들어 작은 싸움이 자주 있다 싶었다.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그 성격이 어디 가나 했다. 아빠를 말려볼까 하는 생각에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풀숲이 내 시선을 놓아주질 않았다. 두 귀로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데, 몸이 뜻대로 움직이질 않았다.

"....이리 와."

식기가 떨어지는 소리, 엄마의 흐느낌 소리 사이로 목소리 하나가 비집고 들어왔다. 소년의 미성이었다. 방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며 풀숲과 땅바닥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찰나에 들려온 미성에 고개를 들었다. 엄마와 아빠는 방에 있고 내 앞엔 풀숲이 있다. 대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

다시금 미성이 들렸다. 소리의 방향도 알 수 없었다. 내 머리 위에서 말하는 듯했다. 분명 뒤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덕에 높아져만 가는 언성이 시끄럽게 방해했지만 말이다.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미성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발음이 정확하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내게 말하고 있었고 의미 또한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내 안으로."

풀숲이다. 풀숲이다! 확실히 풀숲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소년의 미성은 풀숲의 것이었다. 목소리가 풀숲의 말이었다는 것에 확신이 들자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풀숲을 만지고 싶었다. 그 미성을 좀더 가까이서 듣고 싶었다. 하지만 갑자기 병에라도 걸린 듯 다리가 천 근 만 근 무거웠다.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무척이나 버거웠다. 발에 모래주머니를 세 개씩 달은 듯이, 땅이 내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듯이. 솔솔 불던 바람까지도 날날려버리기라도 하듯이 세차졌다. 갈수록 걷기가 어려워지자 풀숲을 향한 욕구는 하늘을 치솟았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때 더 하고 싶어지는 사람의 원초적인 심리인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풀숲에 닿고 싶었다. 마루에서부터 풀숲까지의 거리는 다섯 발자국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거리를 힘겹게 지나오고 드디어 풀숲 앞에 딱 섰다. 발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바람도 멈췄다. 시공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풀숲 앞에 섰다. 한참을 망설였다. 언제나 바라만 보던 풀숲. 여전히 싱그러운 초록색과 새빨간 색이 참 예쁘다. 잎사귀 끝에 오른손이 닿았다. 그러자 모든 환상이 깨지고 말았다. 여느 풀잎들과 다를 게 없었다. 싱그러운 초록색과 빨간 꽃, 매끈한 잎들과 줄기. 손이 닿자마자 모든 게 특별해보이지 않았다. 푸르렀던 그 잎들이 이젠 그저 벽을 타고 자라나는 넝쿨에 불과했다. 내가 왜 이 풀떼기들을 그토록 좋아했는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풀숲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난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미친 거였구나. 내가 정말이 풀숲에 미쳤구나. 풀숲이 나에게 주문을 걸었구나.

"...이리 들어와."

풀숲의 미성은 자꾸만 자신에게로 들어오라며 나에게 목소리를 보냈다. 이제 풀숲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몸이 따라 갔다. 보잘 것 없는 풀떼기가 자꾸만 나를 끌어 들였다. 여태까지 내가 정말 미쳤던 것에 불과했구나, 하고 자꾸만 떠올랐음에도 풀숲과 계속 가까워져만 갔다.

이젠 잎사귀가 볼에 닿을 정도로 붙게 되었다.
갑자기 쑤욱-하는 느낌과 함께 풀숲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풀숲이 나를 집어삼켰다.
이리 오라던 그 미성처럼 정말 풀숲 안에 내가 들어갔다.
난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풀숲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난 풀숲 안에서 풀숲을 가꾼다. 우리 집 담벼락은 풀숲으로 뒤덮였다.

저 멀리 누군가 이 풀숲을 본다.
난 풀숲에게 먹혔다.

“아들? 어디 갔니?”

향기

20141138 한 가 희

“내일까지 여기 있는 다섯 문제 풀어서 선생님 책상에 갖다놔. 남은 시간은 자습-.”

절반의 아이들이 책상으로 쓰러지고 몇몇의 아이들이 소곤소곤 떠들기 시작한다. 그들을 제외한 아이들은 미동 없이 문제를 풀고 있다. 창밖은 아직 이른 저녁 시간임에도 어두컴컴해져 있었다. 옅은 먹물을 풀어놓은 도시는 알록달록한 빛이 떠오르고 있다. 하루 종일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더니 결국 구름만 잔뜩 끼어있다 마는구나. 답답했다. 차라리 눈이 내리지.

“애들아. 계단에 눈이 얼었으니까 야자 끝나고 갈 때 조심해서가.”

“……”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문제를 풀던 한 아이만이 메마른 눈으로 잠시 동안 빤히 쳐다보다 말 뿐이었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은 점점 반응이 없어졌다. 필요할 때만 찾을 뿐 선생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전해온다.

「장선생님. 제가 오늘 중요한 가족일이 있어서 야자감독을 못할 거 같아요.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축제관련 업무... 장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미안해요.」

이게 벌써 몇 번째지? 새 학기 들어 벌써 네 번째다. 김선생의 가족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 건지. 게다가 다음 주까지인 업무를 굳이 맡아달라는 건 무슨 심보일까. 이 학교에서 지낸지 어언 5년째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막내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겠는가. 학교에 온지 5년 밖에 안 된 기간제 교사는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하지만 오늘은 예외다.

「죄송해요. 저도 오늘 고향에 내려가야 해서요. 업무는 당일 점심까지 마쳐놓겠습니다.」

틱틱. 휴대폰을 누르는 손끝이 차갑다. 아무감각도 없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하고 있으려니 새삼 내가 누군가와 대화 하고 있는 게 맞나 란 엉뚱한 의문이 생긴다. 혹시 휴대폰 스스로 문자를 보내고 답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우린 기계와 대화 하고 있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을 질책하듯 수업종이 울린다.

교무실에서 가방을 챙기는데 성선생이 조용히 다가왔다. 성선생은 항상 밝은 얼굴이었다. 항상 일에 치이고 선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치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장선생님……. 혹시 장선생님도 아직 학교에서 재계약 소식 못 들으셨나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저는 며칠 전에 계약서를 받았는데……. 아직 못 받으셨나요?”

“네……. 저는 아직……. 받으셨구나……. 대답 감사해요!”

성선생은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기간제 선생들은 서로에게 재계약 요청을 받았는지를 물어왔고,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학교를 떠났다. 안색이 창백해진 채 웃던 성선생은 고맙단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했다.

차가운 밤이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의 공기는 시릴 만큼 맑았다. 고향에 가기 전 집에서 한숨 붙이려했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겨우 잠을 청해 잠시 눈을 붙이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왔다. 오랜만에 들어선 내 방은 조금 곰팡이가 쓸 긴 했지만 여전히 포근하고 아늑했다. 어린 날의 모든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보수공사로 조금 씩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낡은 가구며, 책상구조, 어머니 몰래 벽지를 뜯고 그렸던 낙서까지도 그대로이다. 새벽 4시, 조금이나마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성선생의 표정이 자꾸 마음을 무겁게 했다. 매년마다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할까. 왜 이래야만 할까.

메아리 같은 질문은 가슴을 치며 공허이 울려 퍼진다. 갑갑한 마음에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캔 맥주 두 캔을 꺼냈다. 살짝 흔들어서 따니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온다. 그러고 보니 라디오에서 내일 안개가 심할 꺼라 했는데. 이삿짐 옮길 일이 걱정이었다. 오밀조밀한 거품은 캔 맥주의 좁은 주둥이 틈을 비집으며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치이-. 자그맣게 소리 내는 그것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사는 게 좋은 기라.”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거 같아. 월급 나오지. 사회에서 인정받지. 정년도 63세까지 하는 직업이 또 어딨어. 너도 임용고시만 통과하면 이제 걱정 없잖아. 부러운 자식……”

“…아이들 곁에서 어울리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선생님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 선생이 되고 싶었던 걸까. 그건 알 수 없었다.

“이 천이면 돼.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게 왜 갑자기 이사장이 바뀌어서는. 그래도 5년 동안 있었는데 아깝지 않아? 임용은 힘든 거 해봐서 알잖아…….”

“…새로운 학교를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발전기금은 학교 내 재단과 상의 하에…….”

타닥타닥. 거품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말소리도 점점 더해지더니 이내 사람들은 고막을 찢을 듯이 서로에게 목청이 터져라 소리치고 있었다. 그 엄청난 소리에 머리가 아파왔다.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던 거품은 울려대는 소음 속에서 음흉하게 기어 나와 방을 뒤덮었다. 짙은 안개였다. 숨 막히는 안개 속에서도 소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한 아이의 메마른 눈빛이 보였다. 또 그 너머로 성선생이 그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웃고 있었다. 그래, 나도 안개 속에 있을 뿐이었다. 모두가 소리치는 이곳을 나는 헤매거나 주저앉으면 되는 것이다. 갑자기 온 몸을 짓누르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늦장을 부리며 일어나 아침을 먹고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 버릴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짐을 싸고 보니 꽤 많은 짐이었다. 짐을 트럭에 실어올리고 가구들은 처분하기로 했다. 낡아서 고물장수가 과연 사주기나 할까 걱정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꽤 오래되 보이는 데 모양도 많이 안변하고, 좋은 나무로 만들어졌나 봐요.”

책상을 들어내고 장롱을 옮기려 애쓰며 고물장수가 말했다.

“제가 태어나기 좀 전에 산 장롱이라던데, 세월에 비하면 잘 버텨줬죠.”

반대편에서 끙-. 장롱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장롱을 트럭에 실어놓고 의자에 앉았다. 오랜만에 힘을 써서 인지 꽤나 힘에 부쳤다.

“아드님, 이거 아드님 꺼 아니에요? 꼭 버섯같이 생긴 게 뭔지 모르겠는데 장롱 뒤에 있

었나 봐요. 무슨 장난감 같기도 하고…….”

다시 방에 들어갔던 고물장수가 나무덩어리를 건네며 말했다. 뭔가 싶어 살펴보니 과연 주먹크기보다 약간 작은 버섯모양의 나무 덩어리였다. 이것도 꽤 오래되 보이는 데 하얗고 보드라운 게 감촉이 좋았다.

“아! 이건!”

잊고 있던 그리움이 번뜩, 가슴 저릿하게 떠올랐다. 이건 버섯모양의 나무 덩어리가 아니었다. 소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배였다. 10살 때였나? 그때 만들어진 거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된 목각품이었다.

20년 전, 우리 마을엔 총각 아저씨가 살았다. 당시 30대 초반. 지금이야 한창 사회 생활할 나이지만 당시엔 노총각이었다. 어머니는 젊은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시골에까지 와서 세 들어 사는 게 무슨 꼬라지냐며 아저씨를 아니꼬워 하셨다. 아저씨한테선 항상 고약한 냄새가 났다. 지금 맡으면 향긋하고 그윽한 향기지만 그때엔 꼭 한약 냄새같이 고약했다. 그건 송진 냄새였다.

아저씨는 마을과 조금 떨어진 도롯가 위에 버티고 선 거대한 바위 옆에서 포장마차를 했다. 사실 나라 땅이라 장사를 하면 안 되지만 동네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면서 눈 감아 주었다. 지금도 시골이지만 당시엔 깡 시골이었다. 일주일에 차 열대가 채 지나갈까 말까한 곳이었지만 제법 맛있는 요리솜씨와 고된 농사일 중 술을 낙으로 삼는 동네 사람들 덕분에 그럭저럭 잘 운영되었다.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서면 음식냄새와 함께 아저씨냄새가 가득했다. 새, 집, 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양들까지 나무를 깎아 만든 목각품이 가득 진열돼있었다. 모두 소나무로 만든 거라고 했다.

“아저씨, 이 고약한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 에요?”

“무슨 냄새? 여기서 나는 냄새?”

아저씨는 옆에 있던 목각품 인형하나를 들어 내 코앞에 갖다 댔다.

“악! 네, 이 냄새요.”

“고약해? 아저씨한테는 좋은 냄새인데. 이건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냄새야. 소나무를 보다 보면 나무껍질 사이로 나오는 끈적끈적한 물 본 적 있지? 그거야. 이제 얼마나 좋은 건지 아직 모르는구나?”

아저씨는 코를 부여잡고 있는 나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무에 송진이 있으면 불 피울 때 오랫동안 잘 타서 군불 땔 때 좋고 이 송진향이 사람들이 괴롭고 지칠 때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대. 목각품으로 만들 때도 송진나무로 만들면 향도 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하얘져서 그 만의 멋이 있지.”

“이 고약한 냄새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고요?”

불편하게 하면 더 불편하게 했지 전혀 평온이란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다.

“너도 자꾸 익숙해지면 이 매력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아저씨와 친해지고 송진향이 익숙해질 무렵 어느 날, 아저씨는 나와 놀아주다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포장마차 한 구석에 있는 골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책상 앞에는 나무 파편과 부스러기가 가득했고 앞에는 그림이 잔뜩 붙어있었다. 옆으로는 이상하게 배배꼬여 있는 나무와 목재들이 쌓여있었다. 아저씨가 설명했다.

“이 이상하게 생긴 게 송진 덩어리야. 소나무 뿌리에 있어서 좀처럼 보기 힘든 건데 이게 송진이 나오는 근원인 거지.”

과연 그것 때문인지 골방은 더 짙은 송진 냄새로 가득했다.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선 책

상에 놓인 목각품 하나를 보여줬다. 이제 막 비상하려 쫙 핀 날개와 가느다랗고 긴 다리. 학이었다. 다만 하얀 학이 아닌 곳곳에 나무무늬가 있고 반질반질 빛나고 있는 학이었다. 다른 곳은 살짝 어두침침하지만, 눈만은 유난히 맑은 송진으로 더 영롱히 빛났고 세심하게 그려 넣은 깃털이 일품이었다.

"지금 만들고 있던 건데 어때?"

"멋져요! 아저씨 진짜 잘 만드는 구나."

아저씨는 또 한 번 밝게 웃어 보였다. 꼭 어린 아이 같은 웃음이었다.

"아저씨. 저……. 그 학 주시면 안돼요?"

"응? 맘에 들어?"

"네, 정말 멋져요."

"음……. 그래, 그럼 가져가."

"와 정말요? 감사해요 아저씨!"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학을 보여드렸다.

"엄마, 이것보세요. 아저씨가 줬어요. 멋지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나를 한 참 바라보시더니 물으셨다.

"포장마차에 갔었어?"

"네, 오다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갔어?"

"포장마차 생기고부터 갔죠. 아저씨가 정말 착해요."

내 말을 듣던 어머니는 갑자기 학을 낚아채고는 터벅터벅 밖으로 나가셨다.

"엄마, 왜 그러세요?"

당황하고 놀란 나는 어머니를 부랴부랴 쫓아가며 말했다. 어머니는 묵묵히 걸어가시더니 아궁이 속으로 학을 집어던졌다.

"엄마!"

나는 아연하게 아궁이 속에서 활활 타는 학을 바라보다가 불쏘시개를 집어 들어 학을 꺼냈다. 아저씨 말대로 송진덩어리여서인지 밖으로 나와서도 학은 붉게 물든 깃털에 신이 나 날아가고 싶은 듯 날개를 퍼덕이며 기세 좋게 타올랐다. 부랴부랴 수돗가에서 물을 구해와 불을 껐지만 이미 학은 만신창이었다. 화가 난 나는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맨날 포장마차에 갔니? 엄마, 아빠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어? 오늘부터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알았어? 그리고 다신 포장마차에 가지마."

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화내시는 건 처음이었다.

"대학까지 나와서 저 꼬라지인 걸 보면 모르니? 팔에 흉터도 그렇고. 가까이해서 좋을 게 못 되는 사람이야."

팔에 흉터? 아저씨 팔에 흉터가 있었나? 그리고 아저씨가 대체 뭐하던 사람이길래 엄마가 저렇게 화내시는 걸까. 새까매진 학을 바라봤다. 가느다란 다리는 아궁이에서 빠져나올 때 부러지고 영롱했던 눈도 검게 타버렸다. 형체만 남은 학을 가져가 마당 담 밑에 묻었다. 화가 났다. 아저씨가 무얼 했든 간에 아저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서러워진 나는 포장마차로 달려갔다.

"아저씨!"

"응, 진우 왔구나. 어? 손이 왜 그래?"

학을 묻느라 묻은 흙과 시꺼먼 그을음이 손에 범벅되어있었다.
“아저씨…….”
나는 어머니가 내가 여기저기 허락 없이 돌아다닌 거에 화나셔서 운이 좋지 않게 학을 태우게 됐다고 말했다. 아저씨한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었다. 아저씨는 속상해하는 나를 다독여 주었다.
“어머니께서 많이 화나셨나보다. 너무 속상해하지마. 어머니는 네가 걱정 돼서 그러신 걸 거야. 다음부턴 안 그러면 되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를 보며 아저씨가 말했다.
“기분도 우울한테 맛있는 거 먹을까?”
아저씨는 주방에서 금세 떡볶이를 만들어주었다.
“와, 역시 아저씨 음식은 맛있어요.”
“그치? 내가 좀 한 요리하잖아.”
접시에 떡볶이를 더 담아오며 아저씨가 말했다.
“진우야, 오늘 네가 직접 목각품 만들어볼래?”
“우와, 그래도 돼요?”
“응, 어렵지 않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아저씨는 작업실에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와 놓고 벽돌만한 소나무 덩어리를 가져왔다.
“칼이 위험하니까 조심해. 뭘 만들까?”
“학은 이미 타버렸고…… 배요! 배 만들고 싶어요.”
“배? 배는 왜?”
“나중에 커서 커다란 배를 조종할 거 에요.”
“꿈이 마도로스구나. 멋지다!”
“마도... 마라도스?”
“마도로스.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마도로스라고 해. 선장도 거기에 포함되고.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바다도 좋고. 학교에서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사람을 보여줬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바다는 남자의 로망이지. 짜식 뭘 좀 아는구나. 자, 여기다 나중에 타게 될 배를 그려봐.”
나는 종이에다가 큰 배 모양을 그리고 선미와 중앙부를 그려나갔다. 언젠가 내 손으로 꼭 움직이고 싶은 배였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위로 커다란 배를 움직이며 세계를 항해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짜식, 그림도 잘 그리네. 큰 덩어리는 잘라내기 힘드니까 모양은 아저씨가 잡아줄게.”
아저씨는 팔을 걷어 올리고 나무 덩어리를 뭉텅뭉텅 잘라내기 시작했다. 한 덩어리씩 깎일 때마다 송진향이 그윽하게 풍겨왔다. 노련한 손놀림이었다. 대강대강 깎는 것 같은데 점점 배 모양이 나타나고 있었다.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움직이는 팔에 큰 흉터가 보였다. 기다란 모양의 징그러운 흉터였다. 흉터는 걷어 올린 소매 위까지 이어져 있는 듯했다. 이 흉터가 어머니가 말한 그 흉터 같았다.
“아저씨, 팔에 이 흉터는 어디서 다친 거 에요?”
“응? 아, 이거? 학교 다닐 때 좀 다쳤어.”
“좀이 아닌데…… 크게 넘어졌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 다 됐다. 봐봐.”

아저씨는 나무 덩어리를 보였다. 아직 둥글둥글 하지만 분명 배였다.

“오, 배 같아요.”

“이제 네가 잘 더 다듬어봐.”

조각칼을 잡고 배 윗부분부터 다듬기 시작했다. 처음 해보는 목공예였다. 조심조심 신중하게 나무를 깎아나갔지만 힘을 너무 주는 바람에 그만 엇나가고 말았다.

“어!”

“에고, 힘을 너무 줬구먼. 힘을 살짝 빼고 살살 밀어내는 느낌으로 깎아야 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저씨가 말했다.

“이미 파였는데 어떡해요?”

내가 불안하게 말했다.

“이리 줘봐. 다시 형태 잡아서 하면 되지.”

아저씨는 웃으며 말하고는 다시 모양을 잡아서 내게 주었다. 그렇게 엇나가기와 모양 잡기를 수차례 반복한 끝에 겨우 배를 완성했다. 계속 엇나가는 바람에 벽돌만 했던 나무 덩어리는 아저씨 주먹크기보다 약간 작은 배가 되었다. 그나마도 여기저기 파이고 선도 삐뚤빼뚤해서 모양만 배이지 다른 사람이 보면 뭔지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았다.

“멋진 배를 만들고 싶었는데…….”

“하하, 그러게 이건 좀 심하다.” 아저씨는 또 아이처럼 웃으며 말했다.

“농담이고, 정말 잘 만들었어. 지금 너한테는 멋진 것보다는 서투른 게 어울려. 그게 정말 멋진 거야.”

날이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또 어머니께 빼앗길까 싶어 배를 천에 둘둘 말아서 꼭 구슬을 담은 것 마냥 들고 집에 들어갔다.

“어디 갔다 와? 또 포장마차 갔던 건 아니지?”

그렇게 혼나고 말도 없이 나가버려서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만 물어보실 뿐 더 말씀이 없으셨다. 짐짓 아까 크게 혼냈던 게 미안한 눈치셨다.

“밖에서 애들하고 구슬치기하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근데 어디서 송진향이 나네. 너 어디서 놀다 왔길래 옷도 다 버리고…….”

어머니의 말에 옷을 보니 곳곳에 송진이 묻어있었다.

“아. 저 뒤에 소나무 숲에서 놀았어요. 금방 갈아입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다. 배를 숨겨놓아야 하는데 어디에 두든 어머니가 찾아내실 것 같았다. 한참동안 방 곳곳을 뒤지다가 딱 정당한 곳을 찾았다. 바로 장롱 뒤 틈새였다. 내 손이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만한 틈새였지만 장롱을 놓을 때 벽에 부딪쳤는지 시멘트벽이 살짝 깨져있는 곳이었다. 그걸 좀 더 긁어내면 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쇠숟가락으로 깨진 벽을 긁어보았다. 다행히 쉽게 긁어졌다. 한참을 긁어내고 낑낑거리며 배를 넣어보았다. 딱 들어맞았다. 그리고 나서도 어머니가 절대 찾을 수 없도록 그 틈을 헌 옷가지로 채워 넣었다. 문제는 향이었다. 배는 완벽히 숨겼지만 향은 계속 날 터였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소나무 숲에서 작은 컵에 송진을 가득 담아왔다.

“그건 어따 쓸려고?”

마늘을 빻고 있던 어머니가 궁금해 하셨다.

“향이 좋아서요. 방 안에 두면 방 냄새도 안 나고 좋잖아요.”

“난 어릴 때 저 냄새가 싫었는데 특이한 녀석이네.”

출출하다며 참을 드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내가 만든 배는 무사히 간직할 수 있었다. 포장마차도 처음 며칠간은 못 갔지만 어머니가 일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포장마차에 들르곤 했다. 포장마차에서도 자유롭게 있을 순 없어서 골방에만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을 통해 내가 포장마차에 간다는 걸 어머니가 아실 터였기 때문이다. 들어올 때도 뒷문으로 들어와 부엌 밑으로 숨어서 쪼르르 달려가고 골방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나를 의아해하는 아저씨한테는 또 여기저기 다닌다고 혼날까봐서 그런다고 둘러대었다. 그렇게 매일 같이 골방에 있으면서 아저씨가 바쁠 때에는 숙제나 공부를 하고 한가한 날에는 함께 놀거나 아저씨가 공부를 알려주면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골방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밖이 조용한 걸 보니 손님이 없는 듯했다. 아저씨는 뭐하고 있나싶어 나오는데 정장차림의 사내가 보였다. 놀란 나는 급히 부엌으로 몸을 숨기고 사내를 지켜봤다. 처음 보는 사내였다. 우리 동네 사람인가? 궁금해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아저씨가 들어왔다. 둘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전 옛 인연으로 봐 드렸지만 이번에 새로 오는 면장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군수 바뀌고 도시 미관사업 추진한다고 혈안이에요. 이제 그만 여기 정리하시고 다른 일 알아보세요.”

아저씨는 말없이 앉아있었다. 정장 입은 남자는 안쓰럽다는 눈으로 다시 아저씨에게 말했다. “물론 예전 일로 도시로 가긴 힘드신 건 알지만 이제는 떠나야 해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있을 때까진 있어 보려고요. 이렇게 정감 있는 동네는 흔치 않아요.”

진지한 표정의 정장의 남자와 달리 아저씨는 빙긋이 웃음 지었다.

“대학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네요. 그때 운동만 아니었다면…….”

정장의 사내는 빙긋이 웃고 있는 아저씨를 보기가 더 힘든 기색이었다.

“괜찮아요. 전 그때 일 후회하지 않아요. 남산까지 갔다가도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걸요. 전 앞으로도 제 뜻대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든 표정 짓지 마세요.”

여전히 미소 짓는 아저씨와 달리 사내의 얼굴은 더욱 찡그려졌다가 펴졌다.

“네,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선배 같은 분이 있어서 저희도 힘이 나는 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렇게 사내는 포장마차를 나갔다. 그 후 아저씨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골방으로 가려는 것 같았다. 나는 다급하게 몸을 숨기며 골방 책상으로 돌아왔다. 곧 아저씨가 들어왔다.

“뭐하고 있었어?”

“숙제하는 데 수학문제가 잘 안 풀려요.”

“줘봐. 아저씨가 풀어줄게.”

공책을 받은 아저씨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갔다. 아저씨가 떠나야 한다니. 갑자기 서글펐다. 아저씨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어머니도, 아까 그 사내도 왜 아저씨를 싫어하고 괴롭힐까.

“아저씨, 아저씨는 다른 데로 안 갈 거죠?”

나는 아저씨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혹시라도 간다고 할까 봐 무서웠다.
“음,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럼, 나중에는 갈 거 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갑자기 덜컥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가지 마요.”
“응? 뭐라고?”
다시 집중해서 문제를 풀던 아저씨가 되물었다.
“가지 말라고요!”
꾹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갑작스러운 울음에 놀란 아저씨는 당황해 했다.
“왜 그래 진우야. 아저씨 안가. 이렇게 내 친구 해주는 너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친절한데 어딜 가. 농담이었어. 아저씨 어디 안가.”
“진짜죠? 가면 안돼요.”
“그래, 안 가.”
아저씨는 훌쩍이는 나를 토닥이며 말했다. 고개를 들어 아저씨를 봤을 때 나는 늘 그렇듯이 아저씨가 웃어주길 바랐지만 아저씨는 어딘지 괴로운 표정이었다.
일주일 뒤, 학교를 마치고 포장마차에 오니 손님이 없는 듯 조용했다. 안심하고 앞문을 열었는데 포장마차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식탁은 모두 널브러져 있고 진열했던 목각품들이 음식과 깨진 접시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포장마차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하나도 부러져 포장마차 한 편이 무너져있었다. 깨진 접시와 유리를 치우던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에게 맞았는지 입이 부어오르고 뺨에 상처가 있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놀란 나는 아저씨에게 달려갔다.
“무슨 일이에요?”
“아……. 내가 음식을 들고 밖에 나가다가 가스 불 잠근 걸 깜박해서 달려 들어오는데 저기에 걸려 넘어졌어. 하필 저 기둥에 부딪쳐서 기둥도 부러지고, 기둥이 부러지면서 저 꼴이 됐지.”
아저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지만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다.
“거짓말 마요. 저도 눈치가 있지. 그때 그 정장 입은 남자가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죠?”
“정장? 아, 그 사람을 봤어?”
“그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왜 그 사람은 아저씨를 괴롭히는 거 에요? 경찰에 신고해요. 아저씨.”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아저씨 후배야.”
“후배인데 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오늘 손님하고 좀 다툼이 있었어. 지나가던 손님인데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맛이 없다고 다 환불해 달라 길래 나도 화가 났지. 아저씨도 화낼 땐 무섭다구.”
아저씨는 으르렁거리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런 아저씨의 말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은 떨쳐지지 않았다. 아저씨를 도와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져 부러진 목각품들을 고치고 나니 어느 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늦었다. 어서 집에 가봐. 도와줘서 고마워.”

“네, 내일 또 올게요. 상처에 꼭 약 발라요.”

“아,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포장마차 휴업하려고. 와도 나는 없을 거야. 새로 놓을 기둥도 사야하고 사는 김에 식탁이랑 진열대도 바꾸고 밀린 집안일도 하려고.”

“일주일이나? 하는 수 없죠. 푹 쉬고 얼른 나아요. 다음 주에 봐요!”

“그래, 잘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로부터 4일째 되던 날, 학교가 끝날 때쯤 되니 아저씨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매일 가다가 안 가려니 계속 허전한 기분이었다. ‘학교 끝나고 한 번 들려볼까…….’ 멍하니 연필을 끄적이는데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우리 마을 쪽이었다. 불안했다. 혹시 우리 집은 아니겠지. 우리 동네에 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창문에 매달려 혹시 자기네 집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다. 종례가 끝나고 걱정되는 마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동네에 가까이 들어서니 불은 우리 집 쪽이 아니었다. 연기는 포장마차가 있는 쪽에서 치솟고 있었다. 설마. 다급하게 포장마차에 가니 우려하던 일은 현실이었다.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타고 있었다. 소방차가 물을 뿌려대는데도 잘 꺼지지 않았다.

“거 쪼만한 게 되게 안 꺼지네!”

호스를 잡고 있는 소방관 아저씨가 외쳤다. 주위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혹시나 아저씨가 있을까 살펴보니 사람들 뒤편에서 포장마차가 불타오르는 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보는 아저씨가 보였다.

“아저씨.”

아저씨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한참 만에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갔다. 포장마차는 재만 남은 채 작은 연기만 폴폴 풍겨냈다. 그때까지도 멍하니 지켜보던 아저씨는 한숨을 푹 쉬었다.

“아저씨, 어쩌다 불이 난 거에요?”

걱정스럽게 물었다.

“포장마차에 새로 기둥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게 보였어. 돌아 와보니 이미 활활 타고 있더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포장마차는 아저씨의 전부였다. 전부를 잃은 아저씨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다. 아저씨는 막대를 들고 잿더미를 뒤져보더니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멋쩍게 웃으면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웃다니. 지금 이 상황에도 웃음이 나올까.

“아저씨, 이제 어떡해요?”

“글쎄, 이제 아무래도 다시 포장마차 하긴 힘들 것 같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그러고는 말했다.

“그래도 그 조그만 포장마차가 이리 오래도 탔네. 목각품들 때문 인가봐. 송진이 정말 끈질기게 타긴 한다. 그치?”

며칠 뒤, 아저씨는 떠난다고 했다. 안 간다고 했던 말을 못 지켜서 미안한 기색이었다.

“어디로 가요?”

“소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조각을 하려면 소나무가 필요하니까.”

“목각품 계속 만들려고요?”

“그럼, 이건 내 꿈인걸. 계속 하면서 조금씩 돈도 모으고 나중에 독일로 유학 가려고.”

어린 내가 보기에도 아저씨의 앞날이 아득해 보였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학 갔다가 네가 모는 여객선 타러 올게. 꼭 마도로스가 되어있어야 해. 그러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나중에 아저씨 세계여행 시켜 줄 거지?”

“물론이죠! 걱정 말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배를 몰고 있을 테니까.”

자신 있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내 머리를 헝클어트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와락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웃어 보였다. 아저씨도 웃었지만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갈게. 잘 지내고.”

“네, 꼭 배 타러 와요!”

“그래.”

아저씨는 점점 멀어져 갔다. 눈물이 고여 뒷모습이 흐릿했다. 눈물을 닦고 나니 아저씨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끝까지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그렇게 그곳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을 울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20년이 흘렀다. 나는 정말로 커다란 배의 선장이 되려했다. 꼭 되고 싶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하고 틈날 때마다 배에 관한 책을 찾아 읽으며 타고 싶은 배를 그렸다. 그런데 왜였을까. 난 어느 순간부터 꿈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부모님께서는 편한 일도 있는데 굳이 위험한 일을 하려하냐며 반대하셨지만 결국 내가 택할 길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 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좁은지, 결코 살기 쉽지 않다는 말을 선생님들에게 진절머리가 나도록 들으며 입시를 치르고 사회란 경계에서 현실과 마주했을 때, 나는 바다로 나가지 못했다. 비글해협을 지나 아르헨티나 주변을 항해하던 내 배는 배가 뜨기도 전부터 쌓여 온 집안의 빚과 안정된 미래란 커다란 암초에 걸려 침몰한지 오래였다. 그 후,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잠깐 집에 내려와 있을 때, 아버지는 넌지시 물으셨다.

“아직도 바다에 가고 싶나?”

“아니요. 이젠 그냥 어린 날의 꿈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바다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뛰었다.

“그래,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받고 걱정 없이 사는 게 좋은 기라.”

그렇게 멀어진 꿈과 함께 아저씨와의 기억도 잊혀 갔었나 보다. 지금 아저씨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정말로 여객선을 타러 왔었을까? 어쩌면 내 이름이 걸린 여객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얗게 변해버린 작은 배를 쥐고 있으니 가슴이 저려왔다.

현실이란 이름 아래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지금의 내 모습이 그 시절의 나와 아저씨가 바라던 모습이었나. 멀리서 아저씨를 떠나보내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진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했을까. 왜 두려워하기만 했을까.

배를 쥔 손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왔다. 그 시절 아저씨와 함께 배를 만들던 생각을 하니 두근두근. 다시금 가슴이 뛰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하얗게 바랜 배에서 그리운 향이 풍겨왔다. 송진향이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난 목각품에 향기가 남아 있을 리는 없을 일이었다. 하지만 송진의 진한 향기는 뚜렷하고도 분명하게, 코끝에 그윽이 풍겨왔다.

피어오르다

20131105 김 보 미

승완은 불에 타오르는 것 같았다.

열차 안의 쾌적한 기운은 역전으로 나오자마자 바람에 날리듯 사라졌다. 어디선가 날아온 연기가 눈앞을 가리기라도 한 것인가. 볕에 달궈진 공기가 불타오르듯이 아른거리며 눈을 피곤하게 했다. 뉴스에서 떠들어대던 한낮기온 38도가 이렇게 숨 막힐 더위 일 줄은 몰랐다. 그늘에 있으나 마나, 더 이상 밖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역전앞에는 택시 세 대가 대기 중이었다. 불쾌함으로 얼룩진 몸을 가장 앞에 있던 차에 실었다. 에어컨의 찬 기운에 숨이 트이면서 찌든 담배냄새가 느껴졌지만, 바깥의 찜통에 비하면 아로마였다.

“어디로 가십니까아.”

긁는 듯한 저음의 목소리가 간만에 손님을 맞은 듯 반겨왔다.

“대마리 1구요.”

승완은 13년을 살았던 옛 주소가 새삼스러웠다. 타향살이로 인해 오랫동안 잊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성인가요를 흥얼거렸다. 들숨에 진한 담배향이 배어나왔다. 냄새야 그렇다 치고 듣기 좋은 노래도 아니었다. 승완은 등을 완전히 기대고 잠시간 눈을 감았다 떴다. 룸미러로 기사와 눈이 마주쳤다.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있는 젊은 승객을 힐끔힐끔 보는 기사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차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간혹 있던 낮은 건물들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넓게 펼쳐진 평야는 모두 논지대였다. 저 중에는 할머니가 소작하던 비닐하우스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누가 돌보고 있던 그런 일에는 관심 없는 승완이었지만,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불현듯 떠오르기는 했다. 긴 듯 짧은 듯 곧게 뻗은 1차선 도로의 양 옆으로 메타세콰이어가 펼쳐졌다. 한적한 읍의 도로 위를 달리는 차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명절 때가 아니면 찾는 이가 없는 곳이었다.

“곧 도착 합니다아.”

기사가 말끝을 늘이며 핸들을 꺾었다. 아스팔트에서 벗어나 시멘트 길로 들어서자 차체가 덜컹였다. 기사의 말마따나 곧 마을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기록적인 더위 탓인지 인구가 준 탓인지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택시에서 내리자 매미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야말로 한여름이었다. 승완이 전에 살던 집은 좀 더 들어가야 했으므로 걸음을 재촉했다. 빨리 가봤자 기다리는 이는 없지만 뙤약볕에 시골마을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다.

매미가 시끄럽게 울 뿐, 마을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인지 의심이 갈 만큼 한적했다. 노인들만 사는 곳이라 그런가. 좀 더 걸어가다가 대문이 열려있는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개집이라고 할 수 없는 판자더미 안에서 늘어져있는 개는 이방인에게 눈짓조차 주지 않았다.

승완의 할머니는 살아계실 적 별 일 없으면 이 집 평상에 앉아 다른 할머니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시곤 했다. 할머니를 따라 이곳에 발을 들였던 승완에게 주인 할머니는 여름에는 수박을, 겨울에는 찐 밤을 내주셨다. 자식들을 모두 잃은 탓인지 손주 같은 이웃 소년에게 유난히 친절하셨다.

나와 계시면 인사라도 드릴까 싶었지만 승완은 발길을 돌렸다.

담쟁이 덩쿨을 따라 걸었다. 어느 담벼락 밑의 커다란 호박꽃에는 벌들이 모여들었다. 벽을 허문 흔적이 있는 집터에 누군가가 만든 텃밭이었다.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는 벽에는 수세미도 걸려있었다.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했다. 사람의 손길이 끊긴지 오래된 것이 눈에 훤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들리는 것은 시끄러운 매미소리와 자신의 발자국 소리 뿐이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도착이다. 흙벽을 짚으며 코너를 돌았다. 승완의 눈에 녹색으로 도색한 철문이 들어왔다. 멀리서 봐도 녹슨 자국이 뚜렷했다. 그렇게 서두른 것도 아닌데 이마에 땀이 맺혔다. 손잡이를 당겨보았지만 문은 잠겨있었다. 녹슨 걸쇠는 발로 차면 부숴질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항상 열려있던 문이 열리지 않으니 승완은 어색함을 느꼈다. 벽은 자신의 키보다 조금 낮았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승완은 어깨에 짊어 맨 짐 가방을 바닥에 털썩 내려놓았다. 벽 위에 손을 올린 뒤 발을 차며 뛰어오른 승완은 손쉽게 담을 넘을 수 있었다. 넓은 마당과 집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리모델링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조금씩 고친 흔적이 보였다. 굳게 잠겨진 대문의 자물쇠를 빼냈더니 끼이익, 좋지 않은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문 앞의 짐을 들고 흙먼지를 털어냈다. 승완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집을 바라보았다.

낡은 기와는 얼마나 오랜 세월 비를 맞고 햇볕에 말라갔을까. 할머니의 할머니께서도 이 집에서 자라셨다고 했던가. 처마 밑으로 작은 새집이 있었는데, 여전했다. 하지만 주인 없는 집처럼 이제는 새들도 어디론가 떠나버렸을 것이다. 승완은 마당을 가로질러 미닫이 유리문 앞에 섰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등으로 쳐내며 뻑뻑해서 잘 열리지 않는 유리문을 밀어냈다. 짐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더니 한결 시원했다.

승완은 잠시 그대로 마루에 걸터앉아 마당을 둘러보았다. 대문 옆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 외양간이 있었다. 예전에는 소가 두 마리 있었다. 경운기가 있던 차고지는 텅 비어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재미로 공차기 놀이를 해도 될 만큼 넓은 마당이었다. 몇 없는 화분의 화초는 죽은 상태였다. 쪄 죽을 만큼 내리쬐는 햇볕에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승완은 몸을 일으켰다. 방문은 모두 닫혀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으니 환풍을 했을 리가 없다. 답답한 공기가 폐에 들어차니 절로 미간이 좁혀졌다. 승완은 곧바로 모든 방의 문과 창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방이라고 해봐야 네 개였지만, 그에 비해 집이 넓으니 방들 또한 컸다.

승완은 가장 가까운 방의 미닫이문을 열었다. 키가 지금의 반 만하던 시절, 할머니 곁에서 잠이 들던 꼬마가 여기 있었다. 지금은 그 꼬마도, 할머니도, 없다. 천장에 닿을 듯이 걸려있던 해묵은 결혼식 단체사진이 남아있어 잠시 올려다보았다.

자식들의 결혼사진이었다. 승완은 그 속에서 할머니를 찾아내고는 몸을 돌려 오래된 TV 너머 불투명한 창문을 열었다. 밖으로 우림의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풀들이 보였다. 그 작지 않은 텃밭은 담 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집은 남향의 한 일자 형태였다.

긴 마루 양 끝의 방은 각각 부엌과 손님방이었고, 승완이 있는 안방, 안방과 이어진 차가운 방. 부엌은 화장실과 이어져 있었는데 화장실은 수세식이었고 꽤 넓었으며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다. 그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집 뒤편의 텃밭으로 갈 수 있었다. 집과 담 사이의 작은 통로로 가도 되지만, 어릴 적에는 할머니가 위험하다며 오지 말라고 했기에 승완은 그곳에 자주 가지는 못했다.

승완은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곤함을 느끼고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작게 읊조리면서 눈을 감았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승완이 느낀 감정은 달리 없었다. 서울에서부터 도착하기까지의 6시간 동안 승완은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책을 읽었다.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올 리도 없지만 귀찮아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잠도 오지 않았다. 같은 문장을 네 번째 읽은 것을 눈치 채고 책을 덮었더니 금방 지루해졌다. 옆자리의 승객은 팔짱을 끼고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승완은 커튼을 젖혔다. 새벽에 나온 터라 보지 못했던 태양이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눈이 부셔 가늘게 뜬 승완의 눈에 익숙한 도시가 들어왔다. 그는 곧 익산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반도 안 왔구나. 승완은 다시 커튼을 치고 편한 자세를 취했다. 집에 도착하면 뭐부터 할까. 승완은 생각하는 것이 어려웠다.

전화벨이 울렸다. 이 집에 전화를 걸어 올만한 사람은 없었다. 여론조사인가 싶어 느긋하게 일어나 골골대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벨이 몇 번 울리다가 멈췄다. 그래도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번호나 확인해보자 싶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고 오래된 TV 옆에 먼지 쌓인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역시 먼저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수신 버튼을 눌렀다. 며칠 새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여러 번 걸려 왔었나보다. 공중전화의 번호 같았다. 승완이 그것을 확인한 순간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받아도 될지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조금 기다려봤지만 상대는 말이 없었다.

“여보세요?”

끊으려는 찰나에 수화기 너머로 말소리가 들려왔다.

“너 누구냐?”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남자는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이 곧바로 말했다. 할매 바꿔. 승완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할매 바꾸라고.”

남자는 질문에 대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승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할머니와 아는 사람인가? 승완은 기분이 나빠졌다. 저딴 놈이랑 아는 사이란 말인가? 하지만 승완의 할머니가 이제는 전화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눈치였다. 또다시 전화벨이 신경질적으로 울려댔다. 승완은 수화기를 낚아채듯 귀에 가져다댔다.

“너, 누구냐?”

방금 전보다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승완은 전화선을 끊고 싶어졌다.

“최순래씨 손자 되는 사람인데요. 댁은 누구시죠?”

“좀 아는 사람인데, 할매는?”

반말을 그만둘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다.

“저번 달 초에 장례 마치고 저는 집 정리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작게 욕지거리가 들려왔다.

“볼 일 있으신가요?”

승완은 갑자기 궁금해졌다. 남자가 초조해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집 할매한테 내가 맡긴 게 있는데, 사흘 안에 갈 테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남자가 다급하게 말을 끝내자마자 전화가 끊겼다. 맡긴 것? 승완은 방을 둘러보았다. 옷가지 같은 것은 태웠다고 들었다. 남은 것은 벽에 걸린 액자나 부엌의 식기, 그리고 낡은 가구 정도일 것이다.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어느정도 정리를 마친 승완은 대문 밖으로 나와 위쪽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 아래에 섬진강 줄기가 뱀처럼 휘어져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감에 따라 기온도 조금씩 떨어져 갔다. 승완이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무릎까지 자란 풀들이 다리를 간질였다. 풀벌레 소리도 점차 커져가는 것 같았다.

강은 꽤 깊어보였다. 전에 없던 위험하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본 승완은 강물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둑을 지나 흙길을 따라 일직선으로 산책하듯 걷다보면, 반시간 쯤 뒤에 가을에 하는 축제의 장이 나온다. 그보다 더 가면 도가 바뀐다.

승완은 그 길을 10년 만에 걷고 있었다. 강 건너편 저 멀리서 일가족이 물가에 텐트를 치고 취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널린 게 산이며 계곡이고 강이다. 승완은 어릴 적 질리도록 물놀이를 했었다. 다만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보니 잠시 동안 눈을 뗄 수 없었다.

오두막에 올라가 앉은 승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걸어온 길의 왼쪽은 숲이고 오른쪽은 강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나마 지붕이 보였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저 집은 낡았지만 터는 좋다고 생각했다. 물론 읍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말이다. 승완이 기지개를 펴고 올려다 본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핸드폰 전원을 켰다. 지인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읽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 목록 중간에 어머니가 있었다. 승완은 전화를 다시 걸어봐야 할 지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던져 놓고 밖으로 나갔다. 밤사이에 소나기가 내렸는지 비 냄새가 났다.

마당도 조금 젖어있는 것 같았다. 승완은 기지개를 켜면서 걸어갔다. 몇 분 걸어가면 작은 슈퍼가 있을 것이다. 승완은 딱히 사고 싶은 것은 없었지만 가서 보고 결정할 생각이었다. 작은 구멍가게는 물건이 별로 없었다. 몇 가지 생필품과 간식거리, 담배가 전부였다. 이제 그만 편의점으로 바뀌어도 될 시대였지만 수요가 적으니 될 리가 만무했다. 그렇다고 차도 없는데 읍내까지 가는 건 귀찮았다. 물건을 몇 개 골라 돈을 두고 나왔다. 주인 할머니가 자고 계서서 어쩔 수 없었다.

아이스크림의 포장을 뜯고 입에 넣었더니 혀가 시려왔다. 사실 승완은 고향 집에 그저 들르기만 할 생각이었다. 할머니도 없는데 이런 곳에서 며칠씩이나 묵는 것은 귀찮고 지루하기만 한 일이었다. 어제 통화했던 무례한 남자 때문도 아니었다.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승완은 괜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승완은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논을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건 농부가 아닐까. 멀리서 농기구를 이고 가는 할아버지를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승완은 집에 있는 동안은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올 사람이 없을 뿐더러 일일이 잠그는 것도 귀찮았다. 전에 통화했던 그 남자가 정말 올지도 몰랐지만 올 테면 와봐라 하는 마음이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승완은 고향 집에 온 뒤로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대청소를 했지만 워낙 낡은 집이라서 티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거나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했다. 이제 그만 서울로 올라갈까? 승완의 휴가는 일주일이었다.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달리 할 일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승완은 그저 이곳에서 가만히 누워있을 것 같았다.

누가 그랬더라?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승완은 중얼거렸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귀찮은 일도 질색이었다. 그러나 승완은 텃밭으로 향하는 통로를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었다. 삽과 곡괭이, 호미 같은 농기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어렸을 때도 압력밥솥으로 밥을 해먹었지만 아궁이가 장식은 아니었다. 할머니는 가끔 작물을 삶아주셨고 닭의 목을 비트는 날에는 상에 백숙이 나오기도 했다. 어설픈 비닐 문을 열고 나가자 텃밭이 나왔다. 엉망진창이었다.

서울에 있어서 몰랐지만 아랫지방은 장마로 꽤나 고생한 모양이었다. 난리가 난 풀들을 보고 실감했다. 승완은 삽을 들었다. 이리 눕고 저리 누운 풀들을 뽑아낼 작정이었다. 비가 온 덕에 흙이 물기를 머금어 부드럽게 파낼 수 있었다.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승완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잡초 무더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옆에 쌓아두었다. 풀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커다란 돌 판이 텃밭 주변에 박혀있었다. 승완은 그것을 빼낼지 말지 고민했다. 정리까지 마쳤으니 승완은 무언가를 심고 싶었다. 아무것도 없는 텃밭이 심심해보였다.

녹슨 대문이 끼이익 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다. 승완은 화장실을 통해 방으로 건너갔다. 밖을 내다보니 검은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망설임 없이 집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승완은 직감적으로 저 남자가 며칠 전 통화했던 무례한 목소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화장실로 뛰어갔다. 남자는 어느새 텃밭 앞에 서있었다.

“뭐하시는.”

승완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남자가 승완의 멱살을 잡고 험악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남자는 승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는 비틀하며 몸을 가누려는 승완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다. 승완이 남자를 힘겹게 밀어내고는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옆으로 휘청하던 남자가 무섭게 돌진해오더니 승완의 머리를 벽에 내리쳤다. 승완은 머리에서 느껴지는 둔탁한 고통에 신음을 했다. 시야가 흐려졌고 머리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승완은 핏줄 선 눈으로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는 거칠 것이 없어보였다. 그대로 승완의 머리를 한 번 더 내리쳤다. 승완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남자는 승완에게서 떨어지자마자 텃밭 앞으로 가서 앉았다. 평평하게 생긴 돌 여러 개가 텃밭 주위로 박혀있었으나, 남자는 정확하게 그 중의 하나를 잡아당겨보았다. 단단하게 박혀있었다. 그는 뒤쪽에 있는 삽을 가지고 와 돌 주변의 흙을 파낸 뒤 다시 한 번 그 커다란 돌을 위로 들어올렸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낸 남자가 뒤를 돌아 정신을 잃은 승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으로만 봤던 부모님과 서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승완은 너무나도 어색해서 할머니를 불러와 달라고 떼를 쓰곤 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서울은 승완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고, 할머니 생각은 가끔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승완에게도 방황하는 시기가 찾아왔고, 외박이 잦아졌다. 공부는 뒷전이었다. 승완은 검정고시를 봤고 대학에 합격한 뒤에는 집을 나왔다. 승완은 사람을 사귀는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다. 하지만 가족은 달랐다. 불편했다. 길에서 다섯 살 어린 남동생과 마주치면 동생이 먼저 피했다. 승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집안에서 은근히 겉돌더라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전부라서, 피가 섞였다고 해도 새로운 가족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담배 냄새가 났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승완이 표정을 찡그렸다. 배가 아팠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턱도 얼얼했으며 입 안도 터진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다. 마루 끝에 있는 방이었다.

"일어났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린 승완의 눈에 벽에 기대어 있는 남자가 들어왔다. 방바닥에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었다.

"때려서 미안."

남자는 웃고 있었다.

"너도 나 때렸잖아."

한 마디를 해도 상대방의 화를 돋우는 사람이었다. 승완은 그를 신고할 생각이었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할머니한테 맡긴 게 뭐예요?" 승완이 노려보며 말하자 남자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뭔데요?"

"담배."

승완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고작 담배를 찾으러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패요?"

남자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말했다.

"안 죽인게 다행이지."

승완은 두통이 심해지는 것 같았다.

"맡긴 것 도로 찾았으면 당장 나가요." 남자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경찰 불러요?"

"병원비 줄게. 하루만 신세 좀 지자."

남자는 지갑을 승완에게 던졌다. 가져. 승완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승완은 남자를 믿을 수 없었다. 승완이 보기에 남자는 질이 나빴다. 말을 하는 것은 편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심심하다며 사람 신경을 건드리니 상대를 안 하기도 뭐했다. 결국 승완은 남자에게 차가운 방을 내어줬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렀다. 아마도 겨울에 연탄보일러가 제대로 돌지 않는 방이라 그랬던 것 같다. 승완은 남자를 단호하게 쫓아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내가 미쳤지. 찾으러 왔다는 게 고작. 승완은 남자가 할머니에게 금품이라도 맡긴 줄 알았다.

남자가 한 말을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달리 떠오르는 물건도 없었다. 아니면 맡겼다는 것은 핑계고 다른 것이 목적인가. 승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승완은 차가운 방의 문을 열었다. 연기가 확 느껴졌다. 남자는 바닥에 대 자로 누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냄새가 이상했다. 승완은 남자를 발로 건드렸다.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는데요."

승완은 다짜고짜 질문을 했다.

"그냥. 길가다 봤는데 착했거든."

남자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이거 냄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승완의 말에 남자가 영차 하며 일어났다. 남자는 웃고 있었다. 남자가 자신이 피우던 것을 승완에게 건네며 말했다. 너도 해봐. 승완의 표정이 찌푸려졌다. 싫어요. 남자가 주먹으로 승완의 복부를 세게 쳐 올리

자 승완이 허리를 굽히며 숨을 토해냈다. 남자는 곧바로 승완의 입에 자신이 피우던 것을 억지로 집어넣었다. 승완은 연기가 폐에 들어차자 켁켁 거리기 시작했다. 남자가 크게 웃어댔다.

승완은 그를 밀쳐냈고,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기침을 했다.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니 배를 잡고 눈물이 나도록 웃고 있었다. 미친 것 같았다. 승완은 벌떡 일어서서 바닥에서 뒹구는 남자에게 발길질을 했다. 승완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숨을 거칠게 내쉬며 진정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남자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잘못 맞았나? 그때 신경을 거스르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너네 할매도 그랬어."

승완은 사고회로가 멈춘듯했다. 냉장고 문을 닫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너네 할매도, 켁켁 거리면서, 너처럼, 그랬다고."

남자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승완의 발이 남자가 있는 방을 향했다. 남자는 어딘가 나사가 풀린 것 같았다. 너무 웃는 것이 이상했다.

"뭐라고?"

되묻는 승완의 말에 남자가 침을 흘리며 웃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울었어."

"내가 뭘 했다고."

승완은 미친 듯이 웃는 남자를 보고 있자니 온 몸이 떨려왔다.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대마초가 그렇거든. 기분이 좋아져."

승완은 머릿속의 퓨즈가 끊기듯 밖으로 나갔다. 막혔던 숨이 트이니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온 몸이 분노로 떨려왔다. 승완은 텃밭으로 가는 통로에서 삽을 손에 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남자는 연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승완은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새벽 2시 반. 하늘은 까맸다. 빛나는 달 주위로 달무리가 보였다. 승완은 축 늘어진 남자를 등에 업고 언덕을 올라갔다. 가로등조차 고장 났는지 어두워서 보이는 것이 없었다. 위험하다는 문구가 적혀진 표지판 아래로 조심스럽게 내려간 승완은 등에 진 남자를 바닥에 던지고 커다란 주머니에 돌을 가득히 채워 넣었다. 강인지 풀숲인지, 기다란 풀들이 많이 자라나있었다. 잘못해서 강에 빠졌다가는 몸에 풀이 엉켜서 빠져나오는 것은 힘들 것 같았다.

승완은 남자의 몸에 주머니를 단단히 연결시켰다. 매듭을 확인하고 남자를 발로 밀어서 물에 빠뜨렸다. 생각보다 깊은 것 같았다. 승완은 집에 돌아가 미친 듯이 청소를 했다. 남자의 짐에서 찾아낸 대마 잎은 승완이 뽑아두었던 잡초와 함께 불에 태워버렸다.

비가 내렸다.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았다. 열차 안은 쾌적했다. 창밖을 내다보던 승완이 진동하는 핸드폰을 열어보았다.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할머니 집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였다.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승완은 핸드폰을 끄고 책을 펼쳤다. 승완은 갑자기 생각난 듯 중얼거렸다.

"아, 스피노자였지."

열차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바람에 흩어

지고 있었다.

넋

20131106 김 소 정

때때로 나는, 검은자 위에 뿌연 안개가 낀 듯 탁한 네 눈깔이 맘에 들지 않았다. 네가 보이지도 않는 그 눈으로 열심히 꽃이나 나비 따위를 쫓노라면,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곤 했다. 그러면 너는, 시선을 돌려 가만히 나를 쳐다보곤 했다. 나는 모르게 티가 났나 덜컥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 봤자 보이지 않을 터였다. 헌데, 내 표정이 보이기라도 하듯 콧소리를 흥얼거릴 때면 또다시 심기가 불편해진다. 마치 다 안다는 듯, '내 눈이 이래도 언니야는 잘 보인다. 아주 자알.' 하며 해맑은 미소로 골리곤 했다. 한번은, 한참을 그리 쳐다보다 불퉁한 목소리로 물어본 적이 있다. 오는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어떻게 누가 나인지 아느냐고. 그러자면 너는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내 말 안 캤다나? 잘 안 보이는 이 뿌연 빛 속에서 조차도, 다른 사람은 캄캄하게 보이며는, 언니야는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보인다꼬.' 우린 그 단칸방, 네모난 방 귀퉁이에 이불을 깔고 자는 중이었고, 감은 눈을 떠보니 네 등이 보였다. 다 늘어난 하얀 나시에 언뜻언뜻 드러나는 너의 날갯죽지에 모래알 삼킨 듯 네가 걸려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됐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갈 채비를 하고 있자면, 어린 목소리는 가는 발을 붙잡고 늘어진다. '가나? 이, 인자 가믄… 언제 또 올 낀데? 언니야, 내 여기 있는 거 싫다.' 칭얼거림. 너는 그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열심히 항변을 하곤 했다. '다들 그런다, 언니도 어매처럼 내 버릴 끼라고.' …라일락, 너는 엄마가 좋아하던 그 리라 빛 꽃을 닮았다. 하늘거리는 바람에 누워 머리를 쓸어 주고 있자면, 같은 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어린것이 삐쭉거리며 볼멘소리를 하면 늘 항상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독인다. "마, 뭐라노. 버리긴 누가. 바보같이 그딴 말을 믿고 앉아 있노. 사람들이 지껄이는 소리, 그 다 쓸데없는 말이라 안 했나. 아재 말 잘 듣고 쪼매만 기다리라. 내 금방 오께." 뉘였던 머리를 토닥이며 일으키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지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다. 조막만 한 얼굴을 보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 수십 번은 더 옴짝달싹 한다. 그러나 곧 계집이 알겠다며 돌아서면, 그제야 나는 등을 돌리곤 했다. '…자주 온나' 힘없이 던지는 말에 속이 쓰렸다. 어린것은 새벽같이 돌아가는 아침에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잘 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꼭 돌아오라는 의미로 흔드는 손이었다. 가는 이 보기 싫다는 듯 등을 홱하니 돌리고 있는 꼴을 보자니 희미한 뒷모습으로 떠나가던 창백한 얼굴이 겹쳐져 떠오른다. 그 날, 나도 꼭 이렇게 그네를 배웅했다.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뒷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졌고 카더라는 진실이 되어 나를 괴롭혔다. 타인보다 더 타인 같았던 그 날. 이 어린것이 무어라고…. 타들어 가는 속도 모른 채, 여섯 살 난 어린 계집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네가 보고 싶다, 한다. '언니야, 어매 생각난다.' '어매, 보고 싶다.' '어매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다. 말해 도.' '울 어매는 분명 어엄청 이쁠끼다. 맞제?' 조잘조잘. 저 멀리서 바람맞이가 끝나면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함박웃음 짓는다. 호기심 어린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살가운 말이 나오질 않는다. "얼굴도

한번 못 본 어매가 뭐 좋다고 보고 싶나, 보고 싶긴. 됐다마!" 지 살겠다고 어린 핏덩이 버리고 간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갑자기 울화가 치밀어 괜스레 원망스런 마음에 윽박지른다. 희끄무레 멀어버린 두 눈으로 무얼 보겠다고…. 온기 한번 느껴 본 적 없는 주제에. 제깟 것에게 타박하고도 분을 못 이겨 씩씩대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알간 얼굴로 내게 말했다. '헤헤…, 언니야. 하늘은 내한테 까만 눈알 대신에 하이얀 별을 준기다. 자, 함 봐라. 내 이 두 눈에서 반짝반짝 빛 나제?' …머/저리 같은 년. 꼭 이지 넌 항상 그래 머/저리 같이 굴곤 했다.

"정이, 고것이 독혀. 꼬옥 지 어매 닮았당께." 정이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 어귀에서 각자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돌 바위를 깔고 앉은 성남 아지매부터, 저 윗집 순옥이네 할매까지 작당 모의 하듯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 "맞나. 어린것이 갓난쟁이 맥여 살리겠다고 이 일, 저 일 안 캤나." 너 나 할 것 없이 사는 시골 마을이라, 정이와 그 어린 동생 일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휴, 그라게. 정이, 고것이 안 그래 봬도 여간 억 샌 게 아녀. 왜 있잖여, 지 어매도, 그 주인집 아들내미한테 글케 되고 그라고 나서 갸, 그 어린 게 생긴 거 아녀…" "긍께 정이랑 고 어린 것이 그래 다르지 안 던?" 사람도 몇 없는 이 좁은 마을에 가뜩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아낙네들은 더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 댔다. 정이의 무거운 발걸음이 동네를 떠나려던 찰나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아지매들을 발견하고 성급히 이쪽으로 발을 틀었다. "아지매!" "어매야!" "내 그만하라 안 캤십니꺼? 아 들어요!" "아니, 그게…." "아야, 우리 암말도 안 캤다. 성남 어매여, 기름 짜러 간다 카지 않았노?" "어? 어어. 그라제." "아, 얼른 가세." "하이고, 내정신이야. 자꾸 깜빡깜빡하네. 지도 일이 있어가 이만 가보겠십니더, 어르신." "자자, 다들 얼른 가소. 안 그래도 최씨가 함 오라 캤는데 내도 그기나 가야것네, 그려" 씩씩거리는 정이를 뒤로 한 채 마을 어른들은 어수선하게 흩어졌다. 계집을 만나고 올 때면 온몸이 물에 젖은 듯 솜처럼 무거워지곤 했다. 그렇게 돌아가자면 나를 반기는 건 마을 어귀 발 빠른 입들뿐이었다. 아아. 그 소문. 팔려오다시피 한 주인집에서부터 새나오던 얘기는 묻힐 줄을 모른다. 불한당 같은 주인집 아들은 마을의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쩍거리다 못해 만만한 여자를 건드린 거였다. 나쁜 일을 당한 건 여잔데 기집년이 치마 들고 살랑거렸다며 났던, 그 더러운 소문. 쉬쉬거리면 모를 줄 알았나.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아니었지만, 어린 날의 상처는, 억눌린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귓가에 남아 메아리치듯 맴돌았다. 동정, 연민, 기피, 경멸 따위 모종의 감정이 담긴 그 끈질긴 시선과 지겹게도 따라다니던 눈초리. 그저 지긋지긋했다. 때론, 원망스러웠다. 엄마에 대한 물음이 무감각해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 할매가 그라는데, 니 어매가 나쁜 일 하던 사람이라 카더라.' '니 아배는 누군지 아나?' 수없이 따라다니던 질문과 질 나쁜 호기심에 귀를 닫는 법을 배웠다. 그렇지만, 아직 감정의 무게가 남아있는걸 보니 썩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가끔 엄마는 눈 먼 사람처럼 굴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던 것 같다. 그쯤이면 무언가에 홀려 꼭이지, 눈이 멀어버린 것만 같았다. 발갛게 죽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그네의 무르팍에 기대어있으면 엄마는 항상이지, 내게 이름 모를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마치 어제 배운 노래처럼, 까먹지 않으려 애쓰는 듯 부드러운 떨림으로 부르곤 했다.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도 잊지 않은 채 말이다. '그대, 여… 떠나간 세월 다시 오지 않지만, 그대여… 부디 기억해주오. 흘러간 우리의 사랑, 분명했다는 것을. 세월도 사랑도 붙잡을 수 없지만 나는, 나는…' 어슴푸레 올라오는 어둠 속에서

나는 감았던 눈을 뜨고 그네의 얼굴을 바라봤다. 거기엔 그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비어버린 눈 안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나는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네에겐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일하는 솜씨가 꽤나 능숙하고 손이 빨라, 일하기 시작하는 초입부터 사장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더불어 그를 핑계로 종종 나는 가불을 받곤 했다. "가불… 가능할까요, 사장님." 다시 한 번, 나는 머리를 조아리고 사장님께 말을 꺼내 보았지만, 다신 가불 안 해 준다고 했잖아. 라며 단호히 나가버리는 사장님이었다. 열흘째. 아이를 맡아준 아저씨한테서 빌려 준 돈을 못 받은 지 벌써 열흘이나 됐다. 라디오에서는 실없는 노랫소리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월급날이 한참 남았지만, 수중에 있는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일이 끝나 돌아간 집에선, 또 다른 가난이 마주할 뿐이었다. 마침 나타난 주인집 아주머니는 보증금도 다 날아갔으니 방을 빼라고 한다. 바짓춤에 있는 돈이라곤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는데. 사람들은 왜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할까. "아주머니,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노가다라도 뛸 테니까. 제발요." "하이고, 젊은 처자가 말여. 내, 사정이 딱해서 오늘만 봐주는 기야! 알았나? 다음부턴 얄짤도 없응께." 이렇게 또 한 고비를 넘겼다. 차오르는 안도감에 방구석, 던져 놓은 옷을 챙긴다.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린것이 나를 돕겠다며 몇 푼 받지도 못하는 일임에도, 엄마를 닮은 흰 손으로 파지를 줍곤 했다. 파지 파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마 모를 거다. 계집을 위해 상경했지만, 오늘도 파지를 주울 모습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졌다. 때때로 가난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나는 이미 익숙해져있지만, 오늘따라 지칠 힘도 없이 지쳐있었다. 제대로 닦지 않았는지, 어제 먹은 라면 국물로 장판이 얼룩져 있었다.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기는커녕 더더욱 번져가기만 했다. 벌게진 장판처럼 걸레를 잡은 손도 피멍 져 울긋불긋하다. 가랑이 붙잡고 애원해도 가난은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 쉽지 않을 거란 건 이미 알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아리다. 아리고 코끝은 찡하다. 자꾸 눈에 밟히는 계집의 모습을 애써 무시한다. 따가운 바람이 나를 매섭게 쳐 댔다. 늦도록 카랑카랑하게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지치지도 않는다. 밤하늘은, 그 애 눈을 닮은 별이 수놓아져 있다. 하늘을 한참 바라보고 있지만 내 몸뚱어리는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딱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눈을 떠보면 항상 거리에 서 있었다. 냄새나는 쓰레기통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인 잃은 물건 따위를 주워가며 사는 삶의 연속이었다.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었다는 것이 스스로를 뿌듯하게 했다. 동전이 잡히지 않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생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올 때면 다시 거리로 돌아가고 싶은 적도 있었다. 말이 집이지, 다 쓰러져가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그곳은 마치 깊은 어둠이 깔린 수렁 같아, 지친 몸뚱아리를 어둠속으로 잡아끌곤 했다. 생각해보면, 내가 있는 어느 곳도 사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래도 항상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장터 곳곳이 문전성시라, 재수가 좋았다. 바닥에 떨어진 배춧잎 몇 장에, 성할 리 없는 쑥갓 따위에도 실없이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시장이 지나간 자리를 거닐자면, 그날 한 끼 때울 돈이 마련됐기에 그게 여간 좋지 않을 수 없었다.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지붕에, 감기에 걸릴 계집이 걱정되어 그 새벽은 꼴딱 깨어 있곤 했다. 어언 여섯 해를 계집과 둘이 그렇게 보냈다. 어렴풋이 나는 기억을 조각조각 이어 붙여 말하자면, 열일곱이 되던 해에 어린아이를 등에 업었다. 그네를 찾을 거란 다짐이 있은 후 몇 개월 동안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빛바랜 기억으로 사람을 찾는 일이란, 많은 돈을 필요로 했다.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 일부터 시작해서 막노동도 뛰어보고 버스 안내부터 다방 일까지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하지만 고정적인 일이 아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생활이 불안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 들리는 말로는 서울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했다. 그러기 위해선, 계집은 두고 가야 했다. 나이도 어리고, 보살펴 줄 사람도 없어, 피치 못 할 선택이었다. 하루에 열두번은 더 고민을 했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겠단 생각은 없었다. 수없이 많은 날을 딱딱한 바닥에 누워 보냈어도 오로지 계집과 나뿐이었다. 둘이란 숫자는 무거운 몸뚱어리를 기대기엔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였다. 그저 하루를 무사히 보내면 그만인 것이다. 그리고 그 날 역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던 그냥 그런 날 중 하루였다. '아, 그 유씨? 유씨 말하는 건가?' '아, 그려. 그거 분명 유씨 말하는 거라니까.' '왜 몇 해 전에 유씨가 허여멀건 여편네 하나 데리고 왔잖여.' '그래, 맞어. 잡은 손이 꼬옥 허예가지고 아직도 눈에 훤한디 왜.' 수소문 끝에 어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만날 수 없을 줄 알아 포기하고 지냈던 나날이다. 햇수로만 스물 한두 해쯤 되었을까. 이젠 나이도 가물하고, …끊어진 연 인줄 알고 살았는데. 당당히 만나러 갈 자신이 없어 몇 번이고 손톱을 물어뜯었다. 계집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왔던 부모였다. 너라면 어찌했을까. 나보다는 너를 위해 처음으로 한 일이다. 내 눈은 너를 위해 반짝였지만, 나의 스물하나는 여전히 비좁고 남루했다.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가만가만 쳐다보던 눈동자는 이내 둘 곳을 찾다가 찻잔 언저리에 맺혔다. 그 언젠가, 업고 있는 아이를 향해 이름 모를 수레꾼이 물었다. '아 이름이 뭐꼬?' '…효성이요, 효성이.' '하이고 마, 효성 가득하라고 지은 이름이가? 어매가 이름 하난 자알 지었네.' 껄껄거리며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하는 아저씨를 째려보곤 삼키지 못한 말을 내뱉었다. '없어요.' '잉? 무얼.' '어매 말임더. 야는 그런 거 없서예.' 꺼낸 말이 무안했는지 큼큼거리며 둘러댔다. 예쁜 이름이라고. 암요, 어여쁜 이름이지라. 누가 지어줬는데요. 이, 내가, 이 마을에서 억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정이가 지어줬단 말임더. 떠오르는 기억들을 애써 무시한 채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정이구요, 갸는 효성이에요." 혹시나 티가 날까 꾹꾹 눌러 담은 말속엔 감춰지지 않는 억센 발음이 새어나왔다. 어눌하게 눌어붙은 목소리가 여간 머/저리 같은 게 아니었다. 긴장한 내색을 애써 감추려 했는데, 초조한 마음에 애꿎은 손톱만 잡아당기고 있었다. "손이 남아나질 않겠다, 정아." 다정히 불러오는 이름에 떨어졌던 고개가 치솟아 올랐다. 뎅그런 눈과 마주친 건 고독에 찌든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게, 어제 잠을 설쳐서 말이다…. 그래, 그러니까." 멀고 먼 서울 땅에서 만난 건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란, 남자였다. 편하자고 도망간 여자의 사내라고 하기엔 옷차림새가 남루했다. 머리는 정갈하게 다듬은 듯했으나 손톱 사이사이에 낀 고무조각들이 그의 초라한 행색을 대변해 주었다.

"아마, 피를 토하는 병이라 했더나." 한참을 얘기하고야 얻은 결론은 그러했다. 그네가 아주 아팠다 했다. "…살아있던 그 짧은 순간조차도 쉬 편치 못하고 갔겠네요. 안 그렇겠습니까." 무덤덤하게 내뱉은 내 말에 그는 쓰게 신음했다. 많이 고통스러웠을까. 많이 고통스러웠겠지. "그래. 맞다. …네 엄마는 참 여리지만 강한 여자였지." 사내의 말은 이러했다. 작은 마을에서 둘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고, 어머니가 열 몇 살쯤 성인이 되어갈 쯤,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 성인이 되기 몇 해 전, 둘은 그때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없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연기에 벌건 것들이 터지고 나면, 혼란 속에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덜 자란 여인네는 저 멀리 아래로 피난을, 다 자란 장정은 참전을 위해 그렇게 찢겼다. 그렇지만, 이미 그녀는 홀몸이 아니라는 걸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더욱더 이를 악물고 살았을지도…. 한 두해가 지나고, 두 사람의 인연은 거기서 끝

인 줄 알았건만, 어찌어찌 근래에 다시 만난 거라 했다.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집만 모르는 터였겠구나.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된다. 어매가 부르던 그 노래는 아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기다리는 노래였을지도 모른다. 내 아비가 그리워 부르는 노래였을지 모른다. 다시 와 생각해보니, 그래, 어쩌면 그게 맞는지도 모른다. 만삭이 된 몸으로 남편 없이 홀로 둘이나 키워낸 여자였다. 뿌연 머릿속에 희미하게 기억이 난다. 그때가 아마, 어매가 내 나이쯤 되었을 때겠지. 이미 누렇게 닳을 대로 닳아 해져버린 속적삼을 고이 빨아 입고는 곱게 덧댄 천 쪼가리 위 광주리 하나 머리에 이고선 먼 길을 나섰다. 행선지 하나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시장바닥에 나가, 팔리지 않아 시들어버린 푸르죽죽한 것들 늘어놓고는 그렇게 앉아있었다. 때로는 빨래나 손바느질 거리를 얻어 올 때면 어매는 그리도 함박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다. 배는 불렀는데 입에 풀칠도 못 하는 처지라 주린 배를 움켜쥐었지만, 달큰한 젖 내음이 나곤 했다. 달큰한 젖 내음이 가시고 나면 그제야 희미한 웃음이 보였다. 그 뒤엔 나를 잡는 손이 있었다. 마른 가뭄에 쩍하니 갈라져 버린 땅처럼 투박하고 거친, 손. 검은 그을림에 어매가 입던 옷은 항상 까맸지만, 해지는 붉은 저녁 순간만큼은, 잡아주는 그 손이 하얗기만 했다. 왠지 아직도 주변엔, 어매가 좋아했던 그 보랏빛 꽃내음이 나는 것 같았다.

젖내가 나던 품과는 달리 닳아빠진 하얀 천에 분내가 날 때면 젖 내음이 가려서 나도 모르게 울어버린 적이 있다. '어찌 울어, 어찌. 이 어미 말 안 듣고 울기만 할까.' 동동거리는 발걸음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갑자기 울어대는 바람에 혹여나 어디 아픈 걸까 하는 걱정에 손을 달달 떤다. '쉬이, 울지 마라. 울지마. 나쁜 잠일랑 가져가고 좋은 잠만 들어와라.' 작은 몸을 뉘이고 토닥이던 손이다. 달래는 잠에 눈을 감으면, 어느새 가고 없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님을 찾았다는 건가…. 나도 그네처럼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다. 떠나가던 뒷모습을 기억한다. 나도 손 흔들걸 그랬나. 잘 가라는 의미에서가 아닌 꼭 돌아오라는 의미로 흔드는 손 말이다. 그래서 그날은 분내가 났던 걸까. 그리 곱게 칠해놓구…, 그렇게 혼자 갔을까. 뭐 그리 급했을까. 가는 순간까지도 그 여자는, 우리 이름을, 아니 내 이름을 불렀다 했다. 잊지 않으려는 듯, 여러 번 종잇조각에 꾸욱 눌러쓰듯 그렇게 꾸역꾸역 나를 찾았다. 하고 싶은 말이 그 무엇이든, 다 못한 목소리는 온기로 남아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정아, …어여쁜 우리 정이. 우리 정이는 내내 어여쁘기만 해라. 슬프지도 아프지도 말고, 너는 오로지 어여쁘기만 하려무나. 힘들고 슬픈 건 이 어미가 다 할 테니.' 잠들기 전 항시 해주던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두 뺨을 어루만진다.

사내는 누렇게 닳아버린 손톱을 가지고 우두커니 있었다. 그 눈이 닮았다. 축쳐진 눈꼬리와 세월의 무게에 눌려 푸욱 꺼져버린 눈이 꼭, 빼다 박은 것처럼 닮았더랬다. 마루 맡에 누워 있노라면 엄마는 하던 바느질을 멈추곤 지긋이 바라보곤 했다. 지금에서야 왜 그리도 빤히 쳐다봤는지 꼭 알 것만 같았다. 가는 길에 소주 몇 병과 질긴 오징어를 한 포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가로등 불빛, 희미한 주황빛마저 닿지 않는 그 어둔 골목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쫓아오는 그림자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는 금세 피곤해졌다. 기운이 빠져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대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미 벌게진 얼굴에 기침하기가 힘들어졌다. 숨을 모아 한껏 몰아쉬어 본다.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뱃가죽이 뜨거웠다. 그와 비례해 몸이 으슬으슬 떨린다. 바닥이 차가워서 찬 기운이 올라오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모양이다. 넘어지면서 깨진 푸른 조각들은 비명이 되어 나를 찔렀다. 배를 꾹 쥔 손과 바지까지 축축한 검붉은 것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아아.

알겠다. 이제 보니, 내 안의 더러운 것들이 이제야 빠지는가 보다. 나는 이제야 이것들을 훌훌 털어버리는구나. 비슬비슬 웃으며 딱딱한 바닥 위로 눕는다. 뿌옇게 눈앞이 흐리다. 불이라도 났나. 연기인지 안개인지 모를 것들이 어두침침해지는 눈앞을 가린다. 세상의 시선에 발끝이 시려왔다. 얇아지는 숨을 몰아쉬며 오한에 떨었다. 춥다…. 추워. 이러다, 꼼짝 못 하고 얼어 죽겠네. 효성이, 이 계집은 제 언니가 여기 이러고 있는데, 이 추운 곳에 날 혼자 두고 가버리다니…. 얼어 죽으라는 심보 아닌가. 눈이 뜨겁다. 빌어/먹을 것이 이유 없이 또 흐르고 있다. 배를 뚫고 흐르는 것도 모자라 두 볼을 적시는 것이 부끄럽다. 느려지는 숨을 다잡으며 불편한 고개를 뒤척인다. 정아. 으응? 그때 나는 문득, 조심스런 손길을 느낀다. 하얀 손이 내 고개를 무릎에 뉘이는 것을 느꼈다. 부드러운 손바닥이 다정하게 얼굴을 쓰다듬는다. 천천히 그 얼굴을 올려다본다. '쉬이, 울지 마라.' 그림자 진 그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손만으로도 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손… 이 손. 하이얀 손. 아아. 이제야 나는 알 것 같다. 나는 이 하얀 손가락에 넋을 놓았지. 잠시만, 아주 조금. 서로 조금만 양보할 수 없었을까. 난 당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없었을까. 당신은, 날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없었던 걸까. 해 줄 말이 있는데, 해야만 하는 말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지, 당신은 왜 항상 너무 빠를까…. 허나, 대답을 않는다. 차분한 손길로 나를 쓸어주고 있을 뿐이다. 차츰 잠이 쏟아진다. 물어볼 게 많은데,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은데. 난 당신을 사랑했나? …알 수 없다. 아직도 나는 모른다. 말하지 않으니 나는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지금 아는 것이라곤 그저, 죽도록 피곤하다는 것뿐이다.

"쯧쯔. 젊은 처자가 말이야. 그래 새벽 댓바람부터 길바닥에서 누워 있는 게, 어, 그게 말이나 되는 짓거리여? 그 꼴을 하고서는, 우리 영감이 못 보고 들어왔으면 꼼짝없이 골로 갔을 거여. 정신 차려.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치가 않어. 젊은 게… 무어라고 그래 몸을 함부러 굴린 단가." 걱정 어린 타박을 무시하며 베개에 얼굴을 좀 더 깊숙이 묻었다. "아야, 정아…아버지 만났다믄서." "…예." 귀찮다. "어매는 찾았드나?" 나는 진심으로 자고 싶었다. "뒈졌다 카데여." 폐병이라 드나.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심히도 말했다. 툭하니 던진 그 말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내쉬던 숨이 일순간 멎었다. "괘않나?" 천천히 울리는 떨림에 피곤함을 느꼈다. "…정아." 아주머니는 내 어깨를 살살 뒤흔들며 날 돌려세웠다.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이내 곧 얼굴이 퍼렇게 질린다. 아마 날 깨운 걸 후회하고 있을 거다. …질릴 만도 하지. 내 몰골이 얼마나 엉망인지 나도 잘 안다. 가칠가칠한 얼굴은 창백하게 떴고 며칠을 못 자 퀭한 두 눈은 금방이라도 피가 터질 듯이 검붉다. 산송장이 따로 없지. 아마 며칠은 불편하게 지내야 할 것 같다. 당분간은 주인집에서 지내라는 친절에 연민으로 가득 차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웃었다. 당연히 괘않고요. 안 그럴 건 또 뭐가 있을라구요. 밖으로 나가지 못해 잠긴 말이 수그러들었다. 금세 숨소리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자 찾아오는 떨림이 있다. 이건 다 망할 불면증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불면증. 그네가 죽은 것은 슬프지 않다. 그저 불면증 하나가 날 미치도록 몰아가고 있다. 내일은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째, 괜찮다 드나?" "아이고, 영감도 참. 본인이 괜찮다 잖어." "근데 그게 괜찮다는 아, 얼굴이다냐?" "아, 낸들 알아요!" "망알년. 고년 고거, 지금 지가 어떻게 웃는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겄네" "거 내비둬요. 자는데 듣겄소." "…꼭 딸 아이 같아서 그라제." 잠결에 어렴풋이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간만의 단잠을 방해하는데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피죽이 상접한 몰골을 하고 얇디얇은 이불을 꽁꽁 싸맨 꼴을 보자니, 영감과 아주머니는 기가 막혀 끌끌거리며 혀를 찼다. "독혀. 어린 것이 얼마나 세상일을 험하게 살았으며는, 제 어미가 죽었다는데도

눈에 저리 독을 품고 있어.” “독허긴. 지도 모르게 누룽지마냥 눌어붙어 바닥에서 떨어지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만. 부러 저러는겨.” “어이구야. 알겠응께 그만혀, 이제.” “아이, 안타까워 그라제.” 연민 어린 눈초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세상모르는 얼굴로 잔다. “때 하나 묻지 않은 곱게 자란 처녀 같이 잘만 자는데, 우째 그런다냐…, 어휴.” 안타까운 마음에 쉬이 잦아들지 않는 잔소리가 따습게 잠자는 곁을 머물렀다. 이불은 잘 덮었는지 꼭 두 번, 확인하고 방바닥이 춥진 않은지. 몸은 따듯한지 꼭 본인 손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나갔다. 완전히 잠든 모습을 보고도 선뜻 자리를 못 뜨는 주인집 아주머니였다.

예전처럼 밤이면 가게에 출근하고 음식을 나르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변할 것은 없다. 엄마란 사람을 찾았다고, 아니, 찾았다 다시 없어졌다고 해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달동네 일이었고 꽤나 시끌벅적하게 누워있던 그 날 새벽, 내 모습으로 소문은 이틀 정도 화젯거리에 올랐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예전처럼 주인집 아주머니와 집세 때문에 실랑이 하고 운이 나쁘면 가끔 손을 베이는 일상이 이어졌다. 명복을 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일상은 바쁘게 돌아갔다. 나는 미친 듯이 일을 했다. 새벽에는 술집을 나가고 오후엔 궂은 일거리를 두 세 개 잡았다. 돈독이라도 오른 것처럼 일하고 뛰고, 뛰고, 뛰었다. 쉴 틈 없이 일하고 온 날에는 정신없이 곯아 떨어졌다. 쓸데없는 생각에 빠질 틈도 없다. 그런 것들은 단순한 감정의 소모일 뿐이다. 나름대로 나는 불면증을 극복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일거리라면 무작정 달려드는 나를 보고 혀를 내두르며 망연하게 말했다. “저거, 요즘 이상혀. 아주, 꼬옥 변했어.” 하고.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래 보여요?” 하고 웃어 보였다. 영감님과 아주머니는 내가 그렇게 웃을 때마다 매번 질린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한참이던 일이 끝나고 평소대로 쓰레기 몇 봉투를 양손에 쥐고 뒤뚱거리며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가게에 올라 일손이 부족할 쯤엔 항상이지 혼자 일을 했다. 쓰레기통에 대충 봉투를 던져놓고 적적한 입에 문 담배를 태우며 길가로 새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파를 구경하며 버릇처럼 불 꺼진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먼발치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수더분한 모습의 짧은 머리. 작지 않은 키와 여전히 어색한 그 걸음걸이가, 무시하고 지나치려는 것을 불러 세웠다. 여기까지 찾아온 수고를 덜어주려 어색한 웃음으로 말을 걸었다. 그렇지만, 정말이지 오랜만에 진심에서 묻어나오는 웃음이 번졌다. 멍청하게 웃고 있는 나와는 달리, 반대로 그는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허망한 얼굴이었다. 행색은 초라해도 정갈히 다듬던 모습과는 다르게 주변은 막 자란 수염으로 덥수룩했다. 며칠을 칼을 대지 않을 정도의 일이렸다. 그저 추측할 뿐이다. 입 열기가 무섭게 곧이어 차오르는 짠기 가득한 커다란 눈망울에 그저 멍 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입 모양이 한번, 두 번, 세 번. 벙긋거릴 때마다 웃기게도 순식간에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낀다. 갔단다…. 세상에 꼭 둘일 것만 같던 피붙이가. 사내는 맡겨놓은 그 집에서 아이를 데려오려 무언의 연락을 하고 있던 거였다. 그러던 찰나에, 온기가 사라진 아이를 데려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장 나한테 알리기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내게 전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일하는 곳을 물어물어 찾아왔다. 혼란스럽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수많은 날이 스쳐지나간다. 주인집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하던 그날? 아니면 유리조각을 줍다 손을 벤 날일까? 혹은 좁은 골목길 담벼락을 유유히 빠져나가던 고양이를 본 그 밤인가? 그 많은 날 중 네가 혼자 걷던 날은 언제였을까. 가는 길이 많이도 추웠을까. 아직도 나는 의문이다.

그 어린 계집이 죽었다. 그깟 병명은 어머니와 같은 폐병이라 했나. 그리 쉽게 사람 목숨을 가져가는 병이었나 싶어 웃음이 새어 나왔다. 너에게, 부족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시

작한 모든 것들이 내가 쓸모없다는 걸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떠나갔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찾아오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텅 빈 빈소에 앉아있는 것은 장례를 돕는 남자와 나뿐이었다. 그제야 새삼 우리에겐 피붙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와 같은 병으로 손 쓸 틈도 없이 계집이 죽어갔다는 것을 들은 후에도 사내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고, 나는 울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액자에 정갈하게 꽂힌 바랜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것을 보며, 히히거리며 허연 이를 드러내 보이던 계집을 떠올렸다. 내가 알고 있는 한의 모든 기억 속의 아이를. 뜬 눈으로 며칠을 샜다. 절차에 맞춰 화장을 하고 그는 하얀 뼛가루로 남았다. 눈을 잃어버린 그 아이는 지금, 잊혀진 사람이 됐다. 두 눈에 별을 갖고 태어난 너는 다시 별이 됐을까. 가끔 너는 너무 엉뚱해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언니야, 손잡아 도.' 마루 끝에 앉아 '손은 와?' 하고 네 쪽으로 손을 뻗어 주고 있노라면 말했다. '언니야 손 잡으며는, 내는 알 수 있다. 내가 쪼매만 더 착한 일을 하고 언니야 도와주믄, 하늘님이 내 눈에 있는 두 별을 하늘에 띄워 줄끼다. 그러면 그 때, 짠! 하고 우리 이쁜 언니 얼굴을 볼 수 있을낀데.' 듣고 있자면 터무니없을 말이었다. 그런데 가만보니, 꼭 그리 된 거 같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거 같다. 아니, 넌, 늘 항상 옳았다. 계집이 말하던 대로다. 헌데, 하늘님은 눈만 아니라 계집을 데려갔다. 계집이 한 모든 말 중, 그 하나 달랐다.

멍하니 서 있다가 입을 벌렸다. 멍청하게 쳐다보는 너에게 짓껄인다. '사막에서 갑자기 샘이 보이는 그런 얘기, 알아?' 잘 모르겠다는 듯이 나를 향해 웃어 보였다.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 목이 타. 갈증이 나서 미친 듯이 물을 찾아.' 우물거리며 말을 잇는 나를 보며 다정한 네가 토닥였다. 뭘 안다고. "간절하게 바라면, 그러면 거짓말처럼 샘이 나타나는 거야." 마치 너처럼. "하지만 진짜는 아냐. 허구에 불과해." 역시 너처럼. 뭘 알까,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다정하게 웃어주고 있을까. 수일이 지났다. 어느새 또 보이는 익숙한 뒷모습에 빠른 걸음으로 그림자를 쫓았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을 쯤 앞서 가는 모습을 돌려세웠다. 갑자기 뒤돌아진 너는, 역시나 맞다. 계집이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지. 눈앞에 어른거리는 모습은 금세 울 것 같은 표정을 한다. 이것이 너무도 생생해 손을 뻗었고, 역시 꿈이었다. 아… 너는 이미 여기 없지. 허공에 대고 지껄이던 내가 서러움에 몸을 떨었다. 차오르는 것을 떨구자니, 흔들리는 니가 그대로 사라질까 두려워서였다. 눈물을 참는 게 서럽고 서러웠다. 애꿎은 눈가를 괜히 푹푹 눌러 찍는다. 울어봤자 눈물을 보는 너는 어차피 진짜가 아니고 내가 서러워 떨어봤자 달래주는 너는 어차피 네가 아닌데 나는 왜 눈물을 참고 있을까. 짓무른 눈에 손을 떼고 감싸 안은 팔에 얼굴을 묻었다. 그렇게 서럽게 어깨를 떨고 있자면, 습관처럼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렇게 다정하게 내려보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울지 말라는 듯이 애절한 표정 짓지마. 불쌍한 건 나고 억울한 것도 난데, 왜 네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을까. 꼴사납게 엉망이 되어버린 얼굴을 들었다. 너는 또 금세 사라지고 없다. 네가 없다는 현실을 알아차릴 때면 땅이 깨질듯 얼굴을 향해 달려든다. 흔들리는 달빛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다. 한숨 자면 나아질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앉은 골목길에서 하얗고 긴 인생을 입에 물고 조금씩 천천히 태웠다. 짧은 인생은 그렇게 재가 되었고 벌건 슬픔은 나를 삼킨다. 그 새벽, 나는 혼자였고 하얀 담배 연기에 남은 날을 묻었다.

목소리

20131110 김 은 지

*

“아하하, 오빠도 참!”

청아한 그녀의 목소리가 낡은 벽 너머로 들려왔다. 창문의 좁은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빛은 방 안을 가득 채우려는 듯 너무나도 화창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행복하게 들렸다. 내가 가질 수 없는 행복이 그녀에게는 손에 다 쥘 수도 없을 만큼 차고 넘치리라.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별안간 그런 생각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듣고 싶은 마음에 더욱더 벽에 밀착했다. 책상에 올려져 있는 거울에 두 손을 벽에 갖다 댄 채 오른쪽 귀를 바싹 붙이고 있는 내 모습이 비춰졌다. 거울 속의 내 눈빛은 거의 광기 어린 수준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늘 나를 이렇게 광기 어리게 만들었다. 그만큼이나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고,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녀의 목소리에 집착하게 되었다.

한참동안이나 통화를 하던 그녀는 이내

“안녕, 다음에 보자 오빠.”

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혹시 한 번 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벽에 붙어있던 나는 이내 아쉬운 마음으로 벽에서 떨어지며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 끼워져 있던 칩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2014년 8월 6일’ 이라고 적은 테이프를 눌러 붙였다.

책상 아래로 손을 넣어 선반에 넣어둔 작은 박스를 꺼냈다. 책상 밑에 넣어둔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사이에 벌써 먼지가 쌓여있었다. 그러나 먼지 따위는 내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 수 없었다.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방에서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 삶 자체가 먼지와 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가끔 눈에 띄면 짜증나는 그런 것. 길가에 버려진 한낱 쓰레기더미가 차라리 더 나을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재활용은 될 수 있으니까.

박스를 열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녹음 칩의 제일 뒤편에 오늘의 녹음 칩을 밀어 넣었다.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가 벌써 서른 개 가까이 모여 박스 안에 담겨있었다. 검지로 한 줄의 칩을 쓸어내리던 나는 이윽고 하나의 칩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그것을 빼내어 녹음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자마자 녹음기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비록 직접 듣는 것만은 못하지만 한 없이 아름답다는 것에는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늘 행복했다. 벽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화하는 그녀는 늘 행복하게 웃었다. 또한 그녀에게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그 날 하루 있었던 일이나 새로 산 원피스를 자랑했다. 가끔은 자신의 남자친구 자랑도 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와 통화할 때마다 그녀가 ‘정말, 닭살스럽기는.’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녀를 매우 사랑해주는 멋있는 남자임이 분명했다.

*

매주 금요일 저녁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날이다. 이 날의 통화는 그녀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니 행복하게 들리는 때이다. 그녀는 이 날 저녁이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껏 뽐내며 남자친구와 데이트 했던 얘기, 친구들과 낮에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던 이야기 등을 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를 그녀의 어머니는 얼마나 사랑해줄까.

녹음기에서 '안녕, 다음에 보자 오빠.'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된 분량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늘 남자친구와의 전화에서 이 인사말로 끝맺음을 지었다. 녹음기는 다시 녹음된 분량의 처음으로 돌아가 재생되었다. 일시정지 버튼을 꾹 누른 나는 책상의 옆쪽에 놓인 거울을 끌어당겨와 얼굴 앞에 놓았다.

어깨 위로 흘러내린 까만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엉켜 있어 빗질이 필요해 보였다. 그러나 내게는 빗질조차 무의미했다. 서로 엉겨 붙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대충 훑어 내리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짙은 쌍꺼풀 위로 길게 뻗은 속눈썹이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작게 흔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입모양으로 '안녕, 다음에 보자 오빠.'라고 말해 보았다. 거울 속의 내가 싱긋 웃으며 '안녕, 다음에 보자 오빠.'라고 따라서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와 같은 청아한 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거울 속의 나는 그저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고, 현실의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존재하는 이 공간 자체가 거울 속인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어 보아도 쇳소리 같은 것만이 희미하게 흘러나올 뿐이었다. 한 번 더 시도하고, 또 한 번 더 시도할수록 나는 그저 비참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것이었다면…….

그랬다면 지금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분명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녀처럼 매일같이 수많은 친구들과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다 가득 두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화하고 수다 떨었겠지. 아름다운 목소리의 그녀는 분명 목소리만큼이나 얼굴도 아름다울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해 주고 있는 것이리라.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 나는 목숨까지 내걸고 끝내는 목소리까지 잃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을까?

*

밤이 내렸다. 좁은 창문 틈새로는 햇빛을 밀어낸 밤의 달빛이 비집고 들어왔다. 꼬박 한 나절을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눈가에 말라붙은 눈물자국 때문에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부스러기 같은 것이 눈썹에 달라붙었다. 매일 같이 눈물을 쏟아내서 더 이상 내 몸에 남은 눈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 눈물이 많이 남아 있었나보다. 그나마 운다는 행위가, 눈물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벽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빈'과 전화를

하는 모양이다. 어서 몸을 일으키고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를 녹음해야 한다. 그런데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다. 아픈 것도 같았다. 그러나 내게 아픈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걱정해주지 않는데…….

'그 날'도 이렇게 달빛이 내린 저녁이었다. 집 안에는 어머니가 널어놓은 빨래의 향기가 가득했고 나는 그 빨래에서 아직 마르지도 않은 내 옷가지들을 신경질적으로 끌어내려 가방에 주섬주섬 챙겨 넣었다. 아버지는 내게 등을 돌린 채였고, 그 무거운 분위기를 어찌하지 못한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원망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트렌스젠더'가 되겠다고 하는데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몇 번이고 되새겼지만, 그럼에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채 반대만 하는 부모님의 태도에 나 역시 화가 나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한두 해의 실랑이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고 부모님이 끝까지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나 혼자서 살아나갈 각오까지 마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이끌려 서울로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모아두었던 돈으로 외적인 성형을 끝마쳤다. 매일을 거울 속의 나 자신에 빠져 살았다. 온갖 화장품을 사들여 치장하고 나갈 때면 '너무 예쁘다'는 칭찬도 곧잘 들었다. 그러나 외적인 것만으로는 본래의 나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질수록 나는 더 빠르게 더 많은 아름다움을 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인 새로운 '목소리'를 얻기 위해 나는 다시 한 번 병원에 발을 디뎠다. 돈은 부족했지만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병원의 원장님은 내게 가진 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나는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모님께도 단 한 번 말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그렇게 쉽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회복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내가 영원히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병원이나 나를 소개해준 지인의 자취를 찾을 수 없을 거란 것을 알면서도 나는 미련하게 그들을 찾아다녔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벙어리인 나를 눈여겨 봐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목소리를 잃은 나는, 나라는 존재를 잃은 것이었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더 이상 기쁘거나 감격스럽지 않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의 내가 거울 속에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닌 타인처럼 느껴졌다. 입을 끔뻑거리며 몇 마디 말해보아도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힘없이 바닥으로 흘러 떨어질 뿐이었다.

차라리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거울 속의 내가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여성스러운 숙녀가 돼서 당당하게 부모님의 앞에 나타나겠다.

그렇게 소망했던 내 바람은 영혼을 잃은 내 목소리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고, 짓밟히고,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예빈아, 나 오늘 시내 가서 하늘색 원피스 샀어. 너한테 보여줬던 것 있잖아, 기억나?"

조용히 눈을 감고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이렇게 내 몸으로 직접 그녀의 목소리를 녹음할 셈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해보았다. 물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따라할 뿐이었다.

어디선가 '목소리에는 영혼이 담겨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나 둘, 그녀의 목소리

를 녹음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녀의 영혼까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때는 이미 잃어버린 내 영혼 대신에 그녀의 영혼을 채워 넣으리라.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를 이런 소망 덕분에, 그나마도 나는 오늘 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다.

*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렸다.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강아지마냥 가만히 책상에 팔을 괴고 앉아 창틈으로 흘러들어오는 빗줄기 몇 가닥이 책상에 부딪혀 부서지는 모양새를 지켜보았다.

창문 근처의 벽에는 이미 예전에도 몇 번이고 빗물이 흘러들어왔다가 마르기를 반복한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새까만 곰팡이들이 번져있었다. 한낱 빗물이 곰팡이에게는 생명력을 주는 존재인 것이다. 나는 조금은 곰팡이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조금 쌀쌀한 바람에 창문을 닫고 싶었지만 나는 그저 창틈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두고 보았다.

별안간 그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려왔다. 이미 아까부터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빗소리에 묻혀 내가 못 들었는지도 모른다. 한 손으로 창문을 세게 닫았다. 재빨리 녹음기를 켜 들고 귀를 벽에다 붙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녀의 목소리가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다. 악을 쓰면서 누군가에게 '오지마!'라고 마구 소리 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듣기 싫을 정도였다. 무언가에 겁에 질린 듯한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오고 이상하게 갈라졌다.

녹음기를 벽에 던져버렸다. 벽에서 한참 떨어져서 두 귀를 틀어막았다. 화가 났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저렇게 망쳐놓은 누군가도 싫었고, 자신의 청아한 목소리를 이토록 흉측스럽게 만든 그녀도 싫었다. 한참 동안이나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지껄이며 소리를 질러대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끊은 듯 잠잠해졌다. 그녀의 쟁쟁한 목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내 옆방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된 이래로 처음 알게 된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어쩌면 방금 전에 그 소리가 그녀의 진짜 목소리는 아닐까? 그녀는 한 달 동안이나 나를 속여 왔던 것은 아닐까? 내가 혼란 속에서 한참 동안이나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의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쾅, 쾅.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역시 매우 화가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혹시 그가 방금 전에 그녀와 통화한 상대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역시 나처럼 그녀의 흉측한 목소리를 듣고 화가 난 것이다. 그래서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벽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에게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사기꾼, 사기꾼, 미친년. 남자는 이 말을 연신 되풀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무언가를 때리는, 마치 그녀가 맞고 있는 듯한 둔탁한 소리만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사랑 받아 마땅한 존재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여자보다도 그녀는 사랑스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주위 사람들 역시 그녀를 매우 사랑해준다. 그런데 저 남자는 어째서 그녀를 저렇게나 미워하는 것일까. 그녀의 어떤 점이 남자를 화나게 한 것일까.

꽤 오랫동안 둔탁한 소리를 쏟아내던 옆방이 잠잠해진 것은 다시 한 번 쾅, 쾅 하는 문소

리가 들리고 난 뒤였다. 나도 모르게 너무 몸에 힘을 주고 웅크리고 있었던 탓에 긴장을 풀고 팔다리를 뻗자 몸 곳곳이 뻐근했다. 마치 내가 맞기라도 한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벽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켰다. 흐느끼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역시나 내가 알던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행복하고도 행복해서 청아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던 그녀의 목소리를 어디에도 없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끼는 목소리는 그저 하찮고 구질구질한 보잘 것 없는 목소리에 불과했다. 녹음할 가치도 없었다.

아냐. 저것은 내가 알던 그녀가 아니다. 분명 잠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일 뿐, 내일 아침에는 다시 쾌활한 그녀의 원래 목소리로 돌아와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 그녀의 목소리를 모두 갖지 못했다. 아직은 그녀가 필요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느 사이엔가 비가 그친 모양이다. 창문을 단단히 닫아놔도 새어 들어오던 빗물이 단 한 줄기도 흘러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

벌써 보름이 지났다. 책상에 놓인 녹음기는 본 목적을 잃은 채 뒹굴고 있었다. 저번에 벽에 던진 탓에 끝부분이 조금 파였지만 아직 쓸 만은 했다. 그러나 문제는 녹음기를 켤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방에 그 사람이 왔다간 이후로 그녀는 매일같이 울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도 슬펐지만, 매일같이 듣기 싫은 그녀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사흘 정도가 지나고 난 어느 순간, 그 흐느낌이 잦아들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라리 그것이 더 나았다. 다시 사흘정도가 지나면 다시금 신이 나서 친구와 전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리라, 나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초조해졌다. 이미 녹음되어있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누군가 내게서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달력을 보았다. 8월 29일, 금요일이다. 평소대로라면 금요일은 그녀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날이다. 그녀가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바로 그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옆방에서는 무서우리만치 적막한 공기만이 벽을 넘어 내 방으로 흘러들어올 뿐이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그녀의 방에서 그녀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소리도, 아주 미미한 물소리조차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나 예전처럼 남자가 화가 나서 문을 쾅 열고 들어오는 소리조차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물도 안마시고 며칠 동안을 방 안에서 보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괜히 불안해졌다.

생각해보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이나 녹음기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더 이상은 옆방에 살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그녀가 정말로 방 안에 있는 거라면 어째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을까? 그럴 리가 없다. 그녀의 주위에는 그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녀가 아파서 누워있다면 분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을 것이다. 쉴 새도 없이 쿵쾅거리는 문소리 때문에 나는 잠을 설칠 정도였겠지.

조심스럽게 일어선 나는 발걸음을 옮겨 복도로 나갔다. 생명력을 다한 전등 하나가 복도 중앙에 달려서 꺼지고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몇 발자국 옮기지 않아 그녀의 방 문 앞

에 도착해서 소리 나지 않게 방 문 손잡이를 돌렸다. 나는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토록 쓸 데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그 답은 알 수 없었다. 그저 내 안의 무언가가, 마치 내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녀의 목소리들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방문이 열렸다. 낡은 문짝은 조심스럽게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끼이익 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뿜어냈다. 이렇게나 쉽게, 이토록 시끄럽게 열리는 문을 왜 며칠 동안이나 아무도 열지 않았던 것일까. 이번에는 그 답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방문을 다 열기도 전에 코로 흘러들어오는 악취부터가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아무런 목소리도 없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혼부터가 없었다. 침대에 널브러진 사람은 그녀였다. 아니, 나는 사실 그녀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알던 그녀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심장이 끊임없이 요동쳤다. 당장이라도 나는 이 방을 박차고 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금 책상에 앉아 그녀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주길 기다리면서 녹음기를 틀고 그녀의 목소리를 되새겨야 한다. 하얀 피부와 찰랑거리는 긴 머리카락, 큰 눈망울과 긴 속눈썹을 뽐내며 눈웃음을 짓고, 붉은 입술로 웃으면서 전화하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내 떨리는 손은 자의와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침대 위의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저주다. 저주인 게 분명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자 옆쪽으로 구부려 있던 몸이 젖혀지면서 그야말로 흉측하기 그지없는 얼굴이 나를 마주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꽉 막힌 듯한 목에서는 이젠 쇳소리조차도 나지 않았다. 분명히 나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방은 고요하기만 했다.

흉측한 것은 그녀가 시체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흉측한 이유 중의 십분의 일도 되지 않았다. 뚱뚱한 몸은 침대를 다 덮을 정도였고 얼굴을 내리 덮은 푸석푸석한 긴 머리카락의 사이로는 고무를 태운 것처럼 쭈글쭈글한 흉터들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뒤덮고 있었다. 입가로 흘러내린 게거품이 말라붙은 흔적들은 그녀를 한층 더 흉측해 보이게 만들었다. 침대에는 누렇게 변한 이불에 어울리지 않는 새하얀 약통이 나뒹굴었다.

그녀의 책상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예빈, 소현, 유진, 미영' 등 그녀가 매일 같이 전화를 주고받던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의 옆에는 각각 인터넷 채팅 사이트 주소와 함께 아이디 따위가 적혀 있었다. 노트북 옆에 놓인 캘린더에는 8월 8일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크게 둘러져있다. '엄마 기일' 또박또박한 글씨로 그렇게 적혀있다. 8일은 금요일이다. 그녀가 가장 즐거워하는, 그 어느 때보다 쾌활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던 금요일.

아,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다.

침대 위에 누운 그녀는 하늘색의 아주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다. 너 역시도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나는 도망치듯 그녀의 방을 빠져나와 내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놓인 상자의 뚜껑을 열고 녹음 칩들을 침대 위로 쏟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녹음 칩들 중 몇 개를 집어 들고 나는 내 입 안으로 쑤셔 넣는다. 그것들을 씹는다. 미처 씹 지 못한 것을 나는 그냥 삼켜버린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오로지 나만이 그녀의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드디어, 그녀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그녀가 가졌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몹시 고통스러웠고, 또한 내 목소리만큼이나 먹먹한 것이었다.

마트로시카

20131115 박 정 빈

오늘도 또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밖이라고 하지만 어디인지는 잘 모른다. 마당 같기도 하고 현관 주변, 혹은 욕실 창문 근처인 것 같기도 하다. 딱히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면서 집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니고 창문에 조약돌을 던지거나 마당 안으로 빈 깡통을 던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막연히 무슨 기척이 있다는 느낌일 뿐 더 이상은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집밖에 누군가 있고 공기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아!”하고 나는 작은 소리로 외치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이번에는 현관 밖이다. 현관 부근에 누군가 있다. 그래. 현관이 틀림없어.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 도망치는 뒷모습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단독인지 복수인지. 그것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경찰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뭔가 수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다.

나는 서재를 나와 현관으로 뛰어갔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슬며시 신발 벗는 곳에 내려가 숨을 죽이면서 유리 구멍을 들여다본다. 작고 동그란 렌즈 너머에는 울타리만 보일 뿐 사람 그림자는 없다.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누군가 있었다면 허둥지둥 도망치는 소리라도 날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마저 열고 밖으로 나와 본다. 몸을 잔뜩 움츠리고 “누구세요?”하고 큰 소리로 물을 생각이었는데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낌새라고는 없다.

강한 햇살이 여기저기 부딪혀 빛을 뿜는다. 여름철 울창한 풀숲에서 나오는 후끈한 열기가 느껴진다. 먼 하늘에서 희미하게 천둥소리가 들린다. 오늘도 한바탕 퍼부을 것 같다. 허탕을 친 채로 마당을 둘러보았다. 작은 마당이다. 마당을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는 낮고, 키 큰 나무도 없다. 있는 거라곤 정돈 되지 않은 화단뿐. 숨을 만한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누군가가 숨어있을 리도 없었다.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마당을 가로질러 뒷마당 쪽을 내다본다. 화장실과 욕실 창이 나란히 있다. 변한 것은 없다. 천둥소리가 좀 더 거세졌다. 그러나 해는 아직 저물지 않고 있었다. 근처 나무에서 매미가 울기 시작했다. 양지에 잠깐이라도 서 있으면 땀이 흐른다. 언덕 아래 도로를 오가는 자동차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나는 영혼의 존재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다. 너 말이야, 그건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이 헤매고 있는 건지도 몰라. 공양이라도 제대로 하지 그래. 불경을 읽어달라고 하든가. 그런 식의 조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해올 것 같은 지인의 얼굴이 몇 사람이나 떠오르지만 그런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망령? 어머니는 지금 묘비 아래 잠들어 계실 것이다. 인생이라는 힘든 여정에서 드디어 해방된 것이다. 적어도 내가 어머니라면 그렇게 느낄 것이다. 망령 이야기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 지금 이 집 주위를 서성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

집은 급한 경사를 끝까지 올라온 곳에 있다. 시야를 가리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고 차가 올라오는 소리는 금방 알 수 있다. 설사 누군가가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도망치

려고 생각하면 언덕길을 뛰어 내려가는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숨을만한 장소도 없다. 언덕을 마주보고 오른쪽이 붉은 흙을 드러낸 완만한 벼랑으로 되어있고 튼튼해 보이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왼쪽에는 3층짜리 빌라가 있을 뿐이다. 언덕길을 오르내려야 한다는 것이 끔찍했는지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는 금방 이사를 가버리고 학생과 직장인들만 살고 있다.

낮에는 인적이 없는 동네라 스산하다고 하면 반발할 생각은 없지만 빌라 주변에는 눈에 띄는 공원도 없고 숲도 없고 어디를 봐도 사람이 숨을 만한 장소는 없다. 더구나 빌라에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다. 낮 동안 어딘가에 누군가가 숨어있기라도 했다가는 금방 발견될 것이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확신범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나처럼 결혼은커녕 남자랑 제대로 사귀어본 적도 없고, 연애나 사랑조차 경험한 적 없고, 더구나 빚을 진적도 없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는 걸까.

일을 계속할 마음이 없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들어가서 키 작은 찻장 위에 장식해놓은 인형의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든 인형의 집이다. 외관이며 마당은 물론이고 내부 장식과 그 안에 놓여있는 가구 하나하나, 카펫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집과 똑같이 만들어놓은 미니어처 집이다.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의미로 장식장 위에 올려놓고 있지만 이 인형의 집은 이런 경우 많은 도움이 된다. 밋밋한 평면도가 아니고 집 자체가 입체로 되어있어서 누군가 이 집에 침입하려고 했을 경우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추리할 수 있다.

나는 인형의 집을 탁자 위로 갖다 놓고 다 써가는 지우개를 하나 꺼내 그것을 사람으로 간주하고 움직여 보았다. 여기, 하고 나는 소리 내서 말해본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들어와 마당으로 돌아…… 아니지, 마당으로 돌아왔다가는 주인에게 들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뒤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부근에 서 있다면…… 그래, 여기는 욕실 옆이고 창문을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가 어떤 목적으로 나의 평소 행동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 서있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 맞아, 내 서재는 여기고 전화는 여기 있으니 전화로 이야기하는 소리도 이 자리에 서는 그대로 다 들리잖아…….

더운 날 나는 항상 욕실 창과 탈의실로 이어지는 문도 모두 열어놓곤 했다. 창에는 덧창은 물론 튼튼한 창살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방범상 아무 문제도 없어서 열어놓았지만 앞으로는 닫아두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우개를 던져버리고 서둘러 욕실로 가서 열려있던 창을 모두 닫고 잠금장치까지 걸었다. 탈의실로 이어지는 문도 굳게 잠갔다. 바깥 공기가 차단되어 하늘을 날고 있을 헬리콥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왠지 여러 가지 불안이 조금씩이나마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꼼꼼하게 줄여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2주 정도 전이었던가, 집에 찾아온 친구에게 그 '기척'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는 "괜한 걱정이야."하고 말하며 웃었다. "환청이야. 환청. 사람이란 일단 그런 생각에 빠지면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마련이거든."

"하지만 구체적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는 건 소리가 아니야. 기척이거든. 뭐라고 하면 좋을지 잘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웅성거리는 느낌이라고 하나? 집 밖의 공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 기척이 있고 정말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나를 빤히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바람 소리겠네. 여기는 고지대니까 바람이 부는 세기도 남다르겠지. 그래서 이상한 소리로 들리거나 바람이 집을 감싸면서 불 때도 있을 테니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가, 하고 나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 따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삼켰다. 그랬다가, 혹시라도 그가 그럼 역시 사람의 기척일까, 하고 중얼거리며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은 한다면 정말로 무서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번역 일을 하고 있고, 패션 에디터인 한민호는 이따금 내 집에 원고를 직접 받으러 온다. 하지만 원고를 받아가려고 오는 건지 술을 마시러 오는 건지 알 수없는 측면이 있다. 그가 오면 나는 일단 위스키를 권한다. 그는 반색을 하면서 “그럼 조금만 마실게.”하고 말한다. 그러다가 무심코 보면 쉴 새 없이 마셔대고 있는 것이다.

내 직업에 대한 이야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그는 어느새 멋대로 냉장고를 열고, “세진아, 여기 캔 맥주 있는데 내가 마실게.”이런다. 전철 막차까지 놓치고 인사불성으로 취한 끝에 거실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아침까지 자고 간 적도 있다.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마실 거면 먹을거리라도 하나 사들고 오든가, 싶은 생각에 종종 화가 날 때도 있다. 그가 아주 드물게 들고 오는 거라고는 슈퍼에서 샀을 것이 분명한 버터구이 오징어나 감자칩 정도가 고작이다. 학생도 아니고 선물이 휴게소에서 팔 듯한 오징어라니 기가 막힌다. 젊어서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척하는 건지. 젊다고 해봐야 이미 서른 중반에 이혼도 경험한 어른이다. 묵묵히 그를 위해 술을 내오고 오늘의 안주는 뭐가 좋을까 생각하면서 어울려 마시고 취하는 나도 문제가 있지만, 한번쯤은 그와 동갑이지만 연륜 있는 여자답게 남의 집을 방문할 때의 상식에 대해 타일러줘야지 하고 결심하고 있다.

그가 오늘도 오겠다고 한다. 어제 전화가 와서 “원고는 어때?” 하고 묻기에 불쑥 “잘 되고 있지.”하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사실은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다. 그러나 어차피 그는 그걸 가지러 온다는 명분으로 술이나 마시자는 계산일 것이다. 그와 어울려 대작이나 해주면 문제는 없다. 그가 오면 그 ‘기척’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어머니가 만든 인형의 집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그도 여러 가지 추리를 해줄 것이다. 욕실 밖이 이상한 것 같지 않아? 하고 내가 물으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장난이 아니고 진짜 한밤중에 강도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는 걸 상대도 이미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나 정도는 간단히 때려눕히고 기절해 있는 사이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집어 들고 도망칠 생각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혹시 범인이 증거인멸을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가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생각이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다리가 얼어붙고 말 한마디 못하게 될 게 뻔하다. 소리를 쳐봐야 이웃 빌라에서 누군가 도와주러 올 리도 없으니 도리가 없지만 무엇보다 나는 그렇게 어이없는 꼴로 죽기는 정말 싫다. 하늘이 구름에 덮이면서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창밖에 펼쳐진 하늘에 때로 섬광이 번득인다. 마당 끝에서 울어대던 매미소리가 멀어지고 있다. 바람도 조금 불기 시작한 것 같다. 툇마루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짤랑, 짤랑, 희미한 소리를 내고 있다.

나는 툇마루로 나와 장미 넝쿨 너머 울타리 바깥으로 펼쳐지는 경치를 바라보았다. 맑은 날에는 그 위치에서 멀리 서울 풍경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구름에 가려, 풍경은커녕 손을 뻗으면 잿빛 하늘이 잡힐 것 같다.

아버지는 20여 년 전에 이 집을 지은 후에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집을 나갔다.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던 거야.”하고 어머니가 나중에 말했다. “우리에게 이 집을 떠안

기고 이거면 불만 없지, 하고 선언하듯 처음부터 그 여자랑 살림을 합칠 생각이었던 거야." 하고.

"정말 그럴까. 설마 아버지가 그런 속셈을 갖고 한 일은 아닐 거야. 그냥 우연이지."하고 나는 말했지만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고 사실은 나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같이 살고 싶어서 집을 지어 우리 모녀를 살게 했다.

새로 지은 이 집에 아버지는 거의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는 묵묵히 여행 가방에 옷들을 채워 넣고 나갔다. 그럼 잘 있어, 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언덕 아래를 보니 낯익은 차가 서 있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아버지는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여자는 아버지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고 트렁크에 넣고는 얼른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는 여자에게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내가 그런 마지막 광경을 실제로 본 건 아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었을 뿐이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다. "그따위 여자 때문에."하고 내뱉듯이 말했다. 그리고 마시고 있던 차를 입에 한 모금 넣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것을 삼킬 생각이 없어진 것처럼 입을 벌리고, 칠칠맞게 벌린 입술에서 차가 줄줄 흘러내렸다.

"왜 그래요?"하고 물어도 반응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나는 그해 봄에 대학을 나와 염원하던 광고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나 그 회사에 얼마 다니지도 못했다. 어머니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자살 소동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 때나 울기도 하고, 우울해 있거나,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않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마당으로 내려가 쓰러질 때까지 마당의 풀을 뽑는 행동을 하니 불안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혼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불한 위자료는 두 식구가 살기에 충분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빌려주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있었다. 말하자면 돈이 궁하지는 않았지만 먼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집에서 번역 일을 시작하게 된 건 그 때문이다. 원래 어학에는 자식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좋았던 시절에 이미 나는 교환학생을 경험했다. 또한 대학시절 알게 된 영국인 남자아이와 사귀면서 재미삼아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원서로 된 소설을 읽기도 했다.

내가 번역하는 것은 해외 아티스트들의 평전이었다. 덕분에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여 가계는 윤택해지고 그에 안도했는지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의사로부터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라는 판정이 떨어지는 단계까지 간 것이 6년 전.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성격까지 부드러워져서 어머니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이 되었다.

모형정원 요법의 연장선상으로 시작한 인형의 집 만들기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두꺼운 종이와 과자 상자, 공예용 종이, 부엌에 있는 알루미늄 호일, 철사, 반짇고리에 있던 천 조각 등 주변이 있는 것들만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윽고 조금씩 본격적이 공예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비즈 용품들을 이용하여 가구 손잡이를 만들었다. 점토에 물감으로 채색을 하면 소품들이 완성되었다. 창유리 부분은 아크릴 판을 이용하고 지붕은 진짜 슬레이트를 작게 잘라 붙였

다.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전용 카터며 본드, 핀셋 등은 모두 간단히 구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빌려온 인형의 집에 관한 잡지와 책을 보면서 단기간에 놀랄 정도로 훌륭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이것 좀 봐, 내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가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의 작은 과일바구니를 보여주었을 때는 무심한 나도 환성을 질렀을 정도다. 바구니 안에는 각종 과일들이 담겨 있었다.

2년 전 겨울 어머니의 몸이 이부자리 안에서 차갑게 식어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였다. 자는 동안 심장발작을 일으킨 것 같았다. 어머니의 머리맡에는 간밤에 완성한 듯한 새로운 인형의 집이 있었다. 전날 밤늦게까지 정성으로 잠자는 시간도 아끼며 만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내가 사는 이 집과 똑같은 모습의 미니어처였다. 심장발작은 누적된 수면부족과 피로가 원인이 되었던 모양이다.

우리 집과 똑같은, 가구에서부터 소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똑같은 미니어처 안에는 점토로 만든 인형 두 개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나인 것 같았고 나이 든 모습의 여자는 어머니인 것 같았다. 인형의 집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다 치더라도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인형이 너무 싫었다.

어머니 인형은 어머니가 거실로 사용하던 방에 요를 깔고 그 위에 누워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죽었을 때와 똑같은, 똑바로 누운 모습이었고 어깨까지 덮고 있는 이불도 어머니가 숨을 거둔 날 덮었던 이불과 똑같은 노란 꽃무늬가 찍힌 것이었다. 그리고 내 인형은 그 방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인형은 검은 바지에 체크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발견한 겨울날 아침에 내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차림새였다. 우연이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의 모습과 지나칠 정도로 똑같다. 뭔가 모르게 오싹해지는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나는 그 인형의 집을 어머니의 관 안에 넣어 시신과 함께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온 정성을 담아 이 집을 만들었을 것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나 다름없었다. 인형만 치워놓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나는 두 개의 인형을 떼어 어머니의 제봉함 안에 넣어두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도 마치고 사십구제가 지날 무렵에는 나도 그 인형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머니는 단순히 그 무렵 내가 집에서 자주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인형에기 입혔을 뿐인지도 모른다. 자신을 본뜬 인형을 이불 속에 눕힌 것도 아침까지 잠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였을 것이고 그밖에 아무 이유도 없는 건지 모른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의 제봉함을 열고 감춰놓은 두 개의 인형을 꺼내 바라보았다. 보면 볼수록 나와 어머니와 똑같아서 버리거나 태우기에는 아무래도 망설여졌다. 나는 두 개의 인형과 어머니 인형이 덮고 있는 이불까지 티슈에 싸서 어머니 방에 있는 보석함에 넣었다.

'지금도 거기 그대로 있겠지.'하고 나는 생각했다. 버린 기억은 없으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없으면 이상하다. 약간 신경이 쓰인 나는 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가 거실로 사용하던 방은 세 평짜리 공간으로, 여름 오후에는 항상 햇볕이 들어 냉방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곳이 된다. 오늘은 날이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데도 창문을 꼭 닫아놓은 방에는 열기가 그대로 머물러 더웠다. 보석함을 열어보았다. 있었다. 티슈 뭉치는 구석에 처박혀 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만진 그 꾸러미를 일단 손에 들었다가 얼른 도로 놓았다.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기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방이 너무 더운 탓이었다.

이제 곧 한민호가 온다. 칵테일이 마시고 싶었다.

"욕실 바깥 쪽?" 그가 되물었다.

나와 그의 옆에는 위스키와 유리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인형의 집이 놓여있다. 빗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다. 온 집안이 물소리에 잠겨 있다. 5시가 지나서 그가 와서 현관에 선 순간 엄청난 천둥이 있었다. 우산을 갖고 오지 않는 그는 비를 맞아 온몸이 젖어있었다. “아니, 괜찮아.”하고 사양하는 그에게 얼른 갈아입을 옷을 내주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욕실 가운이었다. 어머니는 어찌 된 영문인지 그토록 아버지를 증오했으면서도 아버지의 옷은 거의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한 번 요란한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딘가에서 두둑, 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집안의 전등이 모두 꺼졌다. 정전이라고 하지만 아직 밤이 된 것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니까 금방 다시 켜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와 칵테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는다. 냉방이 꺼지고 나니 방 안은 푹푹 찌듯 더웠지만 창을 열면 비가 안으로 들이친다. 그에게 부채를 건네주면서 “한동안 이대로 있는 수밖에 없겠네.”하고 말하며 나는 인형의 집을 향해 앉았다.

“여기 말이야.”하고 나는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우리 집 뒷마당 쪽을 가리켰다. “이 욕실 밖에 서 있으면 안에서 나는 소리가 모두 들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서재가 여기고 복도를 끼고 있긴 하지만 여름에는 대개 방문을 모두 열어놓는 편이고 서재에서 전화로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들리게 되잖아. 서재뿐만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도 들으려고 작정하면 텔레비전 소리 정도는 들릴 거야. 침실은 여기지만 여기서 나는 소리도 들릴지 모르지.”

“욕실 창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어. 잘 때도?”

“대개는 열어놓지. 통풍이 잘되니까.”

“위험하지. 아무리 창살이 되어있다고 해도 위험해. 밖에서 누군가 이상한 물건이라도 던져 넣으면 어떡해. 그리고 봐봐. 화장실이 여기지? 화장실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니?”

나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이어서 “듣고 보니 그러네.”하고 말했다. “너는 참 용케도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네. 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야.” 그는 컵에 든 위스키를 마저 마셨다. “용케도 생각이 미치는 게 아니고 누가 바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기분이 나쁘군. 좀 으스스하지 않아? 혹시 말이야. 너의 가설대로라면 범인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뭔데?”

“그 자는 너의 일상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야. 스토커지.”

“말도 안 돼.” 하며 나는 소리 내서 웃었다. “시집도 못 간 여자의 생활이 뭐가 재미있다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을까. 허구한 날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만 두드려대는 지루한 생활인데. 첫째 나한테는 스토커가 생길 만한 관계를 가진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거든.”

“관계성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열렬한 팬일지도 몰라.”

“번역자 사진도 올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팬이 된다고. 책 뒤에 실려 있는 내 약력도 이름하고 간단한 경력뿐이고 생년월일도 없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일지 알고.”

“팬이라는 건 말이야. 좋아하는 상대의 나이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아.” 그는 말하며 웃었다. 아무것도 아닌 화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에게 있어서 어차피 이 집에서 내가 느끼는 ‘기척’같은 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뭐, 좋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지금 여자와 같이 살기 위해 나와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의 욕실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 어머니가 만든 인형의 집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리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잔에 남아있던 술을 비우고 “뭐 좀 먹을래?”하고 물어다. “어제 저녁에 만든 그라탱이 남아있는데.”

“아, 좋지. 먹을래.”

나는 곁눈질로 그를 노려보았다. 가끔은 뭘도 좀 사들고 오지, 그게 상식 아니야? 지금이 그런 충고를 하기에 적당한 상황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망설여졌다. 부엌으로 가려고 했을 때 다시 푸시,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의 불들이 차례로 켜졌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방에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아, 불 들어왔다.”하며 그는 아이처럼 환성을 질렀다. 나는 방 입구에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욕실 가운을 입고 좌탁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인형의 집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거, 다시 보니까 굉장하다, 하고 그는 말한다. “기왕이면 이 안에 인형을 넣어두면 좋을 텐데.”

“왜?”

“움직일지도 모르겠는데? 너랑 똑같이 생긴 인형이.”

인형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날씨가 조금 더 화창하고 기분 좋은 저녁나절이라면 혹시 그를 상대로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가 죽지 직전에 만든 인형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은 싫었다. 아버지의 욕실 가운을 입고 있는 남자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도 괜히 싫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그라탱이 담긴 그릇을 꺼내 작은 접시에 옮겨 담고 렌지에 넣어 데웠다. 술도 준비했다.

빗소리가 거세다. 천둥은 조금 멀어졌지만 빗발은 여전히 억세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돌아오니 그는 몸을 굽혀 인형의 집을 들여다보면서 “저기 세진아.”하고 말했다. “이거 알고 있었어?”

“이거라니?”

“이거 말이야.”

그는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천천히 인형의 집 안에 손을 넣었다. 인형의 집 안에 있는 어머니의 거실 부분에는 벽장이 있었다. 물론 실제 벽장과 똑같은 위치에는 우리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이 노란색의 엷은 꽃이 그려진 한지가 발라져 있다. 그는 그 벽장의 검은 손잡이 부분에 검지를 넣었다. 아주 작은 벽장은 스르르 옆으로 열렸다.

“그게 어때서?” 하고 내가 말했다. “열리게 되어있어. 그 문만이 아니고 전부 그래. 안에 들어있는 가구도 세면장의 수건장도 그렇고 모두. 진짜랑 똑같이 열리는걸.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대단하지.”

“그게 아니고.” 그가 말했다. “이 안에 뭔가 들어있어. 이게 뭐지?”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이어서 그가 가리키고 있는 벽장 쪽을 보았다. 벽장 안쪽 깊숙이 뭔가 작고 네모난 것이 보였다. 안은 비어있을 것이다. 아무리 충실하게 실제 모습을 모방하려고 했던 어머니지만 설마 벽장이나 장식장, 옷장 안의 내용물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만들려고 했다면 나는 어머니의 마음의 병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벽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안에까지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장식장 서랍을 열고 핀셋을 꺼내 그것을 이용하여 미니어처의 내용물을 집어냈다.

“굉장하다.”하고 그가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콩알 크기의 인형의 집. 이 집을 모방한 아주 작은 크기의 또 다른 인형의 집이었다. 검푸른 지붕이 딸린 단층집. 사방 일 센티미터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가 만든 인형의 집과 똑같이 생긴 미니어처 크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작아도 너무 작다. 자세히 보려고 작정하면 확대경을 사용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힘을 가하면 핀셋 안에서 찌그러들 것 같다.

인형의 집 안에 다시 그것을 미니어처화한 인형의 집이 있다. 어머니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이걸 인형의 집 안에, 그것도 자기 방 벽장 깊숙이 넣어둔 걸까.

“몰랐어?”하고 그가 물었다.

“몰랐어.”하고 나는 말했다.

멀리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이상하게 큰 빗소리가 나고 집 전체가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마치 지붕 위에서 누군가가 거대한 양동이를 뒤집어 집을 통째로 물에 잠기게 할 것 같은 느낌이다. 나와 그는 순간 흠칫 놀라며 시선을 마주했다. 등줄기에 차가운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얼른 내게서 시선을 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라탕을 내려다보며 “맛있겠는데?”하고 말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투다. 갑자기 주위 공기가 부드럽게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꽉 막혀 있던 숨을 토해내고 핀셋으로 잡은 콩알만 한 인형의 집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용한 나날이 반복되고 있다. ‘기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도 있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그런 일에도 익숙해졌다. 원래 교우관계가 적고 그 말고는 누군가가 집을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도 여름 감기에 걸렸다고 전화를 걸어온 이후로 연락이 없다. 누군가 만나고 싶어지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는 없었다. 꼬박 한 달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성격이라 그가 여기 오거나 말거나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 간단한 세수와 함께 옷을 갈아입고 아침식사를 만든다. 식사가 끝나면 4일에 한 번 꼴로 청소기를 돌린다. 청소를 하지 않는 날은 빨래를 한다. 그래 봤자 여자 혼자 살아서 대단한 빨랫감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해가 뜨기 전에 모자를 쓰고 마당에 나가 눈에 띄는 대로 풀을 뽑기도 하고 화단의 꽃에 물을 뿌리기도 한다. 어머니가 건강했을 무렵 정성을 다해 키운 페퍼민트는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올해는 피지 않는다.

점심때쯤 되면 소면을 삶아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는 것은 그 후다. 툇마루에 걸어놓은 풍경이 흔들리면서 내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새 졸음이 온다. 책상에 엎드려 잠깐씩 졸 때도 있지만 그대로 거실에서 잠을 쫓기 위해 텔레비전을 켤 때도 있다.

장을 보러 가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언덕길을 내려가 차도로 나와 조금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다. 저기서 버스를 타면 10분 만에 옆 앞 쇼핑센터가 나온다. 은행에 들르거나 우체국에 들러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장 보러 갈 때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구입한 물건들을 양손에 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온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게 숨이 차지만 그나마도 운동이 된다. 집에 돌아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숨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온다.

나는 자신이 그저 습관의 하나로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짜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척’ 따위는 익숙해지면 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공간을 ‘아무도 없다’고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반

복되는 일상 중에서 문득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찌 된 영문인지 아무데서도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은 지가 한참 되었다. 한민호가 조금 걱정이 되어 회사로 전화를 해볼까 생각도 해보지만 어느새 잊어버린다. 그가 아무 말도 해오지 않으니 굳이 내가 일의 진척상황을 보고해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마신다. 텔레비전을 본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지만 때로 나는 텔레비전을 향해 킥킥 웃는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병이 깊어지던 무렵의 어머니는 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었고 그런 어머니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나는 종종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는 척했다. 어머니는 그런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허공 한 점을 응시하며 넋을 놓고 있었다. 당장이라고 목을 맬 것 같은 얼굴을 한 어머니 앞에서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킥킥대며 웃었다. 모르는 사람이 그 광경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녁식사 때 반주로 시작한 술이 하릴없이 계속되어 그대로 누워 잠이 드는 일도 있었지만 대개는 말끔하게 뒷정리를 하고 목욕을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잠이 들었다. 잠이 들지 않는 밤은 없었다. 아무리 무더운 밤이라도 또 아무리 '기척'이 농후한 밤이라도 나는 아침까지 꿈도 꾸지 않고 푹 잤다.

입추가 지날 즈음에 그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감기가 겨우 나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서 남부지방을 돌고 오겠다고 한다. 뭔가 이상하게 들떠 있는 모습이기에 내가 지나가는 말로 "애인이라도 데리고 가는 거야?"하고 묻자 그는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하고 부자연스럽게 큰소리로 웃었다. 진행하고 있는 번역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끊으려고 하자 그는 문득 생각난 듯이 "어때?"하고 물었다. "전에 그 '기척' 말이야. 아직도 계속?"

아, 그거 말이군. 하고 나는 말했다. "여전해. 그뿐 아니라 상당히 심해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혼자나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에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런 일에도 어느새 이골이 나버렸어. 이제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아."

"역시 너는……."

"역시라니 무슨 말이야?"

"아니, 너는 그냥 어떤 사물에도 심각해지지 않는 편이잖아. 강하다고 해야 할지, 악착같다고 해야 할지."

"별로 강하지도 않아. 구석구석을 아무리 둘러봐도 누군가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는걸. 지금으로서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괜히 혼자 걱정하면서 끙끙거리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생각이 들 뿐이야."

"맞아."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건 내 말대로 틀림없이 '바람' 탓일 거야. 바람이 그 부근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켜 기척 같은 느낌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날씨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거지. 그 집은 고지대에 있고 조금만 가면 산이 있고 기류가 이상한 방식으로 교차하게 되어 있어. 그게 원인일거야. 역시 내 말이 맞았네."

친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거만하게 들리는 말투가 신경에 거슬렸다. 나는 약간 불쾌해져서 적당히 인사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흐린 날씨 탓인지 습도가 높고 이상하게 푹푹

찌는 날이었다. 나는 현관을 나와 문틀에 설치해놓은 우편함을 보러 갔다. 안은 비어있었다.

그러고 보니, 하고 생각이 났다. 어제도 우편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제만이 아니다. 그제도 그 전에도 없었다. 확실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요즘 한동안 우편함에 뭔가 우편물이 들어있었던 적이 없지 않은가. 애타게 기다리는 편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지 않는 우편물 하나가 신경이 쓰인다. 화재보험 증서다. 매년 여름 이맘때쯤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미리 갱신 수속을 한다. 보험회사의 작은 대리점이 역 앞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을 보러 간 김에 들러 도장을 찍고 보험료도 그 자리에서 지불하고 왔다. 보험증서는 곧바로 우송하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배달되지 않고 있다.

수속은 마쳐놓았으니까 만일 지금 화재로 집이 타버려도 보험금은 나올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증서가 수중에 없다는 건 불안하다. 어떻게 된 걸까 싶어 나는 즉시 역 앞의 대리점에 전화를 걸었다.

“잠깐 기다리세요.”하는 말에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지나 여자 목소리가 전화를 받더니 “우성해드렸습니다만.”하고 말했다. “분명히 8월 2일자로 발송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오늘은 벌써 10일인데.”

“이상하군요. 저기……주소가……아, 같은 구역이니까 바로 그 다음날 도착했어야 할 텐데 정말 이상하군요.”

"그러게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실래요? 이런 말을 하면 실례일지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기록상 우송한 걸로 되어 있어도 뭔가 실수가 있어 어딘가에 누락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이 경우를 생각해 조속히 조사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빠른 어조로 전화번호를 말한 탓인지 상대 여자는 두 번 정도 되물었다. 아무튼, 하고 나는 말했다. “연락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단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이 나기에 지역 우체통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무뚝뚝하기만 한 중년 남자로,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배달원에게 확인해보겠습니다만…….”하고 말하며 어이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런 불평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댁만 우편물 배달을 누락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뭔가 착각 아닙니까?

“우리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하고 내가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광고우편 한 통 들어오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지난 며칠 동안 우편함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은 말이죠. 4번지 언덕 위에 있어요. 요즘 같은 살인 더위에 언덕을 올라오는 걸 꺼리겠죠. 그래서 배달부가 우리 집에 오는 일에 꾀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만.”

남자는 “물론 그렇습니다.”하고 말하며 갑자기 새삼스러운 듯 내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물었다. 나는 큰소리로 대답해 주고 뭔가 알게 되면 즉시 연락해 달라고 말해놓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조급해진다. 우체국 남자의 대응이 좋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가슴 속이 울렁거려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가 툇마루로 나왔다가 주방을 들여다보면서 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낮에는 서재 외에는 냉방을 하지 않는다. 툇마루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더운 바

람이 파고들어 사우나처럼 푹푹 찐다.

어머니가 만든 인형의 집에 눈길이 멈췄다. 소나기와 정전이 있던 날 그가 여기 와서 인형의 집을 살피다가 그 안에서 더 작은 인형의 집을 발견했을 때부터 그것은 계속 식탁 위에 놓인 상태로 치우지 않고 있었다. 이마에서 관자놀이를 타고 땀이 흘러내린다. 방 안의 전등을 켰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설사 있다고 해도 전혀 내키지가 않는다. 나는 탁자를 마주하고 앉아 인형의 집을 들여다본다. 처음에는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몸을 앞으로 굽혀 다시 한 번 눈을 모았다.

인형의 집 안 거실에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좌탁 위에 그 작은 인형의 집이 놓여있다. 그런 곳에 놓은 기억은 없다. 언제 누가 이걸 여기에 올려놓은 걸까. 콩알만 한 인형의 집은 그때 어머니 방 벽장에 다시 넣어두었을 것이다. 나중에 술에 취한 그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다시 꺼내 좌탁 위에 올려놓은 걸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날부터 줄곧 식사를 할 때마다 나는 자주 좌탁 위의 인형의 집을 들여다보곤 했었다. 미니어처 인형의 집 다실에 이런 건 놓여있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역 앞에 쇼핑을 하러 갔을 때 빈 집에 누군가 숨어들어와 이런 짓을 한 걸까.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실물을 축소한 미니어처 집 안에 또 하나 더 작게 축소한 집이 있고 그 콩알만 한 집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누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까. 도대체 목적이 뭘까. 울화가 치밀었지만 나는 인형의 집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혹시 이 미니어처 집 안의 콩알만 한 집 안에는 더 작은, 먼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집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먼지같이 작은 집 안의 탁자 위에는 또 다시 더 작은 집이 있고…….

머릿속 심지가 휘청 흔들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다. 옛날, 아주 오래 전에 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의 일. 당시 많은 아기들이 먹던 분유가 있었다. 대기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맛도 영양분도 정평이 나 있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 집에도 그 분유 깡통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가끔 바라보고는 이상한 기분에 빠졌다. 분유깡통 표면에는 머리를 어깨까지 구불구불 늘어뜨린 소녀가 같은 분유 캔을 들고 서 있는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소녀가 들고 있는 그림 안의 분유통에는 역시 똑같은 소녀가 분유통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그림 속의 분유깡통에 그려져 있는 분유통, 그 안의 분유통……하고 우주의 끝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식으로 상상하니 현기증이 나고 무서워졌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건 그와 비슷한 기분이다. 그건 그렇고 마당이 너무 조용하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매미 소리가 끊어졌다. 풍경 소리도 잦아들었다. 집 밖에서 갑자기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니, 바깥이 아니다.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라고 하는 게 좋겠다. 어디서부터랄 것도 없이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희미한 웃음소리도 들린다. 째질 듯한 어린아이 같은 웃음소리다.

보험회사 대리점에서는 아직도 전화가 없다. 금방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보다 우체국은 어떻고. 무뚝뚝한 대응만 하고 아무 연락도 해주지 않다니 이건 근무태만이다. 아니면 역시 우리 집이 언덕 위에 있어서 우편배달부가 귀찮게 여기고 일부러 내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어딘가에 버렸다고 고백한 걸까.

바깥에서 나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남의 집 주변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 화가 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여름 축제라도 열리고 있는 걸까. 우리 집 앞을 통과하게 되어있는 걸까. 설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다. 막다

른 길로 되어있어서 더 나아가려고 했다가는 절벽을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

나는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 툇마루로 나왔다. 마당을 본다. 아무것도 달라진 낌새는 없다. 문득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치켜떴다.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을 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웃음소리가 높아진다. 들떠 있는 듯한 목소리다. 그 목소리들은 웅성대는 소리가 되어 주위로 울려 퍼진다.

젠/장, 하고 나는 큰소리로 혀를 찼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다니 참을 수가 없다. 매일 남의 집을 들여다보기나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싶다. 마음 편할 틈도 없다.

투덜투덜 화를 내면서도 나는 기분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거다 싶었다. 이거였던 것이다. 그래, 이제야 알았다.

나는 툇마루에 등을 돌리고 거실로 돌아왔다. 목소리가 들린다. 여자 목소리. 뚜렷하게 들린다.

“이것 좀 보라니까.” 하고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 “이 안에도 인형의 집이 들어있어. 거기. 그 탁자 위. 어머, 정말. 이렇게 작다니. 대단하다. 정말 잘 만들었어. 예쁘네. 믿을 수가 없어.”

나는 흥, 하고 코끝으로 웃어주고 밖을 노려보고 나서 소리를 내며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보리차를 따라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셨다. 다 마시고 나서 “진작 그렇게 말해주면 좋았잖아.”하고 소리 내서 말했다.

말하면서 문득 머리칼이 거꾸로 서는 것을 느꼈다.

십이야 十二夜

20131119 배 은 주

어스름히 만물을 밝히는 달빛이 고드름 맺힌 창가로 들어와 근심에 빠진 왕의 얼굴을 조심스레 매만졌다. 한 시진 전부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일말의 소리조차 내지 않고 상소문을 읽던 왕은 궁녀가 가져온 차 한 잔을 내려놓기도 전에 잡아채어 벌컥 들이켰다. “폐, 폐하. 그러다 속이 다 상하십니다.

“얼른 가서 차나 좀 더 가져와라.”

“예.”

오직 상소문만 응시하며 내린 왕의 명을 따르러 궁녀가 나가자 침전 안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왕은 며칠 전부터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상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왕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상소들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모두 같은 내용의 상소라는 것이다. 바로 1)위사좌평 홍백(霐泊)을 유배 보내라는 상소들이었다. 이번에는 하나같이 홍백이 그를 따르는 대신들로부터 온갖 뇌물을 받았다는 말들이었다. 왕은 다른 일을 하더라도 홍백의 일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상소를 올린 대신들을 슬슬 피하게 되었다. 체면이 있는 대로 다 구겨졌다 생각한 왕은 기분이 퍽 상하였다.

“어찌 매양 홍백의 상소만 올라온단 말인가!”

일전에 홍백을 향한 내용만 다른 상소문이 빗발쳤을 때에는 왕이 직접 명명백백히 밝혀내라 명하여 일단락되었으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왕의 중요한 업무마저 방해하는 끈질긴 훼방꾼들에 결국 왕이 백기를 들기로 했다. 달빛마저 희미해진 푸르스름한 하늘의 새벽 별을 바라보며 왕이 내관에게 이르길 "날이 밝거든 좌평을 들라하라. 단 아무도 모르게 들여야 한다." 며 신신당부하였다.

다음 날 내관의 안내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입궐하였다. 궁궐 안은 시간이 멈춘 듯이 고요했고 홍백의 움직임은 신속하며 은밀했다. 홍백이 왕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신 위사좌평 홍백, 폐하를 뵈옵니다.”

“좌평, 내 그러니까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왕의 이마에 패인 주름이 더욱 깊어져 물길이 난 것처럼 또렷해졌다.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는 왕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홍백이 더욱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폐하, 신을 향한 상소문이 폐하의 심기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소신 잘 알고 있나이다. 무엇이든 명하소서.”

“절대! 자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어서가 아닐세. 당분간 머리 좀 식히고 오는 게 어떻겠는가. 이번에 잠깐 갔다 오면 다신 저들이 감히 자네에게 대들지 못할 것일세.”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입에서 봇물 터지듯 술술 나오는 말을 멈출 수 없었다.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머금고 있던 말들이 튀어나왔으니 말

1) 업무를 관장한 백제의 제1품 관직.

이다. 하려던 말을 다 내뱉자 왕은 다 끝났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명 받들겠나이다. 폐하. 다만 소신의 하나뿐인 소생만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알겠네. 걱정 말게.”
이로써 홍백의 기약 없는 유배가 결정되었다. 마침내 왕이 대신들 앞에서 홍백의 유배를 알리니 상소를 올렸던 자들이 궁궐 안팎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왕을 칭송하고 또 칭송하였다.

명위(命衛)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다시 한 번 눈을 꼭 감았다 떠도 그저 충직하고 강직하기만 하던 아바님이 핏기 없는 얼굴로 누워계셨다.
“아, 아바님…”
홍백을 유배 보내고 심신이 약해진 홍백의 부인은 홍백과 어린 명위를 두고 한 많은 생을 등졌다. 죄 없는 아바님을 유배 보낸 왕을 원망하던 명위에게 홍백은 초점 없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폐하의 잘못이 아니다. 절대 이 일로 폐하를 원망해선 안 된다, 명위야. 정 원망을 하려거든 네 어미를 지켜주지 못한 이 못난 애비를 탓하거라.”
바보 같은 아버지, 홍백마저 명위의 곁을 떠났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위사좌평의 자리에 올라 출세한 홍백을 시기하던 자들도 품으려 했던 아버지, 명위에겐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그런 분이었다. 홍백은 5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의문의 자객에 의해 짧았던 생을 끝맺고 말았다. 계획대로라면 유배에서 돌아올 그를 위해 막 비워둔 위사좌평의 자리에 홍백이 다시 앉아 있어야 했다. 명위의 눈물이 주먹 쥔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차가운 다짐 위로 떨어진 뜨거운 한이 식어가고 있었다. 영원한 작별 앞에서 한없이 무겁기만 한 어깨는 멈추지 못하고 몇 번을 들썩인 후에야 잠잠해졌다.
명위와 혼인하여 살을 맞닿고 산 지 반년을 갓 넘긴 세의가 장례를 마치고 난 명위의 등에 기대어 조금은 거칠어진 손으로 어깨를 감쌌다. 명위가 아무 반응이 없자 세의(歲逡)가 눈에 힘을 잔뜩 주고는 명위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서방님. 제가 아버님을 처음 만나던 날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부인, 그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과 처음 밤을 지새우던 날에도, 아버님 기력이 쇠하여 서방님이 말수가 줄어든 날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냥… 그냥 들어주셔요.”
이야기를 채 꺼내기도 전에 세의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버티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아무렇지 않은 듯 손등으로 쓱 한번 닦고는 피식 웃으며 운을 뗐다.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이던 해였습니다. 그 때의 저는 산자를 손에 들고 외조부 댁에 가던 길이었지요. 어찌나 달큰하던지 저고리에 묻는 줄도 모르고 들이먹다 보니 길을 잃어버렸지 뭐예요. 처음에는 ‘금방 길을 찾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민가도 점점 줄어들고 여우비가 내리는 것인지 그 맑디맑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포 전 새로 산 꽃신을 처음 꺼내어 신었더니 발도 아프고 걸음이 더뎌졌었지요. 2리쯤 걸었을 때에 제 오른손에는 산자가 왼손에는 꽃신이 들려있었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였기에 귀담아 듣지 않던 명위의 시선이 재잘거리는 세의의 입술로 옮겨갔다. 했던 말을 계속 하면 지겹지도 않은지 별빛을 박아 놓은 것 같은 까만 눈동자에 생기가 가득했다. 세의는 명위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옛 기억에 사로잡힌 듯 했다. 세의는 명위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옛 기억에 사로

잡힌 듯 했다.

“비가 금방 그쳤기에 길바닥에 주저앉았더니 '그리 하시면 낭자의 어여쁜 치마가 더렵혀질 것입니다.' 하는 사내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손수 제 손에 들려 있던 신을 신겨주시었습니다. 아버님을 처음 뵌 순간 인상이 수더분하시어 절로 웃음이 났지요. 넋을 놓고 아버님을 보았더니 '내 얼굴에 티끌이라도 묻었습니까?' 하시며 사람 좋은 눈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무어에 홀린 듯 산자를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적잖이 당황하셨지요. 비를 듬뿍 맞은 산자가 못쓰게 되어있는 줄도 모르고 건넸으니 말입니다.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님께서는 '나중에 만나거든 그 산자 맛을 좀 봅시다.' 하셨지요. 하여 제가…”

가만히 앉아 얘기를 듣고 있던 명위가 갑작스레 세의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명위의 돌발행동에 세의는 숨이 멎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절로 알 것만 같았다. 세의의 목구멍으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어찌 할 바를 몰라 서방님의 눈치만 요리조리 살폈다. 긴장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숨을 참고 있는데 명위가 고개를 돌려 세의를 바라보았다.

“아는 얘기도 가만 듣고자 하니 계속 하시오. …… 부인. 부인!”

명위가 두 번이나 부르고 나서야 세의가 숨을 뱉었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던 세의는 힘겹게 목을 가다듬고는 목소리를 내었다.

“하, 하여 그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더라…….”

“아바님께서 산자 맛을 보겠다. 하셨소.”

“아! 예, 예! 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날이 다 저물겠다 생각되어 아버님과는 후일을 기약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님을 찾아 일러 주신 곳에 갔을 때에는 계시지 않으셨지요. 잠시 출타하신 듯 했사온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시질 않기에 제가 사는 곳을 적어 산자와 두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바님께서 부인을 찾아가셨습니까?”

세의는 다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물어오는 명위가 순간 얄미웠으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곧 생각을 지웠다. 그래도 덕분에 두근대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예, 하여 이렇게 서방님과 제가 한 지붕 아래에 함께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아바님 덕분이지요.”

명위가 일어나 앉아 홍백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순간 눈빛이 어찌나 차갑게 변했던지 세의의 몸이 오싹함에 부르르 떨렸다.

“부인,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듭시다. 내일은 아바님의 장례를 치러야지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난 명위가 먼저 홍백의 방을 나섰다. 세의는 잡을 새도 없이 나가버린 명위를 보며 한숨을 쉬고는 홍백을 향해 절을 올리고 명위를 뒤따라 나섰다.

이윽고 홍백이 세상을 떠난 뒤 첫 태양이 떠오르자 눈을 뜬 명위는 자고 있는 세의를 깨우지도 않고 홀로 홍백의 방으로 향했다. 하룻밤 사이에 눈물이 다 말라버렸는지 명위는 어제와 확연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먼저 절을 올린 명위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제 곧 아바님의 장례를 지내고 삼년상을 치를 것입니다. 딱 삼년입니다. 그 이상은 아바님을 원망하는 일도, 아바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 목숨이 다하여 아바님을 뵙게 되면 천세에 둘도 없을 이 불효자를 매우 꾸짖어주십시오. 불호령을 내려주십시오. 어떤 벌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명위를 찾는 세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명위가 일어나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니 장례를 치를 사내들이 마당에 서 있었다. 세의는 이제야 실감이 나는지 왈칵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엉엉 소리 내어 울다가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불현듯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다. 사내들이 홍백을 옮기는 것을 보던 명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세의와 홍백이 처음 만나던 날의 여우비가 올 것만 같은 맑은 하늘빛에, 그 따스함에 명위의 눈은 어느새 감겨 있었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달콤한 냄새에 감은 두 눈이 뜨거워지자 입술을 깨물었다. 집 밖을 나서는 사내들을 따라 나가니 자신도 모르게 흘러버린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

❄ ❄

삼년상이 시작되자 그녀는 자신도 같이 하겠다며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으나 명위는 한사코 거절했다. 그녀가 말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홍백의 무덤 옆에서 막무가내로 버티자 명위는 '지금은 날이 추워 그러니 정 하려거든 봄이 오거든 하시오.' 라는 말로 겨우 아내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홀로 고생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갔으나 명위가 매번 돌려보내어 단 한 시진도 있지를 못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명위의 눈을 피해 몰래 찾아갔다. 허나 그마저도 닷새를 넘기지 못하고 들켜버렸다.

“절대 서방님 홀로 효를 다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저승 가서 부모님 뵙게 되거든 혼자만 예쁨 받으시려구요?”

그녀는 차마 명위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할 자신이 없어 땅을 쳐다보며 툴툴거렸다. 그러나 명위는 아내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못 들은 척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여막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차마 홍백의 무덤 앞에서 언성을 높일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홍백의 방을 쓸고 닦고 또 쓸고 닦았다. 햇볕 한 줌, 바람 한 줌도 놓치지 않고 모두 집 안으로 들였다. 처음 며칠은 남편이 보내는 서신을 기다리던 낙으로 살았다면 이후에는 하루하루가 심히 고되어 그토록 머릿속에 맴돌아 마음을 어지럽히던 남편 생각조차 뜸해졌다. 그로부터 얼마나 되었을까. 그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누인 그녀는 꿈속에서 집으로 찾아온 홍백과 마주하게 된다.

“아버님, 서방님도 저도 아버님을 늘 정성껏 뫼시고 있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다 좋으시지요?”

“글쎄다…….”

오랜만에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장난스럽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하는 홍백 앞에서 그녀는 꿈속임에도 안절부절못했다.

"그 곳에는 어머님도 계시니 부족함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방님이 실수 하셨을 리는 없고… 혹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울음소리가 듣고 싶구나. 단지 그것뿐이다.”

그녀는 곧바로 잠에서 깨어난 후 먹을 갈고 붓을 들어 서찰을 쓰기 시작했다.

‘서방님, 간밤에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 이르시길 울음소리가 듣고 싶다 하셨으니 이전보다 곡소리를 더 크게 내심이 어떨는지요. 저 역시 이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힘껏 서방님을 돕겠습니다. 세의 올림.’

다 쓰고 난 그녀는 막상 서찰을 보내려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대쪽 같은 남편이 자신의 서찰을 읽기도 전에 불태워 없앨까 염려된 것이다. 결국 그녀는 겉봉에 큰 글씨로 ‘긴급’ 이라고 써 넣은 뒤에야 봉투에 종이를 집어넣고 꾹꾹 눌렀다. 남편에게 서신을 보낸 후에도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한 그녀는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기로 결심했다. 날이 완전히 밝기를 기다렸다가 절을 향해 올라간 그녀는 당장 그날로 백일치성을 드렸다. 치성을 드리고 집에 오면 이전보다 더 극진히 시부모님을 위했다. 온기 없는 빈 방에는 항상 초를 켜서 낮이나 밤이나 빛으로 밝히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자 불을 때어 냉골을 덥혔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얼음장 같은 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사람 4개를 만들어 대문 앞에 나란히 놓아두기도 했다. 이따금씩 사무치게 외로운 날에는 엄동설한도 잊고 맨발로 눈을 밟으며 뽀드득 거리는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했다. 눈이 모두 녹아내려 춤을 출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상심하고 있던 그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나타났다. 절에 갔다가 돌아오니 대문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닌가.

“누구시기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이 댁 주인 되시는지요? 전해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누가 보내서 오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딱히 손님이 찾아올만한 일이 없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 되는 분의 용모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녀는 사내의 말을 듣고 그제야 경계심이 풀리고 눈물이 핑 돌아 낯선 이에게도 그녀 특유의 환한 미소를 보일 수 있게 됐다.

“제 남편은… 제 서방님은 키가 저보다 두 뼘이나 크시고 어깨는 금수도 거뜬히 짊어질 정도로 넓으시고 또 눈썹도 숯처럼 짙으시고 눈망울도 한수 물처럼 맑고 깊으시고 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찾아온 듯싶군요.”

손짓 발짓을 다 섞어가며 열변을 토하던 그녀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사내의 말에 아쉽다는 듯이 입맛을 다셨다. 아마 사내가 말을 끊지 않았더라면 날이 저물고 밤이 새도록 명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들어야 했을 것이다.

“아, 제가 손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아직 날이 쌀쌀하니 안으로 드시지요.”

사내는 자신의 아내를 만나면 술 한 잔이 절실해 질 것이라는 명위의 말을 어렴풋이 이해하며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에 노곤함을 느끼던 사내는 방 안을 둘러보다 흠칫 놀랐다. 그 곳은 누가 봐도 명위의 방이었기 때문이다. 명위가 쓴 붓글씨가 벽에 걸려 있고 그가 좋아하는 서책들이 한가득 놓여있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초상화는 누가 그려놓은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는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잖습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 화폭에까지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모자란 솜씨입니다. 나중에 서방님 오시기 전까지 다 그리려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더니 이번에는 남편 얘기에 울상을 짓고 있는 그녀를 보며 사내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종잡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 사내는 그냥 술 한 잔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은 날들은 어찌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 동안 서방님 얼굴을 까먹게 될까봐 무서워 그럽니다. 야박도 하시지. 어쩜 안면 한 번 안 보이시고… 엉엉엉. 소박맞은 여인네 팔자도 이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결코 불효를 저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연통이나 자주 하시면 되는데…….”

“허허. 부인께서 많이 서운하셨나 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서찰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눈물을 거두시지요. 그리 우시면 글자를 읽기 힘들 것입니다.”

사내는 어린 아이를 달래는 말투로 그녀를 진정 시킨 뒤 품 속에 넣어두었던 명위의 서신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부인, 부인 말대로 곡소리를 내다 이제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소. 허나 아바님이 다시 부인을 찾아오지 않았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울음소리가 뭐라고 아바님을 언짢게 하고 나와 부인을 힘들게 하는지 참으로 괘씸하오. 그런 의미에서 아바님이 원하는 울음소리를 마음(摩欽)이라고 부릅시다. 혹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서신을 보내시오.’

“이 서신을 진정 제 서방님께서 보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쓰는 것도 면전에서 지켜보고 이 손으로 직접 받아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서방님답지 않게 좀 엉뚱한 내용인 듯 해… 아닙니다. 예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금방 답신을 써드리겠습니다.”

사내는 답신을 받아오지 말라던 명위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단 급한 대로 눈앞에 놓인 물 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여기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 서방님께서 병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서신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상중이라 잘 입고 먹지도 못하시는데 이러다 줄초상을 치를까 걱정입니다.”

사내는 그녀가 그려 놓은 명위의 초상화를 노려보았다. 누구의 눈치가 보여 곧 시선을 거두어야했지만.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합니다. 명석한 사내이니 제 몸 하나는 잘 챙길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예. 잘 전해주시고 살펴 가셔요.”

‘서방님, 보내주신 서신은 잘 받았습니다. 기실은 서방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다 생각이 있으신 것이겠지요. 아직 서방님의 의중을 꿰뚫기가 힘들지만 이르시는 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참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신다니 큰일입니다. 서방님은 당분간 곡을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전보다 더 힘쓸 것이니 서방님은 회복에 힘쓰십시오. 이제 날이 많이 풀렸으니 조만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의 올림.’

그러나 그녀는 올해도 남편의 얼굴 보러 갈 수 없게 되었다. 열 달 뒤에 찾아올 울음소리, 즉 명위가 일컬은 마음의 정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그날 밤 꿈속의 홍백은 파안대소하고 있었다.

❄ ❄

삼년상이 끝나갈 즈음 세의는 남편 없는 네 번째 겨울을 마음과 함께하는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었다. 땅거미로 물들어 어둑해진 방 안의 자그마한 등잔 옆에서 일기를 쓰려고 붓을 든 세의가 날짜를 적던 손을 멈추고 마음을 바라보았다.

"너를 낳고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 벌써 다섯 권이란다. 조금만 참으렴. 곧 서방님이 돌아오신단다.“

마음은 어머니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보조개가 폭 파인 얼굴로 방긋방긋 웃으며 세의를 즐겁게 했다. 아이를 따라 웃던 세의의 표정이 조금 서글퍼지자 마음 역시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한데 마음아. 나는 조금 무섭구나. 서방님께서 돌아오면 관직을 받게 되실 거라는 소문이 저잣거리에 파다하단다.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인데 왜 이런 몹쓸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 아니지, 아니야. 내가 아무 것도 모르는 너를 두고 군소리가 길었다. 너는 그저 무탈하게 잘 자라주기만 하면 그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란다.“

세의는 눈을 거슴츠레 뜨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다시 벼루에 놓아둔 붓을 집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에 빠져들었다. 도깨비불이 빤뜩거린다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냉기를 뚫고 명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 때였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온 명위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과 얼굴을 대했다. 자신과 꼭 닮은 작고 하얀 손을 손아귀에 살포시 쥐어보고는 똑같이 이불을 걷어찬 채 잠들어 있는 모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 옆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이 평안함이 오래 가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명위는 그 순간이 소중해 미소를 띠고 뼈에 사무치는 고통에 오장육부가 다 문드러졌다. 명위는 아내와 아들 옆에서 실로 오랜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뜬 세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기일을 딱 맞출 줄 알았던 명위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큰 소리를 내어 깨우려다 아들이 곤히 자고 있는 모습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명위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명위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웬일로 부인께서 이리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서방님이 아시던 3년 전의 세의가 아닙니다. 어찌 기별도 없이 오셨습니까?“

"내가 빨리 돌아와서 싫으십니까. 이거 삼년상이 아니라 사년상을 할 걸 그랬습니다.“

명위의 짓궂은 장난에 세의가 3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눈물을 쏟아냈다. 명위는 익숙하다는 듯 손수건을 꺼내 세의의 뺨을 닦아주었다.

"엉엉. 서방님은 저를 또 불효녀로 만들려 하십니까. 서방님이 사년상을 하시면 아버님 어머님 낯을 어찌 보라구요. 농이라도 그런 말씀 마셔요.“

"다름이 아니라 내 부인께 꼭 직접 해야 할 말이 있어 조금 서둘러 왔습니다.“

"하실 말씀이라니요?“

세의가 벌게진 눈으로 되묻자 명위는 마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명위를 감싸고 있는 집안의 포근함이 천근만근의 무게가 되어 명위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라에서는 내게 관직을 내린다 하는데 나는 그것을 거절할 생각입니다.“

"서방님, 농이 지나치십니다. 오시자마자 자꾸…….“

"부인, 농이 아닙니다.“

세의의 어색한 웃음은 잦아들고 침묵 속에 새근거리는 아이의 숨소리만 귓가에 맴돌았다.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명위가 다시 입을 열었다.

"행상 일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삼년 동안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일이니…….“

"싫어요. 싫습니다. 서방님이 더 이상 힘들어하시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못 들은 것으로 할 테니 거두어 주셔요.“

"아바님께서 나라에 평생을 바치다 어찌 되셨는지 잊으셨습니까? 이제 관직이라면 절로 몸서리가 납니다. 내가 만일 아바님의 뒤를 밟게 되면 제일 힘든 것은 부인과 저 아이가 아닙니까.“

"서방님이 지난 3년 간 찾아오지 말라 하심은 다 저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젠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무슨 심경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서방님과 혼인하고 오래 되지 않아 아버님이 돌아가셨지요. 그걸 제 탓이라 생각하여 저를 멀리하시나 그래서 꼴도 보기 싫으시나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으려 하는데…….“

우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원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는 세의를 보며 명위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다. 차라리 조금 전처럼 목청껏 울어주면 좋으련만……. 아직 세의에게는 더 큰 시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위는 더욱 속이 탔다.

"부인, 잠시면 됩니다. 딱 열두 밤만 기다려주시오. 그 안에 돌아올 테니."

"열…… 두 밤이요? 정말 그 날만 지나면 오시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러니 그동안 끼니 거르지 말고, 아프지 말고……."

"서방님은 삼년상 치르기 전에도 안 하시던 걱정을 이제야 하십니다. 저는 잘 있을 테니 서방님이나 몸 조심하셔요."

밤안개가 끼어있던 그 날에 먼 길 떠나는 명위를 배웅하러 세의가 자고 있는 마음을 업고 나왔다. 세의는 명위의 손에 바리바리 싼 보따리를 들려주며 말하였다.

"이번에는 먹을 것 다 드시고 입을 것도 다 걸치셔요. 열두 밤이 지나서 돌아오시면 문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소. 나중에 또 봅시다. 부인."

세의는 명위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문 앞을 왔다 갔다 움직였다. 마음이 차가운 아침 이슬에 잠에서 깨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세의는 뒤척이는 마음을 이부자리에 눕히고는 배를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며칠 뒤 집안 청소를 위해 서책을 정리하던 세의는 낯익은 필체의 서찰을 발견한다. 서둘러 읽어 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부인, 나는 내가 부모님을 뵈러 가는 날에 부인이 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울음소리가 듣기 싫으니 웃음소리를 들려주시오.'

세의는 손이 바들바들 떨려 읽고 있던 서찰을 놓치고 말았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세의를 보며 마음이 앙앙거리기 시작했다.

"아, 안 돼. 안 돼!"

세의는 우는 마음도 내버려둔 채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러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일전에 세의에게 명위의 서신을 전해준 사내였다. 세의는 다시 문 앞에서 주저앉아버렸다.

"다, 당신은……."

"어젯밤에 명위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세의는 사내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혼절하였다.

❄ ❄

그 시각 명위는 외진 숲 속의 어느 민가에 성한 상태로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다. 무심히 책장을 넘기던 명위의 앞에 누군가가 들어와 앉았다. 명위는 꿈쩍 않고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시키신 대로 부인께 돌아가셨다 전했습니다. 이제 어찌할까요."

"살생부를 가져오거라.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도모해야지."

"저, 그런데 부인께서 정신을 잃으셨다 합니다."

"믿는 자에게 맡겼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만 나가보거라."

명위는 눈물 얼룩으로 가득한 세의의 일기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지금부터 열두 밤 안에 모든 일을 마치고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겠노라고.

멋진 자살

20081126 유 민 우

바벨사(社)

바벨의 본사 건물은 어디서 바라봐도 모습이 뚜렷한 B지구의 랜드 마크이다. 일층에서 점점 굵어지다가 다시 뾰족해지는 것이 마치 거대한 죽순이 솟은 꼴이었으며, 건물의 입구에는 '균형, 안정'이라 씌어있는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 꿋꿋하게 서 있었다. 축구경기장 두 개를 담고도 남을 일층 로비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23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전등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항상 밝았다. 반면 건물의 기둥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창백한 회색 양복을 입고, 항상 서로의 질서의식을 겨루는 듯 했다. 정해진 동선, 정해진 역할, 누군가 위에서 바라본다면 앞만 보고 따라다니는 개미떼처럼 보였으리라. 이러한 건물의 적막을 깨는 것은 어디서 저렇게 매일같이 오는 학생들의 견학과 안내원의 멘트와 일정 시간 나오는 방송이었다.

"저희 바벨은 깨끗한 물과 산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껄이는 시간을 빼면 항상 웃고 있는 안내원은, 머리에는 바벨의 실루엣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견학대상들의 나이에 따라 건물의 소개 정도가 달랐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들까지 견학은 끊이지 않았고 연령에 상관없이 대부분은 경청하는 편이었다.

"바벨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0명이 들어찬 엘리베이터에서 안내원이 말했다. 1층에서 20층은 직원들의 편의 시설과, 바벨이 만든 음식, 물, 산소캔 등을 시음할 수 있는 곳이고, 20층에서 40층은 식물과 동물을 기르는 시설, 40층에서 60층은 물을 정제하는 시설, 60층에서 80층은 산소를 가공하여 캔에 담아내는 시설이다. 꼭대기 87층까지는 고위 간부들만 출입할 수 있으며, 내핵을 동력원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시설은 위험해서 견학해 드릴 수 없다. 대충 이러한 이야기였다. 건물 외벽에는 '오늘의 공기 오염도'가 76%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이러한 멘트와 함께 견학은 마무리된다.

"저희 바벨사의 제품은 언제나 안전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패

빌은 어제 자살을 시도했었고 계획은 완벽했다. 연탄은 재가 되어있었고, 열어놓은 가스밸브 덕에 방안은 가스냄새로 가득했다. 빌이 죽을 생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 행동은 못하던 터였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몸이 터질까봐, 물에 뛰어들면 죽기 전의 괴로움이, 총은 고통의 두려움이 걱정이었고, 칼은 상상도 못했다. 영화에서도 칼에 찔리는 장면이 나오면 몸을 배배 꼬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그였다. 때문에 그가 매일같이 죽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해도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같았다.

“너 같은, 애들은 죽을 마음이 애초에 없는 거야.”라며.

그래서 그는 잠들면서 고통 없이 죽기를 항상 바랐다. 수면제 구매는 불법인지 오래였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폐연료로 만드는 암시장의 석탄이었다. 하지만 눈을 뜬 빌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 빌어/먹을 암시장 놈들이 사기를 친 게 아닌가 하는 분노에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뭔가 몸 상태가 변화를 느꼈다. 특별히 어디가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머릿속이 이상 하리 만큼 상쾌했다. 그는 물 한 컵을 들이 킨 후 그는 잠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곤 별 생각 없이 난간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코를 찌르는 가스냄새를 인식하고, 괴성과 함께 무심코 라이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하마터면 타 죽을 뻔 했잖아...”

빌은 꽤 괜찮은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늘 이런 식이었다. 전에는 칼을 든 강도를 만나 도망치다 종국에는 초인적인 힘으로 강도를 때려눕혀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일도 있었다.

“우선 환기부터 좀 시켜야 겠는걸....”

빌은 방안의 창문을 열고, 밸브를 잠근 후 산소캔을 꺼내 들이키곤 다시 의자에 앉았다. 엉덩이를 붙임과 동시에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메리였다. 남은 산소캔을 찌그러뜨리면서 빌은 문을 열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인사 대신 메리는 질문을 건넸다. 가스는 분명히 가득 차 있었다. 빌은 다시 한 번 확신했다.

“나 왜 안 죽은 거지? 왜 멀쩡한 거야?”

“빌, 가스는 한 번 마신다고 바로 죽는 독약 같은 게 아냐. 죽을 생각 이었으면 밤새 피워 놓았어야지.”

밤새 피워놓았던 빌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매일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해도 ‘너 같은 사람은 자살 못 한다’ 이것이 메리의 반응이었다. 그때 메리가 담배를 꺼내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 비쳤다. 그는 독수리처럼 라이터를 낚아채고 뭐라 웅얼대려했다. 갑작스런 흥분에 말이 목구멍에 막혀, 입으로 미처 나오지 못하는 상황처럼 보였다. 메리가 허리를 젖혀가며 웃었다. 금발 머리카락이 미역처럼 휘날렸다. 여자가 저렇게 경망스럽게 웃을 수도 있구나.

“너는 죽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약간의 관심이 필요할 뿐이지.”

빌은 얼굴이 뜨거워 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일요일마다 찾아와주는 메리가 좋았고, 지금 메리가 눈앞에서 웃는 모습도 좋았고, 간만에 찾아온 아침의 상쾌함도 좋았다. 그가 살아있는 것도 괜찮겠다고 여기는 몇 안 되는 순간들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내가 준 화분은? 심어놓기는 한 거야?”

“tv라도 보고 있어.”

빌은 메리의 대답은 듣지 않고 샤워실로 향했다. tv에서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은 고기를 먹는 일요일입니다. 고기 사는 것을 잊지 말고 바벨 정육점에 들려주세요.”

출근

출근의 요일이 밝았다. 왜 죽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도 잊은 채 시계의 톱니바퀴에 몸을 실을 아침이 다가온 것이다. 빌은 특별히 누군가가 동경할 만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할 것은 없는 남자였다. 본인 소유 집에 자동차, 해고 걱정 없는

바벨사의 산소 정제실에서 근무 중이며, 경제적으로 큰 불편함도 없었다. 양복을 빼 입고, 신문을 옆구리에 끼고 집 밖으로 나서면 언제나 여자 친구가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의 진행시간은 정확히 8시. 늘 정확하다.

“웬일이래.”

빌이 손목시계를 보며 중얼 거렸다. 분침이 30분을 가리키는데 메리의 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10분을 더 기다린 후, 빌이 담배에 불을 붙이자마자 갑자기 길 건너에서 경적이 울린다. 딱정벌레처럼 매끈한 미니밴에서 손을 흔드는, 흰 연구복의 메리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창문에 흰 손수건을 끼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보였다.

“오늘은 적당히 늦었군.”

“꼭 매일 늦은 것처럼 말하네? 누가 이렇게 매일 모셔다 주러 오겠어?”

빌은 더 말하려다가 신문을 펼쳤고, 메리 역시 말없이 음량을 늘리며 출발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빌은 메리에게 고마워하고 있었고, 메리 역시 빌이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한 말이 아님을 알고 있는 까닭이었다. 게다가 차의 소유주는 빌이었고, 한두 번 빌려 탄다던 것이 거의 양도에 가깝게 변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메리로선 그 화제를 더 이끌어나갈 이유가 없었다. 이 묘한 공생관계는 8년째 흔들림이 없었다. 전광판에는 ‘오늘의 공기 오염도’에 77%이란 숫자가 쓰여 있었다.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 것은 레지스탕스의 테러로 D지구 쪽 바벨시설의 폭격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만 하던 무리였으나 지금은 테러집단에 가까워진 상태였다.

“요즘 들어 테러가 너무 잦다고 생각 안 해? 대체 어디에서 자꾸 기어 나오는지 모르겠어.”

“돔(dome)지구 바깥에서 사는 지도 모르지.”

“그런 사막 지대에 사람이 살 리가 없잖아.”

“폭탄에 맞으면, 굉장히 아프면서, 한 번에 갈 수 있을 거야.”

메리가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짓는 바람에 빌은 황급히 대꾸할 말을 생각해야 했다.

“맞아, 사막에 간다는 건 자살행위지.”

하필 선택한 문장에 자살이 또 들어가다니. 다행히도 바벨의 입구에 다다른 덕분에 빌은 메리의 눈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메리의 연구실은 C지구. 때문에 빌을 내려주고 메리는 조금 더 이동한다.

“아무튼 조심하라고. D지구면 연구실에서 별로 멀지도 않잖아?”

메리가 빙긋이 웃으며, 답했다.

“레지스탕스도 어차피 환경단체야. 우리 연구실이 테러당할 이유는 없어.”

아닌 게 아니라 메리가 일하는 연구실은 바벨에서 유일하게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부서였다. 화학약품으로 물을 만들고, 기계로 산소를 정제하는, 환경을 생산하는 듯하면서, 환경을 깎아내는 바벨사의 수많은 가지들 가운데 메리의 연구소는 홍일점과도 같은 곳이었다. 빌은 미소를 띠는 메리의 얼굴을 보면서, 본인의 시간에서도 홍일점 같은 순간은 이렇게 메리의 미소를 보는 게 아닐까 싶었다.

“사막에 내리는 함박눈이 숲을 꽃피울 것이다! 라는 말, 들어 본 적 있어?”

“.....”

“조만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걸! 기대 해도 좋을 거야!”

무슨 소린지는 몰랐지만, 빌은 대답대신 미소로 답하며 문을 닫았다. 창문이 내리면서 메

리는 외쳤다.

“See you later, alligator!”

“...After while crocodile.”

이는 오래전에 메리가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을 때, 빌이 알려준 인사법이었다. ‘잘 가’라는 말은 헤어지는 인사말 같아 싫다며 울먹이던 메리를 달래줄 때 쓰던 빌만의 언어유희였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지금, 메리는 여전히 헤어질 때면 그 인사법을 사용한다. 그것은 활발한 빌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과거의 고마움이 담은 메리만의 언어유희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빌과 메리가 나눈 마지막 인사이기도 했다. 레지스탕스는 어찌 된 일인지, C지구에 있던 메리의 연구실에 테러를 가했고, 메리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택배

분명히 빌은 어제 자살을 완벽하게 실행에 옮겼으며, 이번에는 틀림없는 진심이었다. 연탄도 완벽했고 가스도 확실히 새고 있었다. 가스가 새질 않았던 건가 해서 밸브에 코를 가져다 대보았더니 관자놀이를 자극하는 냄새가 강렬히 풍겼다. 가스는 확실히 새고 있었다. 빌은 말린 북어처럼 퀭한 눈을 해 가지고선 방 안의 택배 상자를 바라보았다. 메리가 죽은 지 꼭 삼일 만에 도착한 택배였다. 발신자는 메리였고 받는 사람은 빌로 된 택배였다.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무엇이 들었는지가 무슨 상관인가, 무슨 소용인가. 택배는 이틀째 방치되어 있었고, 빌은 뭐든 될 되로 되라는 식이었다. 빌은 갑자기 택배의 포장지를 천천히 찢어내기 시작했다. 내용물이 궁금해져서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씹 고 있었다던가 하는 무의식에 가까웠다. 웅크린 사람이 들어 갈만한 알루미늄 상자가 드러났을 때, 무겁다며 투덜대던 택배기사의 하소연이 떠올랐다. 빌은 메리의 조심스레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빌은 터져 나오는 비명을 제 입을 틀어막으며 막아냈다. 상자 안은 풀이라기에는 작고, 이끼라기에는 무성한 초록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연둣빛 통치마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누워있었다. 여자아이 옆에는 열매 같은 갈색의 단단한 껍질이 놓여 있었다. 택배가 온지 이틀. 살아있는 걸까? 아니 애초에 어린애들 택배로 보내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것도 메리가? 빌은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다. 소녀의 코에 귀를 가까이 하는 순간, 검정 콩 같은 눈동자와 마주치자 빌은 기절할 지경이었다. 허둥지둥 뒤로 물러나면서 짚은 탁자의 목이 부러지면서 식탁보와 컵이 와장창 쏟아져 내렸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그렇다고 죽어있기를 바란 것도 결코 아니었지만 이상적인 판단은 더욱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 누군가가 현관문을 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빌 클레이튼씨. 안에 있습니까? 빌 클레이튼씨!”

문장이 딱히 무례한 것은 아니었으나 위압감과 압박감이 느껴지는, ‘난 지금 기분이 별로다’라는 듯한 어투였다.

“문을 여시오, 클레이튼씨!”

모니터를 통해 밖에 누가 있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와 경찰 둘이 서 있었다.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조용히만 있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 올 리는 없으리라. 존은 최대한 숨을 죽였다.

“누구세요?”

빌은 당혹스러움, 또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어느새 상자에서 기어 나온 소녀가 인사말을 건네며 현관문을 열려 하고 있었다.

“야!! 이...”

머릿속으로는 아차 싶었으나 말은 이미 튀어나온 뒤였다. 빌은 번개같이 튀어나가 소녀의 입을 막고, 뒤통수가 가슴에 파묻었다. 그리고 뒷걸음질로 현관에서 물러났다. 목소리를 못 들었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집 안에만 귀 기울이던 경찰들이 그 말을 못 들었을 리가 없었다. 집안 꼴은 엉망이고 생면부지의 소녀와 한 집에 있다. 거기에 경찰들이 자기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백리라도 쥐구멍을 찾았을 것이다.

“문을 부숴.”

선글라스를 낀 남자의 건조한 음성이 들렸다. 용접기 같은 것이 문을 지지는 소리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공포감에 휩싸인 빌은 최고의 변명거리를 생각하다가, 자신은 정말 결백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있던 일 그대로만 얘기하자.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가던 빌은 질그릇이 깨지는 호통소리에 다시 한 번 놀랐다.

“메리 스완슨의 살인범으로 너를 체포하겠다. 순순히 문을 열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일까. 빌은 두려웠지만, 문을 열어야겠다는 직감이 들었다. 메리가 죽은 것이 단순한 테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자, 잠깐만요, 무, 문을 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철문이 뜯어져 나갔고,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양반걸음으로 들어왔다. 뒤에는 무장한 사람이 둘이 아니라 다섯이 있었다.

“안 열어도 되겠군.”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여유로운 말투로 말했다.

“씨앗은 어딨지?”

빌은 할 말을 찾지 못하다가 메리가 선물해준 화분이 떠올랐다. 씨앗이라고 할 만 한 것은 그것 뿐 이었다. 그것을 왜 찾는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볼 것은 산더미 같이 많았지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빌은 조심스럽게 난간에 있는 화분을 가리켰다. 화분에는 어제까지도 없던, 촉촉한 이끼들이 덮인 꽃 두 송이가 피어있었다. 순간 빌은 무언가 공기가 싸늘해졌음을 감지했다. 남자는 빌의 목이 돌아갈 정도로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방구석으로 나동그라지면서 빌은 남자가 가죽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자는 화분을 쏟아내더니 워커로 꽃을 짓이기기 시작했다. 꽃의 형체가 사라지자 남자는 빌의 머리를 걷어찼다. 워커 앞부분에 피가 묻어나오는 것을 보고 빌은 자신의 이마가 터졌음을 알았다. 남자가 마저 지껄였다.

“먼 길을 가려 하는군.”

남자가 빌을 더 밟으려는 순간, 다섯 남자들 중 가장 한 사람이 돌연 네 명을 순식간에 때려눕혔다. 이때 갑자기 거실 바닥이 무너져 내리더니 현관으로 서너 명의 사내들이 더 들이닥쳤다. 떨어지면서 빌은 발견했다. 네잎 클로버를 쥐고 있는 주먹 문양이 그려진 회색빛 손수건을. 들이닥친 남자들은 모두 그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있었다. 레지스탕스의 마크였다.

지하벙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천장에 철근으로 박힌 조명들이 보였다. 벽이 주황빛 흙으로 되어있고 군데군데 암석이 제멋대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마치 동굴 같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젖은 솜처럼 늘어졌다. 눈을 감는데 누군가 이마를 문지르는 것이 느껴졌다. 차갑지만 부드럽고, 어머니 같은 손길이 떠오르는 그런 어루만짐이었다. 그때 빌은 자신의 이마에서 고통이 느껴지지 않음을 깨달았다. 의아해 하며 빌은 이마를 쓰다듬어 준 손의 주인을 바라보았

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소녀였다. 머리는 놀랐지만 가슴은 차분했다. 마치 벌거숭이의 상태에서 부드러운 솜이불 속으로 기분 좋게 잠겨드는 듯한, 나른함과 포근함이 있었다. 소녀는 여전히 연둣빛의 통치마를 입고 있었고 제멋대로 곱슬거리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은 물기가 많아 보였다.

"빌."

소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빌은 몽롱한 분위기에 취해서, 그저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신이 좀 드나요?"

녹색 조끼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말했다.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조끼의 안주머니들에는 각각 주머니칼이 꽂혀 있었으며, 허리에는 총 두 자루가 달린 권총 벨트를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노란색 스카프에는 싹을 달고 있는 씨앗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빌은 여기가 레지스탕스의 본거지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다만, 빌이 알고 있던 레지스탕스의 문양과는 조금 달랐다. 빌이 아는 레지스탕스의 문양은 신문에서 지겹도록 본, 클로버를 쥐고 있는 주먹의 문양이었고,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싹이 달린 씨앗의 모양이었다. 무늬야 어찌됐건 이들이 메리를 죽였을 것이라 생각하니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오해는 마시오. 당신을 구해준 것은 나니까."

사내는 상대방이 풍기는 약간의 살기도 느끼는 듯 했다. 집이 무너지기 직전 남자의 솜씨를 이미 본 터라 주먹에는 살기가 아닌 긴장감으로 바뀐 힘이 들어갔다.

"우린 레지스탕스들이오. 우린 오랫동안 환경보호 단체로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여왔지."

"연구소를 파괴한 게 평화적이란 말이오?"

남자는 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이야기만 계속했다. 남자는 자신을 밥이라 소개했고, 연구소 테러는 자기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이 일당들이 범인이라 해도, 지금 당장은 복수의 도리가 없었고, 연구소 테러의 전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빌은 묵묵히 듣기로 했다.

"초기 여론들은 우리 레지스탕스들을 지지했었소. 공기와 물을 만들어 정제하는데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공기오염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바벨 입장에서 우린 눈엣 가시였겠지."

밥은 무릎주머니에서 사각형 물통을 꺼내 한 모금 축이더니 말을 이었다.

"바벨의 아이디어는 가짜 레지스탕스를 만드는 거였어. 비밀 조직을 만들어 자신들의 시설을 파괴하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민간시설들까지 공격하면서 테러집단처럼 굴었지"

밥은 점점 흥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물통을 꺼내 한 번 더 묵을 축인 밥은 조금 진정되어 보였다. 빌은 물통에 든 것이 위스키가 아닐까 생각했다.

"덕분에 우리 이미지는 안 좋아졌지요. 우린 가짜들은 '클로버'라고, 우리들은 '시드'라고 불러요. 이 문양은 우리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새로 만든 겁니다."

밥은 옆 사람으로부터 종이 두루마기를 건네받은 뒤 침대 옆의 탁자에 그것을 펼쳐 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약 일 년간 그들이 클로버들이 테러를 한 장소들을 정리해 놓은 보고서였다. 도표를 물끄러미 보던 빌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간 테러를 당한 곳은 바벨의 사무실이나 학교, 경찰서와 같은 공인 시설들이었지만, 마지막 테러를 포함한 네 번의 테러는 모두 같은 시설이었고 불과 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들은 모두 메리가 연구하던 곳과 같은 부서. 산소와 식물을 연구하는 부서였다. 환경단체라면 이런 곳을 건드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분명 메리와 차 안에서 본 기사에서는 '발전소 테러'라는 문

구만을 보았을 뿐, 연구소를 테러했다는 기사는 본 기억이 없었다.

“처음에는 우리 시드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게 위해, 클로버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4번의 테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빌은 전혀 감이 잡히지를 않았다. 바벨이 대체 무엇 때문에 식물 연구소를 공격한 것일까.

“놈들은 뭔가를 찾고 있소. 마지막 장소에서, 뭔가를 당신 집으로 보낸 것을 알아냈습니다. 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신 집을 찾을 때 나도 잠입한 거요.”

빌은 쏟아지는 정보를 정리해보려 애썼다. 그 여자아이는 메리가 보낸 것이 확실했다. 그렇지만 이틀 동안 방치한 상자 속의 사람이 살아있다는 점, 아니 애초에 사람을 물건처럼 소포에 보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었다.

“아이도 당신이 데려와 주었나요?”

“딸 말이오? 상처하나 없으니 안심하시오.”

소녀는 어느새 침대에서 숨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 빌, 연구소에서 보낸 것이 뭐요? 놈들이 찾는 것이 뭐냔 말이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을 거라고 빌은 생각했다. 적당히 둘러 댈 말이 필요했다. 잘 모르겠다는 말은 안 통할게 뻔했고, 이럴 땐 세게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었다.

“내가 당신들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소?”

밥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얼굴 표정은 달랐지만 선글라스를 낀 남자 때와 비슷한 공기가 흐르고 있음을, 빌은 알 수 있었다.

“민간인을 다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밥이 가슴팍에 있던 주머니에서 칼을 빼 들었다.

“우린 바벨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신물이 나죠.”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빌의 양 팔을 붙들었다. 밥은 칼을 찌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안돼!”

빌에게 칼을 들이댄 순간 소녀는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밥의 칼을 낚아챘다. 밥은 그리 호락호락한 사내가 아니었지만, 침대 밑에서, 그것도 어린 여자 아이가 달려들 것까지 예상은 못한 것 같았다. 어린 소녀에게 칼을 빼앗기곤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칼날 쪽을 움켜쥔 소녀의 손바닥은 생채기가 났고, 소녀는 그에 아랑곳 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며 밥을 노려보았다. 그 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소녀의 손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아닌 쪽빛의 투명한 피가 떨어지더니, 흙바닥에서 꽃과 풀이 순식간에 돋아났다. 소녀가 칼을 내려놓자 피가 묻은 칼에서도 이끼와 풀이 돋아났다.

“저거였어.”

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소녀에게로 다가갔다. 밥은 소녀의 양 어깨를 잡고 들어올렸다. 그 순간 빌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떻게는 소녀를 남자로부터 떼어놓아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 자신의 팔을 붙잡은 남자들의 팔이 느슨해진 틈을 타 빌은 온 힘을 다해 밥에게 몸을 날렸다. 밥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돌연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빌이 자신의 힘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 무너진 천장으로는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혼란의 와중에 빌은 소녀를 꼭 껴안고 엎드렸다. 비명과 폭력의 아수라장 속에서, 벽에서 튀어나온 철골이 빌의 옆구리를 관통했다. 그러던 중에도 빌은 소녀를 안은 팔을 풀지 않았다.

엑슬 로드

빌이 정신을 차렸을 때, 커다란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앞에 앉혀져 있었다. 마치 밤중에 광장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만큼 넓은 방이었다.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있었다. 어디선가 또각또각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어둠 속에서 두발이 드러났다. 그리고 키가 큰 콧수염을 기른 신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tv나 신문에서만 보았던 남자, 바로 바벨의 총 회장인 엑슬 로드였다. 빌은 이곳이 바로 80층 이상의 층임을 짐작 할 수 있었다.

“자네가 빌이로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회장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직원의 신상을 알아보는 건 아주 쉬운 일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 꼬마 아가씨가 계속 자네 이름만 불러댔으니 모를 수가 있겠나.”

순간 빌은 그 아이를 부르는 호칭을 딱히 정해놓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러웠다. 메리가 보내준 아이였다. 어떻게든 지켰어야 하는 아이였는데. 어둠속에서 소녀가 웃으면서 달려왔다. 소녀의 얼굴을 걱정스러울 정도로 핼쑥해 있었다. 원래가 핏기 없는 새하얀 피부를 가진 소녀였지만, 눈 주변이 거무스름하고 얼굴 전체에 푸른빛이 감도는 것이 누가 봐도 걱정스러워 보였다. 빌은 말없이 아이의 얼굴을 가슴에 파묻었다.

“놈들한테서 무엇을 들었는지 이야기 해줄 수 있겠나.”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빌은 뭔가 울컥하여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지금까지의 테러를 감행한 것은 모두 정말 바벨이었나, 메리를 죽인 것도 모두 당신의 지시였나.

“지금까지 있던 모든 테러....왜 그런 겁니까?”

회장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눈을 감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겠군.”

회장은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구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네. 오염도는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하루에 생산 가능한 물의 양도 정해져 있지.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재생산을 위한 연구를 끊이지 않고 해 왔네.”

빌은 회장의 말을 웬만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 애썼다.

“자정작용을 아나? 썩어버린 강이 저절로 맑아지고, 없던 물고기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 산불로 불타버린 산이나 황무지에도 시간이 지나면 풀이 자라고 벌레가 나타나. 아무것도 건질게 없는데도 말일세. 실로 놀라운 일이지.”

나를 앉혀놓고 무슨 생물학 강의를 늘어놓고 있는 것인가. 빌이 무어라 따지려고 하자 회장이 잠시 기다리란 동작을 취했다.

“그 이유는 지구가, 자연이라는 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야.”

말을 마치고 회장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빌의 종아리를 부둥켜안으며 뒤로 숨었다.

“하지만 그 자정작용이란 것을 언제부터인가 지구는 잃어버렸어. 돔 바깥은 지금도 여전히 사막이고 바다를 본지가 50년도 넘었다네. 헌데 최근에 어떤 연구기관에서 자정작용의 원인을 찾았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런데 왜, 가짜 테러단체를 만들면서까지 다 부순 겁니까?”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지.”

“자네는 산소캔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프거나 하지 않나? 오히려 산소캔을 안 마신 날이 더 상쾌하진 않던가?”

자신이 미심쩍던 부분과 상통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빌은 말문이 막혔다.

“지금 공기오염도는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지. 기술력이나 의식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빌은 귀를 기울였다. 이제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의 문제가 나오려는 찰나였다.

“우리가 일부러 오염을 조절하고 있는 거네.”

회장은 마저 잔을 비우고는 말을 계속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네도 우리와 같아졌기 때문이지.”

빌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장은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폐어라는 물고기가 있어. 물속에서도 물 밖에서도 숨을 쉴 수도 있는 물고기지. 허파와 아가미를 모두 가지고 있거든. 재미있는 것은.”

회장은 잠시 뜸을 들였다.

“익사 할 수도 있는 물고기란 거지. 뭐 요는 잠재력이야. 물 밖과 물 속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

빌이 미간을 찌푸렸다.

“바벨 56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산소보다 유해물질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태어나왔어. 다만 산소로도 호흡을 가능했으니 일상에서는 지장이 없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물고기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폐어라는 이야기지.”

회장은 주머니에서 산소캔을 꺼내 들이마시고는 빌에게도 그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 캔에는 ‘CO’라고 쓰여 있었다.

“자네도 우리처럼 될 수 있어. 조금만 도와준다면.”

“아이를 어쩌실 셈이죠?”

회장은 대답대신 권총을 꺼내 빌의 어깨를 쏘았다. 빌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나동그라졌다. 피가 배어나와 옷이 찐득찐득해지고, 어깨가 따뜻해졌다. 소녀는 금방이라도 회장에게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 거렸지만, 빌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천천히 빌에게로 뒷걸음쳤다. 소녀는 조심스레 빌의 어깨를 들어내고 상처를 양 손으로 벌렸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총알을 꺼내더니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를 상처부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흰 연기와 함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갔다. 빌은 침대에서 자신의 이마 상처를 없어지게 한 것도 이 소녀가 한 일임을 깨달았다.

“무례를 사과하지.”

회장은 천천히 빌에게로 걸어가며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어할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줄은 알고 있어. 하지만, 저 소녀는 그 시스템을 지속시킬 힘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체제를 관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회장은 말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라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녀가 필요하다.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절하기 위해서.”

빌은 메리가 한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했다. 자정작용의 원인을 발견한 것은 메리의 연구실이었고, 클로버와 시드는 그곳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테러를 감행했던 것이었다.

“사흘 동안, 그 소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자네 이름만 부르더군.”

빌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푸르스름한 얼굴을 한 채로 빌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도와 줄 거지?”

회장이 싸늘하게 웃으며 물었다. 빌은 소녀를 품에 안고, 경계의 눈빛을 보이며 물러났다. 하지만 이 높이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빌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회장이 여유로워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인 것 같았다. 그때 한 쪽 벽이 무너지면서 흙이 쏟아졌다. 80층에서 흙이? 빌은 그러면서도 탈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장의 도도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주전자에서 커피를 따르더니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밥이 이끄는 시드들을 핏기 없는 시선으로 응시했다.

“회장님이 지하에 모셔져 있을 줄은 몰랐군.”

밥이 손에든 발신기 같은 것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빌을 향해 냉소를 보냈다. 회장은 그저 조용히 앉더니 날카로운 시선을 뿜으며 커피를 마저 더 마셨다. 회장 뒤편에서 군인으로 보이는 사내들이 증식하듯 쏟아져 나왔다. 빌은 회장 오른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빌은 소녀를 안고 조심스럽게 내빼기로 마음먹었다. 혼전은 적과 아군을 구분 할 수 없게 만들며 빌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운 좋게도 엘리베이터는 곧바로 열렸다. 문이 닫히기를 빌면서 빌은 미친 듯이 일층버튼을 눌러댔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총구가 불쑥 들어오더니 불을 뿜었다. 총알은 빌의 복부를 관통했다.

“아직 대답을 못 들어서 말일세.”

회장이 승강기 문을 붙들고 말했다. 빌은 난간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최후의 힘을 쥐어짜내 회장의 가슴팍에 발자국을 남겼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총알은 빌의 어깨를 통과했다. 유리 아래로 빠르게 작아지는 얼굴과 회장의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오길 기다리겠네!”

빌은 피투성이가 되어 건물 밖으로 나갔다. 품에 안긴 소녀의 연두색 옷도 붉게 물들었다.

“미안해, 빌. 더는 너를 도와주어선 안 돼.”

빌은 그게 무슨 뜻인 몰랐지만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떠오른 것은 하나 있었다. 메리가 전에 남긴 말. 사막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한다. 빌은 메리의 말을 되뇌며 차에 몸을 실었다.

사막에 함박눈이 내리면

빌은 그야말로 광인처럼 차를 몰았다. 전조등은 깨지고 배에서 피는 계속 배어나왔다. 닥치는 대로 들이받으며 돔의 경계가 나올 때까지 그저 미친 듯이 달렸다. 기름이 줄줄 새고 유리는 금이 가고,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차의 모습은 마치 빌의 상태와 같았다. 유리 돔의 경계가 보이자 빌은 가속 페달을 더욱 힘주어 밟았다. 돔의 유리를 깨지면서 본네트의 절반도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빌은 멈추지 않았다. 사막 너머로 도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달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정확히는 빌이 엑셀을 더 밟을 힘이 없어질 때까지 달렸다. 사방을 살펴보아도 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돔의 야경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꽤나 멀리 온 것 같았다. 빌은 처박히듯 모래에 드러누웠다. 이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를 않았다. 은은한 달빛이 빌을 비춰주고 있었다.

소녀 또한 차에서 내려 누워있는 빌의 머리맡에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었다. 소녀는 부드럽게 빌의 머리를 쓸어내린 후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다. 소녀는 빌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See you later aligator."

빌은 깜짝 놀라며 소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녀는 빌을 잠시 바라보더니 깨진 자동차 유리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소녀의 가슴에서는 맑은 물이 쏟아지면서 주면을 푸르게 물들였다. 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솟구쳤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사력을 다해 몸을 일으켜 소녀를 안아 주는 일 뿐이었다. 빌의 가슴은 경이로움과 슬픔으로 벅차올랐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빌은 소녀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를 몰랐다. 그저 소녀의 생명이 꺼지기 전까지 최대한 끌어안아 온기를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턱을 어깨에 괴고 오른손으로 빌의 등을 쓰다듬었다. 순간 온몸으로 느껴지던 소녀의 감촉은 바람처럼 빌의 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나갔다. 소녀의 몸은 어느새 푹신한 솜털로 변해있었다. 정확히는 새하얀 솜털에 싸인 씨앗들로 변했다. 소녀의 피에서 생겨난 주변의 꽃들도 계속해서 꽃씨를 뿜어내고 있었다. 작고 가녀린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씨앗이 나왔을까 싶은 만큼의 수많은 솜털 씨앗이 하늘을 덮었던 것이다. 사막에 내리는 함박눈이 숲을 꽃피울 거라는 메리의 말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이 모습을 같이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빌은 몸이 점점 추워지고 잠이 오는 것을 느꼈다. 풀과 이끼로 덮인 바닥은 아주 푹신했다. 눈을 감았다. 메리가 풀밭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모습이 보였다. 눈을 감은 메리의 금발이 바람을 따라 넘실거리고 있었다. 빌도 옅은 미소로 중얼거렸다.

"After while crocodile."

존은 몸이 아주 편안해졌다. 검푸른 밤하늘에는 수많은 하얀 씨앗들이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다. 빌은 서서히 눈을 감으면서 사막에 오는 것은 역시 자살행위라고 생각했다.

자각몽

20095358 이 성 연

나는 달리고 있었다.

달이나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나는 달리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휘감았다. 입가에 미소를 짓고 엑셀을 밟아 속력을 올렸다. 속도계는 시속 200km가 넘었다는 걸 표시하지만 가속은 멈추지 않는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달리고 있는 길 위에는 나 말고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는 도로와 내 앞을 밝혀주는 가로등만 있을 뿐. 엑셀을 밟고 있는 발에 힘을 더했다. 힘찬 엔진소리가 들리며 속도계가 요동친다. 마침내 내가 타고 있던 차는 중력의 제약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갔다.

정신 차리면 더 이상 차가 아니었다. 나는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었다. 비행기의 조종간을

당겨 위로 올라갔다. 산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 구름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 이윽고 내 손이 달에 닿을 때쯤 비행기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져갔다. 달 아래로. 구름 아래로. 산 아래로. 올라갔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기와 나는 땅으로 떨어졌다.

온 몸이 중력에 붙들려 아래로 떨어지는 감각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맡에 놓여있는 휴대폰을 통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6시. 평소보다 이르다.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서 욕실을 향해 걷는다. 바닥에 잔뜩 깔려있는 쓰레기를 피하면서 욕실에 도착하자 물을 틀고 씻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탓에 여유롭게 회사로 출근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좌석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주변에 있던 풍경들이 바뀌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꿈처럼 상쾌한 바람이 아닌 매연이 섞여서 불쾌했다. 어느 전철역에서 내려 전철로 갈아탔다. 잠시 후 도착한 전철의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봤다.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었지만 지난밤 꿈과 같은 속도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언제나 같은 출근길인데 지루함이 느껴졌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회사를 보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야근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 어떤 노파가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가볍게 무시하고 버스를 탔을 테지만 그 날은 달랐다. 노파의 짐을 들어주고 계단 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고마워, 총각.’
‘아닙니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잠깐만, 감사의 뜻으로 원하는 거 하나 줄 테니까 가져가.’

괜찮다고 사양해도 노파는 막무가내로 나를 붙들어 놓고 짐을 풀었다. 잡화상이라도 하는지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잡다한 액세서리가 가득했다. 물건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행운이 온다던지, 돈복이 좋아진다던지 등의 설명하는 노파의 말을 흘려들었다. 장신구를 하고 다니는 취미도 없고 만약 있더라도 이런 물건들 가지고 싶지 않다.

사양한다는 말을 다시 꺼내려는데 어느 한 목걸이가 보였다. 한쪽은 눈물이 흐르고 있고, 반대쪽은 웃고 있는 거북이 모양의 목걸이였다. 그 목걸이를 집으며 달라고 말하자 노파의 얼굴이 굳었다.

‘그, 그건 좀…….’
‘왜요? 이건 안파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거 말고 이건 어때? 예쁜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반지!’
‘그냥 이걸로 주세요.’
‘음……. 정 가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왜요? 무슨 저주라도 걸린 목걸이에요?’
‘저주는 아니고 원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목걸이인데 질이 나빠서…….’

‘네?’
‘아니야. 그럼 주기 전에 한 가지 주의 사항을 가르쳐줄게. 딱 사흘만 가지고 있어. 사흘이 지나면 버려야해. 알았지?’
‘사흘이요? 왜요?’
‘자세한 건 묻지 말고! 딱 사흘이야. 알았지?’

그 뒤로 몇 번이나 나에게 다짐을 받은 노파는 다시 짐을 꾸려서 걸어갔다. 점점 멀어지는 와중에도 수차례 고개를 돌려서 나를 바라보는 듯 했지만 이내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는 거북이 모양의 목걸이를 살펴보다가 버스가 온 것을 보고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돌아온 후. 가볍게 씻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육포를 꺼냈다.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꾸고 다른 손에는 맥주를 따서 마셨다. 목을 톡 쏘는 맥주가 식도를 넘어가자 시원함이 느껴지면서 오늘도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채널을 몇 번 돌려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자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으면서 내일 할 업무를 생각한다. 거래처에 전화를 하고 부장에게 결재 서류를 사인 받고, 오후에 만나기로 한 외국 바이어에게 상품을 소개. 그 뒤로 서류 작업을 하다가 저녁에는 부서 회식이 있었지.

바이어도 만나는데 양복에 주름이 생겨서는 안 되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던져놓은 양복을 주섬주섬 챙겼다. 그러다 문뜩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졌다. 한쪽 얼굴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반대쪽은 웃고 있는 거북이가 달린 목걸이였다. 보면서 노파에게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원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목걸이라고 했던가? 보나마나 사기겠지. 목걸이를 침대 한 구석에 던져두고 다시 누웠다. 그래도 만약에 정말로 원하는 꿈을 꾸게 해준다면 어떨까. 지금 꾸고 싶은 꿈이라.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이 쳇바퀴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은데. 멀리, 아주 멀리 말이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난 달리고 있었다.

회식에 마신 술 때문에 휘청휘청 거리면서 겨우 집으로 들어왔다. 부장의 페이스를 맞추다 보니 나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말았다. 부장님께 붙잡혀 마시다보니 어느 샌가 다른 직원들은 도망간 뒤였다. 나 몰래 도망친 후배들에게 어떻게 보복할까 생각하면서 욕실로 들어갔다.

미끌!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고 간단하게 씻었다. 그리고 침대로 걸어가는데 빠직 하면서 무언가를 밟았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다 결국 넘

어지고 말았다. 옷장 모서리에 부딪친 뒤통수를 문지르며 밟은 물건을 봤다. 어제 먹고 안 치운 맥주 캔이었다.

인상을 구기면서 침대에 누웠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럴 기력이 없다. 하는 수 없이 단추와 벨트만 풀었다. 눈앞에 있는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있는 텔레비전도, 옷장도, 더러운 방바닥도, 거북이도 빙글빙글 돌았다. 거북이? 아, 노파에게 받은 그 거북이인가.

“아, 내일 회사 가기 싫다…….”

빙글빙글 도는 방을 보고 있자니 멀미가 날 것 같아 눈을 감았다.

따르릉. 따르릉.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숙취 때문에 멍한 머리를 애써 깨우며 회사에 갈 준비를 했다. 옷에서 아직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탈취제라도 뿌릴 걸 그랬나. 점점 만원이 되어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철역에서 내렸다. 전철 입구로 들어가는 도중 편의점에서 이번 주 복권 당첨번호를 써놓은 것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갑을 뒤적거려서 복권을 찾는다. 흰색 종이에 검은 글씨로 프린트되어있는 복권 당첨번호를 보고 편의점에 붙어있는 것과 대조해보았다.

내가 산 복권에 적혀있는 숫자는 6, 28, 41, 19, 33, 27.

편의점에서 써놓은 복권의 숫자는 33. 27. 19. 6. 41. 28.

어라? 숫자가 똑같다. 지난 밤 술자리 때문에 헛것이라도 보지 않았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역시 틀리지 않았다. 1등에 당첨된 것이다. 복권 뒷면에 서명을 하고 재빨리 품속에 집어넣었다.

오들오들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고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었다.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로 갔다. 당첨금을 받자마자 그 엄청난 액수가 부담스러워 가까운 은행으로 달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집어넣었다. 통장 잔고에 1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뭐부터 할지 생각했다.

부동산이나 해볼까? 주식? 일단은 각 통장에 분산으로 입금하고 이자를 받자.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하면 되니까.

지점장의 깍듯한 배웅을 받으며 은행에서 나온 직후 자동차 매장이 보였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매장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광고에 나온 신형 차를 한 대 장만했다. 부드럽게 울리는 엔진 소리와 반짝반짝 빛나는 차체. 국산에선 보기 힘든 외제차를 끌고 회사로 향했

다.

이미 시간은 정오가 다되어가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부장이 기다렸다는 듯 내게 다가왔다.

“자네, 미쳤나? 지금 시간이 몇 신줄 알고…….”

머리가 반쯤 까진 부장의 말을 무시하면서 내 자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직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구라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그 사직서다. 그 사직서를 부장에게 던져줬다.

“사, 사직서? 갑자기 무슨 일인가?”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부장에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글 못 읽어요? 관둔다고요.”

지금까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인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부장에게 실소를 지으며 짐을 쌌다. 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박스에 담은 짐을 들고 회사를 나가면서 부장과 직원들한테 말했다.

“제 퇴직금으로 회식이나 하세요.”

짐을 조수석에 던져놓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부드럽게 울리는 엔진 소리에 미소를 지으면서 엑셀을 밟았다. 아 정말 최고의 날이다.

따르릉. 따르릉.

그칠 줄 모르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머리를 감았는데도 숙취로 인해 정신이 멍했다. 짝짝 소리가 나게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고 출근길에 올랐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철로 환승하는 도중에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다. 값을 지불하고 나오는데 복권 당첨번호를 적어놓은 것을 발견했다.

혹시나 해서 내가 산 복권과 비교했지만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 복권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6자리와 보너스 숫자까지 확인했는데도 하나도 안 맞다니. 꿈속이랑은 천지차이다.

꿈속에서 복권 당첨 받았을 때는 기분이 그렇게나 좋았는데. 현실은 이 모양이다. 홧김에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데 주변 눈빛이 사납다. 흡연구역이 아닌 탓이다. 어색하게 담배와 라이터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다 문뜩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잡혔다. 거북이가 달려있는 목걸이였다.

어젯밤 꿈에도 그렇고 그 전에 꾼 꿈도 그렇고, 이 거북이를 가져온 뒤부터 원하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 같다. 반신반의로 받아온 건데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였나?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고작해야 두 번이다.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걸지도 모른다. 그래, 한 번 더 시도 해보자. 만약 이번에도 내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면 그때 믿어도 늦지 않는다.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은 뒤 계단을 내려가서 전철에 몸을 실었다. 사람이 많은 출근 전철에서도 용케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다. 어젯밤 피로가 아직 덜 깼는지 조금씩 잠이 오는 것이 느껴졌다. 마침 좋은 기회다고 중얼거리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목걸이를 손에 쥐면서 생각했다.

유명 여배우와 사귀는 꿈을 꾸고 싶다고 말이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노파에게 건네받은 목걸이는 진짜였다. 전철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짧은 시간동안 나는 확실하게 유명 여배우와 사귀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선잠을 잔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꿈의 내용은 형편없었지만.

원하던 것처럼 여배우와 사귀고 있었지만 나와 여배우의 사랑을 취재하려는 파파라치들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황당한 내용의 꿈이었다. 꿈속 전개가 상당히 불만스럽기는 했지만 문제없다. 오늘 밤부터 마음대로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으니까 말이다.

노파에게서 목걸이를 받은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갔다. 제대로 효능이 있는 목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나는 목걸이를 통해 무엇이든 원하는 꿈을 꿨다. 억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거나, 대통령이 되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거나, 중세시대의 영웅이 되는 꿈도 꿨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나는 그저 샐러리맨에 불과했다.

그럴 때 일수록 나는 더욱더 꿈을 탐했다. 조금 더 대단한 꿈을. 조금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꿈을. 그때마다 목걸이는 내가 원하는 꿈을 선사해주었다. 그것의 부작용일지 가끔가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찰칵. 끼이익.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와 육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먹기 시작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절로 인상이 구겨진다. 점심시간에 꾼 꿈에 여운에 잠겨 있다가 거래처에 실수를 해서 부장에게 잔소리와 욕을 먹은 것이다.

마음속으로 부장의 험담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소주를 비우자 슬슬 취기가 느껴졌다. 어서 자야겠다. 입가에 웃음을 지은 채 침대에 누웠다. 머리맡에 놓여있는 목걸이를 보면서 빌었다.

“부장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목걸이를 받고 보름이 지난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자정이 훨씬 넘은 늦은 시각에 인적이 드문 뒷골목. 전봇대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사내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날붙이가 가로등 불빛을 반사해 반짝 빛났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도달했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내, 부장이 나를 돌아봤다.

"이봐! 내가 말한 컨디션은……. 사왔어?"

취기로 인해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 눈의 초점은 맞지 않는 부장과의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부장을 찔렀다.

"억!"

부장의 표정이 경악에서 고통으로 물들어갔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 넥타이를 붙잡는 부장을 보면서 오른손을 앞뒤로 왕복했다.

푹. 푹. 푹. 푹.

"자, 자네 왜……."
"당신한테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이러고도, 이러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나!"

"무사하고말고요."
"……."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부장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어차피 꿈이니까요."

따르릉. 따르릉. 알람소리에 꿈에서 깨어났다. 멍한 정신을 각성하면서 지난 밤 꿈을 회상한다. 부장에게 다가가는 발걸음. 부장을 찌를 때의 감촉. 부장의 놀란 얼굴. 그리고 쓰러진 부장을 조소하는 나.

입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였던 울분이 모두 풀려가며 개운함이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이제 다시 출근해 하루를 버텨야 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꿈과 현실의 차이에 한숨을 내쉬면서 욕실로 걸어간다. 그래도 오늘만 참으면 내일부터 주말이다. 목걸이를 통해 원하는 꿈을 얼마든지 꿀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 안은 붉은색 천지였다. 거울도, 벽도, 타일도 빨간 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뭐지? 내가 어제 술 먹고 들어오다가 물감이라도 사왔나? 아니, 이건 물감이 아니야. 마치 피 같은…….

툭

마치 묻은 피를 닦으려 했었는지 손자국이 나 있는 거울을 닦으려다 발바닥이 무언가를 건드렸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붉은 피로 뒤덮인 식칼이 있었다.

내가 집에 비치해놓은 칼이 아님에도 난 이것을 알고 있다. 바로 전날 밤 꿈에서 내가 부장을 찌른 칼이었기 때문이다.

"우윽!"

식도에서 넘어오는 구토감을 참기 위해 욕실에서 뛰쳐나왔다. 온 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호흡은 거칠었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어제 그건 꿈이다. 내가 꿈속에서 저지른 일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속삭이며 천천히 지난밤을 회상한다.

분명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부장에게 붙잡혀서 술자리에 갔다. 회사 근처에서 1차로 맥주를 먹고 그 다음에는 이 동내에서 소주를 마셨는데.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필사적으로 지난 밤 술자리를 생각했지만 떠오르는 것은 꿈속에서의 일 뿐이다.

2차에서 과음한 탓에 내게 숙취해소 음료를 사오라고 말한 부장이 전봇대에 기대듯 쓰러져 있었다. 꿈속의 나는 부장의 말을 들어 편의점에 다녀왔지만 산 것은 숙취해소음료가 아닌 식칼이었다. 그 후 부장에게 다가가 식칼로…….

아니다. 그 일은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야! 노파에게 받은 목걸이로 부장을 죽이고 싶다고 빌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거다. 맞아! 지난밤에 입었던 옷을 보면 알 수 있다.

욕실에 있는 붉은 것들이 그저 물감이길 빌며 옷장을 열었다. 옷장을 열자마자 느낀 것은 비릿한 냄새. 눈에 보인 것은 피가 잔뜩 튀어서 붉어진 와이셔츠였다.

"우웨에웩!"

다시 욕실로 들어가 변기에 머리를 박았다. 그렇게 한창을 속에 든 것을 토해냈다. 더 이

상 토할 것이 없게 되서야 방바닥에 쓰러지듯 앉았다.

온 몸이 녹초가 되어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다. 어제 그 일은 꿈이 아닌 건가? 내가 정말로 부장을 죽여 버렸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벽 한 쪽에 걸려있는 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다. 이미 출근시간은 지나있었다. 그래, 회사에 전화를 해보자. 회사에 전화를 해서 부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다. 부장 전날 회식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멀쩡한 얼굴로 출근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내게 온갖 욕설을 할 거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자판을 눌러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잠깐 동안의 대기음이 끝나고 전화를 받은 것은 내 후배였다.

— 여보세요? 선배 어디세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출근을 못할 것 같다. 부장님 출근 하셨지? 부장님 좀 바꿔주라."
— 선배, 부장님 아직 출근 안 하셨는데요? 부장님 자택에 전화해 보니까 어제 안 들어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선배랑 같이 계신 거 아니에요?
"……."
— 선배? 듣고 계세요? 선……. 뚝

망치로 후려 맞은 듯 멍한 정신 속에서 통화를 끊었다. 바닥에 널려있는 담배를 하나 물고 불을 붙였다. 천천히 타들어가는 담배를 보면서 어제 밤일을 다시 한 번 기억했다.
점점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부장을 내려 보던 나는 식칼을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욕실에서 옷과 몸에 묻은 피를 닦아내려다가 결국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눈을 떠서…….

딩동! 딩동! 똑똑똑

갑자기 현관문에서 들려온 소리에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최대한 기척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 바깥을 살필 수 있는 구멍으로 바깥을 보자 처음 보는 남자와 집주인 두 명이 서 있었다.

딩동! 쾅쾅쾅!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이남혁 씨 실종신고가 들어왔는데 어제 김민철 씨가 마지막까지 같이 계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부장의 이름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현관에서 멀어졌다. 경찰이 나를 찾아오다니!

"김민철 씨! 어서 문 열어 주세요! 안 여시면 이쪽에서 열겠습니다!"

내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챘는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서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문을 열어주고 둘러대야 하나? 아니, 그럴 순 없다. 경찰이 피가 묻은 와이셔츠와 욕실에 있는 식칼을 발견한 순간 끝이다. 하다못해 그 두 개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옷장에서 피가 묻은 옷과 식칼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젠/장! 막혀서 내려가지 않았다. 손으로 옷을 꾹꾹 누르면서 현관문을 살폈다.

여전히 경찰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다 철커덕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열쇠로 문을 따는 것 같은 소리. 그것을 듣자마자 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김민철! 거기서!!!"

2층에서 뛰어내린 충격으로 바닥을 구르다가 힘겹게 일어나 앞으로 달려갔다. 뒤에서 경찰이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달리는 속도를 더욱 높였다.

"허억. 허억."

어제 입고 잤던 잠옷차림 그대로, 신발은 고사하고 양말조차 신지 않은 맨발의 상태로 나는 꼴사납게 도망치고 있었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난 단지 꿈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어째서 내가 경찰에게 쫓기게 된 거냐고! 이게 다 꿈이라면 좋을 텐데. 오만상을 찡그리며 달리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 때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목걸이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거 꿈 아니야?

그래, 만약 지금 이 상황도 꿈이라면? 부장을 죽이는 꿈을 꾼 뒤 이어서 계속 꿈을 꾸고 있는 상태라면? 그럼, 나를 쫓아오는 저 경찰들은? 꿈속에서나마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경찰의 형상으로 나타났을 지도 모른다. 이 거친 숨과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어떻게 설명하지? 목걸이의 효과가 지나쳐서 내가 현실처럼 느끼고 있을 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며 지금 상황을 판단했다.

지금 이 상황은 꿈이라고.

그렇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상황도 꿈인 것이 분명하다. 이제 눈을 뜨면 언제와도 같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다. 애초에 내가 부장을 죽인 건 꿈속에선데 경찰에게 쫓기다니 말도 안 되잖아?

이제 눈을 뜨기만 하면 된다.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꿈에서 깨어나길 간절히 빌면서 감았던 눈을 떴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내 방의 천장이 아닌 도망치다가 몸을 숨긴 뒷골목 그대로였다. 너무 깊게 잠들어서 이런 방법으론 깨어나지 않는 건가?

"김민철!!!"

멀리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차피 꿈이라는 것을 안 이상 붙잡혀도 문제는 없지만 아무리 꿈속이라도 철창신세를 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멈춰있던 다리를 움직여서 다시 달려 나간다.

조금 전처럼 목적 없이 달리지 않는다. 경찰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달리면서 목적지로 향했다. 내가 목표로 삼은 곳은 바로 이 동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옥상. 그래.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 중 제일 빠른 것은 바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다. 벌써 몇 번이고 하늘에서 떨어져 꿈에서 깬 일이 있지 않은가.

닫혀 있던 옥상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 난간을 넘었다. 나보다 한발 늦게 빌딩 옥상에 도착한 경찰들이 나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난간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기만 하면 나는 이 빌딩 위에서 떨어진다.

"기, 김민철! 허튼 생각하지 마! 천천히 이쪽으로 넘어와!"
"왜 그렇게 심각해요? 어차피 꿈인데."

"꿈? 무슨 개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너 잘못하면 죽어! 한 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냐!"
"목숨이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무, 무슨?"
"어차피 이건 꿈이니까요."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자 몸이 중력에 붙들려 아래로 떨어지는 감각이 느껴졌다.. 하늘에서 멀어져 점점 땅으로 추락하는 이 풍경은 익숙하다. 나는 눈을 감고 꿈에서 깨어날 준비를 했다.

내 몸이 추락하면, 내 방 침대에서 눈을 떠 출근 준비를 하겠지. 멍한 정신을 깨우기 위해 씻고, 양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서 회사로 갈 것이다.

어차피 이건 꿈이니까.

*

批評

<드라마 비평문>

해어화

20141140
황 수 정

드라마『황진이』는 조선시대 중종 때 기생 황진이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황진이는 16세기를 살았던 21세기의 여인이라 불릴 만큼 현대적 여성이다. 소설마다, 소설을 표현한 뮤지컬 등 작품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카리스마 있는 현대적 여성이라는 틀은 변하지 않는다. 드라마의 내용은 황진이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녀의 사랑은 아름다우나 순탄치만은 않다. 드라마는 이전에 나온 소설들처럼 글자를 보며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매체의 특성인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그 사랑을 보다 선명하게 나타내었다. 이 글에서는 드라마에 나타난 시각 청각이 의미하는 바를, 특히 인물들의 옷과 배경음악이 나타내는 바를 쓰고자 한다.

드라마에서 인물의 의상은 단순히 '옷'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의 신분, 성격, 심리가 인물의 옷에 녹아있다. 어린 황진이는 절에서 입는 회색의 옷만을 입는다. 이 시기의 황진이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고집 있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성격을 어린 황진이가 입고 있는 무채색의 옷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또한 절에서 입는 옷이라는 점에서 어린 황진이는 아직 속세에 물들지 않은, 갇혀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이 시기 황진이의 옷은 그녀를 가두고 있는 틀을 의미하는 것이다. 3000배를 드려 갈 수 있게 된 장에서 어린 황진이는 화려한 기녀들을 본다. 어린 황진이의 눈은 부러움 신비로움 등 갖가지 감정으로 반짝인다. 이때 황진이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린 부용이도 등장한다.

부용은 첫 등장부터 매우 화려하다. 어린 나이임에도 출중한 검무로 모두의 칭찬을 받으나, 행수는 그녀를 질타한다. 훗날 황진이와 맞수가 되는 어린부용의 옷은 어린 황진이와 달리 처음부터 강한 색감의 옷을 입는다. 칼을 들고 등장한다는 것 또한 부용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킨다 볼 수 있다.

어린 황진이는 곧 절을 탈출해 기방에 들어간다. 때문에 옷도 바뀐다. 현금이 황진이가 기녀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보내두었던 절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이다. 무채색에서 유채색으로. 어머니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황진이는 옷을 바꾼다. 화초를 올리기 전 황진이는 자신이 원하는 일에 몰두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다. 은호도령과의 사랑 또한 맑고 아름답다. 때문에 황진이의 의상 또한 여리고 부드럽다. 황진이의 치마는 A라인으로 떨어져 깔끔한 느낌을 주고, 색상은 파스텔계통으로 순수함을 강조한다. 소재는 바람에 흩날리는 얇은 소재를 사용하여 여리고 어린 느낌을 준다. 이때 황진이는 은호도령을 만난다. 은호도령과의 사랑을 한창 꽃피울 때의 황진이의 의상은 푸른빛, 분홍빛을 띤다. 은호도령의 의상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는 하얀색, 푸른색 의상을 입는다. 두 인물 다 그들의 사랑이 깊을 때 푸른빛의 의상을 입지만, 같은 장면에 둘 다 푸른빛의 의상을 입을 때는 없다. 이는 비슷한 듯 다른, 엇갈리는 그들의 사랑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두 인물의 사랑이 시작 될 때부터 수없이 복선이 깔렸던 그들의 신분 차이에 의한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다. 은호도령의 약혼녀, 부모님과의 갈등이다. 은호도령의 약혼녀

의 의상은 황진이와 비슷한 듯 다르다. 황진이의 옷과 비슷한 색감의 옷을 입으나, 밝기가 좀 더 어둡다. 머리의 모양은 균형 있고 깔끔하다. 두 인물 모두 은호도령을 사랑한다는 점이 같듯이 비슷한 색감의 옷을 입으나, 단정함과 균형에 조금 차이를 두어 그 신분차이를 표현했다.

진정한 기생이 되기 위해 꼭 거쳐야하는 화초를 올릴 때, 황진이는 처음으로 원색의 붉은 저고리를 입는다. 이때는 행수인 백무와 내기를 하였을 때이기도 하다. 붉은 의상은 황진이가 강한 마음을 품었음을 나타낸다. 이 때 등장하는 부용은 화초를 올릴 때 반짝이는 화려한 옷을 입는다. 황진이와 달리 긴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권세를 탐하기까지 한다. 이때의 부용은 작품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생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은호도령과 황진이의 사랑이 끝날 때까지. 은호도령이 죽을 때까지 인물들의 의상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은호도령의 의상은 점점 탁한 색감으로 바뀐다. 이는 은호도령의 감정의 혼란, 건강상태를 알 수 있게 한다. 황진이는 주위에 개의치 않고 오직 은호도령과의 사랑만을 중시한다.

이 때 잠시 등장하는 섬섬은 황진이의 감정을 더욱 몰아간다. 그녀 또한 황진이처럼 첫사랑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머슴이라는 점과, 표현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섬섬은 자신의 사랑은 숨기고 숨기다 자살을 한다. 이러한 약한 마음을 섬섬히 자주 입는 연노랑색의 옷을 통해 나타낸다. 섬섬의 죽음에 다른 기생들의 옷은 조금씩 강하고 짙어진다. 한 인물의 죽음에 스토리는 점점 극에 달한다.

은호도령의 부모님은 끝까지 이 둘의 사랑은 반대하며, 은호도령의 약혼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은호도령은 감정에 혼란이 있다. 황진이와의 사랑이 가장 중하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과 마찰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그 마찰을 피하거나 부수지 않고 허락을 구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황진이와 도망 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어머니가 앞을 막자 그것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때 은호도령의 옷은 그가 그동안 입은 옷들 중 가장 채도가 낮다.

건강이 악화된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황진이와 처음 만났던 곳에서 그녀와 사랑이 꽃필 때 입었던 것처럼 밝은, 그러나 보라색의 옷을 입고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린다. 보라색을 통해 그의 건강상태를 표현하고, 그럼에도 밝은 색을 통해 황진이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추억하며 떠남을 표현한다. 은호도령의 마지막 독백에서 '인생이 남달리 짧았던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대를 만나 마음에 담았던 시간. 그 기억이 제게 있는데 억울하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허나 후회는. 뼈아픈 후회는 남습니다. 그대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세상이 친 덫을 내 손으로 걷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대가 나로 인해 너무 많이 울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그대의 몫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그대의 외로움을 울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맘 편히 그대를 지켜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니, 내가 흘린 눈물들은 그리 버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디 그대가 살아갈 한 생 너무 버겁지 않길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한다. 황진이와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볼 수 있다. 후에 기방 앞에서 멈춰서있던 관이 황진이가 '잊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가요.' 라며 저고리를 벗어 관에 덮어주었더니 관이 움직였던 이유 또한 이 독백을 통해 알 수 있다. 황진이가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또한 이 때 황진이의 저고리는 지금껏 입은 옷 중 가장 어두운 색이었다. 그녀의 어두운 마음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관 위에 내려놓음으로 고인이 바란 바대로 '슬픔을 내려놓겠다.' 표현한 것이다.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황진이의 슬픔은 더욱 더 깊어진다. 은호도령이 죽은 뒤 시간이 지

난 후의 첫 장면에서 황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여린 옷을 입는다. 지금껏 입은 옷 중 가장 얇으며 가장 밝다. 머리는 풀어 헤쳤으나 가지런하며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다. 안개가 깔려있으며 햇빛에 반짝이는 물로 비틀거리며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은호도령과 사랑을 꽃피울 때보다 더 그 느낌이 짙은 차림이지만, 달라진 주변 소품, 머리 행동을 통해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슬픔이 더 짙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황진이를 김정한이 구한다. 그는 어린 황진이가 입었던 것처럼 무채색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 무채색은 어린 황진이에게서 나타난 무채색의 의미와는 다르다. 그는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후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색깔로 황진이와의 사랑이 물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황진이의 호위무사는 검은 옷을 입고 있다. 후에 나타나지만, 그 또한 황진이를 사랑하는 인물이다. 그는 끝까지 온통 검은 옷만을 입으며 황진이에 대한 마음 또한 한결같다.

술에 취해있지 않은 황진이의 옷차림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물에 걸어 들어갈 때 입었던 여린 색감의 옷 위에 덧입고 덧입는다. 자신의 슬픔을 강한 겉모습에 감추고 감춘다. 붉은 치마, 붉고 큰 꽃무늬의 저고리, 붉은 입술, 붉은 천의 가마. 붉고 강렬하다. 또한 이전의 축 늘어지는 옷의 모양과 달리 상박하후의 옷, 사대부 여성의 균형적 머리모양과 대조적인 비대칭의 트레머리는 그녀가 화초를 올리고 진정한 기생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옷이 변한만큼 황진이의 행동도 변한다. 거친 말을 서슴지 않으며 도도한 카리스마를 드러낸다.

황진이의 맞수로 등장하는 부용의 옷차림은 예전처럼 화려하다. 이때는 검붉은 계통의 옷을 입는데, 황진 이처럼 강하나 더 어두운 부용의 기분을 나타낸다. 다른 양반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벽계수까지도 황진이의 얘기를 하는 것에 마음이 상한 것이다. 깨진 거울에 비친 검붉은 저고리, 화난 표정의 부용의 모습에는 황진이를 향한 분노, 질투 등의 감정이 서려있다. 황진이처럼 화려한 옷을 입는 인물은 드라마의 여성 인물 중에서는 부용밖에 없다. 속이 비치는 검은 원단의 옷, 소매가 넓은 금색의 옷 등을 입기도 하나, 경쟁에서 늘 황진이가 이기듯 늘 옆의 황진이가 조금 더 빛난다.

이 시기에 황진이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 그녀를 구한 김정한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황진이는 이전의 아픔 때문에 '사랑이란 물색없는 것 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순탄히 흘러가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싹트는 사랑을 그저 '간 사람과 닮아서' 라고 스스로 세뇌하며 뿌리친다. 그녀의 의상은 여전히 강렬하며 사랑의 대상인 김정한의 의상은 아무 무늬 없는 푸른색 혹은 무채색이다. 올곧은 그의 심성이 옷에 나타난다.

이러한 김정한을 황진이의 맞수인 부용은 마음에 품는다. 벽계수는 황진이에게 사랑일지 소유욕일지 모를 감정을 느낀다. 그런 벽계수를 황진이의 절친한 지기인 단심은 사랑한다. 인물의 옷은 섞이고 섞인다. 혼란하다. 곧 황진이는 자신이 김정한을 사랑함을 인정하고 둘의 사랑은 무르익는다. 황진이를 제외한 그 어떤 인물의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인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며 슬퍼한다. 그들은 더욱 더 화려해지며 황진이는 차분해진다.

김정한과 황진이는 도망가서 살림을 차린다. 이전에 은호도령과 도망가려 했을 때 은호도령이 효 때문에 망설인 것과 대조적이다. 김정한의 임금과의 충과 황진이와의 사랑 중 사랑을 택했다. 그 선택에 망설임은 없었다. 둘의 옷차림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볼품없으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다시 기방에 돌아와서 조차 황진이의 옷차림은 이전보다 차분하다. 잠시 다시 화려해지기는 하나, 곧 되돌아온다. 자신의 화려함이 춤이 아닌 옷에서 옴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 뒤 황진이는 옷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권력의 화려함 또한 내려놓는다. 황진이는 한 겨울 하얀 저고리, 갈색 치마를 입고 사람들과 어울려 웃으며 춤을 춘다. '모두가 함께 춤 출 수 있는 신명나는 세상을 꿈 꾸어본다. 하여 나는 남은 날이 얼마든 오늘처럼 늘 춤판에 설 것이다. 사람들 얼굴에 번져가는 웃음과 기쁨. 이 값진 전두가 고통을 넘어 설 힘이 되어 줄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춤은, 춤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독백으로 막을 내린다. 언뜻 진정한 예인의 길을 깨달은 행복한 결말로 보이지만, 그녀의 사랑은 또 다시 실패했다. '춤으로 인한 기쁨이 고통을 넘어설 것이다.' 는 내용의 독백이 사랑을 잃은 슬픔을 춤으로 묻으려 하는 그녀의 심리를 나타낸다. 행복한 척 하는 불행한 결말이다.

배경음악 또한 의상 못지않게 드라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같은 영상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하며,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2000년대의 다른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음악은 대부분 대중가요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에 황진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차별화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대중가요의 경우 상업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잦은 영어사용, 자극적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황진이의 배경음악은 모두 한국어로 되어있으며 가사 하나하나가 가요보다는 시의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인 '한'을 담고 있다.

타이틀곡은 백지영의 나쁜 사람이다. 백지영의 애절한 목소리는 가사의 느낌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아프게도 새겨 뒀네요.' 로 시작하는 노랫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1절에서는 홀로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나, 2절에서는 잊을 수 없다며 '한번만 다시 와요 애원하면 들은 척이나 할까요. 라며 떠난 임을 붙잡기도 하고 원망도 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곡은 주로 극히 슬픈 장면에서 흘러나온다. 그저 애절한 슬픔만을 표현한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다. '나 타이틀곡이다.' 라고 자랑이라도 하는 듯 그저 슬픈 장면이라면 이 곡은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온다. 가사가 적절히 어울릴 때 나온 적이 없다 말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어울리지 않았다. 적절했던 장면을 꼽자면 은호도령의 상여가 기방 앞에 멈춰 서서, 황진이가 저고리를 덮어주며 말을 할 때 이다. 이 장면에서 황진이는 비를 맞으며 '잊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걱정 말고 가요' 라는 말을 한다. 노래 가사의 '매일 괜찮다는데도 비 오듯 흘러요' 라는 부분과 어느 정도 통한다. '쉬어가듯 잠시 다녀간 그 사람' 이라는 가사 또한 소낙비처럼 짧게 흘러간 황진이와 은호도령의 사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김정한이 황진이를 사랑하고, 황진이는 옛 사람과 닮아서라 여겨 그 사랑을 확신치 못 할 때 나온 나쁜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물론 가사의 내용을 제외하고 본다면 잘 어울렸다. 단조의 곡이라 그 멜로디는 드라마의 내용에 보다 잘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사는 방해되었다. 가사를 뺀 MR만을 틀었다면 분위기도 잡고, 어울리지 않는 가사에 방해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최혜진의 '그대 보세요' 는 타이틀 곡 만큼이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곡이다. 그 가사는 배경 음악의 가사들 중 가장 서정석이고 시적이다. 첫 부분에서는 옛 기억을 더듬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때의 멜로디는 신비하면서 밝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나요'

하는 부분에서 단조로 바뀌며 분위기가 전환된다. 가사의 내용은 4계절 동안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변화를 자연에 표현한다. 봄에는 '그리움 꽃잎에 수놓으니' 헤매어 도는 자신의 마음인 줄 아시라고 말한다. 여름에는 '눈물로 하늘에 시를 쓰니' 그대 그리워 목놓아 우는 자신인 줄 아시라 말한다. 봄의 부분이 끝날 때와 여름 부분이 끝날 때는 '내 맘인 줄 아세요' 라는 같은 가사로 끝난다. 그러나 여름 의 '내 맘인 줄 아세요' 부분에서는 더 높은 음으로 끝나며 더욱 격해진 감정을 표현한다. '헤매어 도는' 것과 '목 놓아 우는' 의 차이 또한 이를 나타낸다. 여름이 끝난 뒤 간주 중 '나를 위해 슬퍼 말아요' 라는 부분이 나온 뒤 멜로디는 더 격해지나, 가사는 안정된다. 가을에는 '내 사랑 잎새에 물들이니' 멍들은 자신의 마음일 줄 아시라 하며, 겨울에는 '바람결에 안무 전해두니' 잘 있다는 인사인 줄 아시라 한다. 봄과 여름, 가을 사이에 모두 간주가 있던 것과는 다르게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간주가 없다. 가사도 앞에 비해 비교적 짧다. 자신 때문에 임이 슬퍼할까 염려되어 급히 말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말로는 잘 있다 하나, 감정은 더 격해져있다 볼 수 있다.

이 곡은 지고지순한 여인네의 마음을 그리고 있다. 언뜻 현대적 여성이었던 황진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어떤 곡보다 잘 어울린다. 황진이는 첫 사랑인 은호도령을 오랜 시간 잊지 못한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도 그가 은호 도령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랜다. 계절이 몇 번 지나도록 그녀는 첫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호도령의 마지막 독백에서 알 수 있듯 그녀가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때문에 숨기고 숨기는 것이다. 그러한 황진이의 마음이 이 곡에는 잘 나타나있다.

드라마에서 최혜진은 두 곡을 불렀다. 다른 하나는 해어화라는 곡이다. 해어화는 기녀를 부르는 명칭들 중 하나로, 말을 알아듣는 꽃 이라는 뜻이다. 이 곡은 원래는 가사가 없는 곡으로 작곡 되었던 만큼, 가사가 매우 짧다. 그러나 매우 함축적이기에 내용이 적다 말할 수는 없다. '사랑해도 가질 수 없고 사랑하면 사무치는 사랑은 가슴 속에 피어 상처를 내고 낳은 슬픔. 다가오고 떠나가고 내 눈물이 흩어지네. 나를 담은 춤이 슬퍼 노래 속에 미소 담네. 사랑은 내 가슴 울음이네.' 드라마 내용 전체를 줄여 담은 내용이다. 황진이에게 사랑은 슬픔이며 상처이다. 그러한 마음을 담은 춤은 슬프나, 기녀이기에 노래에 미소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녀의 삶을 말하고 있다.

KCM의 연(緣)은 유일하게 남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곡이다. 곡은 1절과 2절이 상반된 내용이다. 1절에서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으면, 보지 못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2절에서는 우연히 마주칠 순간에 눈물이 그녀의 모습을 가리지 못하도록 세상에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후렴구는 같다. 스쳐가듯 지나친 그녀가 예전과 달라보였으며 자신을 버렸으면 행복해야한다고 말한다.

1절은 은호도령을, 2절은 김정한을 닮았다. 은호도령은 김정한에 비해 어리고 사랑에 약했다. 때문에 황진이와의 사랑에서 적극적인 면이 부족했다. 반면에 김정한은 황진이와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 둘의 끝은 같았다.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하였고,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이루어 질 수 없는 이들의 사랑을 이곡은 드라마의 초반부터 복선으로 깔린 것이다.

위의 곡들처럼 가사가 있는 곡 말고도 드라마의 배경음악은 많았다. 마음 주지 않는 꽃, 자애, 예인의 길, 열망 등 오직 드라마를 위해 쓰여진 곡들이다. 이 곡들에 붙어 있는 작곡가의 말 또한 눈여겨 볼 만 하다. 특히 자애는 천하의 남자를 능멸하였으니 자신이 죽거든 아무데나 내 던져 버리라는 내용으로 기녀들이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매우 불결히 여기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마음 주지 않는 꽃 또한 비슷한 내용이다. 기녀는

어떠한 감정도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드라마 『황진이』는 여성을 특히 기생을 매우 천히 여겼던 16세기, 자신의 사랑과 순수한 열정을 지키는 현대적 여성 황진이를 표현하고 있다. 황진이는 끊임없이 기생의 삶과, 신분을 강조하는 주위에 굴하지 않는다. 드라마에서 황진이는 기생이 아닌 예인이며, 당당한 여성이다. 잔잔하고 은은한. 화려함 뒤에 한이 서려있는 기생의, 황진이의 삶을 사랑에 주제를 두고 그린 작품이다.

<영화 비평문>

우아하지 못했던 거짓말

<영화 '우아한 거짓말' 비평문>

20131135
정 지 은

여는 말

왕따란, 따돌리는 일 또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왕따가 존재한다는 것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따돌리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못된 짓, 잔인한 짓, 악랄한 짓이 바로 왕따이며, 지금도 왕따를 당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대놓고 따돌리며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왕따라 말하지만, 이러한 왕따만큼 심각한 것이 바로 은따이다. 은따란, 은근히 왕따라는 뜻으로 대놓고 왕따를 시키지는 않지만 같이 어울려 노는 척 하면서 은근히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왕따만큼 잔인하고 당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것 또한 따돌림에 관한 문제이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은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몇 달 전에 개봉을 했다. 그 영화는 바로 '우아한 거짓말'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왕따에 관한 사건이 자주 나오고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오늘은 이러한 따돌림을 주제로 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 대해 비평을 해보려고 한다.

Ⅰ. 은따를 만든 화연과 그 친구들

영화 '우아한 거짓말'은 학교에서 은따를 당하는 천지가 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영화가 시작된다. 천지(김향기)는 엄마(현숙)와 언니(만지)와 셋이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7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천지가 죽고 난 후 현숙(김희애)과 만지(고아성)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 곳에서 천지의 친구 화연(김유정)을 만나게 된다. 천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천지의 평소 학교생활을 알아보던 언니는 천지의 절친한 친구라던 화연이 친구들 사이에서 천지를 은근히 왕따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천지 죽음에 관한 비밀을 점점 알게 되고, 없는 줄만 알았던 천지의 유서를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면서 영화가 전개된다.

화연은 천지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친했던 친구이다. 그런 친구가 천지를 왕따 시킨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러한 화연의 모습과 그녀가 천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나타내었다. 영화 속에서 천지와 화연은 매우 절친한 관계이긴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연이 천지를 마치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들이 모두 모인 화연의 생일파티에서 천지만 일부러 약속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부르

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천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 모두 핸드폰 메시지로 천지얘기를 하며 천지의 흉을 본다. 또 화연은 어느 날 느닷없이 천지에게 절친 각서를 쓰자고 하며 절친이 된 기념으로 화연은 천지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천지는 화연에게 MP3 플레이어를 서로 선물해주자고 한다.

이러한 장면들로 볼 때 화연이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천지를 왕따 시키고, 가지고 놀았는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요즘같이 전자기기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친구를 이용하고 왕따를 시키는지 영화 속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이렇듯 매일같이 교묘하게 반복되는 화연을 주도로 한 따돌림에 지친 천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천지와 같은 반인 친구들은 평소 따돌림을 주도했던 화연이가 천지를 죽게 한 것이라고 말하며 외면한다. 이로 인해 화연도 결국 천지처럼 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화연만의 잘못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왕따라는 것은 절대 혼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위의 동조와 침묵이 있어야 가능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들은 화연뿐만 아니라 그녀를 도운 반 친구들도 해당된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화연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주고 그 잘못을 부곽 시켜 그녀가 얼마나 잔혹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만, 그녀를 도와 왕따 시키기에 동조했던 나머지 반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주위의 동조와 침묵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마냥 화연의 잘못만을 탓한다. 왕따라는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주제로 한 영화에서 그저 왕따를 주도한 아이의 잘못만 비추고 그녀를 도와 왕따에 협조한 나머지 아이들의 잘못은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아쉬움과 미흡함을 느꼈다.

화연의 잘못만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의 방관과 동조에 관한 잘못도 영화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갔다면, 왕따라는 것이 그저 주도한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닌 주위에서 보고 같이 돕거나 침묵한 사람들의 잘못도 크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었을 것이다.

Ⅱ. 우아한 거짓말을 위해 절제한 슬픔

영화 <우아한 거짓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하고 잔잔하다. 천지가 자살을 하고 가족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 맞지만 그로인해 매우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장면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천지의 죽음 이후에도 가족들은 그 슬픔을 견디며 각자의 생활에서 잘 살아간다. 이러한 모습은 평소 쿨했던 현숙과 만지가 천지의 죽음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점도 있지만, 영화 제목처럼 영화 분위기 자체를 우아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감독의 생각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절제한 슬픔이 영화를 이도 저도 아니게 만들어버렸다. 이 영화를 처음 본 많은 사람들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졸리다' 등 주로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고 지루하기만 했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슬픔을 절제했던 것이 영화를 그 어느 점도 뚜렷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 점을 들 수 있다. 소재 자체가 사회적 문제인 왕따에 대한 심각성을 다룬 것이기에 코믹과 감동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 허나 그렇다면 아예 슬픔으로 영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더라면 영화가 끝난 뒤 사람들은 가슴이 먹먹하고 아려온다는 평을 했을 것이다. 최소한 지루하

고 재미가 없다는 평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왕따로 인한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 받는지를 가족들의 슬픔을 통해 표현해줬다면, 왕따의 심각성과 그 피해를 조금 더 확실하게 관객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었을 것이다.

영화의 결말 역시 우아하게 끝나게 된다. 천지와 똑같이 왕따를 당하게 된 화연이 천지를 따라가지 않게 하기위해 마지막에 만지가 어쩔 수 없는 용서를 한다. 결국 화연을 용서하고 천지의 죽음 후 남게 된 가족들이 서로를 더 보듬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말을 보여준다. 마지막까지 이 영화는 우아함만을 보여주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결말이다. 그러나 영화이기에 가능했던 결말이다.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으로써 결말이 조금 허무하고 어이가 없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별다른 슬픔 없이 화연을 용서하는 만지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인데 그녀를 용서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란 의문도 들었고, 차라리 용서를 할 것이면 조금 더 슬퍼하면서 조금 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결말은 결국 용서와 화해라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왕따가 용서 받을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을 용서로 맺으려고 했던 이 영화의 결말이 우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누군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왕따를 시키는 행동도 결국 용서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될까봐 두렵다.

영화 속에서 왕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며,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한 결말을 보여줬더라면 이 영화는 마음 속 깊은 깨달음을 주는 영화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영화에서 카메오인지 조연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다. 그들은 바로 현숙과 만지의 옆 집 남자로 나오는 추상박 역의 유아인과 현숙과 한 때 만났던 남자 곽만호 역의 성동일이다. 추상박은 과거 천지와 같은 아픔을 지녔던 사람으로서 천지가 죽기 전 유일하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던 말동무였다. 또한 곽만호는 미라가 천지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이들은 영화 속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의 등장이 스토리 상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웃음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억지로 웃음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이 맡은 역할에 몰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아한 분위기를 위해 슬픔을 절제하려고 이들의 등장을 조금 코믹하게 한 것 같긴 하나, 오히려 이것이 이들의 존재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들이 스토리에 필요한 조연인지 아니면 그냥 코믹함을 주기 위해 출연한 카메오인지 헷갈린다. 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애써 웃음을 유도하려고 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들의 역할에 대한 몰입과 이해가 한결 수월했을 것이다.

<우아한 거짓말>은 제목처럼 우아한 분위기를 영화 속에 담아내기 위해 슬픔을 절제했다. 그러나 너무 절제했던 것은 아닐까? 왕따라는 심각한 주제를 가진 영화에서 슬픔을 너무 절제한 채 잔잔한 분위기만을 고집했다는 것은 결국 영화를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어버린 결과물을 낳은 것이다. 왕따를 당한 피해자 가족의 애통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자세히 보여줬다면 왕따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과 슬픔을 보여주는 영화로 기억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Ⅲ. 다섯 개의 봉인 실

천지가 죽고 난 후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현숙과 만지는 천지가 왜 죽음을 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죽기 전 천지가 빨간 모자를 떠달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난 현숙은 모자를 뜨다가 풀린 실 뭉치 속에서 천지의 유서이자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 알고 보니 천지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실 뭉치 속에 다섯 개의 편지를 숨겨두고 떠났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현숙과 만지는 실 뭉치 속 숨겨져 있던 천지의 편지를 하나 둘씩 찾게 된다.

이렇듯 실 뭉치 속에 천지의 편지가 남겨져 있었던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보였던 실 뭉치에 천지의 메시지라는 의미를 줌으로서, 다섯 개의 봉인 실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봉인 실 속에 천지가 남겨두었던 편지는 총 다섯 개였으며, 첫 번째 편지는 엄마 현숙에게 쓴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난 어디 가서든 잘 지낼 테니깐 엄마도 씩씩하게 잘 지내 달라, 사랑한다는 내용이다. 평소 현숙은 쿨하고 당당한 엄마로 아빠 없이 딸 둘을 악착같이 키워낸 캐릭터이다. 이런 현숙에게 무뚝뚝하기만 한 첫째 만지보다는 착하고 마음씨 따뜻한 천지가 더 애착이 가는 자식이었다.

이런 천지의 편지를 발견한 현숙은 그 편지를 붙들고 오열하지도 미치도록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저 멍하고 서글퍼하는 모습만이 나온다. 없는 줄만 알았던 딸의 유서를 발견하고 나서 놀라기도 했고 죄책감에 미안한 감정부터 드는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슬픔보다는 멍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유서를 발견한 엄마의 마음을 눈물로 조금 더 표현해줬다면 관객이 현숙의 마음을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섯 개의 봉인 실 중 두 번째 편지는 언니 만지에게 쓴 편지이다. 그 내용은 항상 부러웠던 우리언니, 내가 멀리 떠나있어도 잊지 말라, 사랑한다는 내용이다. 동생에게 한없이 무뚝뚝하기만 했던 언니 만지. 그러한 만지도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실 뭉치 속에서 편지를 발견한 부분이다. 천지의 죽음 이후 만지가 그다지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 천지의 편지를 붙들고 오열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속에서 만지가 유일하게 천지를 잃은 슬픔에 많이 우는 장면이다.

동생을 잃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눈물이 별로 없어 쉽게 공감이 가지 않는 캐릭터였는데, 천지의 편지를 붙들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동생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또한 무뚝뚝하기만 했던 그녀의 가족애와 인간미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슬픔이었기에 이 장면에서 영화에 조금 더 몰입할 수가 있었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공감할 수가 있었다.

세 번째 편지는 천지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을 은따 시킨 화연에게 쓴 편지였다. 천지는 자신의 편지를 담은 실 뭉치를 죽기 전 화연에게 주었지만 화연은 그것을 모른 채 그 실 뭉치를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 결국 천지가 화연에게 쓴 편지는 다른 친구가 먼저 발견해 돌고 돌아 만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편지를 만지가 화연에게 전해주었다. 편지의 내용은 그래도 용서는 하고 가겠다, 나는 가도 너는 남을 테니깐,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고 다시는 힘들어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만지가 화연에게 천지의 편지를 주기 전 화연은 잘못했다고, 자신도 천지가 많이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 전까지의 내용에서는 화연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 나오

지 않는다. 그저 왕따를 당하게 되면서 방황을 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다시 돌아선 친구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만이 나온다. 이러했던 화연이 만지가 준 천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 천지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괴롭히고 천지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마지막까지 천지는 자신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천지를 향한 화연의 미안함이 그녀의 눈물로 나타난 것이다.

만지는 화연에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그녀를 용서하겠다고 말한다. 동생도 이미 그녀를 용서하고 떠났고, 동생과 같은 상황인 화연이 동생처럼 되지 않게 하기위해 용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만지 어깨에 기대 잠든 화연의 모습이 나온다. 이는 이 세상을 떠난 동생 천지의 빈자리를 화연이 채워주게 되는 열린 결말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따뜻하고 우아한 결말이긴 하지만 화연은 천지를 왕따 시킨 장본인인데, 그녀를 용서하고 마음속에 품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마지막을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 왕따를 만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짚고 넘어가줬다면,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결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천지의 네 번째 편지는 같은 반 친구인 미라에게 쓴 편지이다. 미라는 천지와 같은 반 친구로서 유일하게 천지에게 말도 걸어주고 쉬는 시간에는 학교 안 둘만의 공간에서 아이들 몰래 시간을 보내며 놀기도 했다. 이렇듯 천지의 유일한 친구였던 미라가 천지에게 쌀쌀맞게 변해버렸던 이유는 자신의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자신의 아빠 곽만호가 천지의 엄마와 만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미라는 천지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천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도 많이 했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미라이지만 차갑게 돌아서 버린 그녀에게도 천지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떠났던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알아도 가슴에 담아둘 수는 없었을까? 가끔은 너가 한 말이 내 가슴에 깊이 꽂혔다, 그래도 용서는 하고 가겠다, 처음 본 너의 웃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빛 한줄기 없던 천지에게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미라가 천지를 외면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 곽만호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영화가 점점 전개됨에 따라 아직 이 아이들은 중학생이었고, 그 나이에는 부모님의 일을 자신들의 상황에 빗대어 그 부모의 자식까지 원망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물론 잘못이 없는 천지에게 못되게 굴은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미라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다.

다섯 개의 봉인 실 중 마지막 편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은 잘 지내고 있지?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지? 잘 견뎌줘서 고맙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의미는 천지가 천지 자신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편지들은 천지가 죽기 전 썼던 편지로 죽음을 예상하고 쓴 거지만, 희망을 가지고 힘겹게 버텨서 시간이 지난 먼 훗날 천지 자신이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바람에 쓴 말이기도 한 것이다. 어쩌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천지의 마지막 발버둥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의미는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말인 것이다. 이 편지는 천지가 평소 자주 가던 도서관에서 우울증 극복에 관련된 책장 사이에 숨겨두었다. 자신처럼 우울증을 겪으며 힘겨워하는 누군가가 후에 이 편지를 보고 희망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편지를 남겨둔 것이다.

마지막 편지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이 영화를 보는 천지와 같은 상황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감독과 작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천지의 마지막 편지를 실 뭉치 속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면서도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 뭉치 속에 숨겨두고 그것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비밀을 알아간다는 전개가 흥미롭게 느껴졌다.

Ⅳ. 우아하지 못했던 거짓말

영화 <우아한 거짓말>은 제목처럼 영화 속에 많은 거짓말들이 나온다. 천지와 만지의 엄마 현숙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는 거짓말을 한다. 만지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동생을 자신이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에 남성스러운 성격으로 자신을 숨겨버리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미라는 자신도 천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만이 유일하게 천지에게 잘해줬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의 아버지 곽만호도 현숙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음에도 죽었다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듯 다양한 거짓말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현숙과 만지처럼 다른 사람이 걱정할 것을 염려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미라와 만호처럼 나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 있다.

우선 현숙과 만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짓말을 한 경우로는 천지의 거짓말을 들 수가 있다. 천지는 자신이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걱정할까봐 그 어떠한 말도 가족들에게 하지 않는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천지는 평소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아이였다. 그런 천지의 성격이 절실히 드러나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힘든 것을 혼자서만 견디려했고 가족들에게는 티조차 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오직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미안했기 때문이다. 이유조차 지극히 착하고 순진했다.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의 거짓말은 그녀를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던 그녀는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거짓말에 속아 천지의 상황을 몰랐던 가족들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 결국 가족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준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천지의 거짓말과는 반대로 미라와 곽만호처럼 나를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로는 화연의 거짓말을 볼 수가 있다. 화연은 자신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위해 천지를 이용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고로 돌아가신 천지의 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가셨다거나, 천지가 초등학교 때 왕따였다거나 하는 거짓말들을 친구들에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한다. 화연의 거짓말로 천지는 친구를 잃게 되었고, 그 순간에도 화연은 천지에게 자신과 천지는 절친이라는 거짓말을 계속 함으로서 자신의 본성을 숨기려 한다.

그 후 천지가 죽고 나서도 천지의 언니 만지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이 외에도 화연은 영화 속에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한다.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화연의 노력이 결국 사람까지 죽게 한 악랄한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짓말과 나 자신을 위한 거짓말 중 어느 것이 더 옳지 못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이 더 악랄하고 못된 거짓말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천지의 거짓말 또한 옳지

못했던 거짓말이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아서 했던 선의의 거짓말이 결국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와 후회를 주는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천지가 가족들에게 애써 괜찮은 척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면 그녀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천지의 거짓말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픔과 후회만 남겨준 것이다.

이 영화 속에서 천지의 거짓말은 우아하게 포장되어서 그려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천지의 거짓말은 절대 우아하지 못한 거짓말이다. 가족을 위해서 나의 고통을 숨기는 거짓말은 결국 나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해서 숨기는 선의의 거짓말보다는 나를 생각한 솔직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거짓말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이 담긴 거짓말들이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였든 나를 위해서였든 그런 수많은 거짓말 중에서 진정으로 우아했던 거짓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우아한 것은 누군가를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솔직함인 것이다.

끝맺는 말

지금까지 영화 <우아한 거짓말>을 보고 나서 느낀 내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청소년들의 왕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그에 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우아한 거짓말>은 왕따를 소재로 한 영화임에도 거칠고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갔다. 배우들 역시 그 누구하나 연기가 튀는 사람이 없었으며 조용하고 잔잔한 영화 분위기에 맞춰 그들의 연기도 차분하게 느껴졌다. 원작을 영화로 한 영화였기 때문에 원작 그대로 영화에 담고자 했던 감독의 노력 또한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원작과 비교해 내용이나 흐름이 다를 바가 없었으며 원작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한 영화였다.

이 작품을 보면서 영화 제목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 영화의 분위기를 잔잔하고 얌전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의도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절제했던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 슬픔을 절제할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더 드러내줬다면 이 영화는 한층 슬프고 영화 속 주인공들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우아한 거짓말>은 왕따라는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로, 요즘 아이들의 왕따 문제와 이러한 문제가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되는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감독의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너무 영화이기에 가능했던 결말과 내용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과 교훈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던 작품이었다.

<영화비평문>

높은 언덕에 좌절된 한 인간의 꿈
하이힐(High heel)

20131133
이 지 원

Ⅰ. 들어가기에 앞서 - 영화 하이힐이란

〈하이힐(Highheel, 2014)〉 은 장진[2] 감독(장차 제작)의 영화로, 장진과 차승원이 3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장르는 감성 느와르[3]로, 단순한 느와르에서 벗어나 액션과 암흑가의 이야기에 '감성'이라는 새 요소를 더하였다. 세상의 편견에 부딪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한 남자가 겪는 깊은 '슬픔'을 풀어낸 작품이다.[4]

필자는 이 비평문에서 풍자 · 위트 · 패러독스(역설)로 규정되는 장진 감독 특유의 작품세계[5]가 영화 〈하이힐〉 에서는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5. 장진의 작품세계)와 더불어 제목의 의미(6. 하이힐의 의미)와 작품의 내용에 대한 필자의 생각(7. 내용·구성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 하이힐의 등장인물 - 아이러니한 그들의 관계

영화 〈하이힐〉 속엔 윤지욱(차승원), 허곤(오정세), 장미(이솜)이라는 세 명의 인물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연으로 표기되었지만, 필자의 경우 생각이 달라 다르게 정의했다. 이는 '7. 내용 · 구성의 한계'에서 언급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크게 윤지욱(차승원)과 소년친구(홍태의), 허곤(오정세) 셋 그리고 나머지 역들로 볼 수 있다.

주인공 윤지욱(차승원)은 거대 범죄 조직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는 강력계 형사이다. 범인을 단숨에 제압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강한 남성성이 느껴지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와 반대로 '여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소년친구(홍태의)는 학창시절 지욱이 좋아했던 소년으로, 지욱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입술을 빨갛게도 칠한다. 지욱이 여자가 되고 싶다는 성정체성을 깨닫게 만드는 주요 인물인

---

2) , 극작가 겸 연극연출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3) 느와르란 불어 누아르(noir)에서 유래된 것으로 검은색이라는 뜻을 가짐
주로 암흑가를 무대로 한 1950년대의 할리우드 영화를 가리켜 프랑스 비평가들이 붙인 명칭.
4) 장진 감독의 말 발췌.
5) [네이버 지식백과] 장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것이다. 하지만 주변 학우들의 놀림과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죽음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고 만다.

허곤(오정세)은 이러한 윤지욱의 꿈에 시련을 주는 조직의 2인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지욱의 남자다움을 경외하는 인물이다.

그 밖의 인물들은 성소수자[6]인 지욱이 현실에서 받는 따가운 시선들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을 잡아내는 강력계 형사와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배. 그리고 여성성을 감추기 위해 거짓된 남자다움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과 그 꾸며낸 남자다움을 존경하는 남자.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성소수자와 이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라는 아이러니한 구도가 이 영화를 만들어낸다.

Ⅲ. 하이힐의 줄거리 - 이야기의 흐름

어린 시절 지욱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왔다. 자신의 '남자'인 친구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급우들의 따가운 시선과 놀림감을 감당하지 못한 친구는 자살을 하고 만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욱은 자신 안의 여자를 지우기 위해 더욱 남자다워지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짙어지는 자신 안의 여성성을 마주하고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때문에 지욱은 자신을 옭아매던 형사직을 관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 바다(이용녀)와 도도(이엘)의 도움으로 여자가 되기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던 지욱은 검은 조직의 2인자 허곤에 의해 위기를 겪게 된다. 허곤은 암흑가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인 지욱의 남자다움을 경외했지만, 자기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지욱이 자신의 조직을 경찰에 넘겼다는 배신감과 사실은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끝없는 실망감에 지욱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잡아 복수한다.

지욱은 결국 어릴 적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동생 장미(이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향한 미국행 비행기를 뒤로 한 채, 그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하기만 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Ⅳ. 넘지 못한 현실의 벽 - 높은 언덕에 좌절된 한 남자의 꿈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 감당하기 힘든 놀림감이 되어야만 했던 아이. 세상의 시선을 잘 알기에 밀어내려 발버둥 쳐봤지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그의 내면에는 미처 나오지 못한 또 다른 자신이 있었다.

---

6) (性小數者, Sexual minority)는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시스젠더와 비교되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일컫는다. 비슷한 말로는 퀴어와 LGBT가 있다.
[위키백과] 성소수자

처음엔 못 참겠더라구요. 자꾸 내가 이상하게 변하는데 토할 거 같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더 남자로 갔지. 부시고 때리고 욕하고 그 어느 새끼보다도 더
거칠어지려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니 안에 그녀는 죽여버리고 싶었지
- 트랜스젠더 바다와의 대화 中

남자다워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해병대를 지원 해봐도, 담배를 피우고 험한 운동으로 몸을 가꿔도, 거친 형사의 길을 걸어도 그는 여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세상의 시선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바뀌려하자 그가 원하던 세상이 그의 품에 안겨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또 한 번의 따가운 시선뿐이었다. 체념한 채 모든 걸 내려놓은 덥수룩한 수염의 사내. 하지만 담배 대신 주스를 마시고 내려놓는 그의 새끼손가락은 여전히 올라가 있다.

그가 올랐던 것은 하이힐(Highheel)이 아닌 높은 언덕(High hills)이었으리라. 느껴지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은 꿈을 꿀 수 없는 좌절된 현실 속에서도 끝끝내 자신 안의 여자를 버리지 못한 그의 모습에서 오는 것이리라.

잊으셨겠죠. 너무 많으니까. 다 돌보지 못하고 잊은 사람도 있겠죠.
신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 선배님같은
- 트랜스젠더 바다와의 대화 中

남자도 여자도 아닌 신에게 잊혀진 '트랜스젠더'에게 현실은 영화 속에서조차도 결코 용인 되지 않은, 넘을 수 없이 단단한 벽이었다.

Ⅴ. 장진의 작품세계 - 위트와 풍자 그리고 패러독스

장진 감독은 영화 〈하이힐〉을 통해 '느와르'라는 폭력성이 짙은 장르의 영화를 '감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변화를 꾀했다. '트랜스젠더'라는 생소한 주제의 영화를 더욱 무겁고 지치게 하지 않게 만들고자 곳곳의 액션 신에는 장진 특유의 위트와 개그코드가 삽입되었다. 지욱이 능력 있고 남자다운 형사임을 나타내는 액션 신에서는 그를 경외하는 조폭 허곤이 그 상황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따라하는 장면에서 웃음을 유발한다. 단순히 폭력성 짙은 느와르영화를 추구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감독은 이 영화가 '이 사회가 말하는 보편적 기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영화라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적 질문을 장진 특유의 역설적 표현으로 던지고 있다. '결국 내 안의 그녀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장면 지욱의 올라간 새끼손가락에서 여전히 그녀를 버리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죽었지만 사실 죽지 않았다.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이 사회의 보편적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지우고 죽이려 애써도 내면적인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초췌하고 수척해진 지욱의 모습을 통해 더욱 현실적으로 그려진다.

장진 감독은 특유의 재치와 역설로 영화 〈하이힐〉을 풀어냈다. 그가 던진 역설의 메시

지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특유의 SNL 식의 개그코드는 소재와 내용의 문맥을 끊김 없이 매끄럽게 이해하는데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장진은 없다'라는 혹평 역시 피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Ⅵ. 하이힐(Highheel)의 의미 - 언덕을 쌓은 자는 누구인가.

제목이 가지는 의미는 그 작품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작품에 있어 제목은 내용을 대신할만한 핵심 키워드가 자리 잡아야 한다. 특히 영화의 경우, 제목과 더불어 홍보되는 대표 영상과 포스터 역시 같은 맥락을 유지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 영화는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의 '좌절된 꿈'을 그려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이는 여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미국행 비행기를 포기한 채 장미를 구하러 가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자신의 이상향을 향한 문 앞에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던 것이다. 장미를 구하러 가던 택시 안에서 그는 자신이 썼던 가발과 선글라스 그리고 여성의 상징이자 전유물인 하이힐. 즉 자신이 품었던 모든 꿈을 전부 내려놓는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커다란 하이힐을 클로즈업하여 비춤으로써, 그의 좌절된 꿈을 담담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다. 실제로 감독은 '영화의 제목인 '하이힐'은 누가 봐도 완벽한 남성의 모습을 갖춘 주인공이 끝내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7]'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 영화의 포스터에는 제목 '하이힐'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피를 흘리며 무릎 꿇은 '남자다운 모습'의 지욱만이 담겨있다. 단순히 한 편의 느와르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제목 '하이힐'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과는 굉장히 상반되어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감독은 '결국 내 안의 그녀가 죽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 둘의 조화를 꾀했다.

결국 '하이힐'이라는 제목은 좌절한 듯 보이는 지욱의 모습과 좌절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포스터의 문구로 보완되어 '여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꺾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남자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타이틀로 선정된 것이다.

감독이 꾀한 하이힐이 지욱의 '여성성'을 뜻한다했지만, 필자에겐 제목 '하이힐'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와 닿았다. 첫째는 여성을 상징하는 높은 구두 'High heel'이었고, 고난과 역경의 높은 언덕을 상징하는 'High hill'이 바로 그 둘째였다. 이 사회의 관점에서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은 그의 욕망을 나타내는 하이힐이자,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욕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고난인 높은 언덕인 것이다. 그리고 생각의 끝엔 그 높은 언덕은 누가 만든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따랐고 그 뒤엔 우리들의 편견이라는 답만이 존재했다.

Ⅶ. 내용 · 구성의 한계 - 퀴어[8]와 느와르의 부조화

7) 차승원 뭉친 감성누아르..제목은 왜 '하이힐'?, 뉴스엔, 하수정기자, 08:42:43

8)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동성애를 주제로 다룬 영화를 뜻함.
퀴어란 '이상한, 기분 나쁜'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주변에서 동성애자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을 빗대어 동성애자 스스로가 자신들을 퀴어라 풍자하기 시작하면서 동성연애자라는 의미로 통하게 되었다.

〈하이힐〉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라는 소재가 주는 신선함과 파격적임이 눈에 띈 영화이다. 하지만 모호한 구성과 내용은 극의 이해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충격적인 소재를 단지 의아하게 느끼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필자는 주인공 지욱이 학창시절 사랑했던 남자와 그의 여동생 장미에 관한 이야기를 그 단적인 예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내용적인 측면과 구성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한다.

필자가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이 극에서 대체 장미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지욱이 성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깨닫게 만들었던 학창시절 사랑했던 남자는 '소년친구'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조연이다. 하지만 그 둘의 사랑을 지켜보던 어린 여동생의 경우 '장미'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극의 주연으로 등장한다. 세상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이름 모를 '소년친구'의 동생 '장미'을 지키기 위해 지욱이 꿈을 포기한다는 설정은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억지스러운 흐름인 것이다.

이 장면은 시간의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나왔다기보다, 지욱이 꿈을 꾸거나 회상하는 식의 방식으로 극의 중간 중간에 나눠져 삽입되었다. 그런데 그 삽입의 타이밍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 영화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물음표를 자아내게 하는 억지스러운 구성을 취하고 있다. 지욱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되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짧게 잘라 여기저기 퍼뜨려놓는 이상한 방식이 깊은 몰입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대사 없이 BGM과 함께 깔리는 이 중요한 장면은 조각조각 분해되어 퍼즐을 맞추는 듯한 느낌까지 들게 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감독이 의도한 바가 '세상의 편견'에 부딪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한 남자가 겪는 깊은 슬픔이라면 세상의 편견을 잘 보여주는 대목에 힘을 실었어야했다. 성정체성으로 교실에서 급우들에게 놀림을 받는 장면, 형사 시절 했던 여장으로 동료들에게 놀림을 받는 장면, 여장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 등을 좀 더 구체화 시키거나 삽입했어야했다.

하지만 감독은 '느와르'에 집착하여 쓸모없는 액션신만 추가된 듯 보였다. 강한 남성성을 부각시켜 숨은 여성성을 감추려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려한 감독의 의도는 잘 알겠으나, 액션을 뒤로 하고 세상의 편견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지욱의 모습을 그려낸 연출들이 더 많았다면 본 영화는 지금보단 한 발 더 멀리 내딛었을 것이다. 감독이 생각한 대로 잔인하게 슬프고, 눈부시게 강렬한 감성 느와르로 말이다.

Ⅷ. 끝맺음 - 비평을 마치면서

완벽한 남성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의외의 섬세함과 감성이 존재하는 배우인 차승원의 트랜스젠더 연기는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을 주었다. 그가 처음 여장을 하고 나타났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여장을 거듭할수록 그의 애통한 마음과 간절함을 엿볼 수 있었고, 그가 느낀 희

[지식백과] 퀴어시네마 [queer cinema]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망과 좌절까지 맛볼 수 있었다. 또한 장진감독이 던진 영화 속의 역설적인 메시지는 이 사회가 그리고 내가 가진 무의식적인 편견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이처럼 〈하이힐〉은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라는 성 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신선했다. 하지만 느와르 장르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액션을 끼워놓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물론 감독이 의도한 바는 성소수자의 고통을 느와르와 접목시켜 그 슬픔을 극대화시킨 '잔인하게 슬프고, 눈부시게 강렬한 감성 느와르'였겠지만 영화의 뚜껑을 열어보니 부자연스러움의 연속일 뿐이었다.

말 그대로 퀴어와 느와르의 조합은 그리 대단하진 못했다. '동성애'라는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어울리지 않는 느와르와의 접목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화가 되어버렸다. 감독이 담고자 하는 바가 넘친 것일까. 영화는 빛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묻혀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감독이 다루었던 획기적인 주제는 평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가 영화 속에서 던진 역설의 메시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영화가 널리 알려져 성소수자들에 대한 많은 생각과 배려를 낳고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 속의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으면 한다.

<영화 비평문>

영화 '친구2'의 후속작품으로써의 가치

20141131
이 소 정

영화 '친구'는 2001년에 개봉한 곽경택 감독의 작품이다. 개봉 당시 청소년관람불가등급에도 불구하고 820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 흥행 1위로 자리 매겼다. '친구신드롬'으로 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졌고, 십년이 지난 지금도 명장면, 명대사와 함께 한국느와르를 이야기할 때 회자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영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까지 만들어져 화제였다. '한국 느와르=부산'이라는 공식까지 만들어낸 '친구신드롬'을 이어받기위해 곽감독은 '친구2'라는 속편을 만들어낸다. 후편의 감명을 준 부산 영화제에 참석하는 기간 동안 이야기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직접 메가폰을 잡은 곽경택 감독의 '친구2'는 잘생긴 신인배우와 전작을 본 사람이라면 궁금해 할 뒷이야기를 담았다는 것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큰 흥행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어색한 사투리연기, 성인이 보기에도 잔인한 폭력성 등 이유는 많았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전작을 따라가지 못하는 후속작품'이라는 것이다. 관객들의 대부분의 평은 '전작을 잇지 못한 끼워 맞추기식의 후속작품'으로 시작하였고, 새로운 신드롬을 만들지도 못한 채 상영을 마쳤다.

개봉 당시 극장에서 본 적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영화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감독의 기대치가 높았던 작품의 어떠한 부분들이 관객들을 실망하게 했으며 후속작품으로써 가치는 전혀 없는 전작의 명성을 따라 하기 위해 만든 영화로만 남게 될 작품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어느 해 영화제 참석을 위해 부산으로 이동 중에 감명을 받아 작업이 진행되어 '친구'의 후속작품이 만들어졌다. 전작 개봉 이후 12년 만에 개봉된 '친구2'는 2013년에 개봉하여 느와르, 액션장르로 전작과 같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하였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에 개봉한 영화는 개봉시기까지 적절하다며 관심을 받았다.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전작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한동수(장동건)의 아들 최성훈(김우빈)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준석(유오성)이 이야기 전개를 이끌어가는 핵심인물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던 동수가 다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태어난 성훈은 친아버지의 존재도 모르고 울산에서 꽤 이름 있는 건달로 살아간다. 동수의 살인혐의로 복역한 준석은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에서 성훈의 어머니에게 성훈이 부산 조직 건달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길 부탁을 받았다. 그렇게 성훈의 존재를 알게 된 준석은 티 안 나게 그를 챙긴다. 준석은 출소와 동시에 조직에서 자리 비운 17년 동안 많은 것이 변화된 것을 느낀다. 그가 자리비운 사이 부하였던 은기(정호빈)는 조직 내 실세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은기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조직을 분산 시키고, 준석의 자리마저 위태롭게 하며 위협했다. 은기의 행동에 준석은 성훈에게 조직의 세력싸움에 함께 할 것을 권했고, 성훈은 그의 권유에 응한다.

영화는 현재의 부산을 장악하려는 준석과 성훈. 그리고 60년대 부산을 장악한 전설적인

건달인 준석의 아버지 이철주(주진모)의 이야기까지 그려낸다. 철주는 부산항을 장악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본 조직을 소탕한다. 일본까지 넘어가 가장 큰 조직의 야쿠자를 해하고, 부산항을 장악한다. 분산되어있는 조직들을 통합시켜 부산 건달들에게 전설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한다. 전작에서 남자들의 우정과 갈등, 배신을 다뤘다면 '친구2'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까지 담아내고 있다. 곽감독은 부산, 울산 그리고 철주에 대한 회상으로 일본까지 배경을 넓혀 더욱 뜨거운 남자들의 세계를 보여주길 바랐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 두 시대를 오고가며 전작 보다 훨씬 큰 스케일로 강한 액션과 뜨거운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우정과 갈등, 배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엮여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감독은 노력했다.

'친구2'라는 영화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세계, 그들만의 우정을 그려내기 위해 감독은 대사 하나하나 신경 썼다. 다른 사람 눈에 그저 폭력을 일삼는 건달로만 보이는 그들의 안에는 '우정, 의리'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준석의 성격과 대사에서 그러한 것이 잘 드러난다. '돈'이면 어떠한 폭력과 조직 내 식구가 될 수 있다는 성훈에게 준석은 '와 피도 안 섞인 아 들끼리 행님, 행님 하면서 다니겠노. 같이 굶고, 같이 도망댕기고, 같이 울고! 그래야 식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기다. 돈이 아니라' 라는 말을 남긴다.

이외에도 교도소에서 함께 나와 자신의 최측근으로 데리고 다니는 부하에게 하는 행동, 살인혐의로 구속 전 자신의 식구였던 부하들을 찾는 장면으로 알 수 있다. 준석이라는 인물이 곽감독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아내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갈등을 뺄 수 없다. '친구2'에서도 갈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의리를 중요시하는 준석과 자신의 야망이 먼저인 은기의 갈등이 가장 컸다. 은기는 준석에게 동수의 살인혐의를 덮어씌워 구속시켰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준석이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자 은기는 준석의 조직 식구들에게 해를 입히고, 조직을 떠나게 한다. 조직을 떠나 은둔해 있는 자신의 식구들을 찾은 준석은 함께 술을 마시며 회포를 푼다. 대화 중 한명이 준석에게 은기에게 있는 준석의 세력을 되찾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준석의 힘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한다. 그 말에 준석은 은기의 권력을 뺏고자 계획을 세운다. 준석과 은기가 함께 모시던 큰형님의 장례식 날 계획을 성사시키고 조직 내 모든 사람들이 준석을 따르도록 본보기를 보인다.

은기에게 자신의 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준석을 오해한 성훈의 일방적인 갈등도 등장한다. 이 갈등은 영화의 후반부부터 전개되어 관객들에게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요소였다. 그러나 허무하게 오해가 풀리고 이야기는 급하게 마무리 되어 관객들의 긴장감은 실망감으로 변하였다.

인물들의 성격은 천차만별이다. 가장 어리고, 혈기왕성한 성훈은 불같은 성격으로 폭력을 일삼는다. 울산에 놀러와 자신의 친구를 때린 부산건달들이 있는 찜질방으로 찾아가 목침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 자신이 엄마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새아버지를 쫓아가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뜨거운 어묵국물에 얼굴을 담그는 장면 등을 통해 그의 잔인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점잖은 성격에 의리를 중요시여기는 준석은 장면 전개 내내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한 장면은 큰형님과 대화 중에 아버지를 회상 하는 장면이었다. 영화 내내 흔들림 없는 그의 모습은 부하들 앞에서 은기를 본보기로 자신의 굳건함을 보일 때도 이어졌다. 아무 표정 없는 모습으로 은기를 여러 차례 찌르고, 은기의 최측근의 손목을 전기톱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자신의 친구 동수가 죽고, 복역한 17년 동안 그는 감정이라는 것이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다. 점잖

은 성격은 아버지 철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준석만큼 감정이 없는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준석보다는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2010년과 1960년대이며 장소는 부산과 울산, 일본을 넘나든다. 주로 등장하는 지역이 울산과 부산이다 보니 지역 방언이 대사에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사투리연기는 지역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대사소화력을 보여주었다. 지역 방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보일뿐이다. 방언의 억양이나 고조, 단어 등은 신경 쓰지 않은 타지역 사람이 쓴다는 느낌이 강한 어색한 대사였다. 특히 감정을 실어 말하는 대사가 많은 영화 특성 상 한번 대사가 귀에 안 들어오면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데 방언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말해 더욱 집중이 어려웠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어 영화를 보는 내내 다른 연기나 장면전개 등 다른 요소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실력파 남배우들이 연기한 이 영화는 방언 이외에 연기 면에서 지적할 것은 하나도 없이 매끄러웠다. 특히 성훈역의 김우빈이 준석역의 유오성에게 취중진담을 하는 연기는 감독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연기라고 한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액션장르 영화 속 액션연기라기엔 부족한 그저 폭력성 짙은 연기이다. 액션연기라고 하면 기술과 상대배우와의 합으로 완성되는 연기이고, 액션영화를 즐기는 나는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친구2'의 액션연기는 무조건 때리고, 엎어버리고, 찌르기만 하는 폭력성 짙은 연기뿐이었다. 화려한 기교가 없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겠지만 필요이상으로 폭력적이며 성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큰 결함이었다.

지역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대사, 폭력성 짙은 액션연기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명장면은 있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하려는 성훈이 돈이 아니라 인간끼리 정으로 준석의 사람이 다 되었음을 보여준 두 남자의 술자리 장면이다. 소박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다가 준석보다 먼저 취한 성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남자들에게 숱하게 맞는 어머니, 그 옆에서 함께 맞을 수밖에 없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 놓는다.

이어서 그는 처음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 보이는 성인남자는 준석이 처음 이었다며 그른 신뢰하고 그의 식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성훈 역을 맡은 김우빈은 모델을 하다가 연기를 시작한 잘생긴 남자배우로서 취한 연기를 한다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풀린 두 눈과, 이야기를 할수록 꼬이는 혀를 실감나게 연기하였다. 준석 역 유오성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성훈을 보며 짓는 절제된 표정 등 디테일한 연기로 취중진담 장면을 완성 시켰다. 이 장면을 통해 진정 남자들의 세계라는 그들의 뜨거운 감정을 담백하고 함축적으로 담아내었다.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여주는 장면이 되었다.

이 영화의 새로운 점은 앞서 보여준 적 없는 곽경택 감독의 철학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는 '친구2'안에 '노스탤지어 느와르' 즉 '향수가 있는 건달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한다. 성훈은 울산에서부터 함께 어울려 놀았던 친구들과 패를 이루어 준석의 식구가 된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대사나 감정은 없지만 자신의 고향친구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에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준석에게 향수는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통해 드러난다. 자신의 고향이고, 아버지가 통합시켜놓은 부산 조직을 남의 손에 넘길 수 없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또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던 바다를 바라보며 옛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며 그 역시 향수를 안고 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모습과 상징이 조금 더 깊게 나타났다면 새로운 점으로 관객의 흥미를 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객들이 이런 점을 찾고, 느끼기엔 얕은 감성이었고, 쉽게 이목을 끌 수 없었던 부분이 되었

다.

후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라는 모습도 관객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기엔 부족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요소를 벌려놓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고, 관객들이 알아차리기엔 얕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을 내비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그저 전편의 내용과 일맥상통해 보이려고 억지로 넣은 장치로만 보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던 동수와 하룻밤으로 생겼다는 아들 성훈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동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동수의 죽음 뒤에는 은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성훈은 은기와 은기 최측근을 죽인다. 이 과정이 관객들 눈에는 뜬금없는 전개였을 것이다. 마지막 몇 분 만에 정리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암시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관객들에게는 최소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숙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격이라는 장치가 필요했을 것 이다. 또 부산 건달 조직을 하나로 만들고 일본 야쿠자들까지 소탕한 준석의 아버지 이야기 역시 연관성 없는 이야기로만 비춰졌다. 단지 준석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조직 내 세력을 되찾아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주는 회상에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상장면은 그 이상의 의미로 철주를 영웅화 시키는데 주력했다. 필요 이상의 분량과 과한 내용의 철주이야기는 관객들에게 복잡하고 영화와는 상관없는 제3의 내용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준석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보다 독보적이고 강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감독은 직접 메가폰을 잡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이번 후편을 전편만큼의 흥행에 도전 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다. 그런 감독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후속편으로 흥행하지 못하고 상영을 마쳤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들을 보면 크게 흥행에 성공하고 인기를 얻은 영화는 몇 편 안된다.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린 영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요인을 꼽아보자면 전편을 보았던 관객들의 궁금증을 다 풀지 못한 채 끝난 영화 내용과 영화의 내용을 가감 없이 보여준 예고편이 내용을 꼽을 수 있다.

전편을 본 관객들이 궁금했던 것은 '준석이 출소 할 수 있는가',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준석의 끝은 무엇인가'이다. 한마디로 속편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서 극장을 찾았다는 것이다. 관객들의 바람대로 준석에게 집중되어도 충분했을 영화가 너무 많은 인물과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고자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사실 영화 속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렇다고 그의 이야기가 중심적이진 않다. 그의 감정, 내면의 갈등보단 교도소에서 만난 성훈의 이야기, 과거 전설적인 아버지 철주의 이야기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결말은 준석보다도 성훈에게 집중되도록 초점이 맞춰져 보였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준석은 어디로 가는지, 사건의 마무리를 짓게 되는지 모르게 끝나지만 그와 더불어 성훈 역시 행방을 짐작하지 못하게 영화는 끝을 맺는다. 관객들은 준석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극장을 찾았는데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만 보고, 여운을 남기는 결말을 보고나니 연관성이 떨어져 보이고, 속편으로써의 가치가 없어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요즘 극장을 찾는 사람들은 사전에 영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찾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만큼 예고편 같은 사전에 수집 가능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친구2'의 예고편은 영화의 이야기를 모두 보여준다. 호기심을 끄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예고편과 영화의 내용이 다른 점이 없어 영화를 보고나서 허무할 정도라는 것이다. 큰 반전이 없는 영화의 특성 상 예고편과 본영화의 차이를 두기 어렵다. 하지만 관객 평 중에 '가치 없는 속

편' 다음으로 '극장보다 집에서 예고편을 보는 것이 낫다'라는 평이 많다는 것을 보면 예고편의 내용 또한 관객들에겐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 중 하나인 것이다.

전편에서 이어져 온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고편으로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해버린 영화는 관객들의 관심과 흥행을 이끌지 못했다. 차라리 17년 동안 복역 후 출소한 준석의 이야기에 집중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전설적인 아버지의 업적보다 직접 보고 배우게 된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며 성훈의 모습을 보며 동수와의 추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전개되었다면 준석에게 집중하기 좋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곽감독이 추구했던 '노스탤지어 느와르'가 좀 더 완성되어 보일 것이다. 성훈의 이야기는 동수의 존재를 알았을 때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암시해두었다면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수월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관객들은 연관성을 운운하며 후속작품으로써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후속작품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준석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약간 빗나간 전개였지만 관객들이 궁금해 했던 준석의 출소 후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편의 결말에서 준석은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하얀 빛 속으로 모습을 감춰 10년 넘게 영화의 결말 속 그의 행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였다. 추측 속에서 그의 사형선고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진 결말이었는데 출소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 또한 영화 속에서 보여주었다. 은기와의 경쟁에서 이기게 된 그의 모습은 전작을 본 관객이라면 큰 흥미를 끌 수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준석과 학창시절을 함께 보내고, 그가 말한 함께 굶고, 도망 다니고, 힘든 일을 함께 한 친구 동수의 혈육을 등장시켜 전편과 인물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노력한 것이 보인다. 비록 동수의 혈육인 성훈에게서 동수의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보다는 자연스러운 전개였다고 생각한다. 전작에서 많은 패러디와 함께 회자되는 명장면과 명대사를 남겼지만 후속 작에는 아쉽게도 명장면과 명대사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큰 한 방은 없지만 전작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기에 후편의 가치를 지닐 수 있었다고 본다.

'친구2'는 남자들의 우정, 갈등 그리고 배신을 주제로 전개된다.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스를 수 없는 숙명까지 담아내고자 했다. 혈기왕성한 성훈이 의리를 중요시하는 준석의 식구가 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달리는 은기와 세력싸움으로 갈등을 빚는다.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넘나드는 스케일에서 더욱 강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감독을 힘썼다.

다시 한 번 '친구신드롬'을 이끌어 보고자 했던 곽경택 감독은 준석을 이야기 전개의 핵심적 인물로 세워 그의 부친과 성훈의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작에서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 못한 관객들의 혹평 속 부족한 성적을 낸 '친구2'는 '전작보다 못한 후속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준비가 안 되어 보였던 지역 방언 연기와 잔인해보이기만 했던 액션 연기, 인물들에 대한 넓은 이야기 등을 문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친구2'라는 후속작품을 통해 곽감독의 다른 영화에서는 못 본 '노스탤지어 느와르'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작을 보고 품었을 준석에 대한 궁금증을 얕게나마 해결 할 수도 있었다. 관객들의 냉정한 평가는 전작을 보고 후속작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나오게 된 이야기가 아닐까싶다. 전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의 남자들의 뜨거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한다.

<영화 비평문>

블랙 스완, 관객을 압도하다

20141130
이 상 은

발레는 인간이 육체로 표현할 수 있는 미(美)의 극점에 있는 예술이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적 경지를 위해서는 고된 연습이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잔혹한 예술이다. 토슈즈에 가려진 발레리나의 발가락은 아름다움의 경계를 넘어선다. 미를 지향하는 예술, 발레는 유독 예술지상주의적인 느낌이 강한 장르다.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블랙 스완> 역시 발레의 이러한 예술적 속성을 다루고 있다. 발레에 탐닉하여 빠지게 되는 '예술적 마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준다. '한 발레리나의 예술적 완성을 위한 처절한 고투' 라는 영화의 중심 스토리는 발레에 관한 일반적인 상상력만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기에 그다지 특별할 게 없다.

하지만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누구인가. 광기에 의한, 광기에 대한 영화. 아로노프스키의 연출 세계를 함축하는 말이다. 그는 <레퀴엠>(2000), <레슬러>(2008), <노아>(2014)와 같은 예측불허의 도발적이며 독창적인 영화를 만들어 왔다.

<블랙 스완> 역시 특별할 것 없는 바탕이지만, 그만의 독특한 색채를 덧입힌다. 그는 한 발레리나의 예술적 완성을 위한 파멸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 호러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 박진감을 숨 돌릴 틈 없이 밀고 나간다. 극단적으로 주인공 니나(나탈리 포트먼)의 시점과 심리에만 초점을 맞춰 온전히 니나에게 몰입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의 정신까지도 압도하며 혼돈의 정점에서 극적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극도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새로운 영화적 기법이나 독창적인 구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블랙 스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와 인물 설정, 장르의 법칙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감독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구현해낸다.

Ⅰ.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인물 설정

영화에는 완벽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스스로 파멸하는 주인공의 광기와 망상, 라이벌을 향한 질투와 동경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발레리나의 욕망을 들추면서 인간 내면에 감춰진 양면성을 조명하는 셈이다. 이를 위하여 <블랙 스완>은 철저하게 고전적인 이분법에 기초하며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선과 악, 청순과 퇴폐, 순결과 관능을 흰색과 검은색에 비유하는 단순 구조를 선택한 것이다. 이분법에 의한 흑과 백은 밝음과 어둠, 상반된 이미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밝음이 희망과 생명력을 의미한다면, 어둠

은 좌절과 죽음, 공포 등의 이미지를 갖는다. <블랙 스완>에서의 검정색은 이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백조의 호수'에서 백조와 대비되면서 치명적인 유혹, 거침없는 관능 등으로 표현된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블랙 스완>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물에 어김없이 적용된다. 완벽한 경지에 이르고자하는 니나의 집착은 흑조와 백조라는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 부각시켰고, 니나의 조력자로서 엄마 에리카와 뉴욕 발레단장 토마스는 남녀라는 성(性)적인 차이 외에도 지도 방법에서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 니나가 닮고 싶어 하는 릴리와 베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둘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커다란 대조를 보이며 극적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1. 흑조vs백조

백조는 순수함의 결정체로, 소녀를 상징한다. 반면 흑조는 완벽한 예술에 이르는 필연의 과정이자, 성숙한 여인을 상징한다. 니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백조의 호수' 공연 캐스팅 과정에서 백조 역에는 적합하지만 흑조 역을 할 수 없다는 단장 토마스의 벽에 부딪힌다. 이런 니나를 이끄는 것은 완벽해지고 싶은, 흑조를 향한 강한 열망이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통제의 손길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대선배인 수석 발레리나 베스의 분장실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립스틱을 훔쳐서 발라보곤, 나중에 자해를 시도한 베스에게 물건을 돌려주면서 "당신처럼 완벽해지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토마스가 "까놓고 말해서 자네라면 이 여자랑 하고 싶겠나? 당연히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니나의 관능성 부족을 질책할 때, 그녀는 과감히 그의 입술을 깨물어버림으로써 자신 안의 관능성과 공격 욕구를 입증하려 든다.

순수한 백조에서 점차 사악하고 관능미 넘치는 흑조로 변해가면서 그녀는 성공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 망상을 겪는다. 언젠가부터 '내'가 '나'를 보는 판타지에 빠진다. 거울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백조에서 흑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빨간색을 차용 했다는 점이다. 흑과 백의 선명한 경계 위에 놓인 빨간색. 빨간색은 립스틱과 오버랩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숙된 여인을 떠올리게 만든다.

하지만 소녀에서 여인에 이르는 길은 지금껏 자신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버려야한다. 벽면을 장식했던 수많은 인형들, 잠잘 때 자장가처럼 들었던 오르골, 엄마의 애정(혹은 지나친 간섭). 그리고 버린 만큼 점점 짙어져가는 빨간색. 등에 상처가 덧나고, 손톱이 피로 물들고, 손가락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가하면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자신과 마주치기도 한다. 이때 빨간색이 주는 의미는 '변신의 대가' 또는 '상흔'으로 해석 된다.

2. 에리카(니나의 어머니) vs 토마스(뉴욕 발레 단장)

에리카는 스물여덟 살이나 된 딸을 여전히 '이쁜이'라고 부른다. 니나의 방을 핑크색 인형들로 꾸며놓고, 그녀의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고, 손톱 발톱을 깎아줄 정도다. '춤추는 발레 인형 오르골'처럼, 보이지 않는 태엽으로 니나를 통제하려고 드는 엄마. 불안하면 긁는 버

릇이 있는 니나의 손톱을 엄마가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장면은 니나의 욕망에 대한 일종의 거세 행위로 보여진다.

어느 날 에리카는 “단장이 널 건드리지 않냐?”고 물으면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나는 널 갖게 돼서 발레를 포기”하게 됐다면서. 즉, 엄마에게 있어서 딸이 성적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발레를 못하게 된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딸이 성적으로 성숙할수록 어머니의 의심과 열망, 딸에 대한 억압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

에리카는 평생 니나가 순결한 백조의 이미지로 남길 바란다. 하지만 니나는 어머니를 자신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일종의 방해물로 인식을 하게 된다. 흑조를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니나의 몸부림이 심해질수록 에리카와의 대립과 갈등은 더 깊어진다.

그에 반해 토마스는 니나가 매혹적인 흑조의 이미지를 갖길 바란다. 규격과 테크닉에 사로잡혀 있는 니나에게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유혹하라"며 사정없이 몰아붙인다. 토마스는 조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틈만 나면 니나에게 유혹의 눈길을 보낸다. 그는 니나가 최상의 테크닉을 소유했지만, 더 이상 발전이 없었음을 가장 먼저 알았다. 따라서 니나를 감싸고 있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완벽에 가까운 도약을 위해 여인의 매력을 일깨우는데 주력한다. "완벽이라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해방을 통해 얻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는, 니나의 예술적인 힘을 끌어내는 조력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흑조가 되기를 갈망했던 니나의 진정한 이유에 한 가지 가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니나와 토마스의 관계 설정을 보면 영화에서는 토마스가 니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상, 토마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니나의 욕구가 훨씬 강하다. 여인으로서의 매력을 소유하지 못한 자신의 결핍을 괴로워하고, 그의 눈길을 끌기 위해 그의 주변을 서성거린다. 영화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예술의 궁극적 완성을 바라는 탐미적인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토마스의 관심을 바라는 순수한 여인의 욕구 때문인가? 하는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있다.

3. 니나 vs 릴리

니나의 억눌린 욕망, 어머니에 의해 거세돼버린 욕망을 분출시키는 인물이 바로 신입 발레단원 릴리다. 외모부터가 니나와는 정반대로 관능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춤동작을 칭찬하는 토마스 곁에서 니나는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다. 니나는 릴리를 경계하지만, 릴리는 니나에게 호의적이다. 릴리와 함께 클럽에서 남자들과 어울리며 약에 취한 니나는 릴리와 관계를 맺는 환상에 빠지기도 한다.

사실 흑조인 릴리는 백조인 니나의 ‘그림자 자아’를 상징한다. 사람은 태어나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무수한 자아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람의 내면은 자아의 전쟁터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마음의 상처와 억압, 선택받지 못한 경험, 접었던 꿈과 재능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억눌려 왔던 질투, 선망, 열등감,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와 기억들은 내면의 저 깊은 곳, 무의식 속에 웅크리고 사라지지 않는데, 이를 ‘그림자 자아’라고 한다.

새로운 ‘백조의 호수’에서는 백조 역할뿐 아니라 흑조 역할도 소화해내야 한다. 니나의 검은 백조, 즉 그림자 자아는 니나에게 생의 활기와 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릴리가 자신의 대역을 맡자 불안감이 극에 다다른 니나는 릴리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분열은 결국 니나는 릴리를, 아니 스스로를 거울로 찔러 죽이는 파국을 맞게 된다.

릴리는 니나에게 자극제이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니나가 흑조가 되는 촉매역할을 하기도 한다. 둘의 관계는 예전 베스와 니나의 관계처럼 선망의 대상이지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관계. 즉, 자신이 베스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꿰어 찰지 모르는 위험스런 관계 이다.

Ⅱ. 시너지 효과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레슬러>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던 것은 극 중 퇴물 레슬러 '랜디'로 변신한 미키 루크의 연기 보다 '랜디'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미키 루크 배우의 실제 삶 때문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최고의 레슬러가 20년 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링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랜디'의 모습은, 모두에게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열정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배우 미키 루크의 굴곡진 삶을 떠올리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처럼 배우의 처한 환경이나 삶과 시나리오가 일치되었을 때, 실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대런 감독은 <블랙 스완>에서 역시 이런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달라진 점이라면 <더 레슬러>에서 시나리오와 배우의 삶이 일치하는 이중 겹침 구조를 사용했다면, 이번 <블랙 스완>에서는 보다 더 진화된 삼중 겹침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즉, 백조, 흑조로 구분되는 '백조의 호수'의 비화에 니나(백조)-릴리(흑조)의 대결구도를 얹어 '백조의 호수' 줄거리로 흘러가는 맥락으로 이중 겹침을 완성하였고, 순수하고 연약한 이미지의 나탈리 포트만 본인이 이번 <블랙 스완>을 통해 연기를 완성해나가는 점은 극 중 니나와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 삼중 겹침 구조를 완성하였다.

Ⅲ.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

1994년 <레옹>에서 단발머리의 어린소녀 '마틸다'로 데뷔한 '나탈리 포트만'은 2005년 <클로저>로 골든 글로브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연기파 배우로 분류하기엔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블랙 스완>에서 그런 불안을 모조리 없애고 '니나'라는 불안정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완벽한 발레 연기를 보여주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니나의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든 것 같은 일체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나탈리 포트만은 주인공 니나를 통해 인간의 순수와 욕망의 양면성을 표현한다. 니나가 '백조의 호수'에서 백조와 흑조, 1인2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처럼 포트만 역시 인간이 가진 그 양면성을 오가며 다중인격을 통해 변화해가는 니나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나탈리 포트만은<블랙 스완>을 통해 2011년 아카데미 시상식, 골든 글로브의 여우주연 뿐만 아니라 각종 수상을 거머쥔다.

Ⅳ. ‘거울’ 소재 활용

<블랙스완>에서는 유난히 거울이 많이 등장 한다. 발레의 특성이기도 하다. 발레 무용수들은 항상 거울을 보면서 팔다리의 선과 동작을 살피며 연습한다. 발레와 관련된 공간에서는 어디를 가도 거울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인터뷰에서 <블랙스완>을 촬영하면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중 하나는 거울이었다고 말했었다. 영화 속에서 거울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 공포영화에서 애용했지만 수많은 영화에서 이미 많은 방식으로 사용해 진부해진 소재인 거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고 한다. 그는 뭔가 새롭고 흡인력 있고 특이하며 보다 무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했다.

결국 감독은 용의주도하게 거울의 이미지를 잘 활용 했다. 니나의 분열된 정체성을 거울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두 개의 거울 장면을 찍어 합성하여 여기에 CG 효과를 더했다. 또한 거울의 반사를 이용하여 수많은 반사 이미지들이 만들어 졌다.

반사된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사 이미지는 영화 속 어디에든 있었다. 예를 들어 니나가 아파트 거실의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 바닥, 액자, 장식장 등 거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표면에서 반사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발레를 하는 니나의 발을 클로즈업으로 잡는 경우 매끄럽고 투명한 바닥은 니나의 발을 바로 반사한다. 감독은 니나와 릴리의 반사된 모습을 서로 섞어서 썼다. 감독이 반사 이미지를 통해 의도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고 한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말이다.

거울을 통한 반사 이미지는 니나의 내면 심리를 관객에게 강렬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주었다. 니나의 분열된 자아는 환상과 환각, 거울 이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공포로 극대화된다. 이러한 시각적 극대화를 통한 관객의 체험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중 하나이다.

Ⅴ. 카메라 기술

대런 감독의 영화들은 하나같이 명작의 반열에 올라있으면서도 소위 '큰 돈'을 들인 것 같지는 않다. 이는 달리말해 그만큼 테크닉이 뛰어나다는 말과도 같은데, 그의 빠른 편집과 현란한 카메라 워크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 대부분의 장면이 클로즈업이나 재설정 없이 주연배우들의 움직임을 따랐고 다큐멘터리를 보는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이런 효과를 위해 지하철 장면 같은 어두운 야외촬영을 비롯한 몇몇 장면에서만 디지털로 찍었을 뿐 〈블랙스완〉 은 대부분을 16mm 필름카메라로 촬영했다. 발레리나들이 대거 등장하는 군무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카메라맨은 16mm 소형카메라를 들고, 무용수들 틈에 섞여 말 그대로 ‘춤추듯' 무대를 뛰어다니며 촬영했다고 한다. 16mm로 촬영된 필름을 극장에서 영사하기 위해 35mm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화면의 질감은 거칠고 도드라지게 됐다.

인상 깊었던 것은 유독 주인공 니나의 뒤통수를 찍는 장면이 많았다는 것이다. 흔들리는 장면들은 마치 누군가 그녀 뒤를 쫓는듯한 긴박한 느낌을 갖게 했는데. 이런 기법은 거친 질감의 필름과 어우러지면서 혼란스런 니나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최종 리허설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연습장으로 달려 나가던 장면을 니나의 뒷모습을 빠른 컷으로 처리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해 주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2010년 9월 베니스 국제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초청되면서 포문을 연 <블랙 스완>은 예술성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손에 거머쥐었다. <블랙 스완>에 매료된 수많은 관객과 평단은 모두 입을 모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최고의 스릴러 영화"라고 말한다.

덧붙여, 블랙 스완'에는 문학과 영화를 넘나드는 여러 작품들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다. 그중에서 정상의 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무대 권력을 향한 의지는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의 '니나'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한때 정상의 프리마 발레리나였던 베스의 자리를 탐내던 '니나'가, 정작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자 자신과 다른 재능을 지닌 릴리를 경계하고 의식하는 심리는, 조지프 맨키비츠의 '이브의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블랙 스완'의 니나는 오직 자신과의 한판 대결을 통해 정신착란에 가까운 집착과 몰입을 예술적 절정을 향해 찬란하게 분사한다. 피로 흥건히 물든 백조, 니나가 "나는 완벽했어!"를 읊조리며 조명을 바라보는 장면은 소름 돋도록 치명적이며, '압도당한', 잊지 못하는 장면이다.

한 사람의 발레리나가 백조와 흑조를 완벽하게 연기해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발레리나의 고통스러운 자기분열의 내면을 거의 완벽하게 체현해 낸 나탈리 포트먼은 경이롭기만 하다. 물론 다른 조연들의 연기도 일품이다.

<영화 비평문>

「올드보이」, 박찬욱

20141126
안 혜 린

Ⅰ. 구성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본 관객이라면 '아, 그거..' 라는 독백과 함께 어떤 그림을 떠올릴 것이다. 웃는지 우는지 모르겠는 기괴한 얼굴. 그 얼굴은 「올드보이」의 주인공 오대수(최민식)와 참 많이도 닮아있다. 아니, 오대수 뿐만 아니라 영화를 빼다 박아놓은 걸지도 모르겠다. 영화를 비평하기에 앞서 영화 구조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오대수는 이유도 모른 체 밀실에 갇혀 15년의 세월을 보낸다. 2. 우진(유지태)의 복수계획에 맞춰 밀실에서 내보내진 오대수는 미도(강혜정)를 만난다. 오대수는 자신을 가둔 범인이 우진임을 알게 된다. 3. 오대수는 우진이 남긴 질문의 정답을 찾으러 다닌다. 그러는 동안 미도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4. 오대수는 'OLD BOY'라는 동창회를 통해 우진이 누군지, 자신에게 복수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5. 우진은 죽은 누나의 복수를 위해 오대수에게 미도와의 관계가 부녀관계임을 말해준다. 오대수는 미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혀를 잘라내고, 그 모습을 본 우진은 누나를 죽게 만든 사람은 결국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살한다. 6. 오대수는 기억을 지우는 최면을 걸은 후, 미도를 껴안으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 이 알 수 없는 표정은 마치 그림 속 기괴한 얼굴 같다. 과연 오대수는 기억을 지우는데 성공한 걸까? 실패한 걸까? 영화는 마지막까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며 막이 오른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 한 편인 「올드보이」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답게 탄탄한 이야기와 연출들로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스토리는 복수 3부작 중 나머지인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보다도 단연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올드보이」에는 영화 오프닝부터 엔딩 크레디 컷이 올라갈 때 까지 관객을 잡아당기는 '후크'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만화 영화 피터 팬 속 후크 선장의 갈고리 같은 것이 관객 뒷덜미를 잡은 채 놓아주지 않는다. "왜 오대수는 저런 밀실에서 15년 동안 납치, 감금 됐을까?"부터 시작해 "우진이 오대수에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등등 한 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그리고 영화는 어울리지 않게 친절한 상담원 같은 모습으로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준다.

또한 「올드보이」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보통 이런 장르의 영화들은 스토리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연출이 묻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극락도 살인사건」이 그 대표적 예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15년 동안의 치밀한 복수, 심지어 근친상간까지 담은 「올드보이」는 스토리에 어울리는 박찬욱 감독의 연출력 덕분에

어디하나 튀지 않고 기가 막히게 어울린다. 「박쥐」, 「쓰리 몬스터」, 「복수는 나의 것」, 「스토커」, 「친절한 금자씨」, 「심판」까지 박찬욱 감독의 수많은 영화를 봤지만 「올드보이」만큼 기기괴괴한 박찬욱 감독의 연출력을 잘 받쳐준 스토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Ⅱ. 연출

영화 속 장면 장면들은 감독의 연출의도에 맞춰 최적화 되면서도 동시에 감독의 개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올드보이」의 장면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장면들, 장면이 준 시각적 효과를 이야기해보고 싶다.

영화는 생동감 넘치는 로우 앵글로 오대수의 얼굴을 보여주며 시작하는데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오대수란 인물에 대해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시킨다. 납치 직전 오대수가 경찰에서 조사 받는 장면은 핸디 헬드로 찍은 것 같이 흔들린다. 마치 앞으로 전개될 일을 암시하듯 불안해 보인다. 오대수는 경찰서에 나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딸에게 전화하던 중 갑자기 사라지는 데, 이때 오대수가 없는 공중전화 박스를 비틀어진 더치 앵글로 보여주며 불안한 상황을 강조시킨다. 밀실에 감금된 상황을 카메라로 보여줄 땐 기하학적인 방의 벽지, 기괴한 초상화와 오대수의 얼굴을 동일시하며 클로즈 업 샷으로 보여주는데 오대수의 피폐해진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 외에도 손에 문신하는 장면, 자위하는 장면, 개미가 몸을 기어 다니는 듯한 장면들을 유독 클로즈업과 더치 앵글로 강조해 보여준다. 이 외에도 전기에 감전된 듯한 조명과 오대수의 발작을 카메라 360도 패닝을 통해 빠르게 보여주며 방의 전체적 배경을 보여주고 긴장감을 조성시킨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오대수는 탈출을 계획한다. 오랜 시간동안 간신히 손만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뚫은 후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내미는 오대수. 15년 만에 바깥에 나간 손가락은 비를 만지는데, 15년 만에 탈출한 감동을 비를 통해 촉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때 벽을 뚫는 오대수의 모습과 그 시대 뉴스 화면을 5:5비율로 보여주며 시간과 사회의 변화를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대수는 밀실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알 수 없는 최면을 당하는데, 포/커스 인/아웃을 통해 최면에 걸리는 오대수의 정신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오대수의 밀실 상태는 상당 부분 과장되고 비현실적으로 연출 되는데, 마치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 < 칼리가리박사의 밀실>과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오대수가 유지태의 계획으로 밀실에서 내보내 진 후, 처음으로 오광록과 강아지를 만난다. 그 곳에서 오광록의 냄새를 맡으며 사람을 반가워하는 행동을 통해 강아지보다 더 개같이 묘사가 되는데, 그 동안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장면 같아 오대수란 등장인물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일상생활을 하며 자신을 감금한 범인을 찾으려 애쓰던 오대수가 자장면 배달부를 쫓아 달려가는 장면이 있다. 그 때 쫓아가는 길이 오르막길인데 앞으로 더 많은 고난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드디어 오대수와 우진이 처음 대면하게 된다. 이때는 우진이 오대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우진이 더 높은 위치에서 조정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한편 오대수는 복수와는 별개로 미도와의 사랑을 키워나간다. 오대수와 미도는 서로가 부녀지간임을 모르지만 머리를 말려주는 행위 등 무의식적으로 부녀 관계임을 관객들에게 암시한다. 오대수가 우진의 존재를 알아내기 위해 모교로 찾아가는 장면부터 현재-과거-현재가 반복되는데 디졸브 등 자연스러운 편집 효과로 관객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시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곳에서 오대수가 깨진 유리창 속으로 남매의 비밀을 보는 장면

은 알프레도 히치콕 <이창>영화가 생각나며 남의 모습을 엿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짧지만 굵게 표현해낸 것 같다. 또한 우진이 나오는 장면은 유독 정형화 되어 있는데(예를 들어 사각형과 같은 도형과 초록색 색감), 이런 연출이 무언가에 강박증을 느끼는 것 같아 보이는 등장인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

Ⅲ. 음향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기존 정형화되어있는 영화 연출법과 다른 점이 굉장히 많다. 자칫 촌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연출들은 웬일인지 박찬욱 영화에선 당연하게만 느껴진다. 특히 음향이 조명, 카메라 등등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다.

「올드보이」는 유독 오대수의 독백이 많다. 「올드보이」를 보기 전, 나는 독백은 다큐멘터리에서만 쓰는 줄 알았다. 그 뒤에도 영화를 세련되게 표현하려면 독백보다는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오브제 등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올드보이」를 보면서 '독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워낙 인물의 감정상태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다 보니 인물의 상태를 쉽고 강렬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다. 그리고 「올드보이」에선 최민식이 특유의 저음으로 너무 진지하게 독백을 하다 보니 그게 또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재미를 줬다.

「올드보이」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효과음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 독방에 갇혀 15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보다는 초침소리를 삽입해 부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며 더 강한 인상을 전한다. 또한 독방에서의 소리는 아주 작은 거라도 부각시키는데, 예를 들어 펜을 굴리는 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들려주며 밀실의 고독함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효과음이 「올드보이」에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쓰인다. 오대수가 망치 하나 들고 18대 1로 싸우는 긴박한 상황엔 임종상황에서나 쓰일 듯한 느린 음악이 사용된다. 이런 효과음들이 갖는 유일한 공통점은 '끊임없이 미래로 향하는 시간'일 테지만 오대수와 미도가 사랑을 나눌 때 들리는 배경음은 한치 앞도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블랙홀 같은 멜로디다.

그리고 이 영화의 OST는 단순한 배경음이라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캐릭터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드보이」 OST가 재밌는 이유는 등장인물 별로 테마곡이 존재하고, 그 테마곡을 들으면 등장인물의 상황이나 심리가 미로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OST가 알 듯 말 듯 한 미로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계속 반복재생을 누르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The Last Waltz'는 미도의 테마곡 인데, 영화 크레디컷이 올라 갈 때 배경음으로 나오는 곡이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대수와 미도와의 미래를 보여주듯 관객을 혼란 속으로 빠트린다. 우진의 테마곡인 'Cries and Whispers'은 제목부터 우진스럽다. 곡의 전반부는 누나를 잃은 슬픔을 전해주는 듯 선율이 너무나 절절하다. 점점 곡이 절정에 치달을 땐, 금방이라도 복수의 칼날을 겨눌 것 같이 서슬 퍼래진다. 그리고 다시 곡의 마지막에는 복수를 끝내고 모든 것을 잃은 우진처럼 힘을 잃고 만다. 이 외에도 OST를 들으며 우진이 누나와 나눴을 사랑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영화 「올드보이」는 OST에서도 기존의 내 생각을 바꿔주었다. 평소 가사가 없는 음악은 듣지도 않은 편이라 영화를 제작할 때 있어서 이런 종류의 배경음은 절대적으로 배재했었다. 뿐만 아니라 영상에 맞는 정서와 가사가 있는 노래를 찾기 바빴다. 슬플 때는 제이레빗

의 '바람의 불어오는 곳'을 삽입해 아련한 분위기를, 재밌는 부분에는 'Maroon5'의 노래를 삽입해 한껏 분위기를 조성하곤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배경음들이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위적인 느낌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한 때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고 난 후부터였다. 영화를 볼 때 실컷 울고 나서는 영화가 끝나자 "아씨, 내가 왜 울었지." 라는 후회가 들었었다. 관객이 울기를 바라고 모든 연출을 슬픈 분위기에 몰아 붓는 영화에 반감이 생겼던 것 같다. 영화를 본 관객들이 다양한 상상과 비평을 나누기 보다는 '슬펐다.' 라는 감정만 조성하는 분위기가 싫었다. 그때쯤 본 영화가 「올드보이」였는데 상이하게 다른 연출에 더욱 감명 받았던 것 같다. 가사가 있어야만, 슬픈 땐 슬픔 음악을, 기쁠 땐 기쁜 음악을 틀지 않아도 OST의 효과는 여전했고, 오히려 관객들로 하여금 그 이상의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Ⅳ. 오브제

개인적으로 영화 비평 중 가장 재밌는 게 오브제를 찾는 것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개미가 정신적인 외로움과 피폐함을 뜻하는 것처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오브제들도 많지만 몇 번이고 영화를 반복해서 보다가 발견하는 오브제야 말로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 나는 「올드보이」를 3번 째 보던 중에야 미용실 장면에 나오는 '무릎'이 주는 상징성을 이해하게 됐다. 이전에는 왜 구지 무릎을 저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걸까, 의아해 했었는데 바로 오대수가 우진이란 인물을 추측해내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15년 동안 오대수가 밀실에서 먹던 만두는 최고의 고문과 동시에 우진을 찾는 단서를 제공한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죄'라는, 복수의 근원이 되는 잘못에 대한 오브제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밀실에서 오대수가 적는 '자신의 죄'는 오대수 같은 평범한 인물을 통해 인간이 짓는 죄의 개수가 많음을 보여준다. 또한 오대수가 게걸스럽게 먹던 산 낙지를 보며, 산 낙지가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한 희생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외에도 「올드보이」 속 고문방식들은 대게 치아를 뽑는 거나 혀를 자르는 방식이다. 이를 보며 단순한 고문이기보다는 인간이 짓는 죄 중 무심코 뱉은 말에 대한 죄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진의 행동을 보며 현대 사회의 디지털화 또한 비판의 대상인 것만 같았다. 우진은 오대수에게 리모컨을 보여주며 자신의 심장을 조종할 수 있음을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현대문물을 보여주며 동시에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우진의 내면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현대문명의 상징인 TV, 인터넷, 전화기 등은 유지태가 저지르는 범죄를 돕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사물을 이용해 상징성을 나타내는 게 있는 반면 색으로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라색 상자이다. 이 상자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판도라 상자 같아서, 상자는 여는 순간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보라색 상자는 관객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보라색이 갖는 색의 의미를 톡톡히 한다. 보통 비극적인 전개에 많이 쓰이는 보라색은 오대수와 미도가 부녀관계라는 비극적인 사실을 관객, 등장인물 모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상자 안엔 하얀 천사 날개 장난감이 들어있는데 밀

실에 갇히기 전 어린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이러니한 상황에 보여주며 비극을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극 중에서 미도는 빨간 옷, 빨간 립스틱을 통해 '빨간색'을 연상시킨다. 이는 금기된 관계 속에 싹트는 사랑과 욕정, 복수에 대한 열망이 복합적으로 포현된 것 같다.

Ⅴ. 등장인물

이렇게 많은 오브제들이 있지만 단연 최고의 오브제는 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

「올드보이」의 주인공은 최민식이다.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악마를 보았다」, 「친절한 금자씨」, 「신세계」등에서 최민식의 연기는 단연최고였다. 하지만 느와르 장르의 비슷한 역할만 보고선 최민식이란 인물이 평면적으로만 느껴졌다. 그러던 중 「명량」을 보고, 비평문을 쓰기위해 「올드보이」를 다시 봤을 땐 최민식이란 인물이 굉장한 3D 입체적 인물임을 인정해야 했다. 영화 속 오대수는 탈출을 위해 몇 년 동안 벽을 파고, 손이 부러져라 벽을 쳐대는 집요함도 있으며 자신을 가둔 범인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의 치밀함도 있는 인물이다. 욱한 마음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욕을 하다가도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닐 만큼 가정을 사랑하는 가장이다. 이렇게 최민식은 오대수라는 캐릭터가 갖는 성격들을 적절한 행동으로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오대수란 인물을 이해시켰다. 밀실 속에 사자 갈기 같은 머리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은 미묘한 배경음, 기하학적인 세트장보다도 훨씬 강렬하다.

미도는 이런 오대수의 딸이자 사랑하는 연인이다. 나는 15년 동안 누나의 복수를 하는 우진 보다도 미도한테 더 연민을 느꼈는데, 미도의 외로움 때문이었다. 어쩌면 이 복수극의 최대 희생자인 미도는 엄청난 외로움으로 가득 쌓인 인물이다. 우진의 복수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랐으며 외로움에 개미까지 환시로 보이곤 한다. 오대수와 미도의 만남은 최면에 의해 계획된 만남이라곤 하지만 결국 둘은 미도의 외로움 덕분에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미도는 쉽게 옆자리를 내어주며 자신을 사랑해주는 오대수에게 뭐든 해주고, 이를 통해 위로받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진은 "상처받은 자한테 복수심만큼 좋은 처방은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누나에 대한 죄책감에 우진의 성장은 멈춰있다.

사실상 전혀 다른 연령대처럼 보이는 오대수와 우진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동갑인 셈이다. 우진은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건강검진을 수시로 하며 언제나 정리된 환경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오대수를 만나는 장면 등 자신의 공간이 아닌 곳에선 그 어떤 결벽증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들로 보아, 우진의 강박증은 스스로에게만 국한되어있다. 어쩌면 이런 행동조차 누나에 대한 죄책감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죄책감으로 가득한 우진은 15년 전 누나의 죽음을 오대수 탓으로 돌리며 최고의 복수를 계획한다. 오대수가 밀실에 갇히고, 미도와 사랑에 빠지고 부녀관계임을 깨달으며 모든 게 우진의 뜻대로 진행 되며 영화는 절정에 다다른다. 하지만 우진이 미도에게 오대수와의 관계를 폭로하기 직전 오대수가 자신의 혀를 자름으로써 우진의 복수는 파멸되고 만다. 그리고 우진은 끝내 자살하고 만다.

대게 영화를 본 사람들은 복수를 끝내고 살 이유를 찾지 못해 자살했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누나의 죽음이 소문을 퍼트린 오대수 때문이 아닌, 누나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인 것만 같다. 복수를 끝냈다기에는 미도에게 부녀관계임을 말하지 않은 것과 미도나 오대수 중 복수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대수, 미도, 우진을 각각 최민식, 강혜정, 유지태처럼 개성강한 배우들이 훌륭하게 연기함으로써 영화는 한결 더 속도를 붙여 질주한다. 주연인물 외에도 김병옥, 오달수 같은 조연들조차 최고였던 영화, 「올드보이」였다.

Ⅵ. 비평을 마치며

'복수'를 중심 플롯으로 하는 영화는 한국 영화에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올드보이」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런 연출, 등장인물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올드보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두 시간 남짓한 러닝타임에 오대수, 미도, 우진이 겪은 15년 시간들이 충돌하고 우진이 오랜 시간동안 준비한 복수는 결말을 알 수 없게 끝이 난다. 복수의 성공여부 또한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복수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엄청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관객마다 집중하는 초점도 달라진다. 개인적으로 난 미도와 오대수의 관계, 우진의 복수와 이에 대한 오대수의 복수보다도 우진이 겪었을 15년의 시간들에 집중하게 된다. 분명 기계가 아닌, 박찬욱 이라는 인간감독이 만든 만큼 영화 나름의 아쉬운 점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아쉬움조차 좋게 만든 박찬욱 감독과 영화 올드보이에 경의를 표한다.

<영화 비평문>

<7광구>의 아쉬운 점과 <괴물>과 비교

20141116
김 희 인

<7광구>는 2007년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화려한 휴가>의 감독, 김기훈의 2011년 작품이다. <7광구>는 <화려한 휴가> 이후로 4년간 공백 후에 나온 영화라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영화이다.

영화 속 배경이 제주도 남단의 7광구에서 석유 시추를 하는 이클립스 호이다. 기존의 다른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배경이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증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7광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내용은 석유를 시추하기위해 팀원들이 고군분투 했지만 실패하여 철수명령이 떨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해낸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정체불명의 작은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생명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큰 괴물로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팀원의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인공의 마지막 한 방이 괴물을 죽이면서 끝이 난다.

등장하는 배우는 남자처럼 터프하고 7광구에서 석유를 뽑겠다는 의지가 가득한 차해준 역의 하지원, 차해준의 연인인 김동수 역의 오지호, 과거 7광구에서 시추 시도를 한 적이 있으며 차해준이 믿고 따르는 이정만 역의 안성기, 티격태격하는 콤비인 고종윤 역의 송새벽과 도상구 역의 박철민, 이클립스 호의 현재 캡틴으로 차해준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황인혁 역의 박정학, 이클립스 호의 연구원이자 과거 이정만과 연구한 경험이 있는 박현정 역의 차예련, 이클립스 호의 의사인 장문형 역의 이한위, 극 중 박현정을 짝사랑 하는 장치순 역의 박영수 등이 있다.

주연배우인 하지원은 전 작품인 <해운대>, <시크릿 가든>, <내 사랑 내 곁에> 등으로 연기력을 인정받고 흥행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안성기는 두말 할 필요도 없는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 배우이니 흥행은 보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배우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이 영화에는 또 괴물이라는 소재도 등장한다. 2006년 송강호 주연의 <괴물>이라는 영화 역시 괴물을 등장 시켜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대 흥행을 이루었다. 괴물은 주로 외국영화에 등장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괴물을 우리나라 배경에 삽입한 <괴물>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적당했고 그 후 괴물을 소재로 한 영화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7광구> 역시 흥행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달랐다. 앞서서 말했던 감독, 배우들, 영화 속 배경, 괴물이라는 소재가 많은 관객을 끌어 들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흥행을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나 역시도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허무함만이 남았다. 물론 내가 이 영화에 건 기대감이 커서 실망한 것 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만 이런 기분을 느낀 것이 아니었나보다.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는 관객 수로 드러났다. 천만

관객은커녕 500만도 못 채운 225만 관객을 동원했다. 물론 관객 수가 많다고 훌륭한 영화는 아니지만 일단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상업영화에서 관객 수가 적다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결과임이 틀림없다.

영화를 보기 전에 예상했던 결과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생각한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일단 이 영화는 바다 한 가운데가 배경이고 바다 속에서 진행되는 장면도 있으며 특히 괴물이 내용 전면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이 빠질 수 없다. 물론 지금 다시 보면 2년 전 컴퓨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어설프고 티가 많이 나서 단번에 컴퓨터 그래픽임을 눈치 챌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영화를 볼 때도 티가 많이 나서 그 장면에 집중하기 보다는 저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속 장면을 예로 들자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티가 났다. 석유 시추관을 점검하기 위해 한 남자가 두꺼운 잠수복을 입고 해저로 내려간다. 그 잠수복의 얼굴부분만 유리로 되어서 바깥을 볼 수 있게 되어있었는데 그 유리 부분에만 배우의 얼굴을 합성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배우의 얼굴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이 맞지 않는 듯해서 부자연스러웠으며 바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이질감이 심해서였는지 약간 애니메이션 같기도 했다. 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 괴물이 되기 전의 해저 생명체가 촉수로 장치순의 입술을 쏘는 장면이다. 그 생명체 자체가 인물들이 잡고 있을 때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촉수가 입술을 쏠 때는 너무 티가 난다고 생각 했다. 컴퓨터 그래픽이 배우들과 잘 어우러졌다면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하는 데 어려움이 덜했을 것이다. 영화의 많은 부분이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 부분에 더 아쉬움이 남는다.

차해성을 연기하는 하지원도 약간은 어색했던 것 같다. 극 중에서 석유 시추를 하는 인부들은 차해성 빼고 모두 남자들이다. 남자들 속에서 하는 험한 일이라 그런지 차해성이 여성스럽거나 차분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자다운 면모를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차해성의 연인인 김동수보다 차해성이 더 남자다움을 드러내려는 모습이 보인다. 마지막까지 괴물과 싸우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꼭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지원이 너무 억지로 차해성을 연기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석유 시추를 중단하라는 캡틴의 말에 화나 격앙된 말을 하는 말투와 과도하게 쿵쾅거리며 뛰쳐나가는 모습. 억지로 남성다움을 나타내려는 것이 보였다. 관객이 차해성과 하지원 사이의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원이 전 작품인 <시크릿 가든>에서 약간 남성다움이 보이는 역을 맡고 그 전에도 액션 연기를 펼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기에 대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중간중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들었다. 그러나 가끔 남자다움을 과하게 드러나게 하는 장면 빼고는 배우들의 연기가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욱 하지원의 연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위에서 얘기한 컴퓨터 그래픽과 하지원의 연기는 영화를 볼 때 어색했다고 생각 한 부분이다. 여기서 느꼈던 부자연스러움은 영화에 몰입해서 보는 것에 걸림돌이 된 것 같다. 한 번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역할을 해서 집중이 되다가도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해야하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큰 방해물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다. 차해성이 캡틴인 황인혁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이다. 영화에서는 딱히 황인혁이 차해성에게 잘못한 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차해성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클립스 호에서는 몇 십번의 시추 시도를 했지만 석유가 나오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클립스 호에서의 석유시추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

진다. 캡틴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시추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차해성은 그에 대해 끈기가 없고 비겁하다며 반발한다. 영화 속 상황 전에 어떤 일화가 제시된 것도 없이 이런 갈등 관계가 관객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의 상황까지 관객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기에는 주어진 내용이 적었다. 어떻게, 왜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을 해소할 작은 일화라도 제시가 되었더라면 이해가 더 쉽게 되었을 것이다.

차해성과 캡틴의 관계에 대한 의문 말고 다른 의문점도 있다. 박현정이 그 생명체가 위험한지 알고도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맨 처음에 그 생명체가 나왔을 때는 박현정도 그 생명체를 처음 보는 양 사람들에게 말했고 위험하다는 얘기 또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현정은 전에 그 생명체를 봤고 본 것 뿐 만이 아니라 이정만과 함께 연구도 한 적이 있었다. 그 생명체는 불이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정만과 박현정은 새로운 자원을 발견했다며 연구를 했다. 그러나 그 생명체의 힘은 제압하기에 너무 큰 힘이 들었고 연구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박현정이 왜 팀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 생명체가 괴물이 되고 난 후에 박현정이 차해성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 전에도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없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제시해 줬다면 내용이 더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또 있다. 바로 그 생명체가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이다. 딱 한 마리가 괴물로 변한 것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괴물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 한 마리는 위에 언급했던 촉수로 한 남자를 쏘았던 그 생명체이다. 사람과 촉수가 닿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방치된 상태라서 그런 것인지 관객들은 알 방법이 없다. 이 것 역시 영화를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명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해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든다. 영화 <괴물>에서 도입부에 연구원들이 그냥 흘려보낸 약물로 인해 괴물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약간의 설명만 있었다면 관객들이 눈치를 채고 영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다.

이 영화에는 관객들에게 필요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위에서 말했던 차해성과 캡틴의 관계, 박현정이 생명체의 위험성을 말하지 않은 이유, 생명체가 괴물이 된 이유 모두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영화를 볼 때 '왜 저렇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다른 영화를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지 않았는데 <7광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서 '한마디만 더 해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한마디만 더 해주면 이해가 될 텐데 아쉬웠다.

다음으로는 억지스러워 보여서 개연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석유시추가 성공해서 한가로운 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이정만은 접시를 날려서 총으로 맞히는 것을 하고 있었고 차해성과 김동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그 전 장면과 너무 뜬금없이 펼쳐지는 상황이라서 당황을 했다. 영화를 끝까지 보니 답이 나왔다. 총과 오토바이. 모두 괴물을 잡을 때 필요한 소재였던 것이다. 중요한 소재니 괴물이 나오기 전에 나오면 좋겠지만 너무 상관없는 장면으로 영화 중간에 끼어든 것이 아닌지 억지로 등장 시킨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소재를 등장 시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면과도 연관성이 있으면서 나중에 괴물을 잡을 때 필요한 요소였더라면 하고 아쉬움이 들었다.

또 이런 장면이 있었다. 김동수가 괴물과 싸우다가 바다에 빠진 장면이다. 바다에 빠진 김동수를 끌어올리기위해 차해성은 오토바이에 끈을 달아 앞으로 달린다. 오토바이가 힘겹

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저 앞으로만 나가는 건데 거의 다 끌어올리고 난 후에는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한다. 거기까지는 바닥이 미끄러울 수 도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후에 괴물을 따돌리기 위해 차해성은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아까와는 다르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이리저리 질주하며 현란한 실력을 보여준다. 두 장면 모두 똑같은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인데 왜 다를까? 한 장면은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한 장면은 현란한 운전 실력으로 괴물을 따돌리며 괴물에 대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억지로 연출한 장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 외에도 다리를 다친 이정만이 괴물과 싸울 때, 어깨를 다친 차해성 역시 괴물과 싸울 때 다친 사람이라고 하기엔 가끔 그 움직임이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억지로 연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장면들은 관객이 볼 때 '응? 왜 갑자기…'라는 생각과 '저건 억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아쉬움이 들었다.

마지막에 괴물이 죽을 때 역시 허무함이 들었다. 괴물을 죽이기 위해 불도 붙이고 총도 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괴물의 살갗이 다 벗겨져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끈질기다, 어떻게 죽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석유 시추관을 넣는 드릴에 죽었다. 석유 시추장이라는 장소에 어울리긴 했지만 모든 등장인물이 죽고 차해성만 남은 채 그 장면이 진행되니 뭔가 허무함이 있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드릴을 써서 괴물을 죽였더라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영화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애초의 의도된 내용으로 전개 되지 않긴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해성을 비롯한 괴물을 죽이기 위해 힘썼던 등장인물들의 노력과 죽음이 허무해진 것이다. 그래서 결말 부분 역시 아쉬움이 가득했다.

<7광구>의 중요한 소재인 괴물. <괴물>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도 궁금했다. 똑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도 한 쪽은 흥행 성공, 한 쪽은 흥행 실패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괴물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괴물>에서는 처음 시작이 바로 괴물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보여준다. 연구원들이 약품들을 그냥 하수구에 흘려버려서 혼합된 약품들이 한강으로 들어가 해괴한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7광구>에는 어떤 이유로 괴물이 탄생됐는지 알 수 없다. 작은 차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괴물>에서는 관객들의 이해를 얻으며 영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7광구>는 관객들의 의문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관객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관객들이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도 순조롭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영화 속 배경이다. <괴물>의 배경은 한강을 위주로 펼쳐지는 익숙한 서울의 모습. <7광구>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석유시추장이다. 아무래도 익숙한 곳이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가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몰입하여 볼 수 있다. 석유 시추장은 관객들에게 정말 낯설고 생소한 공간이다. 그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공감을 느끼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또 직접적으로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영화를 볼 때에는 영화가 펼쳐지는 공간에 대해 큰 의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7광구>와 <괴물>을 비교하여 보니 어느 장소가 영화 속 주 무대인지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는 등장인물간의 관계이다. <괴물>은 가족 중 한 사람이 괴물에게 끌려가 다른 가족들이 구해내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끈끈한 가족애와 무엇보다 부정(父情)을 느낄 수 있

는 영화다. 부정은 딸에 대한 아버지 헌신뿐만 아니라 아들, 송강호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 변희봉의 희생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소재는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감동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7광구>의 인물 간 관계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단지 직장동료로 구분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해오면서 든 정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같이 일 한 시간이 긴지 짧은지 알 수 없고 그 정이 깊다 해도 가족 간의 정을 뛰어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팀원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다. <7광구> 영화 속에서 다른 팀원들을 버리고 캡틴이 혼자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관객들의 감동까지 이끌어내기에 이 인물 관계는 부족함이 있다.

네 번째는 <괴물>이 단순히 괴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도 언뜻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송강호가 괴물이 어디에 있는지,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연구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 그저 괴물에 닿은 송강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그것에만 관심을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인 괴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 현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7광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저 괴물을 죽이기 위한 사투만이 그려진다. 주 내용이 괴물 처치이긴 하지만 괴물을 처치하고 난 후에 관객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보는 이들에게 한번 곱씹/어볼 내용을 다루고 여운을 주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다시 한 번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관객도 끌어올 만한 매력을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괴물을 죽일 때이다. <괴물>에서는 양궁선수인 배두나가 활을 쏴 죽인다. 배두나가 양궁대회 때 항상 한번 씩 실수를 하며 아쉬움을 자아냈는데 괴물을 죽이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끝이 난다. 단순히 괴물을 죽이는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물의 한계를 극복하며 결말이 나온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7광구>에서는 단지 괴물을 죽이는 것에 급급한 느낌이 들었다. 끊임없이 괴물을 죽이는 것을 시도하고 마지막 역시 그 시도 중 하나로 끝이 난다. 같은 괴물을 죽이더라도 의미를 두고 결말을 짓는 것이 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다.

겉으로 보면 <괴물>과 <7광구> 모두 괴물과 맞서는 영화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니 <7광구>에는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것 같다.<괴물>은 가족 한 명한 명 모두 다른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애틋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사회문제도 비추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다. 그에 반해 <7광구>는 괴물과의 싸움만을 그린 영화라는 생각이 든다. 같은 소재로도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같다. 영화에 주가 되는 소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 배경이나 상황, 인물 설정 역시 영화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두 영화가 공통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교를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차이점이 많아서 놀랐다. 차이점이 많은 만큼 <7광구>에 대한 아쉬움 역시 컸다.

<괴물>과의 비교 말고도 위에서 얘기 했던 컴퓨터 그래픽과 하지원의 연기로 부자연스러웠던 점, 괴물의 탄생이유와 차해성과 캡틴 황인혁의 갈등관계가 생긴 이유, 박현정이 생명체의 위험성을 알고도 말을 하지 않은 이유 등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부분, 갑작스러운 총과 오토바이의 등장과 같은 오토바이를 타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차해성, 다친 인물들이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억지로 설정한 듯한 기분이 드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으로 끈질기게 살아남던 괴물의 허무한 죽음까지 아쉬운 점이 정말 많은 영화였다. 감독이나 배우들 모두 어디에 뒤지지 않는 훌륭하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드는 영화였다.

그러나 석유 시추장이라는 새로운 공간 배경을 시도한 것과 영화<괴물>이후에 잘 자주 시도되지 않았던 괴물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도전 자체가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흥행에서는 아쉬움이 든다고 해도 새로운 시도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높이 살만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기훈 감독과 배우들의 다음 작품들이 기대되게 하는 영화였다. 다음 작품은 새로운 시도와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작품이 나오길 바란다.

<영화 비평문>

‘퍼지’라는 소재가 아까운 영화

-영화 ‘더 퍼지(The Purge 2013)’ 비평-

20141103
고 은 지

영화 ‘더 퍼지’는 미국의 실업률이 최고에 이르고 국가적인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가난의 고착 상태에 빠진 2022년 미국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 때문에 폭력이나 살인 등을 경찰이나 공권력이 없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날로 만든다. 언론에서는 퍼지의 날은 오히려 실업률을 1%이하로 낮추고 범죄와 가난을 줄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보도한다.

미국이 새로이 건국한 정부는 고위 공무원만 해치지 않는다면 살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허용한다. 공권력과 응급 시스템까지 멈추는 2022년 3월 21일을 퍼지데이로 지정한다. 주인공은 퍼지를 위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에 영업사원이 되면서 상류층에 속하게 된다. 이웃들은 지나치게 친절하지만 주인공은 자신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 3월21일이 다시 찾아오고 주인공은 이 날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지닌 파란 꽃을 대문에 달아두고 안전장치를 가동한다. 심판의 날이라고 불리는 퍼지 데이를 이번에도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주인공 가족은 생각하지만 숙청의 대상이 된 흑인 남성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카메라로 바라본 주인공 아들이 안전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주게 되면서 흑인 남성을 집안으로 들이게 된다. 평화로운 퍼지데이를 기대했던 주인공은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딸의 남자친구 또한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인공과 남자친구 흑인의 대치가 이어지던 가운데 딸의 남자친구가 총에 맞아 죽게 된다. 흑인은 사라지고 집밖에서는 흑인을 죽이려고 한 집단이 주인공의 가족을 협박한다. 주인공은 가족을 퍼지에서 지키기 위해 흑인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흑인을 찾아다닌다. 싸움 끝에 흑인을 생포하게 된 가족은 도덕적인 혼란에 빠져 퍼지 추종집단에게 흑인을 넘길지 말지 고민하다 결국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된다. 싸우던 도중 퍼지 추종집단에게 잡혀 가족이 모두 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이웃들이 나서 집단들을 제거한다. 이웃들은 주인공의 가족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어 자신들이 그들을 숙청하길 원한다. 이때 사라진 줄 알았던 흑인이 나타나서 주인공의 가족들을 구하고 이웃을 생포한 다음 주인공 아내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다. 아내는 평화로운 퍼지를 보내고 싶다는 말을 하며 정해진 퍼지데이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영화 첫 장면에 CCTV로 퍼지의 현장을 보여줬던 것처럼 영화의 마지막은 가십기사처럼 퍼지의 날에 있었던 대단위의 숙청 현장을 뉴스가 보도하면서 끝나게 된다.

‘더 퍼지’는 잘 만들어진 예고편과 퍼지라는 설정을 통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2010년 개봉 당시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파라노말 액티비티>의 제작진과 <트랜스포머>등을 탄생시킨 마이클 베이가 제작에 참여해 기대를 높였다. 할리우드에서 이미 흥행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으며 메인 포스터 또한 긴장감을 드러내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으며 포스터 속에 가득 찬 가면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또한 개봉된 예고편은 본편보다 훨씬 괜찮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

때문에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예고편을 너무 잘 만든 탓일까 기대치가 높아진 관객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모호한 주제와 단순한 미국 사회의 폭력과 인간의 도덕적인 내용은 시작은 괜찮을지 몰라도 끝은 단순하고 정신없다는 느낌을 준다. 미국사회의 총기문제와 흑인계층을 비롯한 하위층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억지스러운 전개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단순한 고발에 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북미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폭력과 살인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명량, 도가니 같은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듯이 그 나라의 사회적면모와 공감과 비평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총기 허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기로 인한 사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총기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해마다 약 3만 2000명에 달할 정도로 총기와 폭력의 상황은 심각하다. 이를 퍼지라는 소재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공감하기가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다. 미국 사회의 범죄와 폭력은 흑인계층을 비롯해 하위계층에서 발생되며 이를 없앤다면 미국의 침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단순한 고발로만 비춰질 수 있다.

신선한 소재를 사용해 기대를 모았던 영화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산만한 분위기를 지우긴 힘들었다. 퍼지 데이라는 좋은 소재를 영화에서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1년의 한번 찾아오는 12시간의 무정부 상태인 퍼지데이. 주인공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도시라든지 더 큰 공간에서 흔히 말하는 숙청을 행한다면 또 다른 영화의 재미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인공의 집에 숙청의 대상인 흑인이 들어오면서 퍼지데이는 주인공의 집 안이라는 좁은 공간에 한정되었다. 또한 보안 설비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의 집이 퍼지 추종 집단들에 의해 너무 쉽게 망가지는 모습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퍼지로 인해 상류층에 입성할 수 있게 된 안전장치를 너무도 쉽게 떼어내는 모습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싸우는 장면에서도 기술적인 한계를 경험할 수 있다. 긴장감이 주어져야 할 상황에서조차 긴장감이나 스릴, 공포는 느낄 수 없다. 주인공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심리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지 못했고, 자식들의 행동은 시나리오를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든다. 아들의 행동은 의문을 넘어 민폐라고 생각하게 끔 행동하며 영화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 아들은 시종일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며 위기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아닌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딸 또한 남자친구의 죽음과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행동은 긴장감보다는 짜증을 유발하며 이 감정이 고스란히 영화가 끝날 때 까지 기억에 남도록 만든다. 주인공의 죽음과 이해되지 않은 자식들의 행동, 모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아내의 행동. 이런 행동은 결국 영화 속의 위기감이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전개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느낌을 준다. 허술한 구성과 설명이 필요한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은 영화를 보는 내내 '왜'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초반에는 관객들의 긴장감을 배가시킬 만한 스릴러 요소를 과감히 투자한다. 먼저 2017년부터 2021까지 진행된 퍼지데이의 실황이 등장하는데 CCTV 화면에 비친 폭력, 살인, 방화 등의 다양한 범죄 행각은 재연이 아닌 실제라는 사실에 방점이 찍히면서 관객에게 충격을 선사한다. 이어 화면의 연장선으로 찰리의 감시 로봇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주인공 가족을 감시의 대상으로 놓는다. 영화의 첫 시점은 나쁘지 않았다. 어느 시점까지 초반의 긴장

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스릴러 영화로서의 틀을 만들어 나간다. 아들의 실수로 흑인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흑인을 잡기 위한 가족들의 사투가 이어질 때 까지만 해도 긴장감은 어느 정도 존재했다. 그러나 흑인을 쫓는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위에 지적했던 어색한 대사흐름과 기술적이지 않은 싸움 장면, 억지스러운 전개가 드러나면서 영화는 퍼지라는 아까운 소재를 놓치고 만다.

침입자들이 보안 시스템의 절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집을 너무 손쉽게 부수고 들어오면서 영화는 스릴러에서 액션으로 바뀌게 된다. 악당들이 쓴 괴기한 가면들이 영화가 공포, 스릴러임을 나타내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보안 전문가였던 주인공은 영화가 액션으로 변하면서 원래 총잡이라도 한 듯이 명중률도 높고 총기를 다루는 솜씨가 수준급이다. 어리숙하면서도 가족을 지키려고 자기 한몸 바치는 그런 장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액션 장면 또한 능숙하고 기술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왜 이런 장면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까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액션이 지나간 후 이웃들의 태도로 퍼지에 이웃들이 연관 되어있을 거란 암시를 줬던 인물들을 끌어오면서 퍼지데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상반된 태도를 토론식으로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영화의 주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스릴러와 액션, 알 수 없는 공포 등으로 무장한 영화는 다소 늘어지고 조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영화는 또한 퍼지를 통해 인간의 폭력과 살인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는 동시에 비인간적인 면모와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드러낸다. 퍼지데이라는 것 자체를 허용시키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숙청의 대상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대다수가 흑인이다. 영화는 미국의 범죄를 흑인들과 가지지 못한 빈민들이 주로 저지른다는 전제를 깔아 인종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흑인을 쫓던 집단의 리더가 가면을 벗고 스스로를 교양 있고 교육받은 젊은이라 칭한다. 그는 미국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양가의 자녀들이 주로 입는 스타일인 프레피룩으로 입고 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퍼지를 즐기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이고 미국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소름끼치는 웃음을 내보이며 자신의 옆에 있는 친구도 스스럼없이 총으로 쏘는 잔인성을 드러낸다. 영화는 결국 퍼지로 인해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잔인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실제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의 설치가 가능한 부자들은 이 날 실황 중계되는 살육과 폭력을 보며 파티를 벌이기도 한다.

영화에서 미디어는 반대론자들은 빈민층, 보호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하지만 결국 범죄는 줄었고 경제는 호황이다. 퍼지가 폭력성과 공격성을 해소하며 나라를 지킨다고 국민들을 세뇌시킨다. '인간은 태생부터 폭력적인 동물이다. 이 폭력을 하룻밤으로 축소했다.'고 퍼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결국 숙청의 날이라 불리는 퍼지는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생존의 자격이 부여되는 인간성이 말살된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다. 또한 악당이라 불리는 무리들이 도망자들을 돼지라고 부르는 모습은 돈이 없으면 생존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의 기술적인 면과 전개과정은 미흡했을지 몰라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퍼지라는 것 자체는 깊게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퍼지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나아졌고 범죄율 또한 크게 줄었다. 퍼지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을 어떠한 규제도 없이 표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때문에 돈이 있어 안전장치를 단 집안에서 여유롭게 퍼지를 즐기는 이들과 쫓기는 이들을 바라볼 때 퍼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 폐해로 이해된

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의 퍼지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적 모습에서 나타난 추악함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보여준다. 똑같은 총이라 할지라도 범죄자 손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도구이지만 경찰관의 손에서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사용이 달라진다. 자본주의가 살인과 욕망에 물든 사람들의 손에서 변형될 때 발생하는 끔찍한 상황을 퍼지라는 상황을 보여준다. 경제적 약자들이 자본주의 속에서 희생되고 사람들이 점점 비인간화 되는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흑인 노숙자를 집에 들이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의 숙청의 대상이 된 주인공 가족의 상황을 통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드러낸다. 주인공은 숙청의 동참한 적도 없고 숙청의 날을 지지한다는 파란 꽃을 달고 부유한 상류 계층이었는데도 흑인을 숨겨주고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고 만다. 아들이 영화 앞부분에서 부모에게 왜 엄마, 아빠는 숙청 안하냐는 질문을 던진다. 이때 주인공은 '우린 그럴 필요를 못 느껴. 그것뿐이야.' 라고 대답하며 퍼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 시점에서 영화는 주인공 가족들에게 흑인을 넘길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갈등을 하게 만든다. 결국 흑인을 넘겨준다면 자신들도 이 퍼지데이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퍼지로 인해 떼돈을 번 보안 시스템 세일즈 업자로서 퍼지를 지지하면서도 누군가를 사냥 혹은 숙청하는 것이나 당하는 것은 남의 일일뿐이라고 외면했던 제임스가 퍼지의 당사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개인적인 범주로 시작된 이 질문은 퍼지의 자본주의적인 면과 인종, 계급적인 면모를 나타내며 사회적으로 확장된다.

주인공의 아들이 안전장치를 푼 탓에 숙청 대상자인 흑인이 집 안에 들어오게 되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흔히 민폐적인 행동을 한 탓에 주인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흑인을 밀어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 영화를 보고 나면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이 기억에 진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가족이 숙청의 대상이 될 발단의 시작이다. 그러나 어린 아들을 욕할 수만도 없는 것은 직접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한 청년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때 아무렇지 않게 외면할 수 있을까. 도덕적 윤리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의 우선순위로 따지면 가족의 안전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 밖으로 내놓으면 죽을 것이 뻔 한 무고한 흑인 남자를 두고 가족은 도덕적인 갈등에 처한다. 주인공은 무조건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인과 자식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틴다. 이 선택의 순간에서 남을 밀어내야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회 현실을 나타낸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이용하고 밀어내는 현대 사회의 필연적인 추악함이 녹아 있는 것이다. 극중 대사처럼 '너희가 희생하면 우리도 더 좋은 사람들이 되고 세상도 더 좋아지는 것'인가. 주인공의 가족은 선택의 상황에서 약자를, 흑인을 지키기로 한다. 퍼지를 맞이하고 인간성이 사라져가던 상황 속에서 주인공의 가족은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퍼지의 날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아무도 죽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퍼지가 지나가길 원하던 주인공 아내의 선택을 통해 제거, 숙청의 뜻을 지니던 퍼지에서 정화라는 또 다른 뜻을 영화는 나타낸다.

퍼지라는 소재가 영화가 아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도입된다면 어떨까. 영화와 같이 인간이 지니고 있지만 억누르고 사는 폭력성과 잔인함을 일깨워 범죄율이 낮아지고 경제가 성장할 것인가, 아님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으로 변해 더 이상 제도나 법의 힘으로도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인가. 퍼지에 대한 평가가 영화에서와 같이 나뉘었던 것처럼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생각된다. 1년에 한번 12시간의 무정부 상태에서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분노와 욕망을 표출시키고 나면 그 다음의 퍼지를 위해 범죄율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욕망의 해방구로써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면 모든 것이 허락되는 퍼지데이에 그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누군가에게 1년간 억눌리고 살아온 사람들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루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억눌려 살던 사람들은 이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에서와 같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시대에 약자들은 언제나 약자가 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는 입장에 놓일 확률이 크다.

퍼지라는 가상의 상황은 언제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 퍼지가 사회에서 일어난다면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할 것이라 생각된다. 약자들은 강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당하고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영화 퍼지에서 고위 공무원만 해치지 않는 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던 것처럼 기득권자들을 위한 잔인한 파티일 뿐이다. 애초에 고위 공직자는 퍼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안 시스템 속에서 퍼지의 밤을 안전하게 보낸다. 빈곤층,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실업률1%, 빈곤률 5% 이하는 결국 퍼지와 같은 방식으로 쌓여진 거대한 탑인 셈이다.

한번 일깨워진 폭력성이 다음 1년을 위해 잠잠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살인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 사람들에게 주먹다짐이나 칼부림 같은 사소한 일들은 폭력의 축에도 끼지 못할 것이다. 감옥과 법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퍼지로 인한 욕망에 눈을 떠 조그마한 일에도 폭력적인 상황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퍼지의 날이 아닌 이상 법과 규제로 인해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영화에서와 같이 범죄율1%의 달성은 무리일 것이다. 오히려 폭력성이 짙어져 더욱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차에서 귀가할 때 나온 라디오뉴스에서 퍼지 데이 반대론자들이 퍼지 데이는 결국 보호능력이 없는 빈민층이나 장애 계층들을 제거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현대에 적용된다면 결국 인간들의 욕망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약자들은 희생당할 것이다. 영화에서 날씨 중계를 하듯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뉴스 앵커가 퍼지의 밤에 희생된 사람들을 보여준다. 뉴스 화면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희생자들의 처절한 죽음은 잊혀 지기 힘든 장면이다.

영화 '더 퍼지'는 모든 범죄의 허용이라는 기발한 발상에서 흥미롭게 시작했다. '더 퍼지'의 감독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무모한 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 한 경험을 한 뒤 이번 작품의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캐나다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던 중 현지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건사고가 미국보다 훨씬 덜 폭력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국 사회에 대한 폭력성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의 방향을 상상하며 각본을 완성한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총기 사용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데 이는 미국 총기 협회(NRA) 등에 단체에서 총기 소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극중 NFA는 NRA를 패러디 한 것일 수도 있다. 퍼지가 끝난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는 '총기류와 방범산업의 매출 급증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기자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를 통해 미국 현재사회에 대한 감독의 현실 풍자와 비판이 드러나 있는 것 같다. 또한 흑인 대통령이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 영화에서는 흑인을 범죄자, 부랑자로 취급하고 백인은 이를 처단하는 퍼지의 숙청자로서 잘 배운 엘리트로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는 아직 미국의 인종차별과 의식이 제자리걸음임을 풍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화는 아주 잘 만든 예고편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기대감을 일깨웠으며 미국 박스오피스 1위라는 기록은 관객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단 하루. 모든 범죄가 허용된다.' 포스터에도 적혀 있듯이 이 한 줄의 콘셉트만으로 이 영화는 매력적인 소재를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영화의 초반 긴장감은 사라지고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대사들만이 나열되기 시작하면서 영화에 대한 몰입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퍼지라는 소재만으로 이 영화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개봉한지 5일 만에 속편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할리우드에서 호평 받았다. 단순히 이 영화를 킬링 타임용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소재가 지닌 매력이 너무 크다. 자본주의 속에서 인감의 탐욕과 광기가 극단적으로 치달은 사회를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속편 또한 이미 개봉되었다. 주인공의 집이라는 장소에 한정되어 있던 이번 영화와는 달리 속편은 '거리의 반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범했다. 퍼지라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다시 나온 그 영화는 전작의 오명을 씻어내고 더 나은 퍼지를 실행 할 것인지 기대된다.

<영화 비평문>

사회 고발적 영화로서의 ‘도가니’

20141127
오 유 나

한 치 앞도 식별 불가능한 답답한 안개로 가득 찬 도시, 무진에는 청각 장애인학교 '자애학원'이 자리 잡고 있다. 기간제 교사 '강인호'는 자애 학원으로 교사 부임을 받아서 내려가게 되고, 뿌연 안개만큼이나 숨 막히는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후,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비리의 실체'와 마주치는 목격자가 된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애 학생들에게 무차별하게 가해지는 구타와 성폭행.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자애 학원의 교장과 교사. 이들의 보호자인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경찰서. 강인호는 이를 묵인할 수 없다고 여기고 싸움을 결심한다.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영화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다. 5년 동안 교장과 교사들이 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 학대를 저지른 실화이다. 내용 자체도 충격적인데 실화라는 사실까지 더해져 개봉 당시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도가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이 영화는 2005년 어느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재구성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글귀이다.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당시 큰 분노에 사로잡혀 영화 속 인물들에 감정적으로 이입하여 봤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분노의 바탕에는 영화의 첫 부분에 나오는 저 문장이 있었다. 실화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봤기 때문에 성폭력이 행해지는 장면과 교장의 이중적인 면모가 나오는 장면 등이 더욱 끔찍하게 다가왔다. 아마 이 영화를 본 대다수의 관객도 마음속에 들끓어 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봤을 것이다. 실제로 영화 리뷰에는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영화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씁쓸해진다.’ 와 같이 분노와 슬픔의 메시지가 담긴 것들이 많았다. 관객들은 내용이 전개될수록 분노했으며 극장을 나온 후에도 자신들의 SNS를 통해 그 분노를 퍼뜨렸다. 실화라는 불편한 진실, 관객들의 분노를 점차 이끌어내는 내용과 주제. 개봉 당시 도가니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전반적인 이유이다.

영화 한 편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파장은 커다란 파도가 되어 사회를 출렁이게 하고 위아래를 뒤섞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한 후에 그와 관련된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가해자들이 죄의 무게에 맞게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진흙들이 파도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렇듯 도가니를 통해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가진 영화에 내포된 힘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양날의 검처럼 이 힘들이 지닌 단점도 있다. 영화 개봉 당시 일명 ‘도가니 열풍’엔 당시 정치권의 상황도 작용했다. 서울 시장 선거,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 상품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본질적인 열풍의 바탕엔 사회 고발적인 영화로서 도가니가 지닌 힘과 그 힘을 만든 장치들 그리고 그 힘들의 한계와 단점들이 존재한다.

Ⅰ. 도가니가 지닌 장점 - 사회 고발적 영화가 지닌 장점과 연결지어

실화의 재구성. 도가니는 실제로 광주의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자애 학교에서는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고 사회의 여러 기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눈감아 주기에 바빴다. 이 점이 영화의 흥행과 사회에 끼친 파장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실화라는 것이 관객들에게 좀 더 명확한 사실성을 부여해주어서 더 큰 분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도가니」에서의 주요 키워드는 '성폭행'이다. 성폭행 사건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이다. 뉴스를 보아도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거론되는 듯하다. 영화의 배경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사는 시대와 들어맞아서 관객들의 공감을 살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또한, 가장 관심 있는 주제답게 관객들이 영화를 본 뒤에 분노에 차 사건에 대해 검색해보고 알아보는 이차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졌다. 기존 영화들처럼 영화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관객들에게 능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반응들로 입소문을 탄 영화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실화라는 점은 이 글에서 도가니로 대변되는 사회 고발적 영화들이 가진 가장 큰 메리트이자 힘이다.

실화라는 장점 이외에도 도가니는 전반적인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력을 장점으로 지니고 있다. 고발적인 성격에 맞게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긴장감 있고 강렬하게 연출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무진 시의 짙은 안개와 어두운 학교의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 그 복도를 걷는 듯 한 느낌을 주는 카메라 기법 등이 그 대표적인 장치이다. 어두운 복도 속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방만을 환하게 비추고 주인공이 그것을 훔쳐보는 것 같은 촬영 기법은 어둡고 침체한 분위기를 자아냄과 동시에 관객들의 몰입도를 향상시켰다.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 형성을 위해 성폭력이 일어나는 교장실의 가구를 짙은 브라운 계통으로 통일시켜 프레임 안에 담아내는 화면의 톤을 다운시켰다. 또한, 항상 안개가 가득 차있는 도시를 배경으로 선택하여서 청각 장애아들의 답답함을 관객들에게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려는 감독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안개는 답답함 말고도 정부를 등에 업고 비도덕적인 짓을 지속하는 자애 학원을 상징한다. 짙은 안개가 무진 시를 덮고 있는 형세가 정부의 보호 아래서 법의 감시를 피해 가는 가해자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배우들의 연기력이 만나 영화의 몰입을 더욱 높였다. 실제 청각 장애인들을 보는 듯 한 아역배우들의 수화연기와 표정 연기를 통해 그걸 보는 관객들에게 안타까움과 슬픈 분노를 가중시켰다. 실제 농아 인들이 재판장면 촬영에 동원된 것도 극 몰입에 도움을 준다. 극중 인호 역을 맡은 공유는 간단한 수화를 배워 영화 속에서 '자애 학원'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아픔을 나누고, 인권센터 간사 유진(정유미)은 당차고도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인다. 진실을 밝혀내려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내면도 관객들에게 전해진다. 여기에 학교의 비리 고발과 넉넉지 못한 가정의 생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둡고 탁한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홀로 정의를 밝혀내야 하는 인호의 막막한 현실은 관객도 정의감에 불타게 한다. 아역들의 억울한 눈빛과 고통스러운 연기, 성폭행 가해자들의 악역 연기는 영화에서 충분히 빛난다.

배우들의 연기를 논할 때 교장 역을 맡은 배우의 1인 2역 연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주변인들의 선망을 받는 교장을 연기할 때는 낮은 어조와 진중한 언어들로 인자하면서 교양있는 모습을 잘 표현했다. 반면, 자신을 잘 감추지 못하여 교장과 대비되어야 하는 행정실장을 연기할 때는 톤이 교장보다 가볍고 높게 연기했다. 공적으로 서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교장을 '형'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공사 구분을 못 하고 눈치도 없는 성격을 잘 표현했다. 대비되는 두 인물의 모습을 잘 연기함으로써 두 인물을 한 사람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어서 극 중 몰입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극사실적이고 힘있는 연출들과 배우들의 현실과 가까운 연기력은 관객들의 집중에 방해하지 않고 영화가 가진 고발적인 성격을 극명히 나타내어 주었다.

변호인, 부러진 화살 등의 사회 고발적 영화들에는 앞서 도가니가 지닌 장점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으며 그 장점들을 가지고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파장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들이다. 실제 도가니 사건 속 가해자들은 사건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영화를 통해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재수사를 하게 됐다. 행정실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각서를 쓰게 한 여선생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교사 및 직원 14명도 형사 입건되었지만, 내사종결 처리됐다. 또 다른 가해자였던 교장은 2009년 췌장암으로 사망해서 법의 판결을 피했다. 영화 속의 성폭행 피해자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게 됐고, 광주 인화학교는 2012년 폐교되었다. 영화 한 편이 가져온 후폭풍의 결과이다.

고발적인 영화들이 지닌 힘들은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인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있는 현대에 와서 더욱 빛을 발했다. 도가니를 본 관객들이 SNS를 통해 2007년 마무리된 이 사건의 재판을 다시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리트윗, 좋아요, 공유하기와 같은 SNS 특유의 광범위한 서비스와 움직임이 만나 도가니를 흥행시켰고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결국엔 관객들의 힘으로 음지에 숨은 죄인들을 처벌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일구어나가는 민주적인 사회, 정당한 참정권이 배부된 사회의 기반을 쌓은 셈이다. 영화의 스토리도 탄탄했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여러 SNS을 통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자신의 느낌을 바로바로 전달한다. 주변인들은 친구의 글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영화를 보러 간다. 영화의 관객 수는 늘어나고 소재자체가 주는 파급력과 맞물려 주류 언론에서도 기사로 다룬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기사를 접하고 영화를 찾는다. 이렇게 SNS가 '나비효과'를 일으킨 셈이다.

그래서 21세기에 와서 개봉된 사회 고발적 영화들의 장점엔 현대적인 배경도 포함할 수 있다. 사회 고발적 영화를 통해 우리는 SNS의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였다. 어쩌면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이 많아질수록 그것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파장은 점차 퍼지고 커져 범죄율이 줄어드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생긴 긍정적인 분노를 해소해 줄 방법은 그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여 악인들이 처벌되는 것이니 말이다.

새로운 범법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 말고도 사회 고발적인 영화는 여타 다른 영화들보다 관람 후에 회자되고 내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퍼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아마 영화가 관객들에게 준 여운이 짙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부분 고발적인 성격이 강한 영화를 본다면 슬픔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인데 그 '노'의 감정의 잔상들이 여운으로 남아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리뷰를 쓰거나 하는 식으로 해소하려 한다. 이것을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의 제작사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필자는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아닌 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화들보다 상업성이 짙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관객들의 분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흥행과 연결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업성도 영화가 지닌

장점이라고 생각하여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 상업성으로 인해 영화가 흥행한다면 더 많은 관객이 봤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앞서 말한 좋은 의미의 파장들로 인해 해당 사건이 재조명 받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Ⅱ. 도가니가 지닌 단점과 한계 - 사회 고발적인 영화가 지닌 단점과 연결지어

양날의 검. 영화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에는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인 것 같다. 앞서 말했던 도가니의 연출엔 장점 말고도 부족한 점이 많다. '도가니'는 장애우들의 얼굴을 중심으로 한 진술(캠코더 인터뷰나 법정) 장면의 연출에서 등장하는 과거 사건의 재연이나 악마 같은 선생들의 묘사 방식은 다소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보통 장르에서 이용되는 방식이 아닌 공포영화나 스릴러영화의 방식을 차용하며 필요 이상으로 과잉된 연출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진술을 시각적으로 재연하는 장면의 경우, 말하는 자의 심리적 충격이 덧붙여진 결과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 이들 장면은 그저 추악하기 그지없는 선생들을 악마로 그려내기 위한, 즉, 영화 속 세계를 선과 악, 흑백논리에 따라 단순하게 그려내기 위한 극적 장치처럼 느껴졌다.

대표적인 장면이 학교 설립자의 수양딸이자 기숙사 생활 지도 교사인 윤자애를 관객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이다. 그녀의 얼굴이 화면을 채울 때 그것은 마치 공포영화의 미치광이 살인마나 사이코패스를 소개하는 연출 방식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잡히는 컷은 순전히 윤자애를 악의를 가진 인물로 규정하고 그녀에 대한 관객의 감정적 반응과 판단을 단숨에 결정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컷에서 규정된 인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교장과 그의 쌍둥이 동생, 그리고 박보현 역시도 마찬가지다. '도가니'는 이들을 악마의 형상으로 그려냄으로써 관객이 마음껏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질적이고 과잉의 표현 방식은 관객의 분노를 고조시켜야 한다는 강박의 과잉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도가니'는 그 제목만큼이나 사태의 종합적인 판단보다는 즉각적인 분노로 끓어오르는 도가니 같은 감정의 영화다. '도가니'는 관객의 분노가 사그라질 틈을 주지 않는다. 물론 흥행 결과나 사회적 결과로 봤을 때 이러한 단적인 표현들이 성공적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객의 일방적 분노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표현 방식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흥행 결과가 작품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처럼 분노 이외의 다른 판단의 틈을 주지 않는 묘사 방식을 옳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들이 비록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환상의 세계에 사는 괴물이 아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인간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것은 그들에 대한 경험을 현실이 아닌 영화적인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오히려 <도가니>에 현실의 질감을 주는 것은 악마 같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생하며 연명하는 일련의 인물들이다. 교육청 직원의 말 한마디가 자애 학교 선생들의 파렴치한 행위보다 더 처참하고 절망적인 기분을 안겨준 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지 않았을까?

<도가니>에서 관객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관습적인 장면 중 하나는 전민수가 법정에서 합의로 풀려난 박보현을 찾아가는 장면이다. 이 장면 역시 공지영의 원작에 없던 설정이 각색 과정에 삽입된 것이다. 사적 복수를 금지하기 위한 법정의 심판에서 배신당한 전민수가 박

보현에게 사적인 복수를 감행한다는 설정은 영화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정말 이 장면이 <도가니>에 필요했을까? 법정의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세계를 충분히 경험했는데, 거기에 전민수의 죽음을 더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실의 두려움을 회피하는 데 익숙한 절망적 세계에서 전민수의 자살 행위가 관객의 분노를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가 살아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편이 <도가니>에는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전민수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그 위에 얹는 것은 극적 필연이 아니라 비극의 강박처럼 보일 뿐이다. 분노의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진실에 귀가 먹고 입을 닫은 이 시대의 정의를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한 것일까? <도가니>는 분명 분노로 뜨거워진 도가니 같은 영화일 필요가 있었지만, 그것을 뜨겁게 달궈야 했던 황동혁 감독만큼은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도가니는 관객들의 분노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무리한 연출과 사건을 고발하는 데에 급급한 인위적이고 지나치게 직선적인 화술로 전체적인 영화의 완성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 그 증거로 영화 리뷰와 평점을 들 수 있다. '예술성이 가미되지 않은 다큐 형식의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너무 사건 자체에 치중하여 보기 불편한 영화였다.' 와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종종 보인다. 장점에서 언급한 영화의 상업성이 양날의 검이 되어 자신을 찌르는 형태가 된 것이다. 분노를 이끌어내기만 하여 그 분노를 흥행에 연결하려는 상업적인 특성이 지나쳐서 독이 된 셈이다.

이것은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주의점이라고 생각된다. 영화에 담긴 '정의로운 분노'의 수위 조절문제 말이다. 도가니와 같이 소설을, 아예 텍스트화된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들은 상업성에 치중해 장면을 자극적으로 그려 낼 염려가 있다. 수위가 지나쳐 자극적인 장면이 될 수도, 너무 간소화시켜 미화시킨다는 뭇매를 맞을 수도 있기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동일한 장면을 눈으로 읽는 것과 직접 어떠한 피사체로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수위 조절을 하다 보면 영화의 시나리오가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잘 못 짚어 영화가 왜곡 성을 띌 수도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소설 텍스트가 시각적인 매체로 옮겨오면서 생기는 수위 조정 문제야말로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이 지닌 한계이자 주의할 점이다.

수위 조절 말고도 이러한 영화의 단점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 주위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개봉 시기와 선거시기가 겹쳐 정치권에 악용된 도가니가 그 예이다. 도가니 현상이 불편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의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정치인들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재추진을 실시했고 한나라당도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 작품으로 치부돼야 할 영화가 여야의 밥그릇 싸움에 악용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대중들 대부분은 생산적인 비평 없이 분노로 가득 차 열을 올리기에만 바빴다. 영화의 완성도를 논하는 비평을 말하면 '정의로운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의 딴죽에 시달릴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영화에 쏠린 좋든 싫든 대중 관심의 결과이다.

영화의 내용이 현실에서 실제로 있거나 혹은 있을 수 있다는 공감 덕분에 불편하지만 '좋은 영화'가 됐다. 영화는 장애아동의 성폭력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 나타나는 가진 자들의 악마와 같은 형상과 추악한 사회의 단면, "사립학원 선생이 되기 위해 바치는 학교발전기금이란 뇌물, 학원 비리를 돈으로 눈감아주는 부패경찰,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

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전관예우라는 특혜, 저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성폭력 사건을 떠넘기는 시청과 교육청,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안하무인의 기독교 교단,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진실을 틀어막는 공권력,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룸살롱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더러운 남자들"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런 더럽지만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었기에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에 대한 갈망이 높아진 상황에서 <도가니>가 관객들 마음에 내재된 정의와 분노의 '코드'를 건드렸고, 이런 반응이 SNS와 결합하면서 폭발력을 가졌다.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이 지니는 단점들은 많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을 다 덮을 만큼의 장점을 지녔기에 도가니 열풍과 같은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영화를 소비하는 대중들과의 공감과 감정 공유 능력. 이것들로 인해 사회 고발적인 영화는 사회를 미약하게나마 뒤엎을 수 있는 파도가 될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파도를 일으킨 나비효과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을 관람할 때 단점에서 말한 것과 같은 무비판적인 대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화를 보면서 분노를 하고 영화관을 나온 후에 이차적인 활동을 하되, 좀 더 영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뜻이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그 영화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적인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는 이건 좋지만 이런 면에서는 별로인 것 같다.' 라는 자신만의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으로. 문장 자체로만 보면 모순적인 말이다. 그러나 그 속뜻은 SNS에서 떠도는 영화에 대한 남의 생각을 모두 수용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주관은 가지는 대신 객관적으로 영화의 단점을 꼬집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사회 고발적인 영화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자세이다.

사건의 재조명과 가해자들의 재처벌. 영화 한 편이 이끌어 낸 긍정적인 결과물이다.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파장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도가니와 같은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의 제작을 장려해야 한다. 미디어 콘텐츠와 문화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힘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사회가 등 돌린 약자들과 피해자들을 구원하는 길 중의 하나임을 도가니 열풍이 증명해 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슈가 된 '도가니'. 감성만 잘 건든다면 잘 끓어오르는 냄비근성을 지닌 한국인을 자극해 흥행을 한 영화 정도로 평가 내리고 싶다.

<영화 비평문>

식상한 표지에 가려진 <라푼젤>의 진가

20141104
고 현 하

영화 <라푼젤>은 '월드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하지만 <라푼젤>은 '디즈니'사에서 내놓은 다른 작품들보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라푼젤'의 머리카락 사이에 숨어있는 남자 주인공과 '라푼젤'이 그려진 식상한 표지 그림은 다소 흥미를 끌기 어려웠고, 관객들이 이미 접해본 내용으로 제작된 영화라는 점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요소 중에 하나 일 것이다.

<라푼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요소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 외에도 <라푼젤>에는 폭발적인 가창력이 돋보여 영화를 한번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OST도 있지 않고, 스토리 면에서 크게 획기적이거나 참신한 면이 돋보이는 영화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커다란 사건 위주의 전개나 자극적이고 잔인한 요소들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저 잔잔하게 흘러가는 감동과 재미위주의 영화가 <라푼젤>이다.

하지만 영화 <라푼젤>은 충분히 접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이다. 관객들의 예상과 달리 영화 <라푼젤>은 동화 <라푼젤>의 요소들을 따와서 사용했을 뿐, 식상하고 따분한 재미없는 영화가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동화 <라푼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해본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영화 <라푼젤>은 동화 <라푼젤>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각색하여 다소 뻔한 전개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흥미롭게 이끌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화 <라푼젤>의 내용은 이러하다. '라푼젤'의 어머니가 임신하여 마녀가 기르는 '라푼젤'이라는 식물을 몰래 훔쳐 먹었고, 마녀는 '라푼젤'을 훔쳐간 대가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라푼젤'이 태어나고, 마녀는 '라푼젤'을 높은 성에 가두어 아무도 '라푼젤'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성 주변을 지나가던 왕자가 '라푼젤'의 노래 소리에 반해 노래가 들리는 곳을 찾다가 성 안에 갇힌 '라푼젤'을 발견하게 된다. 왕자는 '라푼젤'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고, 둘은 매일 몰래 만나다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마녀는 왕자가 '라푼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왕자가 '라푼젤'의 머리를 타고 올라갈 때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잘라 왕자를 떨어트리고 만다. 그 후 왕자는 가시덩굴 위에 떨어져 장님이 되었다. 왕자는 '라푼젤'을 찾아다니다가, '라푼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그리고 장님이 된 왕자님을 보며 '라푼젤'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눈물이 왕자님의 시력을 되찾게 하고 결국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된다.

하지만 영화 <라푼젤>은 동화 <라푼젤>과 많은 부분 다르다. 첫 번째 차이점을 들자면, 동화 <라푼젤>에서는 '라푼젤'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가 왕자님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영화 <라푼젤>에서는 '왕자님'은 왕관을 도둑질하는 비열하고 의리 없는 도둑으로 등장한다. 동화 <라푼젤>과는 달리 '라푼젤'의 노랫소리에 반해 '라푼젤'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단지 '라

푼젤'에게 빼앗긴 왕관을 도로 가져올 궁리만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던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하며 서로 애정이 쌓여가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아름답고 동화같이 표현되어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렇다. 동화 <라푼젤>에서 는 평범한 사람들로 등장하는 '라푼젤'의 부모와 반대로, 영화 <라푼젤>에서 '라푼젤'의 부모는 왕과 왕비로 등장한다. 왕과 왕비는 '라푼젤'을 마녀에게 빼앗겨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라푼젤'의 생일마다 등불을 하늘에 띄우고, 그 등불은 '라푼젤'이 마녀에게서 벗어나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

세 번째 차이점은 이렇다. 동화 <라푼젤>에서 '라푼젤'은 평범한 소녀지만 머리카락이 길고 마녀에게 붙잡혀 성 밖으로 머리카락을 내려주는 인물이지만, 영화 <라푼젤>에서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신비한 마법이 걸려 있어 노래를 하면 치료를 할 수 있고 밝게 빛나는 머리카락으로 묘사된다. 동화에서 사용한 '노래'라는 요소를 영화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에서 사용한 '밝게 빛나며 치료가 가능한 머리카락'이라는 소재는 후에 스토리를 이어가는 하나의 복선이 되고, 머리카락을 잃음으로써 마녀와의 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된다.

네 번째 차이점은 이렇다. 영화 <라푼젤>에서는 동화 <라푼젤>에서 나오지 않았던 '마법의 꽃'이 등장한다. '마법의 꽃'은 '라푼젤'이 태어나게 되는 계기이자 사건을 불러오는 장치가 된다. 영화 내에서 '마법의 꽃'은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병을 낫게 하는데, 여기서 '마법의 꽃'은 '라푼젤'을 임신한 동안 병이 들었던 왕비를 치유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마법의 꽃'의 힘으로 왕비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고, '마법의 꽃'의 영향을 받아 금발의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녀 '고델'은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꽃의 역할을 대신해 줄 '라푼젤'을 납치해 성에 가둔다.

다섯 번째 차이점으로는 동화 <라푼젤>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맥시머스', '파스칼'등의 매력적인 인물들이 영화 <라푼젤>에 등장하며 동화 <라푼젤> 특유의 우울함을 밝은 분위기로 전환하는 장치가 되어준다는 것이 있다. 그 외에도 도적이나 현상수배범의 등장으로 영화가 흥미진진하고 스릴있는 전개로 흘러간다는 것도 동화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차이점은 이렇다. <라푼젤>에서는 장님이 된 왕자님을 치료하게 되는 요소가 '라푼젤'의 눈물'인데, 영화 속에서는 '라푼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유진'을 살려내는 요소로 각색되어있다. 영화를 관람하며 동화와는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어떻게 각색되었고 같은 요소라도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개성도 간과할 수 없다. 영화 <라푼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생김새는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캐릭터들은 영화 내에서 자신의 매력을 거침없이 표현하며 영화를 전개하는데 도움을 준다. 원작에서는 '왕자'였던 등장인물이 '도둑'인 '유진'으로 그려진 것만으로도 하나의 주목할 만한 요소가 되지만, 자기 자신을 오만하게 '꽃미남'이라고 칭하고 다니는 모습 등도 <라푼젤>에서만 등장하는 캐릭터의 개성이다. 영화 속 다른 캐릭터들보다 준수한 외모나, '유진'의 능글맞고 나긋나긋한 성격과 가끔은 방정맞은 행동을 하는 것도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개성 있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라푼젤'이라는 캐릭터도 동화 <라푼젤>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긴 금발의 머리카락, 하늘하늘한 드레스에 어린 소녀라는 점과 어려서부터 성안에 갇혀 순진무구하고 여리게 그려지는 '라푼젤'의 모습은 관객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라푼젤'의 모습과 다름없다. 하지만 영화 속 '라푼젤'은 동화 속 '라푼젤'처럼 순종적이고 고분고분

한 성격에서 그치지 않는다. ‘라푼젤’은 ‘유진’이 성안으로 침입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프라이팬을 휘두르기도 하고, ‘유진’을 옷장에 가두며 자신의 용감함에 감탄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장면까지만 보아도 동화 ‘라푼젤’과 영화 ‘라푼젤’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지만, 영화 ‘라푼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밖으로 나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나 경계하는 모습 등을 보이기도 하지만, ‘라푼젤’은 겉모습이 무섭게 생긴 사람들에게도 편견을 갖고 피하거나 기죽지 않고 자신의 뜻을 전하는 둥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당당한 모습은 다른 고상하고 조용한 공주들과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영화 초반부에서 ‘온실 속 화초’같던 ‘라푼젤’은 ‘유진’을 만나며 성장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용감한 면모들을 보이는 것이 ‘라푼젤’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라푼젤’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이 영화의 묘미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악역 ‘고델’의 모습 역시 매력적이다. ‘고델’은 ‘라푼젤’을 이용해 젊음을 유지하려 하는 인물로, 수백 년을 살아온 마녀이다. 그리고 영화 <라푼젤>은 ‘고델’이라는 캐릭터를 영화 속에서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마녀로 그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객들은 ‘고델’의 이중적인 면들을 드러내는 대사나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델’은 ‘라푼젤’을 ‘딸’, ‘꽃송이’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화를 낸다. 동화 <라푼젤>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중적인 면’을 가진 마녀는 ‘라푼젤’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 더욱 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현상수배범과 성기사들 등의 등장은 영화 <라푼젤>만의 특징이자 <라푼젤>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준다. 현상수배범과 성기사들 등은 ‘라푼젤’을 위협하는 인물로, 영화 내에서 ‘라푼젤’을 쫓고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등장은 잔잔한 감동위주였던 <라푼젤>속에서 좀 더 스릴 있고 긴장할 수 있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마녀가 가장 큰 악역이었던 동화 <라푼젤>과 비교했을 때 영화 <라푼젤>만에서만 등장한 캐릭터라는 것만으로도 현상수배범과 성의 기사들은 영화 <라푼젤>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캐릭터 이다.

또 영화 <라푼젤>에서는 동화 속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맥시머스’나 ‘파스칼’같은 인물들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동화와 다르게 ‘맥시머스’나 ‘파스칼’이 등장하는 영화 <라푼젤>은 관객들이 웃을 수 있는 요소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맥시머스’가 ‘유진’과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나, 사람 같은 표정을 지으며 사람처럼 행동하는 장면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후에 ‘맥시머스’는 ‘유진’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로 영화에서 큰 장치를 하게 된다. ‘파스칼’도 마찬가지이다. 자칫하면 비중이 없을 수 있는 작은 카멜레온에 불과하지만, ‘파스칼’의 ‘유진’을 비웃는 행동이나 싸움에 주의를 주는 등의 행동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파스칼’은 영화 속에서 ‘라푼젤’의 심리상태나 극중 분위기를 자신의 몸 색깔로 나타내며 관객들의 추측을 돕는다. 그리고 악역인 ‘고델’이 등장하면 주변 보호색으로 색깔을 맞추거나 눈을 크게 뜨고 눈치를 살피는 등의 행동으로 ‘고델’에 대한 위화감을 심어주는 역할도 매끄럽게 소화해낸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마녀인 ‘고델’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장인물 역시 ‘파스칼’이다. 이처럼 영화 속의 인물들 하나하나의 비중이 적절히 분배되어 영화를 매끄럽게 만드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물들의 목소리도 인물들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려 인물들의 개성을 더해준다. 인물들의

성격에 잘 맞는 목소리가 인상적인데, ‘유진’ 특유의 능글능글하고 촐싹거리는 목소리도 영화에 잘 어우러져 영화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고델’의 여유롭고도 사악한 목소리는 ‘고델’이라는 캐릭터에게 개성을 더해줘 좀 더 이중적인 면을 부각해 준다. 영화 내에서 ‘라푼젤’을 여유롭게 부르는 말투와, ‘라푼젤’을 뒤쫓으면서 현상수배범들을 조롱하는 말투에서 보이는 큰 차이가 관객들로 하여금 ‘고델’이라는 인물에게 좀 더 위험한 느낌을 받게 만든다. 또한 영화 초반부에 늙은 ‘고델’이 노래를 부르며 젊어져가는 장면에서,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로 변하는 모습은 상당히 영화사에서 <라푼젤>을 제작하는데 세심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준다.

인물들의 목소리의 이야기에 더불어 더빙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훌륭한 더빙은 영화 <라푼젤>이 전체 이용가인 만큼 자막을 읽기 힘든 어린 아이들이 영화에 쉽게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푼젤>은 연기가 뛰어난 성우들을 캐스팅해서 인물들이 말하고 행동하는데 전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심지어 <라푼젤>은 인물들이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같은 것에도 신경을 써서 제작되어 정말 몰입도가 높다. 요즘같이 연예인들이나 개그맨들이 부업삼아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 시대에 <라푼젤>의 뛰어난 성우 캐스팅은 또 다른 <라푼젤>의 강점으로 남을 것이다.

또 영화 내에서 사용한 정교한 그래픽은 동화 <라푼젤>보다 ‘동화 같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인물들의 표정과 생김새가 섬세한 그래픽으로 표현되어 마치 한 사람을 창조해 낸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인물들이 말하고 표정을 짓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영상에 집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음은 물론이고, 인물들의 대사에 따라 인물들의 입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까지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었을 정도로 <라푼젤>은 여러 부분에서 정성을 들였다는 느낌을 준다. 표정과 감정표현도 자연스럽지만, ‘고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름이 생기거나 영화 초반부보다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이게 머리카락 색깔이 희끗해지는 연출 같은 것도 역시 신경을 써서 표현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세세한 세부사항도 놓치지 않고 잘 연출해 낸 점도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라푼젤>은 화려하고 동화 같은 그래픽으로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등불을 띄우는 장면은 <라푼젤>에서 가장 영상미가 느껴지는 장면으로 꼽히는데, 관객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듯 한 화려한 그래픽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라푼젤>에서 사용된 배경이나 건물등도 실제하는 장소처럼 섬세한 그래픽으로 표현되어있어 보는 재미가 있지만, 물위에 떠있는 등불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해 낼 정도로 정교한 그래픽이 더해진 점이 <라푼젤>의 퀄리티를 높여 영상을 접하는 관객들에게 재미를 더한다.

영화 내에서 사용한 음악들도 영화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준다. 영화 내에서 사용한 음악들은 인물들의 상황과 감정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며 관객들이 인물들의 감성에 좀 더 젖어들 수 있도록 한다. 등불을 띄우는 장면에서 ‘I See The Light'라는 음악을 사용하여 ‘유진’의 심정변화와 행동변화를 보여준 점도 흥미롭게 볼만하다. ‘유진’과 ‘라푼젤’이 ‘I See The Light’를 부르는 장면은 지금까지 ‘라푼젤’에게 호감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유진’이 ‘라푼젤’에게 사랑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이다. 이제는 왕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라푼젤’을 위해서 옆에 남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노래에 잘 이입되어 관객들의 집중을 돕고 영화에 빠져들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라푼젤’이 성 안에 갇혀있었을 때 사용된 ‘When Will My Life Begin’이라는 곡도 ‘라푼젤’

의 상황과 생각들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관객들은 'When Will My Life Begin'이라는 노래를 들음으로 '라푼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해하는데 수월하고, 노래의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관객들이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해갈지 유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When Will My Life Begin'이라는 곡은 후반부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성 밖으로 나오기 전과 후로 나눠서 'When Will My Life Begin(Reprise 1)'과 'When Will My Life Begin(Reprise 2)'로 구분된다. 후반부에 나오는 노래는 성 밖으로 나온 '라푼젤' 자신의 감상과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Reprise 2'가 나오는 장면은 '라푼젤'이 처음으로 성 밖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처음 성 밖으로 나와 '귀여운 오리 새끼'라는 식당에서 사용된 음악도 꽤나 인상적이다. 식당에서 사용된 음악이 나오는 부분이 '라푼젤'의 꿈이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라푼젤'의 이야기를 들은 도적과 건달들이 그녀의 꿈에 공감하고 본인들의 꿈을 말하는 장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I've Got A Dream'이라는 곡을 시작으로 도적들과 건달들은 자신의 어렸을 적 꿈을 '라푼젤'로부터 찾아 다시 소망하게 된다는 점이 인상 깊다. '라푼젤'의 영향으로 영화 내의 인물들이 변화하고 다시 꿈을 꾼다는 <라푼젤>의 내용과 그러한 노래 가사가 잘 어우러져 영화 내에서 잔잔한 감동을 준다.

'고델'이 성 밖으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라푼젤'을 달래는 장면에서 사용 되는 'Mother Knows Best'라는 음악도 흥미롭게 볼만하다. 영화는 'Mother Knows Best'라는 곡을 사용함으로써 '고델'의 이중성을 드러내는데 한몫 돕는다. 노래의 내용은 마치 '라푼젤'을 걱정하여 '라푼젤'을 성 안에 가두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고델'은 젊음을 유지하고자 '라푼젤'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곡의 사용으로 '고델'의 캐릭터성은 조금 더 짙어지고, '라푼젤'의 입장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들은 '라푼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고델'의 생각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영화 내에서 '라푼젤'이 사용하는 'Healing Incantation'도 주목할 만하다. 'Healing Incantation'은 '라푼젤'이 영화 내에서 마법을 사용할 때 부르는 노래로,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라푼젤'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엮이고 대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단지 주문처럼 마법을 외는 것이 아니라 운율을 넣어 관객들에게 다가감으로써 '라푼젤'의 능력이 더욱 더 뇌리에 잘 남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Healing Incantation'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상처를 낫게 하고 운명을 바꿔서 잃었던 모든 것 다시 돌려주겠니.'라는 가사를 통해 관객들은 '라푼젤'의 노래를 통해 '유진'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의 사람들은 '디즈니'사의 다른 작품들 속 OST에 비해 <라푼젤>의 OST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라푼젤>은 잔잔한 감동위주의 영화로, 오히려 활기차고 즐거운 곡보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악의 곡이 <라푼젤>에 더 잘 어우러졌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푼젤>에서 사용한 곡들은 인물들의 심정과 생각을 나타내기에 충분하고, 영화 내에서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영화를 끝으로 '라푼젤 그 후 이야기'라는 짧은 영상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영화 <라푼젤>이 끝난 후 '라푼젤'이 '유진'과 결혼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영상인데, '라푼젤'과 '유진'의 결혼반지를 분실한 '맥시머스'와 '파스칼'이 결혼 반지를 찾아 헤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잔잔한 감동위주의 결말로 끝이 난 영화라 '맥시머스'와 '파스칼'의 사람같고도 우스꽝스러운 짧은 영상이 관객들에게 영화를 좀 더 밝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영상의

사용으로 영화가 끝맺음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될 것이다.

<라푼젤>은 비록 흥행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요소도 많고 신선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원작인 동화 <라푼젤>과 영화 <라푼젤>을 비교하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관객들에게 하나의 재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 <라푼젤> 캐릭터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캐릭터들의 목소리와 개성, 생김새 등이 어떻게 매치되는지도 생각해 보는 것도 영화의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라푼젤>은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므로 영상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그래픽이 어떻게 표현되어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라푼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얼마나 성장하는지 살펴보며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것이다. 또한 <라푼젤>을 '유진'의 시선으로 보아, 어떻게 심정변화를 일으키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푼젤>이라는 영화 자체가 감동과 재미위주의 영화라 보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영화이지만, 특히 '라푼젤'의 시선으로 사건들을 바라보며 '라푼젤'이 뛰고 웃고 우는 동안 같은 감정으로 영화에 임한 관객들에게는 '라푼젤'이 각별한 애정을 가진 캐릭터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엔 성 안에서 갇혀 살던 '라푼젤'이 '유진'과 결혼하여 훗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캐릭터에게 대견함과 사랑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ONCE 비평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음악

20141120
박 은 지

한 남자가 있다. 낡은 통기타 하나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른다. 한 여자가 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붓꽃 열 송이를 판다. 북적이는 아일랜드의 길목 한복판,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그들의 일주일을 음악으로 물들인다.

'Glen Hansard & Irglova Marketa - Falling Slowly'를 모두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아니,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참 좋다. 연주도 쉽고 멜로디도 간단해 연인이 부르기 좋다던 그 노래. <ONCE>의 삽입곡이자 주제곡이다. 사실 이 노래는 잘 알아도 <ONCE>를 본 사람은 별로 없다. 대개 영화가 알려짐과 동시에 그 삽입곡이 알려지는데, 이례적인 경우다. 필자 역시 'Falling Slowly'를 접하고 <ONCE>를 찾아봤던 사람 중 하나다. 평온한 기타 소리와 조심스러운 피아노 소리가 합쳐지고 그 위에 거친 듯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와 한없이 여린 여자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노래. 어느 때 들어도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힌다. 제 13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제 80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상경력도 가지고 있으니 말 다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남자와 여자가 처음 합주를 할 때 나오는 곡이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무엇을 알겠냐만은, 그 조심스러움과 어색함을 안고 첫 합주를 할 때의 'Falling Slowly'는 어떤 공연의 라이브 영상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최근 <ONCE>의 감독인 존 카니 감독의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이 신작으로 개봉하면서 <ONCE>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워낙 <ONCE>가 훌륭한 멜로음악영화이기도 했고 <ONCE>를 봤던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은 터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존 카니 감독의 <비긴 어게인>과 이에 쏟아지는 호평으로 항간에는 '믿고 보는 존 카니 감독의 음악영화'라는 평가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필자 또한 아직 <비긴 어게인>을 보지 못한 일인으로 참 기대가 된다.

사실 <ONCE>는 남자와 여자의 뻔하디 뻔한 사랑 이야기다.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는 흔한 스토리다. 여기에 음악이 더해져 감성적인 면모를 더 드러내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ONCE>가 별 볼일 없는 멜로영화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ONCE>는 그만의 특징으로 여타 멜로 영화들과는 구별된 매력을 갖는다.

<ONCE>에선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러닝타임 86분 내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가 끝난 후 크레딧이 올라갈 때조차 남자guy와 여자girl로 그들의 배역을 나타낸다. (아이까지 있는 여자를 소녀girl로 표현한 건 의아스러웠다.) 영화를 볼 땐 사실 그들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이름이 없다는 건 그

만큼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호칭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일 터이다. 그럼에도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고 이름이 없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굳이 이름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 남녀의 '우연한' 만남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조차 모른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음과 음악적 교감으로 마음을 열고 둘의 관계는 가까워진다.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둘이 만나 친해지고 끝내 사랑을 확인하기까지 말이다. 영화에서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 이 영화를 더 보편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만약 이들에게 이름을 주어 존John과 앨리스Alice의 이야기였다면 이 영화는 존과 앨리스의 이야기였을 뿐이다.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좀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ONCE>는 음악영화다. 그렇다고 뮤지컬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영화 중간 중간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삶을 담았다. 주목할 점은, 영화에 주인공들이 부르는 노래 외에는 다른 배경음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노래를 하고 합주를 하고 하는 장면 외에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다른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 BGM이 없는 것이다. 여느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단연 구별되고 주목해야 할 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또한 앞서 말한 '이름이 없음'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고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영화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에 있다. 계속 제 3자의 입장에서 촬영하며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카메라와, 화질 또한 일반 캠코더로 찍은 듯한 아날로그적 친숙한 화질로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 치고는 올드한 느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꾸며진 감성과 억지 감동이 아닌, 내가 직접 그들의 시간에 들어가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싶다.

<ONCE>가 음악영화인 만큼 영화에 나오는 노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주제곡인 'Falling Slowly'는 앞서 언급도 했었고 이미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길게 말하지는 않겠다. 영화에서 두 남녀가 처음으로 같이 연주하며 서로 교감했던 노래로써, 'Falling Slowly'라는 곡의 제목에 걸맞게 서로 천천히 빠져드는 감정선과 잘 맞아떨어졌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잘 해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Falling Slowly'가 가장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다른 곡들도 하나같이 주옥같다. 'Say It To Me Now'라는 곡도 꽤 유명하다. 남자 주인공 혼자 부르는 노래다. 잔잔한 듯 말을 건네는 것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후렴구에 가면 외치듯이 노래하는 Glen Hansard만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낡고 조금은 거친 기타 소리에 허스키한 그의 목소리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Say it to me now'라고 울부짖는 마지막 부분은 그에게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필자는 'Falling Slowly'를 제외한 곡들 중 'Leave'를 제일 좋아한다. 절규하듯 내지르는 Glen Hansard의 허스키한 목소리에 무심한듯하면서도 카랑카랑하게 울리는 기타 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마음이 사라진 자신의 연인에게 이젠 떠나라고 말하는 내용의 가사이다. 이에 걸맞게 'Leave'를 괴로운 듯 외치는 그의 목소리엔 짙은 호소력이 묻어나온다. 노래의 전반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듯 조금은 잔잔하고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leave'를 외친다. 반면, 1분 정도가 지나면 기타 소리가 거세지며 절규에 가까운 외침으로 'leave'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절절한 감동으로 가슴을 울린다.

<ONCE>가 감동적인 음악멜로영화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필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영화를 해석해보려 한다. 타지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가까워지

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기까지에 이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순히 며칠간의 스쳐가는 인연과 한 때 가졌던 감정으로만 머무르게 된다. 물론 두 남녀가 가까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조심스러운 감정선과 감성적인 음악으로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아름답게 그려진다. 영화가 끝난 후 따뜻한 온기가 마음에 남아 있음도 이 이유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사랑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먼저 남자 얘기를 해보자. 영화는 길거리에서 낡은 기타 하나를 들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남자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아버지와 함께 청소기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음악에 더 재능을 보인다. 전에 만나던 여자 친구는 런던에 있고, 종적을 감춘 그녀를 향한 그리움을 노래에 담는다. 그러다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엔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는 그녀와 음악적 소통을 하고 매력을 느끼며 가깝게 지내게 된다. 결국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내고, 체념한 듯 그는 런던에 돌아가 음악활동에 전념하기로 다짐한다. 그녀에게 런던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한다. 그 헤어짐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녀에게 헤어지기 아쉽다며 어디 카페나 가서 얘기라도 더 하자며 붙잡지만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이대로 정리하고 만다.

의아했던 점은, 남자가 과연 전에 만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냐는 것이다. 영화에서 그와 그 여자 친구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영화의 포 커스가 그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스토리상 탄탄하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ONCE>가 스토리텔링 보다는 그들의 감정과 공유하며 감성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맞추긴 했지 말이다.

연인과 헤어짐의 아픔을 노래하면서도, 런던에 있을 여자 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현재 옆에 있는 여자에게 미련이 남아 자꾸만 붙잡으려 하는 남자. 지금 나와 음악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통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인지, 전에 만나던 여자 친구를 잊지 못한 것인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선 남자가 공중전화로 여자 친구에게 이제 런던으로 간다는 얘기를 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단순한 통화 한 번으로 (그것도 엄청 오랜만에 한 통화로) '돌아와 줘서 기뻐.' 라는 말을 주고받는 장면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현재 여자에게 끌렸던 감정을 찰나의 미련으로 치부해버리고 음악에 집중하겠다는 남자의 모습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만 했다. 물론 그 공중전화 통화에서 그가 느낄 아쉬움이라든지, 이제는 떠나야만 한다는 그의 체념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통화를 끝낸 후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기 아쉬우니 얘기나 더 하자는 그의 태도에서는 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남자 스스로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없음을 표현하려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애매한 그의 결과적 감정과는 달리 여자를 갈구하는 남자의 행동은 꽤나 적극적이었다. 여자에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 권유를 하고 틈만 나면 여자의 집 앞에 찾아와 음악적인 핑계를 대며 같이 데이트를 즐기고는 했다. 그녀에게 아이가 있음을 알고는 충격받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녀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듯이 행동하고 여전히 그녀를 사랑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국 둘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씨디 한 장에 녹음된 목소리로만 서로를 남기게 된다. 서로를 알고 싶어 하던 그 갈망의 시간동안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둘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남은 건 씨디 한 장 뿐이다. 지난 여행이 추억으로 남았기에 즐겁고 행복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그녀는 여행하듯 만난 그를 그저 지나가는 인연임에 분명히 하려 했던 것일까. 그저 아름답기만 한 사랑 이야기로 남을 뻔한 그들

의 시간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더욱 더 아련한 여운을 준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음악을 위해서 감정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필자의 상상일 뿐이다. 그는 전 여자 친구가 담겨있는 동영상을 돌려 보며 곡을 구상하고, 옛 애인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가사로 노래를 부른다. 현재 여자에게 끌렸던 것도 피아노를 연주하고 나서부터였다. 음악으로 소통하며 교감했고, 여자를 만나고 느끼는 설렘과 기대를 노래에 담았다.

또한 자신의 연주에 가사를 붙여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악을 완성시켜주길 기대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음악을 위해 여자와 밴드를 구성하고 자신의 노래를 녹음한다. 모든 일이 끝나고 헤어짐의 순간에서 여자를 붙잡았던 것도 여자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음악적 교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ONCE>의 뒷이야기가 나왔다면 런던에 가서도 그의 전 여자 친구와 재회하며 그 둘만의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풀지 않았을까.

이번엔 여자 얘기를 해보자. 사실 이 둘의 관계는 먼저 여자가 말을 걸음으로써 시작되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에게 먼저 다가갔다. 아무도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남자에게 자신이 듣는다며 말을 걸었고 간단한 대화 후 청소기를 고쳐달라는 생뚱맞은 부탁까지. 다음 날 진짜 청소기를 끌고 와선 고쳐달라고 말하는 엉뚱한 여자다. 평소 즐겨 치던 피아노를 그의 앞에서 치게 되고, 즉흥적으로 시작하게 된 합주는 그렇게 명곡 Falling Slowly를 낳았고 그 합주 이후로 두 사람은 순식간에 가까워진다.

사실 여자에겐 아이가 있다. 아이의 남편과 헤어진 후 고향에서 떠나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아일랜드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자는 먼저 남자에게 다가갔거니와 순순히(?) 남자와 같이 다니고 마음을 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룻밤 자고 가라는 등의 적극적인 남자의 구애에 충격을 받기라도 한 것인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지 돌아서버린다. 그러나 그녀와의 관계를 이대로 끝내기 싫은 남자의 사과와 노력으로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내 연인의 실루엣도 얼추 갖추게 되지만 끝내 남자와의 연을 끊고 다시 남편과 만나게 된다.

여자의 감정이 궁금했다. 헤어진 남편이 있다. 아이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하지만 지금 남자에게 끌리는 이 느낌을 무시할 순 없다.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감싸준다. 뿐더러 음악적으로도 잘 통한다. 남자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결국은 손을 놓고 만다. 이 순간 여자가 내린 결정과 그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느끼게 될 감정이 참 궁금했다. 항상 이성보단 감정이 중요하고 감정에 휩쓸려 지내다시피 하는 필자로서는 여자의 선택이 참 대단하게까지 느껴졌다. 남자와 동일하게 여자 역시 지나가는 인연임을 분명히 하려 했던 것일까. 마지막으로 남자와 헤어지던 그 길목에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던 남자와는 달리 빨리 가야 한다며 걸음을 재촉하던 여자가 인상 깊었다. 자신의 결심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했고, 더 이상 붙어있으면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감정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는 것 같은 여자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영화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표정과 배경, 미묘한 정적은 필자로 하여금 그 감정을 읽어내도록 했다.

<ONCE>를 보고 문득 김범수와 박선주가 부른 '남과 여'의 노랫말이 생각났다. 전체를 보면 사랑하는 두 남녀의 사랑고백 이야기지만 한 줄 한 줄 의미를 따로 생각해보았다. 가사는 이렇다. '나를 믿어 달라 말하면 그대는 그래 줄 수 있나요 / 우연히 스친 눈빛에 내 맘에 별이 뜨는 말 / 나와 함께 가자 말하면 그대는 그래 줄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뭐든 조심스러운 여자에게 신뢰감을 주려하고, 런던으로 같이 가서 음악

을 하자고 권유하는 모습이 '나와 함께 가자 말하면 그대는 그래 줄 수 있나요.' 하고 확인받는 느낌과 오버랩 되었다. 또 노래 후반부 중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는 그 말은 우리 아껴요 / 마지막 사랑이란 말 그 말도 우리 아껴요' 라는 말이 있다. <ONCE>의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음에도 지나가는 인연임에 그쳤던 것처럼 말이다. 박선주의 '남과 여'는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영원히 사랑하자는 고백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ONCE>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끝내 이어지지 못한 사랑으로 끝난다.

존 카니 감독은 영화와 관객 사이의 감정 연결고리로 음악을 사용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잔잔하게 밀려오는 그 감정과 감성. 그 먹먹하고 조용히 물들어가는 감정에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고 삽입곡들을 찾아보고 하게 된다. 자칫 부족할 수 있는 멜로성과 영화의 빈틈을 음악으로 물들여 틈틈이 채웠다. '물들였다'라는 표현이 <ONCE>를 참 잘 말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빨간색도 검은색도 아닌 갈색의 그 어딘가 쯤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감성.

음악이란 대단한 존재다. 두 귀를 통해 들어오는 선율에 온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어 집중해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 말이다. 필자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언제나 충분한 감성을 제공해주는 매개체이며 그 자체로 훌륭한 하나하나의 작품이다. 그 누가 음악 없인 살 수 없다고 했던가. 언제 들어도 백번 천 번 옳은 문장이다. 별 다른 대사 없이도 낡은 기타 소리 하나로 감동을 주고, 화려한 연주가 아니어도 훌륭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같은 멜로디로도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 점은 글과도 일맥상통한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뜻이 다 다르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고 다른 단어를 가지고도 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글과 음악은 서로 연결되어있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ONCE>를 보고나서 궁극적으로 느꼈던 것은 우습게도 사실 연애하고 싶다, 라는 거다. 여행도 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원래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에 몰입되었던 것이 순식간에 쉽게 풀리는 게 아니라서 그 영화대로 하고 싶어지게 되고 막 욕구가 생겨나는데, <ONCE>는 좀 더 그랬다. 워낙에 음악과 가까워서 그랬기도 했고.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그려졌기 때문일까.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했던 그 시간이 행복해 보여서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 영화다. 감성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들, 사랑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은 사람들. 듣기 좋은 빗소리와 함께 조용히 영화 속으로 빠져 들어보길.

<영화 비평문>

천만 관객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0141139
현 진

2013년 겨울, 디즈니사는 야심차게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 부진하던 디즈니사가 '새롭고 놀라운 행보를 걷고 있다.'는 극찬을 받게 된 영화, 바로 <겨울왕국>이다. 이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겨울왕국>의 흥행돌풍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겨울왕국>은 2014년 2월, 한국에서 상영 애니메이션 영화 최초로 천만 관객을 달성하였다. 개봉 이후 극찬을 받았던 <겨울왕국>은 많은 이들에게 이슈거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겨울왕국>은 '디즈니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스토리가 별로였다.' 등등 아쉬움이 묻어나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즉,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비평에서는 영화 <겨울왕국>이 왜 조금씩 의견이 달리 나오게 되었는지, 또 그 요소들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디즈니사는 <겨울왕국>으로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큰 수입을 얻었다. 이 현상에서는 의아한 점이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애니메이션 산업의 흥행 대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겨울왕국>이 국내 상영 애니메이션 중 최초로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이 크게 흥행되지 않는 나라 한국에서까지, <겨울왕국>은 세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 영화가 이렇게 큰 흥행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요소는 무엇일까? 나는 그 해답이 <겨울왕국>의 요소 중 '캐릭터(인물)'와 '영상미' 그리고 'OST'에 있다고 보았다.

Ⅰ. 작품 속 캐릭터(인물)들

<겨울왕국>의 '캐릭터'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영화 속 캐릭터인 '올라프', '스벤', '크리스토프', '안나', '엘사' 등이 그 예다. 가장 먼저, 눈사람 '올라프'와 순록 '스벤'과 같은 동물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올라프'는 눈사람이지만, 동물캐릭터와 비슷한 역할로 나왔으므로 동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술하겠음.) 동물 캐릭터들은 단연 <겨울왕국>을 친근한 이미지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 동물 캐릭터인 '올라프'와 '스벤'은 항상 주인공들의 곁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주인공만큼이나 동물 캐릭터가 눈에 띄었다. <겨울왕국>은 디즈니사의 다른 영화보다도, 동물 캐릭터들의 설정이 좋았다. '올라프'와 '스벤'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전개 장면마다 그들만의 특징으로 영화에 생기를 돋우고, 재미를 첨가시켰다. 또한, 영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동물캐릭터인 '트롤'(살아 움직이는 돌멩이 요정)들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설정은 영화가 가진 순수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순수함과 친근함을 가진 ‘스벤’과 ‘트롤’이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 있다. 바로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인 ‘크리스토프’이다. <겨울왕국>을 본 사람이라면, ‘크리스토프’에 대해 굳이 설명 하지 않아도 ‘따뜻함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물들과 어울려 살아온 ‘크리스토프’는 다른 인물들보다도 베푸는 따뜻함을 안다. 산속에서 ‘안나’를 도와주고, ‘안나’와 함께 ‘엘사’를 찾으러 가는 모습이 그 예시이다. 영화를 감상한 다른 이들은 ‘크리스토프’를 보며 ‘당연히 애니메이션이니까 남자 주인공은 배려가 많아야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토프’의 배려가 당연하다고 보지 않았다. <겨울왕국>이라는 작품을 몇 번씩이나 보며 든 생각은 ‘크리스토프’가 배려라는 것을 순수한 동물들과 한데 어울려 살아온 삶에서 저절로 익혔을 것이라는 점이다. 도우며 사는 것이 생활인 그에게 어쩌면 ‘안나’를 돕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크리스토프’가 ‘안나’에게 배려를 베푸는 과정이 조금 서툴기도 하였지만, 나는 그 점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꼈다. 게다가 ‘안나’에 대한 ‘크리스토프’의 배려는 훗날 사랑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크리스토프’는 영화에서 가장 따뜻한 면을 보여준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크리스토프’의 사랑이 된 ‘안나’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안나’는 영화 속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엘사’의 동생인 ‘안나’는 언니 ‘엘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바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엘사’는 <겨울왕국>의 여왕인 만큼, 전체적으로 차가운 이미지가 더 강하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안나’는 밝고 명랑한 이미지이었다. 외출이 허락되자마자 궁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엘사’와 떨어져 성장하면서 외로웠지만, 자신에게 차갑게 구는 언니에게 밝게 대하는 모습에서도 ‘안나’에게 설정된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엘사’를 만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모습에서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적극적이고 밝은 ‘안나’의 모습은 관객들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겨울왕국>을 보는 내내 즐거움이 되었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엘사’는 차가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녀에게는 눈과 얼음을 다루는 초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 초능력은 따뜻함과 차가움을 동시에 갖는 그녀만의 특징이 되었다. 그 초능력은 ‘엘사’에게 동생과 함께 뛰놀며 눈으로 ‘올라프’를 만들었던 행복한 추억을 남겨줬다. 그러나 동시에, 동생 ‘안나’를 다치게 만든 아픈 기억을 남기기도 하였다. ‘엘사’는 행복했지만 자신의 초능력이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두려웠다. 그래서 그 이후 자신이 가진 따뜻한 모습을 감추게 된 것이다. 그렇게 차가운 모습만을 보이던 그녀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동생 ‘안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깨닫고, ‘안나’와의 행복을 되찾게 된다. 또한, 얼어버린 왕국을 녹이고, 눈사람 ‘올라프’를 여름에도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겨울왕국>에서 ‘엘사’는 초능력이 있다는 설정 하나만으로도, 가장 특별했다. 그녀는 ‘얼음은 차갑고, 위험하다.’는 보편적인 정의를 판타지를 통해 따뜻함으로 승화시켰다. 차가움과 따뜻함을 모두 지닌 ‘엘사’,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겨울왕국>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이다.

Ⅱ. 화려한 영상미와 매력적인 OST

<겨울왕국>은 영상미 또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작품이다. 디즈니사가 픽사와 드림웍스에 밀려 잠시 부진하였지만, 디즈니사는 <겨울왕국>을 통해 다시 한 번 일어섰다. <겨울왕국>은 영화 속 계절이 겨울인 만큼, 그에 걸맞은 화려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디즈니가 이를 갈며 준비 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영화의 영상미는 감탄스러웠다. 디즈니사가 장면 하나하나마다 세심하게 준비했음이 느껴졌고, 스쳐 지나가는 배경에서도 디즈니만의 예술적인 감각이 느껴졌다. 또한, 디즈니는 영화 속 '엘사', '안나'와 같은 인물들의 외양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엘사'가 노래 'Let it go'를 부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겨울왕국>의 영상미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은 다른 장면이었다. 그것은 바로 '엘사'가 북쪽 산에 얼음 궁전을 짓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산을 하얗게 얼리고, 땅에는 얼음무늬를 입혔다. 또한, 그 신비로움으로 완성된 얼음 궁전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게 비춰졌다. 북쪽 산의 하얀 설경과 눈보라, 그리고 중심에 세워진 얼음 궁전은 실제 모습 만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환상적이었다. 이 장면은 많은 관객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겨울왕국>은 영상미 이외에도 영화 OST의 힘이 매우 컸다. '엘사'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얼음 궁전을 만들며 부른 노래 'Let it go.(렛잇고.)', '안나'가 '엘사'와 함께 뛰놀던 때를 기억하며 부르던 노래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같이 눈사람 만들래?)', 안나'와 '한스 왕자'가 함께 부른 'Love is an open door.(사랑은 열린 문.)' 등등 <겨울왕국> OST는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스토리를 한 편의 뮤지컬로 바꿔놓았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Let it go.(렛잇고.)'이었다. 이 노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까지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겨울왕국>은 영화가 영화 OST 덕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울왕국>을 사랑하는 이들은 OST를 각기 다른 언어와 저마다 다른 스타일로 부르며 즐겼다. 또한, 영화 OST는 영화가 끝난 뒤에 남는 진한 여운을 어루만지며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겨울왕국> OST의 파급력은 '인종과 세대를 구분 짓지 않고, 전 세계인을 아우르는 힘'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겨울왕국>의 OST는 단연 이 영화의 가장 압도적인 흥행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겨울왕국>은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흥행 요소들을 통해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몇몇 요소는 관객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영화에서 아쉬움을 자아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다.

Ⅲ. 빈약한 스토리

<겨울왕국>의 그래픽과 OST의 퀄리티는 최고였음을 인정하지만, 그에 비해 영화의 스토리는 매우 보잘 것 없이 부실했다. 그로인해 매우 긴 뮤직비디오를 보는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겨울왕국>의 스토리는 초반부터 빠르게 전개되었고, 뒤로 갈수록 결말이 예상되는 뻔 한 느낌이 강했다. '안나'가 '한스 왕자'를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졌다며 '한스 왕자'의 청혼을 성급하게 수락하는 장면이 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은 OST가 살렸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린이들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은 '어린이 영화 스토리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말처럼 어린이 영화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겨울왕국>은 어린이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영화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전, 먼저 인지

하고 있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요즘 시대는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해서 '어린이 영화'로만 단정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자주 영화티켓을 구매하는, 즉 20-30대층을 더불어 다양한 세대가 '가족 영화'로서 관람한다. 이러한 현상은 애니메이션이 더 이상 '어린이'만을 위한 영화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겨울왕국>을 어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른 요소에 비해 스토리가 빈약하다.'라는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이 '가족 영화'의 장르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봤을 땐 완벽해보일지라도 어른들의 눈에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스토리 라인이 <겨울왕국>의 스토리라는 게 안타깝다. 그리고 <겨울왕국>은 디즈니 특유의 애니메이션 느낌이 적다는 점도 아쉽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는 (공주 등장-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감-해피엔딩)과 같은 보편적인 스토리가 있다. 이러한 스토리는 <겨울왕국>에서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다만, 원작 동화와 최대한 비슷하게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던 과거 디즈니 만화와는 달리 <겨울왕국>은 그렇지 않았다. <겨울왕국>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각색하기는 했으나, 원작과의 거리감은 상당했다. 물론, 디즈니가 부활을 꿈꾸며 새롭게 변신하였기에 신작에서는 디즈니표 만화와는 다른 색다른 재미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겨울왕국>에서는 특히 더 많이, 디즈니 만화 특유의 느낌이 사라진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든다. 그렇지만 디즈니만의 디테일함은 <겨울왕국>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 새로움이 필요했던 디즈니사를 이해해야만 할 것 같다.

Ⅳ. 비효율적인 캐릭터 활용

<겨울왕국>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는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눈의 여왕 '엘사'였다. 그러나 정작 메인 주인공인 '엘사'의 분량은 주인공이라 말하기 민망할 만큼 적은 편이었다. 영화 스토리의 대부분은 '안나'와 '크리스토프'에 의해 진행되었고, '엘사'는 마치 세컨드 주인공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엘사'를 메인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엘사'가 불렀던 'Let it go'와 얼음 궁전의 화려함 때문이지 않을까? 만약, <겨울왕국>의 OST의 파급효과가 현재와 같지 않았다면 '엘사'는 그저 그런 주인공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 디즈니사가 '엘사'를 메인 주인공답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차라리 '안나'보다 '엘사'의 사랑을 그리고, 얼음 궁전 장면을 좀 더 숨이 막히도록 멋지게 그려냈더라면 누가 봐도 '엘사'가 분량 또한 주인공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디즈니사는 '엘사'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프'라는 캐릭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전작인 <라푼젤>과 비교하여 이야기해보자면, <라푼젤>은 여자 주인공인 '라푼젤'과 남자 주인공 '유진' 모두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겨울왕국>은 '안나'를 제외한 여자 주인공 '엘사'와 남자 주인공 '크리스토프' 모두를 효과적으로 그려내지 못했다. '크리스토프'는 분량이 적었던 인물은 아니지만, 분량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디즈니 만화가 대부분 '엘사', '안나'와 같이 여자 주인공의 파워가 막강하여 남자 주인공이 맥을 못 추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디즈니는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과의 러브 라인을 통해 그렸던 것이다. 하지만 <겨울왕국>은 결과적으로 사랑보단 자매애에 중점을 두었다. 그로인해, 러브 라인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던 남자 주인공은 가려지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라푼젤>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유진'과 또 다시 비교한다면, <겨울왕국>의 남자 주인공 '크리스토프'의 활용법은 형편없기 짝이 없다. 차라리 '크리스토프'와 그를 키운 돌멩이인

‘트롤’과의 장면이 좀 더 여러 번 연출되었다면, 주연보다 못한 남자 주인공 역할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겨울왕국>의 악역 ‘한스 왕자’의 활용법에서도 어색한 연출이 없지 않아 보였다. ‘한스 왕자’는 권력과 자신의 야망 때문에 ‘안나’를 이용하는 악역으로 등장한 인물이다. 디즈니는 주로 선과 악이 명확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유명하여 악역을 밑도 끝도 없이 악한 인물로 그려냈었다. 그런 점이 디즈니 특유의 느낌을 잘 살렸었다. 하지만 ‘한스 왕자’에게서는 디즈니 특유의 악역 느낌을 찾을 수 없었다. 영화 흐름 상, 그는 악역으로 등장했는데도 말이다. ‘한스 왕자’는 과거 디즈니 악역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영화 초반, ‘안나’를 구해주며 ‘안나’를 사랑하는 눈빛을 관객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관객들이 후반부에 그가 ‘안나’를 배신할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디즈니 영화에 항상 나오는 악역은 필요한데, 악역에 적합한 캐릭터가 없어 ‘한스 왕자’에게 억지로 악역의 옷을 입힌 것 같았다. ‘한스 왕자’가 급하게 악역으로 돌변하게 된 연출은 지금 봐도 의아하다. <겨울왕국>은 전체적으로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영화상에서 캐릭터는 많이 늘어놓았으면서 정작 그 캐릭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이 <겨울왕국>의 매력을 가장 반감시킨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디즈니사가 숨겨뒀던 기술을 모두 쏟아 부어 완벽함에 가까운 디즈니표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은 점은 알겠으나,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독’이다. <겨울왕국>의 ‘독’은 마냥 늘어만 놓았던, 비효율적인 캐릭터의 활용법이었다.

Ⅴ. 번잡한 주제와 급박한 마무리

디즈니는 영화 <겨울왕국>을 제작하면서 영화 속에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였다. 그 중 가장 주된 주제는 두 여자 주인공의 ‘자매애’였다. 영화에서 ‘자매애’는 결말에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심장이 얼어붙은 ‘안나’는 진정 사랑하는 이의 키스를 받아야만 깨어날 수 있었다. 디즈니 영화를 즐겨봤던 사람이라면, 남자 주인공인 ‘크리스토프’가 ‘안나’를 살릴 인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나’를 살리는 키스의 주인공은 바로 ‘엘사’였다. 디즈니사가 자신들이 지켜온 디즈니만의 전통적인 틀을 깬 것이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면에서는 <겨울왕국>이 ‘새롭고 놀라운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평을 받을 만 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디즈니는 영화의 중점적인 주제인 ‘자매애’를 보여주기 급급해 영화 속 다른 주제들을 매끄럽게 마무리 짓지 않았다. 두 자매인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가 주요했음은 안다. 그러나 한 주제에 일방적인 결말을 짓는 것은 관객에게도, 남자 주인공 ‘크리스토프’에게 예의가 아니었다. 앞서 ‘크리스토프’라는 캐릭터 활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었다. 영화는 ‘크리스토프’와 ‘안나’는 서로 호감을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막강한 주제 ‘자매애’에 밀려 흐지부지 끝나고 만다. 보여주고자 펼친 주제는 많았으면서, 정작 ‘자매애’말고는 매듭 진 것이 없었다. ‘남녀의 사랑’은 ‘자매애’를 빛내기 위한 들러리였던 것인가? 그랬다면, ‘크리스토프’ 혼자 허공에 대고 ‘사랑’을 외친 격이 아닌가? 차라리 ‘한스 왕자’를 남자 주인공 역할로 활용하다가 공주를 배신하는 인물로 연출했어도 될 것 같다. <겨울왕국>의 일방적인 결말은 ‘크리스토프’의 희생적인 사랑은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영화의 본래 의도가 ‘자매애’와 ‘남녀의 사랑’을 한꺼번에

보여주려던 것이었다면, ‘크리스토프’와 ‘안나’의 스토리 또한 매끄럽게 결말을 맺었어야 한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약간 진부할 수도 있으나,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이다. 때문에 충분히 전개 가능했던 주제 ‘사랑’을 뒤로 제쳐둔 것이 아쉽다. 차라리 디즈니가 <겨울왕국> 시즌2를 위해 남겨둔 연출이었다면 좋겠다. 번잡스러운 전개는 디즈니의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스타일은 선보이고 싶으나, ‘백마 탄 왕자’와 같이 나와야 할 남자 주인공의 이미지도 버릴 수 없었던 것인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 한 욕심이다. 한편으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펼쳐 놓은 주제들을 다 정리하려니 머리가 아팠을 것이란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이끌려 이야기를 너무 빠르게 전개하려 하지 말고, 좀 더 길게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상영 시간이 조금 길어도 완성도가 높은 게 낫다. 또한, 매끄러운 결말이 많았더라면, 다양한 관점을 가진 관객들을 각기 다른 매력으로 매혹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어린이층 관객을 전제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기에 더 큰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수선한 주제와 급박한 마무리 전개는 혹평을 받아야 마땅하다. 제작 내공이 쌓인 디즈니사의 야심찬 작품 <겨울왕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엘사’와 ‘안나’라는 두 자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겨울 왕국>은 부활을 꿈꾸는 디즈니의 야심작이었다. <겨울왕국>은 상영 내내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유의 매력과 새로운 면을 두루 보여줬다. 이 영화는 어떤 애니메이션보다도 개성 넘치는 캐릭터, 화려한 영상, 그리고 OST가 일품이었다. 이러한 연출 요소들은 <겨울왕국>의 흥행돌풍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연출 요소들도 적지 않았다. 빈약한 스토리, 어수선한 영화의 주제들, 급박하게 매듭진 듯한 결말, 비효율적인 캐릭터 활용법 등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몇몇 요소는 영화의 몰입을 빼앗았다. 그렇지만 디즈니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인지라 <겨울왕국>을 보며 감회가 남달랐던 것은 사실이다. 어른들이 <겨울왕국>을 보고 아쉬움이 남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디즈니 영화를 보며 열광하던 이들이 지금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평가의 눈이 높아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가의 잣대를 내려놓고, 오직 순수함만을 가졌던 때를 떠올리며 이 영화를 바라본다면, <겨울왕국>은 어릴 적 보던 판타지의 추억을 선물한 영화였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동심의 판타지를 선물했다는 점에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가진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게 평가받아야만 할 것이다.

<영화 비평문>

<UP>

20141112
김 은 비

애니메이션은 주로 어린이 관객들을 노리고 만드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어린이 관객들이 보기 좋게 특유의 우연성을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상상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소재로 영화를 많이 만들어낸다. 하지만 요즘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러오는 관객들의 연령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개봉해 많은 관객들을 유치시켰던 겨울왕국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겨울왕국처럼 요즘 어른들도 애니메이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영화의 구성에 대해 예민해서 그런지 요즘 애니메이션의 허구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디즈니와 픽사의 합동 작품인 <UP>은 남녀노소 누구든 보고나면 불평 없이 감동을 받을만한 영화이다.

일단 애니메이션 영화상,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등 수상경력부터 아주 화려하다. 그리고 화면 적으로도 예쁜 풍선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매우 눈에 띈다. 이 영화의 오프닝 10분은 아주 유명하다. 한 부부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인공 칼이 혼자 남게 되는 현재까지의 일대기를 귀엽고 간결하게 보여준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 10분을 매우 감동적이고 공감되었다고 칭찬한다. 아마 누구나 공감할 만한 평범한 일상을 표현해 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UP>을 한글버전으로 만들면서 주인공인 칼 프리드릭슨 역할의 더빙을 우리나라 배우 이순재가 참여했다. 이 캐스팅 또한 매우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많은 칭찬들을 했다.

<UP>은 개봉했을 그 당시보다 지금까지 아주 꾸준히 좋은 평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영화를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거워했다는 데에 많은 의미를 두고 싶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어른들도 같이 공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소들을 영화에 잘 녹여냈기 때문이 아닐까.

<UP>에는 현실에서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영화에 자주 등장시킨다. 우선 영화초반에 늙어서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칼의 모습을 보면 그 점을 잘 느낄 수 있다.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집에서 눈을 떠 현관문을 열면 칼의 집 주변은 온통 재개발이 한창인 공사장이다.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개발 중인데 칼 혼자서만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일명 '알박기'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칼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아내 엘리와의 추억이 가득 담긴 그 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뉴스나 인터넷에서도 이런 경우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와 매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죽은 할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할머니 때문에 그 집은 남겨놓고 그 집 주위를 둘러싼 디귿자 모양으로 건물을 세운 곳이 있다. 다행히 영화와는 다르게 재개발 공사 책임자가 할머니를 지금도 잘 보살펴 드리고 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의 공사 책임자는 칼을 쫓아내고 재개발을 무사히 진행하기 위해 칼이 폭력을 썼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 그리고 칼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실버센터에 들어갈 위

기에 처한다. 이런 장면들과 예를 보면 현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돌아봐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새 건물을 세우기만 하려는 무차별적인 재개발 상황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귀엽고 천진난만한 꼬마아이 하나가 등장한다. 황야의 탐험가 '러셀'이 그 주인공이다. 러셀이 영화에 등장해 칼의 집 문을 두드린다. 노인을 도와드리고 마지막 탐험가 배지를 받기 위해서 칼을 찾아온 것이다. 칼은 그 두드림에 현관문에 달려있는 대여섯 개의 잠금장치를 풀고 밖으로 나온다. 이 잠금장치가 현대인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남들과 소통하려는 마음이 아예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말이다.

러셀이 도와드릴 것이 없냐고 묻자 칼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들어가 버린다. 러셀의 끈질긴 들이댐에 칼은 순수한 러셀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쫓아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만든 우체통을 부셔버렸다고 사람을 때리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재개발 책임자에게 무턱대고 시비를 걸기도 한다. 칼은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온 탓에 자기의 주변에 누군가를 두는 것을 매우 귀찮아하는 인물이다.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면 나쁜 말과 심지어는 폭력도 휘두른다. 도요새인 케빈과 말하는 개 더그도 처음엔 러셀과 똑같이 칼에게 냉대를 받는다. 하지만 같이 낯선 곳을 탐험하고 악당 찰스를 물리치면서 칼은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또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설정에서 현대인들의 개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칼은 이런 요즘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물인 것 같다. 아픈 현실에 데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인물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 결국에는 다시 따뜻한 사람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 설정에서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칼은 노인이고 러셀은 아주 어린아이이다. 다르게 말하면 칼은 구세대이고 러셀은 신세대이다. 요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소통문제이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두세대간의 소통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처음에 칼이 일방적으로 러셀을 밀어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쪽모두 서로를 대하는 것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영화는 현실의 문제를 재미있게 잘 표현해 내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오프닝에 칼과 엘리의 어린 모습부터 지금의 칼의 모습을 10분 안에 잘 표현해서 보여준다. 그 10분 동안의 일대기 안에 귀엽고 동글동글 했던 칼의 얼굴형이 변하기 시작한다. 점점 각이 지더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심술 맞은 네모 얼굴형이 완성된다. 순수했던 한 아이가 힘든 삶에서 자꾸 경직되고 꿈을 잃은 채 굳어가면서 성격이 변하는 것을 얼굴형으로 표현해냈다. 이런 설정으로 현대인들이 힘든 일상에서 동심을 잃고 점점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했다. 순수했던 아이가 퉁명스런 할아버지로 변하기까지의 변천사를 새로운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이 10분의 영상 안에 엘리와 칼이 어릴 적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자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그 저금통은 몇 번이고 깨어지고 만다. 그 돈들이 자동차 바퀴를 간다거나 칼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 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점점 그 어릴 적 꿈은 둘의 머리에서 잊혀 진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칼의 마지막 노력은 엘리의 죽음으로 인해 무산된다.

다들 어릴 적부터 생각해왔던 꿈이나 목표가 있을 것이다. 가고 싶던 장소, 장래희망, 이루고 싶은 상황 등 다 다르겠지만 말이다. 칼과 엘리에게는 그 목표가 파라다이스 폭포에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이리저리 치여 그 꿈을 망각해 간다. 현실의 우리들도 지금 이 현실의 급박한 상황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느라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환상들을 기억 저편으로 넘어두고 살아간다. 이 영화를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무슨 꿈을 꾸었었는지 무슨 목표를 세웠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어른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처럼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인공 칼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칼은 집에 풍선을 달고 날아다가 비구름을 만나 추락 할 위기를 맞는다. 흔들리는 집의 물건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며 깨지기 시작한다. 칼은 엘리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들이 깨지는 모습이 보기 싫어 한군데에 몰아넣어 끈으로 묶고는 잠이 들어 버린다. 그리고는 그 집을 끝까지 파라다이스 폭포로 옮기고 말겠다는 엄청난 고집을 부린다. 그리고 영화 틈틈이 좋은 일이 생기던 나쁜 일이 생기던 집을 보며, 그녀의 엘리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보며 그녀에게 말을 건넨다. 이런 모습이 죽은 엘리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집착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옛날의 좋았던 상황, 행복했던 기억을 잊어버리기 싫어한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어린 시절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첫사랑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좋아했던 첫사랑을 예쁘게만 멋지게만 기억하고 첫사랑이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다. 죽은 엘리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칼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칼은 어린 시절 엘리가 들고 다니던 모험 책 뒷부분에 엘리가 죽기 전에 칼에게 남긴 말을 보고 칼은 그녀를 보내 주기로 마음먹는다. 그 뒷부분에는 이제 당신만의 모험을 시작하라는 말이 적혀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집에 있는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버려버리고 가벼워진 집을 띄워 러셀을 구하러 날아간다. 러셀과 케빈을 구하지만 집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렇게 칼은 엘리를 놓아버린다.

근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허구성을 밑바탕으로 깔고 시작한다. 어린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말도 안 되지만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요소들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그런지 애니메이션은 다른 장르들 보다 허구성에 관대한 편이다. <UP>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장면들도 다수 등장한다.

일단 이 영화의 소재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물론 내 몸이나 집에 풍선을 달고 하늘을 나는 상상은 누구나 해봄직한 생각이다. 하늘을 난다는 것은 인간들의 공통적인 욕구와 로망이 아닐까. 그런 로망을 이 영화에서 생생하게 화면으로나마 실현시켜 주고 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자 도전해 본적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내린 결론은 70kg 성인남성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풍선 13000개에서 14000개가 필요하다였다. 그럼 집 한 채를 하늘에 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풍선이 필요할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풍선을 달고 하늘에 떠서 이동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물론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비현실적 이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과학적으로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UP>에서는 만들어 낸 것이다. 물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즐거워했지만 말이다.

집에 풍선을 달고 모험을 떠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자신의 일상생활을 모두 버리고 어릴 때의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조금은 비현실적이다. 영화의 상황으로 보면 칼이 실버센터로 들어가기 싫어 도망을 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수긍하고 실버센터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칼은 그런 일반적인 경우를 모두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을 목적지로 삼고 훌쩍 떠나버린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어릴 적 꿈을 문득 떠올리고 직장이고 가족이고 모두 잠시 버려두고 모험을 떠났다면 남들이 보기에 욕을 던질 수도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씁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봤을 상황이 이 영화에 하나 더 등장한다. 악당인 찰스가 키우는 개들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찰스는 탐험가이자 발명가로 등장하는데 그가 만든 목줄을 개의 목에 채우면 개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인식이 되어 나온다. 그렇게 이 영화에선 개와 사람이 소통한다.

그런 개들을 이용해 찰스는 도요새인 케빈을 납치하고 칼과 러셀을 괴롭힌다. 하지만 그 중 '더그'라는 개는 칼, 러셀과 소통하며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도와준다. 비현실적인 요소를 이용해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게 끌어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 개들은 사람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하고, 심지어는 헬기를 타고 조종까지 한다. 개들의 짱인 알파라는 개를 만들어두고 그 개에게 복종을 하기도 한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든 키우지 않는 사람이든 동물이 말을 한다면 하는 상상은 모두 다 해봤을 것이다. 아주 먼 미래에서는 가능 할 지도 모르겠지만 당분간 동물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 현실에서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 아마 진짜로 현실에서 개가 말을 하거나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개가 사람을 이기려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UP>의 주인공인 칼과 악당 찰스는 모두 늙은 노인이다. 칼이 하늘에 떠있는 집을 어깨에 메고 끌고 가는 것도 노인 두 명이서 무기를 들고 싸우고 뛰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칼은 원래 자신의 집 계단에서는 전동 의자를 통해서만 1층으로 내려올 수 있을 만큼 몸을 가누기 힘들 노인이었다. 그랬던 할아버지가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다니고 자신의 지팡이를 무기로 악당을 퇴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스토리이다.

칼이 줄을 탈고 날아와 러셀을 구하는 장면도 강아지가 줄을 당겨 주인공은 구해주는 장면도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모험을 떠나는 초반 부분에 비구름을 발견하고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잠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눈앞에 펼쳐져있는 파라다이스 폭포도 너무 우연성이 짙다. 눈감았다 떠보니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UP>에서는 애니메이션 특유의 허구성이 담긴 장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엔딩 부분에 주인공들을 괴롭히던 찰스가 케빈에게 밀쳐져서 풍선 줄에 발이 걸려 밖으로 떨어져 죽어버린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찰스가 마지막에 너무 허무하게 죽어 버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 또한 애니메이션의 해피엔딩을 위한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UP>에는 비현실적인 요소와 허구성이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이런 설정에도 남녀노소 모두가 이 영화를 즐겁게 감상했다.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허구성이 다분한 설정에도 관대하게 넘어가는 아량을 베풀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허구성을 재미로 넘겨 버릴 만큼 이 영화가 어른들에게도 공감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에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있다. <UP>에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환상적인 모험을 보여주고 있다. 관객들이 직접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런 관객들을 대신해서 칼이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화면 속에서 칼이 일상을 버리고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동안에는 나도 칼과 같이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 든다. 그만큼 생생하고 화려한 색채감과 실감나는 그림을 그려낸 것이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한번 쯤 꿈꿔봤던 장면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기분 좋은 경험일 것이다.

<UP>에는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꼬마 러셀이 등장한다. 칼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지어낸 스나이프를 찾기 위해 칼의 집 주변을 하루 종

일 뒤지기도 하고 처음 보는 낯선 곳에 와서도 모험을 떠났다고 행복해 하기도 한다. 집을 메고 걷는 길이 힘들다고 찡찡거리다가도 이런 곳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 신기하다고 용변을 보는 것 때문에 금세 웃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순수한 러셀에게서 칼이 용기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아마 칼 혼자서 떠나는 모험이었다면 칼이 모험을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관객들이 아이의 순수함이나 동심을 느끼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현대의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러셀처럼 자연과 모험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찾기가 드물다. 아마 러셀이 동물과 자연에 관심이 많고 동물들과 빨리 친해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다. 케빈과 더그와 러셀의 일명 '케미'는 끝내준다. 이 세 캐릭터로 소소한 웃음도 지어냈고 사람과 동물의 친밀감도 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UP>은 작은 요소요소들로 모두에게 감동을 전해준다. 앞에서 말한 10분의 오프닝에서 부부가 늙어가는 것을 칼의 매일 다른 넥타이로 표현해 냈다. 엘리가 매일 아침마다 칼의 넥타이를 대신 메어준다. 무늬가 다른 넥타이를 올리는 장면을 많이 반복하면서 세월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엘리의 죽음을 부부가 항상 같이 올라가 행복하게 데이트하던 언덕에서 엘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먹먹함을 느끼게 했다. 영화 속에서 엘리가 떠나간 후 홀로 남겨진 칼의 주변을 살펴보면 그의 주변을 맴도는 핑크색 햇살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핑크색 햇살이 엘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에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난 후 칼이 러셀에게 달아주는 배지도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어릴 적에 엘리가 칼에게 준 배지를 러셀에게 다시 넘겨줌으로서 칼이 엘리를 정말 놓아주었다는 것과 러셀을 정말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다. 영화초반의 칼과 마지막의 칼의 성격과 마음가짐이 많이 변한 것 같은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앞서 이야기 했던 모든 요소들은 <UP>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요소와 비현실적인 요소가 적절히 섞여있다는 점이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현실에 없던 것만을 영화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중간에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한다면 더 좋은 애니메이션이 된다. 거기다가 앞서 말했던 누구나 상상해 봤을 만한 비현실적인 요소도 즐거움에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풍선을 타고 날아간다던가, 동물이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상상만 했던 것들을 눈앞에 펼쳐 놓으니 어른들도 같이 즐거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쯤은 현실로 만들어 봤으면 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만 좋아하는 한정되어 있는 만화영화가 아니라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면 흥행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UP>은 이때까지의 애니메이션의 이미지를 바꿔놓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은 유치하고 어른들에게는 재미없는 장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UP>을 본 사람이라면 애니메이션도 어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의 과거를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애니메이션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를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애니메이션 특유의 허구성과 비현실적인 면모를 아예 잃어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UP>처럼 비현실적인 장면과 현실적인 장면을 잘 섞어 놓는다면 성공한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이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더 좋을 것이다. 현실 속에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UP>에서처럼

세대 간의 소통이나 어린 시절 꿈같은 이야기 말이다. 어느 때보다 문화생활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지금 이 시대에 <UP>처럼 애니메이션으로 모두에게 교훈을 줄 수 있었던 영화가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화 비평문>

세계는 ‘설국열차화’ 되고 있다.

20091109
류 호 성

2013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한국에서만 93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이슈가 된 작품이다. 게다가 미국 개봉당시 상영관 8개로 시작해 약 2주 만에 354개 상영관으로 확대되며 호평을 받았다.

영화 내용은 이렇다. 지구 기온이 낮아져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사람들은 인류의 마지막 생존지역 ‘설국열차’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 열차는 칸이 나눠져 있는데 주인공 ‘커티스’(크리스 에반스)가 있는 꼬리 칸은 가난하고 가장 계급이 낮은 칸이다. 이 꼬리 칸은 앞 칸의 지배를 받으며 바퀴벌레로 만든 음식인 단백질블록만을 식량으로 공급받는다. 열차의 2인자 ‘메이슨’(틸다 스윈튼)은 꼬리 칸 사람에 대한 앞 칸 사람들의 지배가 당연한 것이며 열차의 계급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정당한 것임을 계속 강조한다. 꼬리 칸의 리더인 주인공 커티스는 이러한 지배 구조에 반기를 들고 좀더 나은 자원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고 앞 칸으로 나아간다.

영화는 이런 커티스의 혁명과정을 상세히 그려나가며 극단적이고 한정적인 공간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데, 영화에서만 존재할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 현실에도 도래할 수 있다고 여러 학자들은 경고한다.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인 레스터 브라운은 그런 학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우리는 미래를 훔쳐 쓰고 있다」에서 현대사회가 지구의 자원을 지금처럼 소비할 경우, 극복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저서에서 주장하는 현대의 문제점은 크게 인구증가, 곡물자원과 수자원의 부족, 지구온난화다.

Ⅰ. 개체 관리의 실패

다시 설국열차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 커티스가 열차의 2인자 메이슨(틸다 스윈튼 역)을 붙잡아서 앞쪽 칸으로 이동하던 중, 수족관 칸을 지날 때의 일이다. 커티스 일행과 메이슨은 이곳에서 초밥을 먹게 된다. 그 초밥을 가리키며 메이슨은 말한다.

“당신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초밥을 먹을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딱 두 번뿐이거든. 이곳은 자원이 한정돼 있어 생명 개체 수를 철저히 관리해 줘야해.”

영화 후반부에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개체 수 조절의 대상은 비단 물고기뿐만이 아니었다. 인간역시 개체 수 조절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개체 수 조절방법은 바로 뒤쪽 칸과 앞쪽 칸의 전쟁, 즉 혁명이었다. 열차의 1인자 윌포드(에드 해리스)는 계속해서 꼬리 칸의 혁명을 뒤에서 지원하고 부추기며 인간의 개체 수를 조절해온 것이다.

레스터 브라운은 그의 저서에서 현재 지구의 인구와 가축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제일 먼저 지적한다. 1950년 2억 27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2007년에는 약 9억 6500만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이 시기에 가축도 2억 7300만 마리의 가축 수도 8억 2400만으로 증가했다. 즉, 목초지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나눠가지는 분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가축 산업의 수요가 목초지 수용 능력을 50퍼센트 초과함에 따라 목초지는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분자는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는데 분모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형적인 '인구 및 개체 관리'의 실패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관리 실패가 '파탄국가'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파탄국가란 그 나라를 이끌어줄 정부나 큰 권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 구실을 못하고 혼돈 상태인 나라를 말한다. 이끌어줄 정부나 권력이 없다보니 군부가 출현해 내전이 일어나고 테러 집단들이 활개를 치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말리아,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의 파탄 국가들은 이런 현상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신병자처럼 자신을 관리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 국경을 넘어 국제적 난민이 된다거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킨다.

더큰 문제는 이런 관리 실패가 비단 아프리카의 문제만이 아니란 것이다. 이란, 인도, 예맨,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흔히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대부분이 인구 관리에 실패했으며 심각한 사막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분모와 분자 간의 반비례화가 계속 된다면, 머지않아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관리해주는 혁명. 즉, 전쟁 말이다.

Ⅱ. 곡물자원과 수자원의 부족

개체 수 관리의 실패는 수자원과 곡물자원의 문제에 직격탄을 날린다. 늘어나는 인구가 마실 물을 찾기 위해, 인류는 지하수를 퍼올리는 기술을 발달시켰다. 그 결과, 세계 인구의 절반이 포함된 나라들에서 지하수면이 낮아지고 있다.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올리는 행위가 확산되고 대수층 고갈이 계속됨에 따라, 우물들이 말라가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충할 수 없는 대수층인 화석 대수층이 광범위하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밀 생산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다가 2016년에는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 인구 중에서 1억 7500만 명이 대수층에서 과도하게 퍼올리는 물을 마신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이 문제가 1억 3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갈돼 가는 수자원의 문제는 도미노처럼 곡물자원의 수확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농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3대 주요 곡창지대인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의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면이 30미터 이상 낮아졌다고 한다. 그 결과 대평원 남부에서 수천 개의 우물이 말라버렸고, 농부들은 수확량이 적은 건식농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하수 고갈이 미국 곡물 생산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개 농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은 미국 전체 곡물 생산량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그 비율이 5분의 3인 인도, 5분의 4인 중국에 비하면 훨씬 낮은 비중이다.

미래의 전쟁은 석유 부족이 아닌 물 부족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물 부족 문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곡물 부족 문제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자국민을 먹여 살리기에 곡물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최후의 카드, 전쟁

을 선택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늘어나는 분모들이 부족한 분자를 놓고 벌이는 전쟁의 시대가 도래 될지도 모른다.

Ⅲ.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는 지구

지구 온난화는 지금까지 말했던 이상 현상들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상승하는 기온은 곡물 수확량을 줄이고, 하천에 물을 공급하는 산악빙하를 녹이고, 더욱 파괴적인 폭풍우를 일으키고, 가뭄이 더욱 극심해지게 만들고 모든 지역의 생태계를 바꿔 놓는다.

2002년에는 인도, 미국, 캐나다에서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과 가뭄으로 세계의 곡물 수확량이 9000만 톤이나 하락했다. 이것은 세계 소비량의 5퍼센트를 밑도는 양이다. 2003년 유럽의 기록적인 열파는 세계 곡물 수확량에 영향을 미쳐, 또 다시 세계의 소비량이 9000만 톤이나 부족하게 만들었다. 2005년에는 미국 콘벨트에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덮쳐 세계 곡물 부족량 3400만 톤을 기록하는 데 한몫을 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녹은 물에 의존해 사는 희말라야 산맥, 그린란드, 알프스 산맥 인근 국가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지대가 낮은 곳에 사는 주민들은 난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는 해수면이 10미터 상승할 경우 6억 3400만 명이 난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는 분모(자원)와 분자(개체)의 반비례화를 가속시킬뿐더러, 분자의 이동까지 부추기고 있다. 한데 이 많은 분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동에는 엄청난 갈등과 나아가 희생이 따를 것이다.

Ⅳ. 천부인권설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은 자원과 세계 환경의 이야기다. 설국열차에서 보면 한정된 공간과 부족한 자원이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현대문명의 꽃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그 뿌리를 프랑스 시민혁명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시민혁명은 어떤 혁명인가?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천부인권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한 혁명이다. 한데, 현대사회에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천부인권설마저 뒤흔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현상들이 빈곤국가나 파탄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저자 장 지글러는 그의 저서를 통해 아프리카 기아의 수많은 원인을 진단했다. 그중 흥미로운 원인이 바로 '자연도태설'이다. 자연도태설은 자연에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는 뜻으로, 기아가 점점 높아지는 지구의 인구밀도를 적당히 조절한다는 주장이다. 즉, 너무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소비하고 활동하다 보면 지구는 점차 질식사의 길을 걷게 될 텐데, 자연이 기근이라는 지혜로 사람들의 인구를 적당히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반인륜적인 논리는 아이러니하게도 18세기 말 영국국교회 성직자였던 토머스 맬서스가 처음 창안했다. 맬서스는 1798년에 인구법칙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맬서스는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지만 식량의 증가는 산술서열을 따르므로, 가난한 가정은 자발적으로 산아 제한을 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조나 지원은 중단되어야 하며 질병과 배고픔은 사회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맬서스의 논리는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장 지글러는 말한다. 게다가 가장 이성적으로 행동해야할 지식인이나 정치가, 국제기구 책임자들은 이 엉터리 신화를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

설국열차에서처럼 가난한자(꼬리 칸 사람들)의 굶주림은 당연하다는 논리, 자원과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 한 자들을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가 현실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Ⅴ. 극우화가 이뤄지는 국가들

‘2008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2010 유럽발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황을 몰고 왔다. 게다가 양극화는 더 심해져 전 세계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졌다. 양극화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능력은 줄어들었고 서민들이 소비를 줄이니 기업들 또한 불황을 겪으며 더욱 보유금을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가 나빠지고 삶이 피폐해지자 전세계적으로 극우단체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몫을 누군가가 뺏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됐다. 유럽 전역에서 성행하는 네오나치즘, 일본의 재특회, 미국의 KKK단, 한국의 일간베스트저장소 모두 레이시즘이 기저에 깔려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의 외국인들을 핍박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난다는 것이다.

설국열차에서처럼 인간간의 계급형성, 지배구조의 정당화가 현실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Ⅵ. 희망은 있는가?

설국열차의 후반부에서, 커티스는 마침내 제일 첫 번째 칸인 엔진 칸 점령에 성공한다. 하지만 ‘설국열차라는 매커니즘이 깨지지 않는 한,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 선국열차라는 세계(매커니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커티스는 설국열차라는 매커니즘을 깨기 위해, 열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택한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매커니즘을 깨지 않는 한, 세계의 설국열차화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매커니즘을 깨부숴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부숴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사고다. 기실 지금의 세계적 재앙의 근본적 원인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사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물질을 사물화하는 것도 모자라 인간에게까지 그 잣대를 들이 댔으니 말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천부인권이 흔들렸고,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인 행태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심화로 지금의 불황이 오지 않았던가? 지금이야 말로 자본주의 다음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 혁명도 좋은 예다. 에너지 혁명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에너지 효율적인 새로운 기술로 전면적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의 주 동력원을 석탄, 석유, 천연가스대신 풍력, 태양, 지열에너지로 교체하는 것'이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사용 매커니즘을 깨버리자는 것이다. 다행히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다. 조명기술에서는 백열전구보다 전력소모가 75퍼센트나 적은 절전형 형광정구가 발명됐으며, 일본은 가전제품의 효율성 기준을 높이는 '톱 러너 프로그램' 체계를 만들어 냈다. 또 건축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친환경 건축물의 가치를 깨닫고,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저탄소 건물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기존의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하이브리드 자동자, 전기로 가는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을 개발해 내고 있다.

설국열차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영화가 절정에 이르면서 앞 칸으로 나아가던 커티스에게 남궁민수(송강호)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너희는 자꾸 이 문(앞 칸과 뒷칸을 연결하는 문)만 문이라 하는데, 너희가 벽처럼 생각하는 저 문(밖과 설국열차 실내를 연결하는 문)도 문이란 말이지. 난 저 문을 열고 싶어"

이 영화에서는 두 가지의 문(혁명)이 존재한다. 커티스가 열고 싶은 앞 칸으로 나아가는 문, 그리고 남궁민수가 열고 싶은 바깥세상으로 나가는 문. 전자는 설국열차라는 매커니즘은 그대로 둔 채, 지배 계층이 달라지는 혁명이며 후자는 아예 설국열차라는 매커니즘을 파괴하는 혁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은 무엇인가? 바로 남궁민수의 혁명이다. 현재의 세상이 설국열차라면 우리는 이 열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